

학생생활연구



학생생활연구

제 25권 <비매품>

발 행 인	정 문 경
편 집 인	오 영 금
발 행 처	한세대학교 상담센터
발 행 일	2022년 12월 27일
우 15852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한세대학교 상담센터

ISSN : 2635 - 5604

학생생활연구는 한세대학교 상담센터의 기관지로서 연 1회 간행을 원칙으로 하며, 대학 상담분야의 연구논문과 신입생 실태자료를 게재합니다. 학생생활연구는 무료로 배부되며, 구독관계는 상담센터 T(031-450-5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학술지는 21권부터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학생생활연구」로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2022학년도

학생생활연구

제 25 권

한세대학교 상담센터

인 사 말

우리 한세대학교는 ‘의·진리·사랑’이라는 교육이념을 지향하면서 ‘실천하는 신앙인 양성’, ‘창조하는 전문인 양성’, ‘봉사하는 세계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여 국가와 인류문화창달에 기여할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학교는 한세인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여 그 분야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바른 인성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학생상담센터에서도 한세인들이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통해 정신적 건강과 심리적 성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기에 있는 대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전문적인 자기 개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의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 옴으로 인해 자신의 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대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경기침체와 청년 취업난, 예상치 못한 재해와 재난사고 등으로 대학생들의 심리적 위기가 고조되는 시대에 당면해있습니다. 이에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한세인들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회복하여 건강한 발달과 치유, 그리고 성장을 이루도록 돕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학생생활연구지는 그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심리상담에 도움이 되는 학술 논문과 한세인의 신입생 실태조사와 상담소의 이용실태를 정리하여 엮었습니다. 본 학술 연구지가 해가 거듭될수록 다양하고 깊이 있는 논문들과 조사 연구들을 수록하여 전문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에도 더욱 알차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세인들의 학생 생활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2. 12.

한세대학교 상담센터장 정 문 경

목 차

인 사 말	상담센터장
-------------	-------

I. 연구논문

중·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의 위기상담 대처과정	함 정 심 · 정 문 경
한국문화의 특수성과 자녀의 자아 분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 (Bowen의 자아 분화이론을 중심으로)	오 태 정 · 최 광 현
사회적 유능성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이 나 라 · 정 문 경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연애편계 완벽주의와 갈등해결전략 에 미치는 효과	전 석 경 · 김 희 수

II.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

2022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	오 영 금
--------------------------	-------

<부 록>

- 2022년도 신입생 설문 조사서
- 2021년도 학생상담센터 활동 보고
- 2022년도 학생상담센터 운영 현황
- 학생생활연구 발간 규정
- 학생생활연구 투고 규정

중·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의 위기상담 대처 과정

함정심*

정문경†

와동초등학교

한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의 위기상담 대처과정에서의 의미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실체 이론(Substantive Theory)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로 5년 이상 재직 중인 남·여 14명을 이론적 표본추출을 통해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위기상담 대처과정의 의미가 포괄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의 위기상담 대처과정은 어떠한가? 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개방코딩에서 124개의 개념과 40개의 하위범주, 17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전문상담자의 위기상담 대처과정의 중심 현상은 ‘학교 장면에서 위기대처의 막막함’이었다. 본 연구는 학교 장면에서의 위기상담 대처과정에 관한 통합적인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청소년 위기상담 대처 과정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위기상담을 위한 학교 현장, 학부모, 사회적 인식의 확대와 교육, 치료, 사회적 지원에 있어서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고와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중·고등학교에서 위기상담 대처과정에서 학교상담(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학생들의 위기상담 대처과정에 실제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중·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위기상담, 대처 과정, 근거이론

* 주 저 자 : 함정심, 와동초등학교, E-mail : yun3413@naver.com

† 교신저자 : 정문경, 한세대학교 대학원 조교수, E-mail : jmoonk509@hansei.ac.kr

I. 서론

우리의 삶에서 위기는 언제 어떻게 맞닥뜨리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위기사건들이 전 인생 주기 동안 개인이나 가족의 삶 속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인생은 마치 위기의 연속처럼 보이기도 한다(Caplan, 1964; Parad, 1965). 특히 청소년기는 소아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도기이며(Erikson, 1956), 자아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로서(Erikson, 1968), 역할 혼란과 발달적 특성으로 인해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 어느 시기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는 생물학적, 인지적, 사회적인 성숙 등 다양한 개인적 변화와 그로 인한 갈등을 겪는 시기이다(강민정, 1999; 권현용, 김현미, 2011; Havinghurst, 1972).

이러한 청소년기에 보여지는 그들의 문제행동들은 청소년 개개인의 발달단계에 있어서 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교우관계에 문제를 유발하거나 그들 가족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보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좌현숙, 변귀연, 2010; 최종숙, 2007). 청소년이 이러한 위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문제가 심화되고, 만성화되어 발달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될 수도 있다(이장훈, 2006). 또한 청소년기 역기능적 행동을 나타내거나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 중 상당수는 성인기까지 장애를 보일 위험이 있다(Kazdin, 1993).

학교 장면에서 폭력, 자살·자해, 성 문

제, 비행, 학업 적응 곤란 등 청소년 위기와 관련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홍석영, 2013) 이에 따라 현재의 학교상담은 과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기상담 대처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맞는 학교 위기상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현실은 학교상담 운영 및 정책적 지원체제가 미비하고, 위기상담 대처과정에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실제적인 매뉴얼의 부족 등 다양한 한계들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교 차원에서의 위기개입 방안에 대한 실제적 지침을 마련한 연구는 부족하여, 학교 차원에서의 위기개입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전문상담교사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률 제 7120호, 2004. 1. 29)와 초·중등교육법(법률 제7068호, 2004. 1.20)에 의거한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에 능동적이고 예방적으로 대처하며, 담임교사 중심 상담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진로상담 및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다(김운중, 2005).

그리하여 전문상담자는 위기학생을 위한 치료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상담과 위기에방까지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추구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다양한 영역에서 서비스와 실천을 수행하는 확장된 상담전문직으로서 학생들의 발달과업을 조력하고, 학부모, 교사를 돕는다.

본 연구는 학교 장면에서 전문상담자들의 구체적인 위기상담 대처 과정을 귀납적으로 발견하고 심층면담을 통해 얻는 실제적 자료를 토대로 실체이론(substantial theory)을 생성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전체적인 위기상담 경험, 대처과정, 결과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 그 중에서도 근거이론 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장면에서의 위기상담 경험이 있는 전문상담(교)사의 생생한 경험과 진술에서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총체적인 위기상담 과정은 어떠한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첫째, 위기상담을 위한 학교 현장, 학부모, 사회적 인식의 확대와 교육, 치료, 사회적 지원에 있어서 더 나은 서비스의 제고와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중·고등학교에서 위기상담 대처과정에서의 전문상담(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학생들의 위기상담 대처과정에서의 실제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를 중·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의 위기상담 대처 과정은 어떠한가? 로 설정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교상담 경력 이 5년 이상인 전문상담사 8명, 전문상

담교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의 근무 학교 급은 중학교가 7명, 고등학교가 7명이었다. 참여자 성별은 여성 13명, 남성 1명이었고, 연령대는 30대 5명, 40대 2명, 50대가 7명으로 다양한 연령대로 분포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46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자를 ‘전문상담(교)사’로 명명하고 ‘전문상담자’라고 지칭하였다.

학교상담자의 유형을 보면, 상담교사는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교직 이수를 하고 임용고시 합격으로 임용되었고, 전문상담사는 학부에서 교직 이수로 상담 교사 2급 자격증이 있지만 임용고시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한 상담학, 상담심리학, 사회복지학의 전공을 마치고 채용 조건에 맞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상담 관련 자격증은 전문상담교사는 상담교사 자격증 외에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전문상담사는 채용되는 자격기준에 맞추어 상담교사(임용고시 합격전), 전문상담사 2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등의 자격증 보유자이었다.

2. 자료수집

전문상담(교)사의 위기대처 경험에 대한 자료 수집은 연구 참여자들의 1:1 심층 면담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로 추가적인 연락 기간까지 포함하여 약 12

개월 동안 총 14명의 연구 참여자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진행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은 추가적 면담을 하면서 새로운 주제가 나타나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 종료하였다. 이를 위해 1차 면담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추가 면담과 연락은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였다.

기본적인 인적사항에 관한 기본 질문지를 함께 보내어 참여자의 배경정보를 파악하였다. 1차 면담은 연구 참여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1시간 30분 정도에 걸쳐 이루어졌다. 모든 면담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수집과 동시에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에 따라 순환적으로 이루어졌다. 개방코딩은 근거자료를 통해 현상에 이름을 붙이고, 개념을 도출하고, 범주화하는 단계(Strauss & Corbin, 1998)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면담의 내용을 한 줄씩 분석해 나가는 줄 단위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두 번째, 축 코딩은 범주를 축으로 범주와 하위범주를 연결하고 범주를 속성과 차원으로 계속 발전시키며 범주의 관련성을 패러다임으로 파악하는 것(Strauss & Corbin, 1998)으로, 인과적 조건, 중심 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들을 나타내는 범주들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연결됨을 의미한다(박승민 외, 2012). 마지막으로 선택코딩은 범주들을 최종적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다른 범주들을 하나의 통합적인 설명을 가능케 하는 핵심범주(central category)를 발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박철옥, 2014). 따라서 이 단계는 분석의 차원을 이론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Corbin과 Strauss(2008)가 제시한 핵심범주의 선택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료에 나타나는 빈도가 잦으며, 다른 범주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론을 함축하면서, 표현은 추상적이며 범주와 하위범주 그리고 개념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III. 연구결과

1. 개방코딩: 자료의 범주화

본 연구는 학교 장면에서의 위기대처를 경험한 전문상담(교)사 14명을 심층면담한 자료를 분석하여 근거이론에 따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의 위기상담 대처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면접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원자료를 분석하여 개별 의미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민감성과 사건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비교대상을 찾아 이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내고 범주화해 나갔다. 또한 지속적

비교방법을 통해 이전에 나온 개념들과 유사성과 차이점을 지속적으로 비교하면서 개념에 이름을 붙이고 유사개념을 묶어 범주화하여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에 개방코딩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124개의 개념과 40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하위범주를 더 함축된 의미로 추상화시킨 17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2. 축 코딩: 범주들 간 관계분석

축코딩(axial coding)은 개방코딩에서 나타난 범주를 재조합하여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현상과 관련된 다양한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를 밝혀내어 자료 안에서 범주와 하위범주들 간의 관계들이 연결되도록 밝혀내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분석의 두 번째 단계로 개방코딩에서 나타난 범주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범주들 간 연결 및 관계를 확

인하여 패러다임을 구축하였는데, 패러다임은 중심 현상을 둘러싼 구조(조건)와 과정을 하나의 도식으로 통합하여 현상을 개념화하는 과정이다(이동성, 김영천, 2012).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casual condition)은 어떤 현상의 발생이나 발전을 이끄는 사건이나 경험을 말한다(Strauss & Co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가 위기상담 대처 과정에서 경험하는 중심 현상인 ‘학교 장면에서 위기대처의 막막함’에 대한 원인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위기가 학교에서 발생함’의 범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위기 사안은 크게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자살 및 자해, 성폭력, 가정폭력, 등교 거부, 비행 및 가출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인과적 조건의 범주인 ‘다양한 스펙트럼의 위기가 학교에서 발생함’의 속성과 차원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인과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패러다임	범주	속성	차원
인과적 조건	학교 장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위기가 발생함	위기 인식 정도	강함---약함

2) 중심 현상

중심 현상(central phenomenon)은 ‘여기서 무엇을 경험하는가?’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이 주로 경험하는 현상이다. 자료 안에서 개념으로 제시되는 중심 생 각으로, 응답자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정의되는 문제, 사건, 쟁점이 된다((Strauss 와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 학교 전문상담(교)사가 위기대처를 경험 하면서 무엇을 경험하는지를 나타내는 중심 현상이 ‘학교 장면에서 위기대처의 막막함’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학교 장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위기가 발

생하고, 이를 위기상황으로 인식하면서 위기상담으로 개입하게 될 때 위기상담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상황과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혼란함을 느끼기도 하였다.

위기상담 대처 과정의 한계를 경험하는 경우는 외부기관 연계의 어려움, 학

교 측의 유기적인 협업이 되지 않는 경우, 가족이 비협조적일 때 참여자들은 한계의 벽에 부딪혀서 막막함을 느끼게 된다. 중심 현상의 범주인 ‘학교 장면에서 위기대처의 막막함’의 속성과 차원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중심 현상의 속성과 차원

패러다임	범주	속성	차원
중심 현상	학교 장면에서 위기대처의 막막함	막막함 정도	کم----작음
		지속성	지속적-일시적

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context condition)은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화가 발생하도록 한 특수한 구조적 조건을 의미하는 데 가족, 사회, 문화적 배경 등이 맥락에 포함된다(Strauss와 Corbin,1998). 본 연구에서의 ‘학교 장면에서 위기대처의 막막함’이라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조건의 범주는 ‘위기개입에서 판단의 어려움’, ‘가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과 만남’, ‘정체감의 혼미와 왜곡된 인식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과 만남’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배경 및 사건, 맥락적 분위기, 그리고 상황적 요소 등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나 촉진하는 상황 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맥락적 조건으로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장면에서 다양한 위기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개인, 가정, 사회적인 요인들이 작용 된 것으로 나타났다. 맥락적 조건의 범주인 ‘위기 개입에서 판단의 어려움’, ‘가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과 만남’, ‘정체감의 혼미와 왜곡된 인식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과 만남’의 속성과 차원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맥락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패러다임	범주	속성	차원
맥락적 조건	위기개입에서 판단의 어려움	어려움 정도	많음---적음
		지속성	지속적-일시적
	가족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과 만남	영향 정도	کم----작음
		지속성	지속적-일시적

정체감의 혼미와 왜곡된 인식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과 만남	정도 지속성	강함---약함 지속적-일시적
---------------------------------------	-----------	--------------------

4)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은 어떤 현상에 속하는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으로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적 조건에서 취해서 작용/상호작용의 전략을 조장하도록 작용한다. 중재 조건은 인과조건이 중심 현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변화를 주게 된다(Strauss & Corbin(1998). 본 연구에서는 중심 현상인 ‘학교 장면에서 위기대처의 막막함’에 대한 중재적 조건으로 ‘위기대처에서 빠른 판단력과 다차원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함’, ‘다면적인 자원 활용의 효과성을 경험함’, ‘초두 효과의 중요성을 인식함’, ‘위기 학생의 장래를 우선함’, ‘상

담자 안전망 확보의 필요성 자각함’이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위기대처를 위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고, 위기학생, 위기학생 부모와의 첫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위기 학생의 장래를 우선하여 대처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위기 상황에서 상담자의 보호망도 중요함을 자각하게 된다. 이러한 중재적 조건의 범주인 ‘위기대처에서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함’ ‘다면적인 자원 활용의 효과성을 경험함’, ‘초두 효과의 중요성을 인식함’, ‘위기 학생의 장래를 우선함’, ‘상담자의 보호망을 구축함’의 속성과 차원은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중재적 조건의 속성과 차원

패러다임	범주	속성	차원
중재적 조건	위기대처에서 빠른 판단력과 다차원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함	인식 정도	강함---약함
	다면적인 자원 활용의 효과성을 경험함	경험 정도	다양함-제한적
	초두 효과의 중요성을 인식함	인식 정도	강함----약함
	위기 학생의 장래를 우선함	우선 정도	큼----작음
	상담자의 보호망을 구축함	구축 정도	큼----작음

5)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strategies)은 연구자들이 중심 현상에 대

처하기 위한 전략 혹은 일상 행위,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및 비언어적인 행위를 말한다(Strauss와 Corbin(1998). 본 연구에서 중심 현상 ‘학교 장면에서

위기대처의 ‘막막함’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협력적 관계를 맺어 대처함’, ‘학교 위기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처함’, ‘위기 사안에 빠르게 개입함’, ‘사명자의 마인드로 위기에 대처함’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위기 상황에서 위기학생과 부모님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어야 내담자의 저항이나 반항의 벽에 크게 부딪히지 않고 진행해 나갈 수가 있었다. 또한 학교 위기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처해 나가며, 또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기 시기의 발달적 특징에 맞추어 예방적 접근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은 위기대처에서 빠르게 개입하고 막막함에 부딪힐 때 상담자의 역할보다는 사명자의 마인드로 감당하고 대처해 나갔다. 이러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범주인 ‘협력적 관계를 맺어 대처함’, ‘학교 위기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방적 접근으로 대처함’, ‘위기 사안에 빠르게 개입함’, ‘사명자의 마인드로 위기에 대처함’의 속성과 차원은 <표 5>과 같다.

<표 5>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속성과 차원

패러다임	범주	속성	차원
작용/상호작용 전략	협력적 관계를 맺어 대처함	관계	적극적-소극적
		기간	지속적-일시적
	학교 위기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예방적 접근으로 대처함	태도	적극적-소극적
		기간	지속적-일시적
	위기 사안에 빠르게 개입함	개입 정도	능동적-수동적
	사명자의 마인드로 위기에 대처함	정도	큼---작음
		태도	긍정적-부정적

6) 결과

결과(consequence)는 증심현상을 다루거나 해결하기 위한 반응과 대처로 사용한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를 의미한다(Strauss & Corbin(1998). 이때 결과는 의도된 것과 의도되지 않은 것이 모두 포함되는 결과물의 총합으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박승민 외, 2012). 본 연구에서는 ‘학교 장면에서 위기대처의 막막함’의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상

호협력 관계 구축과 예방적 접근으로 대처함’, ‘위기 사안에 빠르게 개입함’, ‘사명자의 마인드로 위기에 대처함’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하여 ‘위기상담 대처 과정에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남’, ‘위기상담 대처 과정에서 전문상담자의 다양한 역할이 드러남’, ‘위기상담 대처에서 전문상담자의 역량이 확장됨’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범주인 ‘위기상담 대처 과정에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남’, ‘위기상

담 대처 과정에서 전문상담자의 다양한 전문상담자의 역량이 확장됨'의 속성과 역할이 드러남', '위기상담 대처 과정에서 차원은 <표 6>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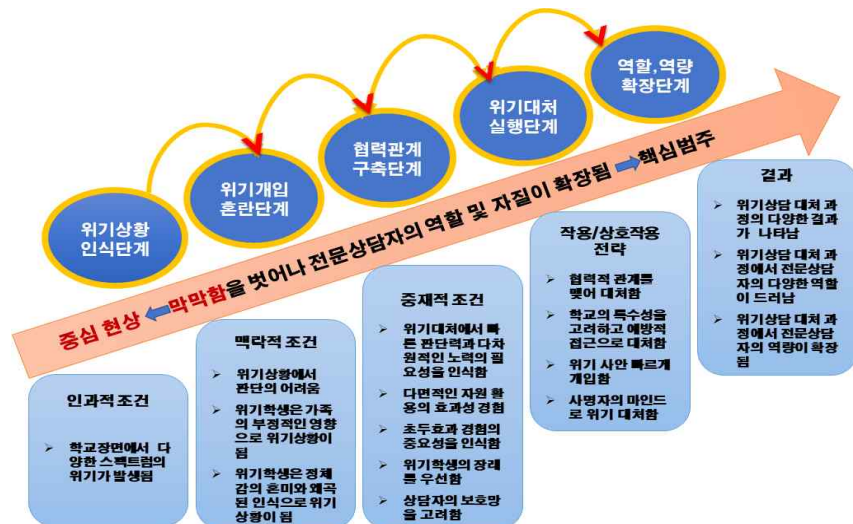
<표 6> 결과의 속성과 차원

패러다임	범주	속성	차원
결 과	위기상담 대처 과정에서 다양한 결과가 나타남	성과	만족--아쉬움
	위기상담 대처 과정에서 전문상담자의 다양한 역할이 드러남	정도	다양함-제한적
	위기상담 대처 과정에서 전문상담자의 역량이 확장됨	정도	큼---작음

7) 과정 분석

과정 분석은 자료에서 작용/상호작용으로 표현되는 범주와 하위범주 간의 연속적 연결을 탐색함으로써 시간의 흐름과 맥락적 상황의 변화를 추적하는 단계를 말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의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 현상,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

및 패러다임의 분석결과 학교 장면에서의 위기상담을 경험하고 대처해가는 과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기상황 인식단계', '위기개입 혼란단계', '협력관계 구축단계', '위기대처 실행단계', '역할 및 역량 확장단계'로 총 5단계로 이동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기대처 과정 5단계를 [그림-1]에 제시하였고 5단계의 구체적인 현상은 다음과 같다.



[그림-1] 위기상담 대처 과정 분석

3. 선택코딩: 이론적 통합

1) 핵심범주: 막막함을 벗어나 전문 상담자의 역할 및 역량이 확장됨

본 연구에서의 핵심범주(Core category)는 분석을 통해 밝혀진 중심 현상이며, 지금까지 도출된 모든 범주를 꿰뚫는 의

미를 내포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한 문장으로 집약하여 표현한 것이다(Strauss & Corbin, 1990).

이러한 결과로 도출된 ‘막막함을 벗어나 전문상담자의 역할 및 역량의 확장’ 범주의 속성과 차원은 <표 7>와 같다.

<표 7> 핵심범주의 속성과 차원

범주	속성	차원
막막함을 벗어나 전문상담자의 역할 및 역량이 확장됨	정도	넓음---좁음

2) 이야기 윤곽 전개

이야기의 개요는 핵심범주를 생성하기 위한 기법으로 연구 참여자들이 해결해야 하는 쟁점이나 중심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개념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 자료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상들 중 한 가지에 집중하여 이야기의 윤곽을 설정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야기 개요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 중·고등학교 현장에서의 위기상담으로 대처하는 과정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위기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전개된다. 이러한 위기 사안들은 정서불안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학생들, 트라우마(trauma)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들, 그리고 심각한 성폭력과 성추행, 자살·자해 등 위기상담으로 대처하기가 버거운 사안들이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위기상담 대처 과정에서의 성공사례 경험은 격렬한 운동을 할 때 ‘러

너스 하이(Runner’s High)’ 상태에서 황홀감이 느껴지듯이 위기상담 대처 과정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이어질 때는 ‘헬퍼스 하이(Helper’s High)’와 같이 행복감과 만족감이 올라가는 경험을 하였다.

전문상담자들은 다양한 위기상담 대처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위기 학생을 잡아주는 멘토, 인도자, 사명자로서 위기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전문상담자의 역할이 확장되었다. 따라서 위기상담 대처 과정에서는 단지 전문상담자의 역할로서만이 아닌 성직자와 같은 역할의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기상담 대처 경험으로 전문성의 제고와 역량이 발휘되고, 위기상담은 전문상담자의 하는 일에 사명감과 확신을 주었고, Wee 클래스에 전문상담자가 존재하는 이유를 더욱 확고하게 하는 경험이 되었다.

3) 유형 분석

유형 분석은 연구 과정을 거치면서 이

론을 도출하기 위해 가설적 정형화 및 관계진술문을 토대로 분석한 자료와 면담자료의 반복적 비교를 통해 근거가 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비교해 각 범주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과정이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패러다임에 근거하여,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의 과정에 반복되는 내용을 정리하여 도출된 핵심범주인 ‘막막함을 벗어나 전문상담자의 역할 및 역량이 확장됨’의 핵심범주에 대한 유형 분석을 하였다. 이에 따라 중심 현상인 ‘학교 장면에서 위기대처의 막막함’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다면적인

자원 활용의 효과성을 경험함’, ‘협력적 관계를 맺어 대처함’, ‘사명자의 마인드로 위기에 대처함’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핵심범주인 ‘막막함을 벗어나 전문상담자의 역할 및 역량이 확장됨’의 유형화 작업을 하였다. 유형의 분류는 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위기 학생에게 관여하는 정도와 방법, 위기상담 개입 방식, 참여자들의 위기상담 대처 과정에서의 마인드에서 도출되었다. 그 결과 ‘밀착 대처형’, ‘거리 두기 대처형’, 안전 대처형의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유형은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8> 전문상담(교)사의 유형 분석

	밀착 대처형	거리 두기 대처형	안전 대처형
인과적 조건	• 학교 장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위기가 발생함 (위기 인식 강함)	• 학교 장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위기가 발생함 (위기 인식 약함)	• 학교 장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위기가 발생함 (위기 인식 보통)
맥락적 조건	• 위기 개입에서 판단의 어려움 (많음, 지속적)	• 위기개입에서 판단의 어려움 (적음, 일시적)	• 위기개입에서 판단의 어려움 (보통, 일시적)
중심 현상	• 학교 장면에서 위기대처의 막막함 (큼, 지속적)	• 학교 장면에서 위기대처의 막막함 (적음, 일시적)	• 학교 장면에서 위기대처의 막막함 (보통, 지속적)
중재적 조건	• 다면적인 자원 활용의 효과성을 경험함 (제한적) • 초두효과의 중요성을 인식함 (강함) • 위기 학생의 장래를 우선함 (큼) • 상담자 보호망을 구축함 (작음)	• 다면적인 자원 활용의 효과성을 경험함 (다양함) • 초두효과의 중요성을 인식함 (약함) • 위기 학생의 장래를 우선함 (보통) • 상담자의 보호망을 구축함 (큼)	• 다면적인 자원 활용의 효과성을 경험함 (다양함/제한적) • 초두효과의 중요성을 인식함 (보통) • 위기 학생의 장래를 우선함 (보통) • 상담자의 보호망을 구축함 (보통)
작용/상호작용	• 협력적 관계를 맺어 대처함 (적극적, 지속적) • 학교 위기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예방적 접근	• 협력적 관계를 맺어 대처함 (소극적, 일시적) • 학교 위기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예방적 접근	• 협력적 관계를 맺어 대처함 (적극적, 일시적) • 학교 위기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예방적 접근

용 전략	근으로 대처함 (적극적, 지속적)	으로 대처함 (적극적/소극적, 일시적)	근으로 대처함 (적극적, 일시적)
	• 위기 사안에 빠르게 개입함 (능동적) • 사명자의 마인드로 위기에 대처함 (큼, 긍정적)	• 위기 사안에 빠르게 개입함 (능동적/수동적) • 사명자의 마인드로 위기에 대처함 (작음, 긍정적/부정적)	• 위기 사안에 빠르게 개입함 (능동적) • 사명자의 마인드로 위기에 대처함 (보통, 긍정적)
결과	• 위기상담 대처 과정에서 전문상담자의 다양한 역할이 드러남(다양함) • 위기대처에서 전문상담자의 역량이 확장됨 (넓음)	• 위기상담 대처 과정에서 전문상담자의 다양한 역할이 드러남(제한적) • 위기대처에서 전문상담자의 역량이 확장됨 (좁음)	• 위기상담 대처 과정에서 전문상담자의 다양한 역할이 드러남(다양함/제한적) • 위기대처에서 전문상담자의 역량이 확장됨 (보통)
핵심 범주	• 막막함을 벗어나 역할 및 역량이 확장됨 (큼)	• 막막함을 벗어나 역할 및 역량이 확장됨 (보통)	• 막막함을 벗어나 역할 및 역량이 확장됨 (큼)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학교 장면에서 위기상담을 경험한 전문상담(교)사의 위기상담 대처 과정의 의미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실체 이론(Substantive Theory)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고등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남·여 14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자료는 심층 면담과 전화통화,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 분석과 글쓰기의 절차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과 전략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124개의 개념과 40개의 하위범주가 나왔다. 이러한 하위범주를 더 함축된 의미로 추상화시킨 17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학교 장면에서의 위기상담 대처 과정을 통해 ‘막막함을 벗어나 전문상담자의 역할 및 역량이 향상됨’의 결과물로 이어졌다. 이에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맥락, 중재적 조건, 대처 전략, 결과와 위기 상담 대처 과정에 대해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술적인 맥락에서 재해석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찰하고, 위기상담 대처 과정의 패러다임과 본 연구의 결과물인 핵심범주와 위기상담 대처 과정 5단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2. 연구의 의의

학교 장면에서의 위기 사안에 대처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맥락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학교상담자의 연구는 대부분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로 구분하여 대부분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도 보다 폭넓게 도출되었고 따라서 이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어 학교 장면에서 위기상담 대처 과정에서 실제적인 적용이 용이할 것으로 여겨진다.

거시적으로 볼 때 전문상담(교)사가 느끼고 있는 막막한 위기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사회, 가정, 학교에서 위기 학생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 밝혀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특히, 과정 분석을 통해 각 단계에서 중요한 단계를 지나갈 때 참여자들이 도움이 되었던 것, 전략요인, 위험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혀내었고, 각 단계에서 이들이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제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임상적인 측면에서의 의의를 살펴보면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학교 장면에서 전문상담(교)사들의 위기상담 대처 과정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문상담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장면에서의 위기상담 대처에 있어서 전문상담자들의 위기상담 대처 과정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둘러싼 문제적 상황과 맥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연

구 결과를 통해 전문상담자들이 학교 장면에서 위기상담 대처 과정에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학교 장면에서 위기상담 담당자인 전문상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실제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 대상의 수가 적고 지역이 한정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든 결과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참여자는 여성이 13명, 남성이 1명으로 성비에 따른 차이를 분석을 세분화하지 못하였다. 남·여성별에 따른 대처 방식 차이로 인해 위기상담 대처 과정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 간과되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참여자 수를 늘리고 개인별 심층 면접 이후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진행한다면 참여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폭넓은 자료수집이 될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이론적 표본추출을 한다면 지역 간의 차이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민정 (1999).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운중 (2005). 전문상담 순회교사선발. **교육마당** (21)60-62.
- 권현용, 김현미. (2011). 질적 분석을 통한 위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요인. **인문학 논총**, 26, 209-240
- 박승민, 김광수, 방기연, 오영희, 임은미 (2012). **근거이론 접근을 활용한 상담연구 과정**. 서울: 학지사
- 박철옥 (2014). **복합외상 경험자의 상담을 통한 자기의 회복과정 : 근거이론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동성, 김영천 (2012). 질적연구방법으로서 근거이론의 철학적 배경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20(2), 1-26
- 이장훈 (2006). **청소년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목회상담적 접근방법**.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좌현숙, 변귀연 (2010).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 과정에서 내재화 문제와 변화 양상과 예측 요인. **학교사회복지**, 19, 113-140
- 최종숙. (2007). **학교에서의 위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석영 (2013). **We Project 운영 현황 및 실태에 따른 활성화 방안 연구**. 중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aplan, G. (1964). *Principles of preventive psychiatry*. New York: Basic Books.
- Corbin, J., & Strauss, A. (200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Erikson, E. H. (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 Havin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3rd ed.). New York: Mckay.
- Kazdin, A. E. (1993). Adolescent mental health: Prevention and treatment programs. *American Psychologist*, 48(2), 127 - 141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신경림 역 (2001). **질적연구 근거이론의 단계**. 서울 현문사.
- Parad, H. J. (1965). Preventive casework: Problems and implications. In H. J. Parad(Ed). *Crisis intervention*: New York: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Abstract>

The Process of the Crisis Counseling Coping by the Professional Counselors (Counseling Teachers) at the Junior High Schools and the Senior High Schools

HAM, JEONG SLM

JEONG MON KYONG

Wadong Elementary School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meaning in the process of the crisis counseling coping by the professional counselors (counseling teachers) at the junior high schools and the senior high schools and to develop a substantive theory that can explain this. For this, the in-depth interviews had been carried out by selecting the research participants through a theoretical sampling of 14 males and females who had been working for over 5 years as the professional counselors (counseling teachers) at the junior high schools and the senior high schools. Regarding the results of the research, 124 concepts, 40 subcategories, and 17 categories were drawn from the open coding. Firstly, based on the process of coping through a crisis counseling of the youths at the junior high schools and the senior high schools, it is considered that this research will give the help to the scene of the school for the crisis counseling, the parents of the students, and the expansion of the social recognition and will give the help to the improvement and the expansion of a better service with regard to the education, the medical treatment, and the social support. Secondly, at the junior high schools and the senior high schools, in the process of coping through a crisis counseling, as the actual information, it will become a help in the improvement of the expertise of the counselor (the counselor teacher) at the school and in the process of the coping through a crisis counseling on the part of the students.

Keyword :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s, the professional counselor (counseling teacher), crisis counseling, coping process, and grounded theory.*

한국문화의 특수성과 자녀의 자아 분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 (Bowen의 자아 분화이론을 중심으로)

오태정* 최광현†
한세대학교 대학원

본 논문의 목적은 Bowen의 자아분화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의 특수성과 자녀의 자아 분화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가족치료분야에 소개된 가족치료 이론 중 Bowen의 이론은 핵가족에만 초점을 두는 다른 이론과는 달리 확대가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원 가족을 강조하는 우리의 가족 치료문화에 적용하기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미국은 개인을 강조하는 개인주의 문화여서 집단을 강조하는 한국문화와 동일한 면도 있지만 가족에 대한 가치와 표현, 발달 과정 및 역사적 배경에서 다른 면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Bowen의 자아분화와 한국문화의 특수성과의 관계를 문헌연구를 통해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문화의 특수성은 ‘우리성’과 ‘부자유친’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런 특징들은 자녀의 자아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문화에서는 자아분화수준이 높다는 것이 꼭 성숙하다는 증거와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즉 Bowen의 자아분화이론을 적용할 때 한국문화의 특수성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이 논문은 문헌비교방법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여 자료의 제약과 자료 선택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한 상담이론의 재평가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Bowen의 자아 분화이론, 문화특수성, 자아분화

* 주 저 자 : 오태정, 한세대학교 대학원, E-mail : evahalina@naver.com

† 교신저자 : 최광현, 한세대학교 대학원 교수, E-mail : beratung@hansei.ac.kr

I. 서론

Nisbett(2008)에 의하면 같은 사람일 지라도 다른 문화에서 태어나서 각기 태어난 곳의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면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 즉 인간은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그 문화에 따른 다른 사고방식과 자기 개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Wundt(1998)는 문화가 인간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화과학(Cultural Sciences) 패러다임과 자연과학(Natural Sciences) 패러다임을 도입했다. 문화과학 패러다임은 인간의 행동과 심리적인 현상을 설명할 때 사회문화적 맥락과 환경적 요소들을 그 현상의 중요한 변수로 인정하는 것이다(김진숙, 1998). 이에 반대되는 자연과학 패러다임은 인간의 행동과 심리적인 현상을 설명할 때 그 문화의 가치체계와 세계관이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결코 문화적 진공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많은 심리적 현상은 직간접적으로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이정보, 1997). 이런 주장은 미국에서도 증명되었는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소수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에서 가족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가족치료를 할 때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송성자, 1997)

부모-자녀 관계의 이상적인 모습도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분리를 강조하는가 하면 집단주의 문화에서

는 분리보다는 연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동양과 서양의 서로 다른 사회구조, 문화 그리고 서로 다른 자기 개념 때문이라는 것이다(Nisbett, 2008).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소개된 가족치료이론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적 가족치료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 소개된 가족치료 이론은 주로 미국에서 들어왔다. 하지만 미국은 개인을 강조하는 문화여서 집단을 강조하는 한국문화와 동일한 면도 있지만 가족에 대한 가치와 표현, 발달 과정 및 역사적 배경에서 다른 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양 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가족 치료이론을 동양의 문화에 적용할 때에는 각 나라의 문화적 요인을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신혜섭, 2002).

가족치료 이론 중 Bowen의 이론은 핵가족에만 초점을 두는 이론과는 달리 확대가족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가족치료의 과정에 모든 가족원이 참석하지 않고 부부체계만 또는 한 명과의 치료과정을 통해서도 가족의 변화의 도모한다는 점에서 가족치료라는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가족 치료문화에 적용하기 용이하다(신혜섭,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Bowen의 이론적 가정 역시 서구의 문화와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고에서는 Bowen의 자아 분화이론을 고찰하고 한국문화의 특수성과 자녀의 자아 분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 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1 : 한국문화의 특수성과 자녀의 자아 분화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 문제2 : 한국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양 이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문화의 정의

문화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유형적인 것과 무형적인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국제한국학회, 1998). 우선 유형적이라고 함은 과거와 현대의 모든 문화유적을 포함해서 예술, 문화 혹은 일상적인 삶의 도구 등,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 될 것이다. 반면 무형적이라 함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생각과 사상에 영향을 미친 것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종교 사상이나 유형적인 문화 밑에 깔려 있는 원리는 물론 사람들이 견지하고 있는 세계관이나 가치관, 인간관, 시간관 등이 해당된다. 김의철(2000)은 문화를 개인과 집단이 그들의 자연환경 및 인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통합적 속성으로 정의한다. 우리는 문화를 통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또한 문화 속에서 각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을 습득하게 된다. 정인숙(2007)은 문화는 우

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도구로서 집단을 한데 묶어주는 역할이라고 말한다. 즉 문화는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으로서 사회화 과정을 통해 흡수되고 강화되어서 생활방식, 대인관계, 사회적 행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문화 집단에 속하는 구성원들은 그들만의 특징적인 심리내용과 행동 양식 즉 문화를 가지게 되고 이것을 표현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Augsburger(2005)는 하나의 문화만 아는 사람은 문화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문화만 아는 사람은 또 다른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문화에 대한 독단에 빠지게 된다. 또한 최준식(1997)은 문화를 상대적으로 볼 수 있는 문화적 상대주의는 이른바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갖추어야 할 덕목이며 모든 문화는 그 각각이 하나의 문화에 불과하다는 문화적 상대주의가 부족하면 자기 문화만 우수하다는 자문화 중심주의에 빠지게 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 문화는 열등하다는 패배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위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문화는 사회구성원들의 행동 양식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며 문화적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서구 주류심리학은 이와 같은 문화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의철(2000)은 자연과학적 모델을 따르는 서구 주류심리학 또는 실험심리학은 실증주의적 인과 모델을 기초로 관찰 가능한 실체 즉,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관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인간의 의식(衣食), 의도(意圖), 목표(目標)와 같이 직접 관찰할 수 없는 측면들은 “소음(noise)”으로 간주하고 연구 설계에서 제외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정모(1997)는 이런 서양의 전통적 과학이론은 데카르트적 존재론과 인식론에 근거한 것이며, 데카르트적 이분법적 사고는 자연현상 내의 대상들을 인간이 객관적 경험을 통해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또한 이 입장에 따르면 인간을 설명하는 절대적이고 자명한 진리가 존재하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이러한 진리가 지식으로 획득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조경호(1997)는 보편적 원리를 추구하는 전통적 접근방식은 허상에 불과하며, 서구인 특히 미국 백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 중심적인 인간관계에 기초한 특수적인 것 일뿐 다른 문화와 사회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또한 서구이론과 차이 나는 결과를 단지 양적인 차이로 간주하면서 각 문화의 독특한 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기존 서구이론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문화란 하나의 사고방식이며,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삶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5).

문화라는 필터를 통하지 않고는 인간이 사고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 또한 문화는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면 인간의 심리도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심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상대적인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2. 부모-자녀 관계의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 간 차이점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에서 나타나는 부모-자녀 관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주의 문화의 시각에서 볼 때, 부모-자녀 관계의 일차적인 목표는 부모가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것이다(이선훈, 1998). 따라서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주류 미국인 부모는 자녀에게 독립, 경제적 자립 등의 가치를 심어주고 사적인 부분에서는 존중, 경쟁을 통한 개인적 성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독립성에 대한 훈련은 아이들의 잠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미국에서는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와 다른 침대에서 재우지만 이는 동양의 문화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Nisbett, 2008). 두 문화 간의 차이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어린아이를 귀여워하고, 일본의 아이들은 어머니와 항상 붙어 다닌다(Nisbett, 2008). 그러므로 자녀들은 성장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자녀가 일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문화는 차이점을 보인다. 개인주의 문화의 서양의 부모들은 자녀가 스스로 자기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바란다(Nisbett, 2008). 그래서 서양의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그것을 부모의 도움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자신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느끼고 부모에게 반항을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양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녀와 관련된 일들을 자신들이 결정하려 한다(Nisbett, 2008). 이런 부모의 역할에 익숙해진 자녀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부모한테 의지하는 경향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동양의 자녀들은 부모의 간섭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에 더 많은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낀다(Nisbett, 2008).

그러므로 문화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집단주의 문화의 부모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자녀의 일에 개입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반면에 개인주의 문화의 부모들은 자녀를 부모와 독립시키고 분리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 패턴과 캐나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 패턴을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도 증명이 됐다(Choi, S, 1992).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 어머니와 초기 아동기 자녀의 의사소통 패턴의 특징은, 어머니가 자녀를 심리 사회적으로 미숙한 존재 그래서 항상 어머니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인식한다. 자녀를 대할 때에도 자녀와는 다른 별개의 독립된 개체로 자신을 표현하기

보다는 자녀를 보살피는 사람으로 자녀와 교류하는 특징을 보였다. 그 결과, 독립된 개체로서의 개인의 고유한 특성보다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 혹은 관계적 자아의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자아개념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캐나다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특징은, 어머니가 자녀가 어릴지라도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주고, 자녀의 심리적 분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자녀는 사회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별개의 개체로서 분화된 자아개념이 발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개인주의의 가치와 세계관을 반영한 이상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존재하며,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그 문화만의 이상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3. Bowen이론의 배경

Bowen은 중산층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서 비교적 밀착된 백인 가정에서 성장했다(이선희, 1998). 따라서 그의 이론도 Bowen이 성장한 미국의 중산층 백인문화의 영향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영향력을 증명하듯이 실제로 미국에서 Bowen식 가족 치료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거의 중산층 출신이다(P, Schwartz, 1995). 이런 점은 Bowen이론이 미국 중산층 백인의 문화적 특색을 전제로 발달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Bowen 이론의 문화적 전제들은 다음

과 같다.

첫째로 Bowen 이론에서의 가족이란 결혼한 남녀와 자녀들로 이루어진 핵가족을 전제한다. 왜냐하면 개인주의 문화인 미국의 가정은 2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독립적인 핵가족 구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Bowen의 일차적인 관심은 "핵가족 구성원이 어떠한 방식으로 서로 관계 하는가"에 있으며, 그의 이론에서 가족 구성원의 범위는 일차적으로 핵가족에 제한된다(이선헤, 2000).

반면, 한국을 포함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3세대를 포함하는 직계가족 또는 확대가족 구조가 보다 일반적인 가족구조이다(장현섭, 1993). 예를 들어 부모-자녀 관계가 부부 관계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녀 사이의 위계나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위계적 관계에 대한 규범도 상대적으로 아직 강하다. 또한 친족관계로 말할 수 있는 가족 제도가 많이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친족 간에 활발한 상호부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신혜섭(2002)은 부모는 지역적으로 핵가족과 떨어져 살아도 집안의 대소사에 대한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한국인에게 있어서 형과 부모를 위시한 확대가족의 존재는 핵가족과 일상사를 나누는 실질적 존재라고 말한다.

이선헤(2000)도 Bowen이 서구식 가족에 비해 확대 가족에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적인 상황에 적용할 때에는 한계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Bowen의 이론이 한국문화에 있어서 원가족이 끼치는 영향, 즉

정서적 및 물리적인 두 측면이 공존하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Bowen 이론을 한국 가족에 적용할 때 핵가족의 구성원만을 가족으로 전제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에 원가족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Bowen 이론의 가족생활주기 개념은 한국의 가족생활주기와 다르다. 서구의 경우 성인기는 고등학교의 졸업 후 취직이나 대학 진학으로 집을 떠날 때 시작된다고 본다. 반면에 한국의 성인기는 물리적으로 집을 떠나는 것과 성인이 되는 것 사이에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결혼, 경제적 능력이 생기는 것 또는 군 입대 등의 생애 사건이 성인기의 지표 역할을 한다(한경혜, 1993)

또한 한국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성인기의 시작으로 여기는 결혼조차도 "원가족으로부터의 물리적, 정서적 분리"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란 성인이 된 자녀가 그들 나름의 삶을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시작해서 새로운 가족을 탄생시킨다는 관점보다는 가계를 계승한다는 관점이 여전히 현대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김홍주, 1993).

셋째로 이상적인 자녀교육이 다르다. 최인재(2005)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주류 미국 가정에서는 이상적인 자녀 교육을 자녀가 부모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으로 독립하여 인생의 최종 목표인 자기실현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자녀 양육의 핵심은 자녀의 사회 진출이다. 따라서 Bowen 이

론도 가장 이상적인 자녀교육을 자녀의 사회진출로 여긴다. 이선휘(2000)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자녀 양육 방식의 핵심은 자녀의 독립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과 같이 머무르면서 가족 구성원들, 차세대 간에 결속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또한 Bowen 이론은 인간은 시초부터 시작된 진화적 감정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본다. 생명체에 관한 관점에서 시작하여 가족이라는 현상에 적용한 가족 치료자이며 이론가이다(신혜섭, 2002).

Bowen 이론은 핵가족에만 초점을 두는 다른 이론과는 달리 확대가족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인간에 대하여 생명체에 관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이를 가족이라는 현상에 적용한 가족치료 이론이다. 그는 가족을 다른 생명체, 다른 인간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생명체는 생존을 위하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적응을 위한 기제를 갖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생명체는 일정한 체제를 만들게 되는 데 일정한 체제는 생명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달시킨 일종의 생존전략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개미나 꿀벌은 집단이라는 체제를 만들어 생존하고 힘이 약한 짐승들도 무리를 지어 다닌다. 인간도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체제가 필요한데 Bowen은 가족이 이러한 체제 중의 하나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신혜섭, 2002).

체계적 인식은 가족치료에서의 어느 한 기법이나 치료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

니다. 우리는 체계적 사고를 통해 자신과 세계를 볼 수 있으며, 역시 치료과정에서 내담자의 문제와 해결 방법을 관찰하고,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 인식은 환원적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다. 환원적 패러다임은 단선적인 인과율을 전제하고 있으며 원인과 결과라는 단순한 도식에 따라 인간 행동을 이해하려고 한다. 반면에 체계적 패러다임은 인간 행동이 단선적 인과율에 의해 다루어질 수 없는 수많은 상호작용의 변수들이 있다고 본다. 또한 Bowen(2006)은 가족 체계를 하나의 사회체계로 간주한다. 가족체계이론을 사회문화적 방향으로 본다면 가족 체계는 공동체의 하부체계이며 공동체는 사회의 하부체계, 그리고 사회는 국가 문화의 하부체계라고 그리고 인간 문화의 하부체계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각자는 다른 모두를 위하여 감정, 이성, 관계 그리고 도덕 풍조를 조절하는데 이는 모두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고 누구든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변한다. 이것은 한 부분의 변화는 다른 한 부분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상호관계성의 체계이론을 가지고 문제의 원인과 치료를 선형적인 인과 관계의 특징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즉 Bowen의 이론은 한 사람의 변화는 다른 사람의 보상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체계적 접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Bowen(2006)은 치료적 관점에서 가족을 정서 관계 체계로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Bowen의 가족치료 이론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 그리고 치료사 모두에게도 옳은 방법이 있다는 결정론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Bowen (2006)은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면서 개인주의적 접근과는 달리 한 개인을 가족이라는 전체체계의 한 부분으로 보고 전체 가족 체계를 중심으로 가족을 하나의 정서 단위로 묶어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정신분열증의 다세대 전수 과정을 깊이 연구한 Bowen(2006)은 개인의 분화 수준이 바로 정신 건강과 연결되며 개인의 분화 수준은 가족 전체의 자아(family ego mass)와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역설하였다. 즉 자아 분화 수준이 낮거나 불안이 심하게 되면 지적 체제와 정서적인 체제의 균형이 깨져서, 지적, 정서적 기능이 융해되며 개별정보보다 연합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 이유는 동질화는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 타인의 견해에 쉽사리 동조하게 만들며, 불안은 지적 정서적 체제를 융합시켜 동질화 경향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아의 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증대되더라도 잘 정의된 신념과 원칙에 따라 생활하기 때문에 자기 정서를 통제하여 두 세력의 균형을 유지해 나간다. 하지만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정서적 지배를 받는다(심정택, 심혜숙, 1992).

Bowen(2006)은 이렇게 자아 분화와 융합, 개별성과 연합성을 한 개인의 정서 내적 과정으로만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와 역동적 측면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치료 모델을 전 해하였다.

III. 문화의 상대적 특수성과 영향력

한국의 문화적 특징과 Bowen의 자아 분화이론과의 관계는 어떨까? 이선휘(2000)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분화보다는 통합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미국에서의 이상적인 자아관과 한국에서의 이상적인 자아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한국에서의 이상적인 자아관은 Bowen 이론에서 의미하는 부모-자녀가 융합한 경우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미분화 되는 것이 문제의 요점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지 못하는 연합의 결여가 더 문제가 된다. 박영호(2006)는 서구문화에서는 자녀를 부모로부터 개별화, 개성화 그리고 독립시키는 점을 강조하는 양육과정을 통해 심리적인 분화와 성숙의 단계로 나아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충분한 의존과 결속, 타인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성숙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적인 문화 상황에서는 부모-자녀 간의 분화보다는 의존과 결속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박수영(2005)도 자신의 논문에서 자녀가 부모와 더 친밀할수록 자아 분화 전반에 걸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즉 가족의 응집성이 높을수록 자

너들의 비행, 사회적 부적응이나 불안 수준이 낮았으며, 자존감이나 자아 분화 수준은 오히려 높게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심정적 일체감, 부자유친, 동일체 의식 등을 강조하는 한국문화의 특수성으로 자녀들은 자기주장보다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조화를 중요시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국 부모-자녀 관계의 특징인 '우리성'도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를 단순히 자아 분화의 개념만으로 설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성과 관련된 연구는 1990년에 최상진(2004)에 의해 시작되어 꾸준히 시도되어 오고 있는데, 최상진은 집단주의 문화권인 한국인과 일본인의 '우리' 의식을 비교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한국인의 우리 의식은 '정'과 '일체감 의식'을 기본으로 가족형 인간관계를 반영하는 반면, 일본인의 우리 의식은 집단귀속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한다. 즉, 한국은 '인간 관계적 우리'가 강하며 일본은 '집단귀속 및 집단 동일시적 우리'가 강하다. 이는 한국인의 '우리'가 훨씬 더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형성되기 어려운 까다로운 관계임을 시사한다.

또한 박수현(1990)은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의 특징인 '우리'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개념화를 시도하였는데, '우리'란 객관적 실체로서 파악할 수 있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주관적 인지 과정에 의해 형성되는 집단이거나 추상적 집합명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기와 독립적인 정체인 동시에 자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우리'로 범주화

시킨 대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심리적 현상이라고 한다.

따라서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집단 안에서는 이성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 우선' 혹은 '우리 이기주의'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결속을 해치지 않는 한 우리안의 구성원들은 모두가 좋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 밖에서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우리 집단 안에서 내적 규율만 잘 지킨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다.

또한 한국인의 '우리'는 부모-자녀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인은 지속되는 가족관계 속에서 자신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는 우리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친밀감이 부모, 형제,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성을 바탕으로 한 이상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부모-자녀 간의 적절히 융합된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와 융합되어 있을 때 부모와 자녀가 우리성을 형성하여보다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낀다.

결국 한국인의 '우리'는 가족에서 나타나는 자타 미분화의 심리적 연대감을 강하게 반영하는 확대된 가족 의식의 심리를 띠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박광배, 1992).

따라서 자아 분화의 정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단순하게 해석하는 방법보다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근간으로 분석이 이루어질 때 부모-자녀 관계를 더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자녀와 자아 분화의 관계는 문화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하며 단순

하게 자아 분화가 높으면 건강하고 낮으면 건강하지 않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VIII. 결론 및 논의

본 논문에서는 문화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서구이론과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과의 관계를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Bowen의 자아 분화이론을 중심으로 자녀의 자아 분화와 한국 문화의 특수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부모-자녀 관계의 문화적 특징인 부자유친, 동일체감, 우리성 등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런 점들은 자녀의 자아 분화 영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친다. 자아 분화의 대인 관계적 측면을 제외하고 개인의 정서적 안정감을 예측할 수 있는 하위 영역에 대해 한국의 문화적 특징은 부모-자녀 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특징이 자녀의 자아가 발달하고 분화되어 가는데 부모와 자녀의 친밀감이 기본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의 부모와의 심정적 결속은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을 증진시키고 불안을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대인관계 능력도 향상 시킬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문화의 관계 중심적 성격이 서양의 개인주의 문화와는 명백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한국인 상담자들은 서양에서 발달된 상담이론들을 무비판

적으로 받아들여 사용해 왔다. 그 까닭은 서양의 이론들이 사람을 이해하고 돕는 틀로서 보편성을 지닌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구사회에서 발달된 상담이론이나 접근방법에는 문화 보편적인 요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 사회 특유의 가치들이 내재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상담이론이나 기법들을 한국인 내담자들에게 적용할 때 그것들이 지닌 문화적 보편성의 정도가 얼마나 되고, 또 문화 특수성의 정도는 얼마나 있는지에 대하여 상담자가 주의 깊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은 다양한 가족치료 이론 중 Bowen의 이론만을 놓고 한국 가족에 적용했을 경우를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분석이 제한적이다. 기존의 다른 이론들은 적용의 정도나 범위에 있어서 Bowen의 이론과는 다를 것이므로, 앞으로 한국적인 상황에 보다 근접한 가족치료 모델을 모색함에 있어서 다른 이론들에 대한 검토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동시에 가족 치료자는 현실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모델에 의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이론들을 분석하여 한국 가족에게 적절한 절충적 모델을 고안해 내는 작업도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김용태 (2003). *가족치료이론*, 학지사.

- 김유숙 (1998). **가족치료**, 학지사.
- 김정택, 심혜숙 (1999). **“Murray Bowen의 정신 역동적 가족치료 모델”**, 1999.
- 최광현 (2008). **가족세우기치료**, 학지사, 102-104.
- 최상진 (2000). **한국인의 심리학**, 중앙대학교출판부, 78, 374.
- 최준식 (1997). **한국인에게 문화가 있는가**, 사계절, 21.
- David W. Augsburger, 임헌만 역 (2005). **문화를 초월하는 목회상담**, 그리스, 39-83.
- Michael P. Nichols and Richard C. Schwartz, 김영애, 김정택, 심혜숙, 정석환, 채석봉 역(1999). **가족치료**, 시그마프레스.
- M. E. Kerr, M. Bowen, 남순현, 전영주, 황영훈 역(2006).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학지사.
- 김동직 (1999). **문화적 맥락에서 본 개별성-관계성과 심리적 적응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4.
- 김정운 (1998). **문화심리학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97-114.
- 박수현 (1990). **우리성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개념화**,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
- 송성자 (1997).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 비교와 한국 가족치료 접근 전략**, 한국가족치료학회지, Vol. 5.
- 최광현 (2008). **국제결혼 가족을 위한 다문화적 목회상담**, 신학사상 겨울호, 143집, 219.
- 최상진 (2004). **한국인과 일본인의 '우리'의 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93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29-244.
- 최상진, 정태연(2001). **인고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긍정적 보상기대와 부정적 사실 상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제7집 (2), 23.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심정심리: 심정의 성격, 발생과정, 교류양식 및 형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 18(1), 1-16.
- 최인재 (2007).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연구소 요약집: 한국청소년 개발원, 24.
- 신혜섭 (2002). **보웬 가족치료 이론과 한국적 적용에 대한 고찰**, 생활과학연구, Vol. 7, 194-199.
- 이선혜 (1998). **한국에서의 Bowen 이론 적용에 대한 고찰: 자아분화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 Vol. 6, 167.
- 이선혜 (2000). **Bowen 이론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일고**, 한국가족치료학회, 160.
- 장성숙 (2004). **한국문화에서의 상담의 초점: 개인중심 대 관계중심**, 한국문화와 상담: 제5회 현실역동상담 학술세미나 자료집, 23-24.
- T. Tamura and A. Lau. (1992). *Connectedness versus separateness: Applicability of family therapy to Japanese families, Family Process*, Vol. 31.
- Margaret C. Gall, *The Bowen Family Theory and Its Uses Northvale and Londen*, Jason Aronson Inc, 1991.

- Segall M. H, Dasen P. R, Berry J. W, & Poortinga Y. H, *Human behavior in global perspective: An introduction to cross-cultural psychology*. New York: Pergamon. 1990.
- Hofstede G. Forword, In U. Kim, H C. Kangiticibasi, S. Choi, & G. Yoon. (1994).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heory, method,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I K. Berg, and A. Jaya. (1993). Different and same: Family therapy with Asian-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Vol. 19, NO.

<Abstract>

**The Study of Relationships between
Particularity of Korean Culture and the
Self-differentiation of Children
(Focusing on Bowen's theory of Self-differentiation)**

Oo, Tae-jung Choi, Kwang-hyeon

Ha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ularity of Korean culture and the Self-differentiation of children, focusing on Bowen's Self-differentiation theory. Among the family therapy theories introduced in the field of family therapy in Korea, Bowen's theory is easy to apply to our family therapy culture which emphasizes the family of origin, because it considers the extended family as important, unlike other theories that focus only on the nuclear family. However the United States is an individualistic culture that emphasizes the individual, so it has the same aspects as the Korean culture that emphasizes the group, but there are different aspects in terms of the value and expression of the family, development process,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refore,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Bowen's Self-differentiation and the distinctiveness of Korean culture through literature analyzing metho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eature of Korean culture, which is a culture of collectivism, can be cited as "We-consciousness" and "Bu-Ja-Yu-Chin", and these characteristics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self-differentiation of children.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in Korean culture, a high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is not necessarily identified with evidence of maturity. In other words, it can be said that it is more effective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with the feature of Korean culture when applying Bowen's Self-differentiation theory. However, this paper uses the literature review method as a research method, so there may be limitations in data and problems in data selection. Nevertheless, the re-evaluation of counseling theories considering the specificity of culture can be said to be a future task.

오태정 / 한국문화의 특수성이 자녀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Bowen의 자아분화이론을 중심으로)

Keyword : *Bowen's Self-differentiation theory, Culture influences,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사회적 유능성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저자 : 이나라*

지도교수 : 정문경†

한세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인간의 사회화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제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상담, 교육, 사회과학, 인문학 분야와 관련된 사회적 유능성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2013년부터 2022년(10년간)까지 학술지,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총 70건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연구연도,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변인 및 변인 간의 상관관계, 주제별 연구동향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총 70건 중 학술지 35건, 석사논문 31건, 박사논문 4건으로 학술지가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나, 2017년, 2018년에 다소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코로나19 이후 2022년도에 연구가 다소 증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아부터 성인초기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연구되었으나, 주로 유아기 때의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한 연구가 많다. 연구주제 특성상 양적조사로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가 77%로 대부분 이루어졌고, 연구변인으로는 사회적 유능성이 종속변인으로서 연구된 것이 83%로 가장 많았으며, 다각적인 설계방법을 통해 연구되었다. 주제별 동향에서는 부모 및 가족관계, 심리·정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3가지 영역으로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련성 및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좀 더 의미 있는 연구의 주제 및 방향성을 제시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심리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주제어: 인간의 사회화, 사회적 유능성, 부모 및 가족관계, 심리·정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

* 주 저 자 : 이나라, 한세대학교 대학원, E-mail : narabeen@nate.com

† 교신저자 : 정문경, 한세대학교 대학원 조교수, E-mail : jmoonk509@hansei.ac.kr

I. 서 론

현대인들은 빠른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살고 있으며, 각 개인은 이러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하는데 매우 필요한 요건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써 태어나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고 발달해 간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반면,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심리적 부적응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며, 개인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21세기에 바람직한 인간상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김영옥, 2006; 박도순, 2022; 양옥승, 2004; 최재선, 1998)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개인에게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상호 교류하는 능력이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며, 이에 따라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기능을 위한 능력 중 하나인 사회적 유능성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심윤희, 2011).

사회적 유능성(social competence)은 원만하고 긍정적인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Dodge, 1986)으로, 또래 유능성, 대인관계 유능성, 사회지능, 사회적 민감성, 사회적 능력, 사회적 유능감, 사회적 기술(배효심, 2007; 신은수, 권미경, 정형빈, 2010; 이혜영, 1986; 임미혜, 2005; 정재윤, 2001; 최경아, 2006; 한명

숙, 2007; Han, 2007; Howes, 1987; Moon, 2009)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다.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적 맥락과 문화 속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정서, 사고, 행동을 통합하는 능력(임숙희, 2017)을 말하며, 사회적 유능성이 잘 발달된 사람은 원만하게 관계를 맺으며 일의 성취에서도 효율적 목표를 달성하고 자신에 대한 유능함이 드러난다(최윤희, 문혁준, 2018). 사회적 유능성은 영·유아기 때 필수적인 발달요소 중 하나이며, 성인기 이후 사회생활의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각 시기별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Hartup, 1991). 이처럼 유아기의 사회적 유능성은 성인이 되었을 때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응의 근간이 되며 유아기부터 전 인생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심윤희, 2011; 손현실, 2016; 정영일, 2004; 한지혜, 2018).

더욱이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홍예지, 2022). 감염에 대한 심리적 불안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활성화, 언택트 시대의 변화로 심리적 단절 및 고립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며, 이로 인해 사회화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각 발달 단계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발달의 저해가 한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가족, 집단, 사회에 전체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유능성에 대해 폭넓은 개념 및 발달과정을 정리하고, 사회적 유능성을 기르고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변인들을 분석하고, 우리의 삶에 각 발달단계별 어떻게 발휘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본 연구를 바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코로나19 시대적 상황에 발맞추어 사회적 유능성 관점에서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다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확대해 나가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 시기별로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전문적인 교육, 집단프로그램 및 질적인 상담기법 등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은 시대의 흐름,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하고 분류할 수 있다. Ttili(1990)는 사회적 유능성을 각 발달단계마다 개인이 중요한 타인과 상호교류하며 관계를 맺으며 최상으로 어울리며 조정하는 능력이라고 하였고, Robin과 Rose-Kransnor(1992)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개인적인 목표를 획득하면서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1980년대 이후부터는 사회적 상호작용 관점에서 사회적 유능성을 설명하였으

며, 이는 사회적 역할과 행동을 익히고 발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고희정, 2017; Halberstadt, Denham & Dunsmore, 2001). 1990년대 이후부터는 사회적 유능성을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사회적 역할과 행동뿐 아니라 필요한 개인의 심리적 적응능력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 정의하였다(정옥분, 정순화, 임정하, 2007). LaFreniere와 Dumas(1995, 1996)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개인의 적응적 차원을 제시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심리 및 정서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 Miller(1998)도 사회적 유능성을 개인이 사회적 맥락과 환경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며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를 통제하고 유지하는 개인의 적응 능력으로 보았다. Herbert-Myeres, Guttentag, Swank, Smith, & Landry(2006)는 타인과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사회적 기술로 개인의 행동과 정서, 인지적 능력을 사회적인 상황에 적합하도록 조절하는 행동·정서적 능력이라 하며, 이에 정서적 측면을 한층 더 강조하였다.

최근에는 사회적 유능성을 종합적인 전체 개념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김언수, 2013). Sheran(1999)은 사회적 유능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개인의 타인과 관계를 맺는 사회적인 기술과 능력을 언급하였는데, 사회적인 기술이란 타인과의 상호교류 속에서 관계를 맺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활용하고 갈등이 발생할 경우 원만히 해결해 나가는 개인 내적 능력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유능성을 조작적 정의로

규정하고자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개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회적 적응능력이라는 점에서 일치를 보인다(고희정, 2017; 박한샘, 2004).

사람은 생후 만 2세부터 가족을 비롯한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한 의도적 행동들이 조금씩 증가하며(Dunn & Munn, 1986), 사회적 관계 기술은 만 6세 이전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청소년 시기 무렵부터 사회에 대한 개인의 가치, 태도, 개념이 형성되어간다고 하였다(Hess, 1981). 즉 유아 시기의 초기 사회적 능력 형성 정도가 청소년 이후가 되었을 때의 사회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유아의 사회적 능력은 사회 구성원의 일환으로서 성장하며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주변의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것임으로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서하, 2018). 또한 유아, 아동기의 사회적 유능성은 청소년기를 걸쳐 성인기의 사회적 능력 및 적응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Parker & Asher, 1987, Hartup, 1992), 사회적 유능성은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예언하는 중요한 단서(신현숙, 2005)가 된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Erickson, 1959)을 바탕으로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주요한 시기인 학령기 이전의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초기를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발달단계에 따른 사회

적 유능성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발달단계별 사회적 유능성

1) 유아기의 사회적 유능성

유아는 출생과 함께 일차적으로 접하게 되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양육자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타인을 알아가며 사회성을 익히고 가족 문화 속에서 가치나 규범, 삶의 태도 등을 내면화해 나간다. 가정은 유아의 사회화를 이루는 최초의 근원지로 유아들에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고 가르쳐 주면서 건강한 객체로 성장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중요한 뿌리의 역할을 한다. 또한 유아는 가장 중요한 부모와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다른 사람을 인식하게 되고 관계를 맺을 때, 이를 적용하며 비슷한 패턴으로 살아간다(이영애, 2012),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해 가는 능력 중의 하나가 사회적 유능성이며, 사회적 유능성 발달의 초석이 되는 유아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한다(고영실, 2008).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면서 자신이 속한 환경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원활히 맺고 유지하는 것(이혜원, 2005)으로 이해할 수 있다.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이 제안한 정서사회화 발견적 모델에서는 아동의 개

인적 특성, 부모의 특성, 문화적 특성 및 맥락적 요인이 정서에 관련된 부모의 양육행동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아동이 각성하여 정서적인 결과물과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유아기가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행동 및 태도, 자기인식, 자아존중감, 안정적 심리상태, 자기조절과 자아통제 능력, 타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친사회적 태도와 행동, 문제해결 전략과 기술 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이기 때문이며(권연희, 2003), 추후 아동, 청소년 시기를 걸쳐 성인의 사회적 유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는 유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양질의 상호작용으로 유아를 지지하고 공감하여 유아가 가족뿐 아니라 또래 관계를 친밀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능력을 발달시키고 이끌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김은미, 2019).

2) 아동기의 사회적 유능성

현대사회는 핵가족화, 형제 수의 감소, 맞벌이 부부, 한부모를 비롯한 결손가정의 증가 현상뿐 아니라 학교 내 경쟁 및 사교육의 심화, 집단따돌림,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문제 등과 같은 심각성으로 인해 인성 및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아동들의 인성교육이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사회적 유능성이 낮은 아동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개념으로 학업성취도가 낮고, 타인

이해 부족이나 공격성 또는 위축된 행동으로 또래에게 거부되는 등 부적응의 행동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Crick, 1996), 이는 영·유아시기의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과 학교생활 적응 및 또래 관계의 질, 외적 지지 체계에 따라 다양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또래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형성하는 아동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자신의 욕구도 쉽게 표현하며 그 욕구들을 타인과 상호교류하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정옥분, 2002). 이에 사회적 유능성은 원만한 또래관계의 형성과 교육기관에서의 적응 및 이후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최혜진, 박효민, 2017). 또한 학령기에 형성된 사회적 유능성은 지능이나 학교성적뿐 아니라 이후 단계의 성공적인 적응을 예견할 수 있는 지표가 되므로(Hartuo, 1991), 원만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아동은 성인이 되어 대인관계나 정신적인 문제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한다(Henricsson & Rydell, 2006),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청소년기의 사회적 유능성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과 더불어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성숙을 경험하는 통합적이고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며 성인기로 진입하는 관문이기도 하다. 또한 청소년기는 아동기와는 달리 자신의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겪기도 하며, 정서적·인지적·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

로 나타난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대인관계 문제는 내재되어 있던 심리적·사회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며(이인재, 2009; Blair, 2002) 불안정한 과도기의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응의 핵심 역량으로서 사회적 유능성이 필요하며, 이를 잘 유지하고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모나 또래, 교사지지가 같은 사회적 지지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사회적 유능성은 원활한 대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하며, 이를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적응해 갈 수 있게 하는 핵심적 능력이다(권연희, 2003; 최소영, 2015).

청소년기의 사회적 유능성은 아동기와 달리 인지적, 정서적 변화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에 보다 확대된 사회적 관계망에서 이루어져야 할 발달과업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은 사회적 적응뿐 아니라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예측하며(Wentzel, 1991),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 및 폭넓은 사회적 지지를 획득하게 한다(이인재, 2009; 이혜원, 2005), 또한 사회적 유능성의 획득은 원만한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행동통제 및 자기조절, 삶의 목표설정 및 학업성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영순, 김판희, 2015), 반면 사회적 유능성 획득의 부족은 학교부적응, 학교폭력, 학업중단, 비행 등과 같은 부적응적 문제행동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형성과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소외, 분노,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Guerra

& Bradshaw, 2008).

4) 성인초기의 사회적 유능성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복잡한 사회조직 안에서 평생 동안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관계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그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성장해 나간다(Dunbar, 2010). Erikson(1959)은 성인초기 주요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은 타인과 폭넓은 관계 속에서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하였다. 공식적으로 초기성인기를 주로 대학생으로 보며, 이 시기는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규범 역할을 습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제한된 환경에 소속되어 있던 청소년 시기와는 달리 급격히 확장된 사회적 관계망에 노출되므로 한층 더 복잡하고 성숙한 대인관계 능력이 요구되는 시기이다(장휘숙, 2008; 홍구표, 전해성, 2017). 전에 경험한 적 없던 새로운 대인관계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효율적이고 기능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 유능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정은이, 2018).

또한 대학생활뿐 아니라 첫 사회생활에 진입하는 등 환경의 변화가 많아지는 성인초기는 대인관계의 폭과 깊이도 다양하게 변화되기 때문에 성인초기의 대인관계 능력은 더욱더 중요하며(이윤신, 박성희, 김종경, 2014) 이 시기에 요구되어진 상황에서 친밀하고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우울과 불안, 정서적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후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확대 및 만족

에도 문제가 야기된다(권석만, 1995).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하여 타인과 정서적 교류를 끊임없이 하며, 이를 통해 친밀감을 쌓고 다양한 관계를 맺고 확장해 나가는데, 만약 정서적 상호작용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작용하게 될 경우, 타인과 의미 있는 관계는 맺을 수 없을 것이다(남혜림, 김서희, 주은형, 안재원, 2017).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은 것은 개인의 성격 형성의 영향뿐 아니라 자존감, 타인 인식 및 문제해결능력 등 전반적인 정서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동귀, 한나리, 2010), 이러한 정서적인 문제들은 다시 대인관계 유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악순환을 반복하여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이외에도 심각한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 및 초기성인들의 대인관계 유능성을 함양시켜주는 것이 개인적 행복, 심리적·주관적 안녕감을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기반 및 적응에 있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김중운, 김지현, 2013).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유능성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선정하여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발달단계별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한 논문의 연도별, 대상별, 연구방법 등의 동향은 어떠한가?
2.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한 논문의 연구변인, 변인간의 상관관계의 동향은 어떠한가?
3. ‘사회적 유능성’ 관련 변인의 주제별 동향은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에서 진행된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논문 70편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상담, 교육, 사회과학, 인문학 분야와 관련된 사회적 유능성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2013년부터 2022년(10년간)까지 학술지, 석사학위논문, 박사학위논문 총 70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70편 중 학술지 35편, 석사논문 31편, 박사논문 4편으로 학술지가 가장 많았다.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해서는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연구되어져 왔으나, 코로나 이후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으로 본 연구에 대한 동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자료분석

사회적 유능성 관련 동향분석을 위한 논문을 선별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선별작업을 진행하였다. 1단계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회적 유능성 관련한 키워드를 검색하여 연구물들을 추출하였다. 2단계에서는 상담, 교육, 사회과학, 인문학 분야와 관련된 사회적 유능성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관련 논문들을 선별하였다. 3단계에서는 연구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본 연구 취지에 맞는 논문을 선별하고, 석사논문과 박사논문에서 학술지와 중복되는 경우는 학술지로 선택하여 최종 선별하였다. 문헌 검색 및 선별 과정은 아래와 같이 진행했으며 이는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차트(김나미, 박경은, 장세은, 2018)를 참고하였다.

RISS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1차 발견 (학술지n=154, 논문n=313, 박사논문n=60)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회적 유능성' 관련 검색
RISS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2차 선별 (학술지n=97, 석사논문n=50, 박사논문n=14)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상담, 교육, 사회과학, 인문학 분야 '사회적 유능성' 관련 검색
RISS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3차 선별 (학술지n=35, 석사논문n=31, 박사논문n=4) 총 70편 최종선별	1. 본 연구취지와 맞는 논문 선별(사회적 유능성, 또래 유능성, 대인관계 유능성 포함) 2. 중복여부 파악 및 선별(석사논문과 박사논문중 중복된 경우 학술지 우선 선별)

<그림 1> PRISMA 흐름도

총 70편 논문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출판연도,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변인별 동향 및 변인간의 상관관계, 변인의 주제별 동향 등 분석방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Buboltz 등(1999)이 제시한 분석틀을 재수정하여 사용한 연구(조남정, 2010: 주은성, 박영주, 2015: 송수경, 구자경, 2017)들을 참조하였다.

<표 1> 분석틀

분류범주	세부사항
발행연도	학술지, 석사논문, 박사논문 게재 연도
연구대상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초기 대상별 분석
연구방법	- 양적연구, 질적연구, 양적·질적 혼합연구 - 양적연구 중 조사연구, 실험연구, 개발연구 * 본 연구 특성상 양적연구 위주임
연구변인	-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에 따른 분석 - 변인간의 상관관계 여부 분석
변인 주제별 동향	-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의 주제별 동향 분석 (연구동향, 주요 변인, 연구과제 파악)

IV. 연구결과

1. 발행연도별 논문 수

<표 2> 연도별 발행 논문 수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논문수	3	3	6	8	16
빈도(%)	43	43	86	11.4	22.8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총계
12	6	7	3	6	70
17.1	86	10	43	86	100

연도별 발행 논문 수는 표 2와 같다.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5년, 2016년 조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16건(22.8%), 2018년 12건(17.1%)으로 연구된 논문 수가 두 배 이상 증가되었다. 또한 2020년 코로나 이후 2021년 3건(4.3%)으로 주춤했다가 2022년 9월기준 6건(8.6%)의 논문이 연구된 것으로 볼 때 본 연구주제로 전년도 대비 약간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다.

2. 연구대상별 발행 논문 수

<표 3> 연구대상별 발행 논문 수

대상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초기	총계
논문수	34	12	11	13	70
빈도(%)	48.6	17.1	15.7	18.6	100

본 연구주제인 사회적 유능성에 관련한 연구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초기 등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논문 중 유아대상의 논문이 34건(48.6%)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인초기 13건(18.6%), 아동 12건(17.1%), 청소년 11건(15.7%) 순으로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주제와 관련해서 유아 대상의 논문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로 보아, 사회적 유능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면서도, 아동, 청소년, 성인기에 걸쳐 전 세대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 이상의 경우는 표집단을 일반인 대상으로 대부분 설정하였으나, 특수한 집단(예, ADHD, 폭력 및 학대경험, 가출청소년, 내현적 자기에 성향 등)을 대상으로도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인인 경우 초기성인인 대학생에 국한되어 대부분 연구가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성인층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3. 연구방법 및 분석방법에 따른 논문 수

<표 4> 연구방법에 따른 논문 수

대상	조사연구		실험연구 및 개발연구			총계
	설문조사	자료조사	집단 PG 개발	면접	관찰	
논문수	54	6	7	1	2	70
빈도(%)	77.1	8.6	10	1.4	2.9	100

본 연구에서 선별한 사회적 유능성 관련 논문들은 대부분 양적조사이며, 양적 및 질적 병행한 연구나 질적조사로 연구되어진 논문은 거의 없었다. 설문조사연구가 54건(77.1%)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프로그램 개발연구가 7건(10%), 자료조사가 6건(8.6%), 관찰연구가 2건(2.9%), 면접이 1건(1.4%)으로 분포되어 있다. 사회적 유능성 변인을 측정하는데 통계학적으로 계량하고 분석하는 양적조

사 방법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 이상은 주로 본인들이 설문조사나 집단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였으나, 유아 대상으로 연구되어진 논문의 경우는 대부분 부모나 교사가 설문에 참여하거나 보조 및 관찰자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5> 분석방법에 따른 논문 수

구분		분석 건수	빈도 (%)
조사연구 분석방법 (총 60건)	상관관계분석 (변수간의 밀접한 정도)	59	98.3
	중다, 위계회귀분석 (두변인의 상대적 영향분석)	37	61.2
	구조방정식모형 (두이상 변수들간의 관계분석)	16	26.7
	부트스트래핑 (이중매개효과)	17	28.3
	조절된 매개모형분석	5	8.3
실험연구 분석방법 (총 10건)	일원량분석	1	10
	ANOVA(다변량분석)	3	30
	t-검정결과	1	10
	공분산분석	3	30
	다변량잠재성장모형	1	10
	월콕스부호-서열검증	1	10

양적연구방법으로 활용된 분석방법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조사연구 논문 수 총 60건 중 변수간의 밀접한 정도를 분석하는 상관관계분석을 98%정도 59건 논문에서 대부분 사용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토대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회귀분석을 활용한 논문이 37건(61.2%)에 해당되며, 매개변인이 하나 이상일 때 사용하는 분석방법으로 구조방정식모형 16건(26.7%), 부트스트래핑 17건(28.3%)을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절된 매개변인이 있는 경우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조절된 매개모형을 활용해서 분석한 논문이 5건(8.3%)에 해당된다. 실험연구 분석방법으로는 실험특성에 따라 일원량분석, ANOVA, t-검정결과, 공분산분석, 다변량잠재성장모형, 월콕스부호-서열검증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4. 연구변인별 발행 논문 수

<표 6> 연구변인별 발행 논문 수

대상	독립 변인	매개 변인	종속 변인	상관 관계	총계
논문수	1	5	58	6	70
빈도(%)	1.4	7.1	82.9	8.6	100

사회적 유능성 관련 변인별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다. 사회적 유능성을 독립변인으로 한 논문은 1건(1.4%), 매개변인으로 한 논문은 5건(7.1%),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은 6건(8.6%)이며, 종속변인으로 한 논문이 58건(82.9%)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유능성이라는 논문 주제는 독립변인,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변인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 특성이 강한 것으로 주로 종속변인으로 설정하

여 연구되어진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유능성을 독립변인이나 매개변인으로 설정해서 연구한 논문이 많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주고받는 변인들이 다양하므로 이에 대한 상호 연관성, 변수간의 밀접한 정도, 변인들 간의 연관성 방향을 알 수 있는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이 8.6% 정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연구설계에 따른 변인별 발행 논문 수

대상	단순 모형	매개 효과	순차적 이중매개 효과	조절된 매개 효과	상관 관계	총계
논문수	35	21	2	6	6	70
빈도(%)	50	30	2.8	8.6	8.6	100

사회적 유능성 연구설계에 따른 변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단순모형 논문은 35건(50%)으로 가장 많으며, 나머지는 매개효과로 설계한 논문은 21건(30%), 조절된 매개효과로 설계한 논문은 6건(8.6%), 변인간의 상관관계분석으로 설계한 논문은 6건(8.6%)으로 비슷하며, 순차적 이중매개효과로 설계한 논문은 2건(2.8%)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적 유능성 관련 주제는 복합적인 변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다양한 연구설계 모형을 볼 수 있으며, 이중 매개효과를 활용한 논문이 단순모형 이외에 제일 높았으며, 변인간의 서로 연관성을 검증하는 상관관계 연구설계뿐 아니라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조절된 매개효과를 설계한 논문들의 현황을 알 수 있다.

5. 연구 변인들의 주제별 동향

<표 8> 연구 변인들의 주제별 동향

주제별	독립, 매개 변인	건수	빈도 (%)	순위
부모 및 가족 관계 (총 16개)	가족관계 및 상호작용	4	3.1	7
	가족간의 심리적 건강성	2	1.5	9
	원가족과의 정서적 관계	3	2.3	8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 효능감	11	8.4	2
	부모의 자율성 지지	1	0.8	10
	부모의 공감능력	6	4.6	5
	부모와의 애착관계	3	2.3	8
	부모의 정서신념 및 정서적 표현성	6	4.6	5
	부모의 긍정적 정서	2	1.5	9
	부모의 자아분화	1	0.8	10
	부모의 사회적 유대감	1	0.8	10
	부모의 놀이신념 및 놀이성	4	3.1	7
	부모와의 의사소통	2	1.5	9
	모의 부정정서(우울, 외로움)	1	0.8	10
	부정적 양육태도 및 양육 스트레스	2	1.5	9
	부모의 심리적 통제	2	1.5	9
심리·정서적 요인 (총 24개)	유아의 기질 및 수줍음	5	3.8	6
	심리적 건강성 및 정서 지능	7	5.3	4
	자아탄력성	2	1.5	9
	애착안정성	1	0.8	10
	자아존중감 및 자기수용	4	3.1	7
	유아의 실행기능 (인지적기질)	2	1.5	9

	정서조절능력	12	9.2	1
	긍정정서 및 감사성향	2	1.5	9
	유아의 놀이성	4	3.1	7
	성숙방어기제	1	0.8	10
	정서표현성 및 공감능력	3	2.3	8
	성인애착 및 친사회적 행동	3	2.3	8
	의사소통 능력	1	0.8	10
	자기자비 및 마음챙김	4	3.1	7
	인권감수성	1	0.8	10
	공적자의식	2	1.5	9
	거부민감성	2	1.5	9
	사회불안	4	3.1	7
	성장기 폭력경험	1	0.8	10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1	0.8	10
	학교폭력 피해경험	1	0.8	10
	정서적 방임 및 학대 경험	1	0.8	10
	경험회피	1	0.8	10
	내현적 자기에	1	0.8	10
환경적 요인 (총 6개)	또래놀이 상호작용	1	0.8	10
	또래관계의 질	1	0.8	10
	또래지지	2	1.5	9
	교사지지	1	0.8	10
	사회적지지	8	6.1	3
	학교부적응	1	0.8	10
합 계		131	100	

사회적 유능성 관련 변인들의 주제별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변인 간 구분 없이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부모 및 가족관계, 심리·정

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위의 표 7과 같이 요약하였다. 이는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이 제안한 정서사회화 발견적 모델을 참조하였다. 부모 및 가족관계 영역에서는 16개의 변인, 심리·정서적 요인 영역에서는 24개의 변인, 환경적 요인 영역에서는 6개의 변인으로 구분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총 131건으로 분류하였다. 사회적 유능성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변인으로는 정서조절능력이 1위로 9.9% 차지하며,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육효능감이 2위로 8.4%, 사회적 지지가 3위로 6.5%이며, 그 외 다양한 변인들의 동향을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주제별 3가지 영역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별 변인 중 가장 중요한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은 자신의 정서를 다루고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개인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이는 유아의 기질, 심리적 건강성,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긍정정서 등과도 연관되어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정서발달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확장하는데 1차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하며 이에 가족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 부모의 심리적 건강상태, 정서신념, 공감능력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적인 환경에서 사회적 지지체계라 함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나 유기적 관계체계, 그 외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의 발달과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 및 또래 지지와 관계성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부정적 관점에서의 변인들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의 부정정서 및 양육스트레스, 거부민감성이나 사회불안, 폭력이나 학대, 부적응 등 변인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적 유능성에 관한 국내 연구들을 선정하여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유아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중요하고 큰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현재 이를 위한 프로그램 및 척도 개발의 연구실태 및 적용 분야를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필요한 연구방향에 대해 제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된 논문 총 70편을 선정하여 연도별, 연구대상별, 연구방법, 연구변인 및 변인간의 상관관계, 주제별 연구동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회적 유능성을 키워드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상담, 교육, 사회과학, 인문학 분야와 관련된 논문 중 또래 유능성, 대인관계 유능성을 포함하여 본 연구 취지에 맞는 70편을 선정하였다. 이 중 학술지는 35건, 석사논

문 31건, 박사논문 4건으로 학술지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관련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2016년 조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 16건(22.8%), 2018년 12건(17.1%)으로 논문 수가 두 배 이상 증가되었다. 코로나 전후로 약간 주춤하다가 2022년도 9월 기준 6편의 논문이 연구되어진 것으로 볼 때 전년도 대비 좀 더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이 사회적 큰 이슈이자 개인의 스트레스 요소이면서 사회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고(홍예지, 2022년) 있으며, 사회적 관계의 약화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증가될수록 더욱더 필요한 연구주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대상별 현황에서는 유아 대상의 논문이 34건(48.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외의 아동, 청소년, 성인초기 대상은 비슷한 분포로 연구되어졌다. 인간은 전 발달단계를 거치면서 대인관계와 관련된 독특한 발달적 변화를 보이며, 타인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정문경, 2014)는 연구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Hartup(1989)에 따르면, 유아가 또래와 사회적으로 유능한 관계를 발달시키는 것은 유아기 발달과업 중 하나이며, 기초적인 능력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관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아 시기의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연구방법으로는 양적조사가 대부분이며, 주로 설문조사방법이 54건(77%)로 가장 많으며, 개발연구방법으로

7건(10%), 자료조사 연구방법으로 6건(8.6%), 관찰연구가 2건(2.9%), 면접이 1건(1.4%)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는 사회적 유능성의 조작적 정의 특성상 다양한 변수들간의 상호관계 및 유의미한 통계적 수치를 증명하는데 있어서 양적연구방법(김재철, 권경인, 2019)을 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 이상은 주로 본인들이 설문조사나 집단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였으나 유아대상의 연구논문은 대부분 부모나 교사가 설문에 참여하거나 보조 및 관찰자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종단적인 연구보다는 횡단적인 연구논문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양적연구방법으로 활용된 분석방법 현황에서는 상관관계분석을 기본으로 매개변인이나 조절변인에 따른 회귀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부트스트래핑, 조절된 매개모형 등 다양한 분석방법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 유능성이 다양한 변인 간에 어느 정도로 관련되어 있으며,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통계·분석적 방법으로 계량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사회적 유능성 관련 변인별 발행 논문 현황을 살펴보면, 독립변인으로 한 논문은 1건(1.4%), 매개변인으로 한 논문은 5건(7.1%),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은 6건(8.6%)이며, 종속변인으로 한 논문이 58건(82.9%)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유능성과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거나 종속변인으로써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주로 연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에 관계를 설정한 단순모형의 연구논문이 35건으로 50%를

차지하지만, 그 외의 매개변인과 조절변인을 활용한 매개효과, 이중매개효과, 조절된 매개효과, 상관관계 등 다양한 연구방법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를 통해 복합적인 변인간의 상호 인과성과 효과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출해 낼 수 있다. 양적연구라 할지라도 변인에 따른 연구설계에 따라 다양한 분석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네 번째로 변인간의 주제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부모 및 가족관계, 심리·정서적 요인, 환경적 요인의 3가지 주제별 영역, 46개의 변인에 총 131건으로 세부 분류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사회적 유능성은 하나의 요인으로 구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송정순, 2017), 개인차나 부모의 특성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지만 문화적 특성, 맥락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에 여러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안수산, 2021). 또한 사회적 유능성은 전 생애적인 발달과업이면서도 시기별, 대상별에 따라 주요 요인 및 관점이 달라질 수 있으면서, 서로 밀접한 상호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위효지, 2022). 또한 홍예지(2022)에서 사회적 유능성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지만 코로나19 같은 사회적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관계의 단절은 물론 사회화 기술 습득이 어려워진 시대적 상황에서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사회적 유능

성과 비슷한 유사개념이 많아 더 많은 자료를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이 상담 영역뿐 아니라 교육, 복지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폭넓은 연구동향을 살펴볼 수 있었던 반면, 상담분야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논문 동향을 분석하는 데는 다소 미흡했다. 또한 현재 워드 코로나19 전후 상황에서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미친 영향을 비교 분석한 논문 수가 아직까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유능성 관련해서 독립변수나 매개변수로 설정해서 사회적 유능성이 미치는 개인, 집단,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나, 긍정적 요인뿐 아니라 부정적 요인이나 외상 경험에 따른 변인들을 다각적으로 설계하여 사회적 유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적 유능성 개념은 유아 시기부터 전 세대적인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세대별 통합적인 접근이나, 성인초기인 대학생뿐 아니라 좀 더 폭넓은 성인대상의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자료조사에 의한 양적연구는 매우 많은데 사회적 유능성을 향상시키고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집단 상담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연구가 필요하며, 질적연구나 혼합연구 방식의 상담사례연구 등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마지막으로 넷째 사회적 유능성 개념의 특성상 시대적 흐름에 따라 주요요인의 변화 및 미치는 영향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상황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전 시대와 비교 분석하여 심리학적 관점뿐 아니라,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위급한 사회적 환경이 각 발달단계마다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저해하는 요소 및 부정적 영향이 무엇인지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규리(2021), **성인초기의 정서표현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성숙 방어기제 및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아라(2017),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적지지 매개효과**, 한국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희정(201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자기수용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희정(2020), **공적 자의식,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정서적 고통 감내력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연희 (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 해결 전략 및 어머니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희, 이희경(2015), 대인관계 유능성에 대한 긍정정서의 영향: 경험 회피와 자기자비, 인지적 공감의 경로탐색, **상담학연구** 16(6), 83-107
- 김나미, 박경은, 장세은(2018), 중독회복을 위한 긍정심리학적 개입의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상담학연구**, 19(1), 113-128
- 김나영(2019), **유아의 자기조절력과 자아존중감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내현(2020),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에서의 정서적 방임 및 학대경험과 학교부적응의 관계: 대인관계 유능성을 통한 교사지지 및 또래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영(2018), **영아의 기질이 사회정서적 유능성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보영(2016), 유아의 실행기능, 자아존중감, 정서지능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1(3), 29-51
- 김순이(2017),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감 및 정서조절 능력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수정, 광금주(2016), 아동탄력성의 발달적 변화가 사회적 유능성에 주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3(4), 1-17
- 김수미, 최진아(2015), 어머니의 놀이성, 유아의 놀이성, 자기조절 능력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간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19(2), 39-54
- 김은미(2019), **아버지의 원가족 건강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분화와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언수 (2013), **부모의 낙관성이 유아의 심리적 건강성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언경, 엄정애(2013), 유아기 형제간 사회적 놀이와 형제 구조, 기질, 또래유능성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3(5), 161-179
- 김유순(2020), **사회적 유능성 증진프로그램이 위탁형 대안학교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문제해결 및 대인관계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나(2017),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태정(2022),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창의적 리더십 및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놀이성을 매개로**, 중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희진, 주은지(2018), 대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감사성향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9(3)
- 남궁령(2015), 어머니의 정서신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 심리적 건강성과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5(6), 49-74
- 노영숙(2021), **어머니의 애착과 공감의 영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자녀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칼빈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가은, 최은실(2017), 어머니의 대화방식과 아동의 수줍음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마음 읽기능력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21(2), 1-17
- 박선숙(2017), 성장기 폭력경험이 대학생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권감수성의 매개효과, **교정복지연구**, 48, 23-52
- 박신영(201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유능성과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순, 김판희 (2015), 중학생의 사회정서적 유능성과 자기조절학습,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21, 129-149.
- 박정덕(2013),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문제행동과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서, 장석진(2017), 집단치료가 놀이 프로그램이 초등돌봄교실 아동이 정서기능과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유아교육연구**, 26(1), 231-252
- 박준혁(2017), **ADHD 아동의 낙관성 및 사회 유능성 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한샘 (2004), 사회적 유능성이 대학생 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18, 55-83.
- 박현경(2018), **유아의 기질과 애착안정성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형신, 김정주(2015), 가족건강성이 유아의 교사·유아관계와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유아 심리적 건강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0(4), 1-26
- 배효심 (2007), **아동의 어머니와 교사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유능감의 관계**,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보경(2017), **거절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대인관계 유능성의 매개효과**, 동신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수경, 구자경(2017), 초심상담자에 관한 연구 동향, **상담학연구**, 18(5),

1-19

- 송정순(2017), **아동의 자기조절능력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이나(2018), **부모의 놀이참여도 및 놀이성이 유아의 정서지능과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수, 권미경, 정형빈 (2010), 유아의 사회적 기술,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사회적 놀이행동 간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4), 183-209.
- 신재운(2019), **부모의 놀이신념과 아동의 놀이성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2005), **어머니의 정서표현 수용태도 및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숙영(2016), 사회적지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애착유형과 영유아의 사회정서 유능성 및 문제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유아교육연구**, 25(1), 21-47
- 심현정, 이경하(2022), 그림책을 이용한 연극놀이가 부적응 행동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26(1), 41-51
- 이길준(2018), **중학생의 정서조절능력과 또래관계의 질 및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이귀애, 김영희(2016), 아버지의 원가족 부모와의 정서적 연결과 부부친밀감 및 역할수행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3), 93-119
- 이미나, 차기주, 정미라(2016), 어머니의 원가족 기능성, 성인애착, 공동양육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간의 구조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1(2), 173-195
- 이문옥, 전홍주(2018),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 공동양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영유아교육이론과실천**, 3(3), 97-116
- 이승미, 하지영, 서소정(2016), 유아의 기질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표현성이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2), 277-298
- 이신숙(2014), 중학생의 자기조절능력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정도에 따른 조절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6(4), 247-267
- 안수산(2021), **어머니 정서표현 수용태도가 유아정서조절을 매개로 유아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 기질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양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서영(2020), **고등학생의 공감능력과 또래애착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

- 사학위논문
 유수앵(2019), **게임놀이 프로그램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자기조절력에 미치는 효과**,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소영, 심혜원(2020), **모의 자율성 지지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의도적 통제와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영유아아동정신건강연구**, 13(1), 19-42
 이영애 (2012), **아이의 사회성**, 서울: 지식채널
 이인재 (2009), **초등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능력 함양을 위한 이론적 토대** 연구, **한국철학논집**, 25, 7-40.
 이혜원 (2005), **교사용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평가척도 개발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미혜 (2005), **만5세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및 정서지능에 따른 또래 인기도**,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현주(2018), **유아의 자아존중감, 또래놀이 상호작용 군집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 다변량분석, 유아교육연구**, 38(3), 215-236
 오은정(2018), **가족관계가 청소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3), 177-199
 유서영(2020), **고등학생의 공감능력과 또래애착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은미(2016), **중학생의 공감능력과 또래지지가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위효지(2022), **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과 정서인식명확성, 온오프라인 사회적 지지가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상황을 중심으로**,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태형(2018), **대인관계증진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희정(2020), **어머니의 놀이신념과 정서표현성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현주(2017), **가족 상호작용 및 가정환경과 유아의 심리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7(6), 269-291
 장성미(2015),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매개변인으로**,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선화(2017), **아동이 지각한 주양육자의 공감능력과 긍정적 정서표현성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은혜, 이동귀(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 정서표현이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5(3)
 장휘숙 (2008), **성인초기의 발달과업과**

- 시작시기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1(4), 109-126.
- 정문경(2014), 청소년기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성의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29, 73-93
- 정문경(2015),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능성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2), 195-211
- 정옥분, 정순화, 임정하 (2007), **정서발달과 정서지능**, 서울 : 학지사.
- 정은이(2018),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성향과 대인관계 유능성의 관계: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이중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2002),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조혜정(2017), **마음챙김과 사회적 지지가 대학생의 대인관계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지은, 홍상환 (2017),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효과: 자기자비를 통한 우울의 매개된 조절효과, **초등상담연구**, 16(3), 261-284
- 최미숙, 박미희, 임은정(2019), 그림책을 활용한 갈등해결활동이 유아의 도덕적 판단력 및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8(3), 183-202
- 최민수, 김설희(2017),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열린부모교육연구**, 9(4), 235-252
- 최분자(2013),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정서지능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영, 양재원(2019), 맥락이 사회불안의 사회적 유능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임상심리학회지**, 38(4), 369-381
- 최윤선, 백지숙(202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정서조절능력을 매개로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8(4)
- 최윤정, 차미숙(2022), 유아의 기질과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에서 실행기능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26(1), 121-145
- 최윤희, 문혁준(2018), 부모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7), 221-228
- 채혜경, 제희선(2017),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 어머니의 행복감, 양육태도, 가족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27(4), 199-217
- 홍예지(2022), 어머니가 지각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어머니의 사회적 유대감과 양육스트레스의 순차매개효과, **한국아동학술지**,

- 43(1), 19-32
- 홍예지(2022), 어머니의 외로움, 인지적 유연성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관계: 어머니가 지각한 일상에 미치는 코로나19 영향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아동학술지**, 43(2), 125-139
- 황윤정(2018),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유능성이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5), 2317-2327
- Dodds, K. A. (1986).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18, pp. 77-125
- Dunn, J, Penny Munn (1986). Siblings and the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ur.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9(3), 265-284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 241-273.
- Eric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Guerra, N. G., & Bradshaw, C. P. (2008). *Linking the prevention of problem behaviors and positive youth development: Core competencies for positive youth development and risk prevention*. In N. G. Guerra & C. P.
- Han, Hak-Sun, (2007), *Family influence on children's second language literacy building: A Case study of Korean families*.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 Hartup, W. W. (1992). Friend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Childhood social development: Contemporary perspectives*, 175-205.
- Howes, C. (1987). Social competence with peers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sequences. *Developmental Review*, 7(3), 252-272.
- Hess, S. D. (1981). *Approaches to the measurement and interpretation of parent-child interaction*. In R. W. Henderson(Ed.), *Parent-child interaction, theory, research and prospects*. NY: Academic Press.
- Katz, L. G., & McClellan, D. E. (1997).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teacher's role*, Vol 8, NAEYC Research into Practice Series.

- LaFreniere, P. J., & Dumas, J. E. (1995).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 evaluation: Preschool edition (SCBE)*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Los Angeles.
- Odom, S. L., McConnell, S. R. & Brown, W. H. (2008),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influences*. In W. H. Brown. S. L. Odom & S. R. McConnell (Eds.), *Social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Risk*.
- O' Malley, J. M. (1977). Research perspective on social competence. *Mwrrill-Palmer Quarterly of Behavior and Development*, 23(1), 29-44.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acceptance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3), 357-389.
- Wentzel, K. R. (1991). Relations between social compet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2(5), 1066-1078.

<Abstract>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Social Competence

Lee, Na, Ra

Chung, Moon, Kyung

Ha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search trends on 'social competence' that have a profound effect on human socialization development and to suggest direction for follow-up research. For this study, the Korean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RISS) was searched for social competence related to counseling, education,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as keywords, and from 2013 to 2022 (10 years), a total of 70 academic journals, master's thesis, and doctoral thesis cases were selected as research subjects, and research year, research subjects, research methods, correlations between research variables and variables, and research trends by subject were also consider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ere 35 academic journals, 31 master's theses, and 4 doctoral theses out of a total of 70 cases, and although research has been steadily conducted by year, a lot of research was conducted in 2017 and 2018, and research was slightly increasing in 2022 after Covid-19. Although it has been studied evenly from infants to early adults, there are many studies mainly on social competence in infancy. Due to the nature of the research subject, 77% of survey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questionnaires as a quantitative survey, and as a research variable, social competence as a dependent variable was studied the most at 83%, and it was studied through a multifaceted design method. In the thematic trends, the relevance and importance of various variables can be identified in three areas: parent and family relationship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Based on the above results, I'd like to presen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topic and direction of more meaningful research, and the necessity of research from a sociological as well as a psychological perspective, especially considering the impact on social competence after Covid-19.

Key words: human socialization, social competence, parent and family relationships, psychological and emotion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연애관계 완벽주의와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효과

전석경*

김희수†

군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한세대학교

본 연구는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연애관계 완벽주의와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프로그램 개발 관련 선행연구 고찰 및 예비 프로그램 진행하였고, 목적의 검증을 위해 연애관계 완벽주의 척도와 갈등해결전략 척도를 사용하였다. 프로그램은 주 1회, 회기당 120분으로 구성하여 4주간 실시되었다. 프로그램 효과는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측정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전·사후 검사에 적용한 통계방법은 공변량분석(ANCOVA)을 수행하여 두 군간의 사전 점수를 통제한 교정사후점수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첫째,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처치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서 연애관계 완벽주의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둘째,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처치한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서 갈등해결전략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연구를 통해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연애관계 완벽주의와 갈등해결전략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와 연애관계의 질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성인기 초기로서의 발달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움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대학생, 연애관계,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 연애관계 완벽주의, 갈등해결전략

* 본 연구는 전석경(2020)의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내용임.

† 교신저자: 김희수, 한세대학교, E-mail: kimhs@hs.ac.kr

I. 서 론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 후기 및 성인 초기(18세-35세)에 속하며, 한 개인이 심리적·사회적·생물학적 측면을 통합하여야 하는 과도기이다. 또한 대학생 시기에는 진로나 취업과 함께 의미 있는 관계에서의 정서적 유대감 및 지지를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의 형성을 통해 발달과업을 이루게 된다(Erikson, 1959). 따라서 이 시기에 강조되는 발달과업은 자아 정체감의 형성, 부모로부터의 심리적·물질적 독립, 친밀한 대인관계 및 연애편계 형성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미래의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이 시기에 관계를 맺는 대상은 친구, 동료, 연인 등으로 다양해지고 확대되어 가는 특징을 보인다(Bartholomew & Horowitz, 1991).

이러한 대학생 시기의 연애는 연인과 친밀감 형성을 통해 만족스러운 연애편계를 경험하면서 자신을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연애편계를 통해 사랑의 기술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것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Lloyd & Cate, 1985). 뿐만 아니라 연애를 함으로써 서로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친밀감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사회 적응력 발달에 도움이 되며(김은지, 1997), 서로가 성숙해지도록 돕는다(박은영, 2003).

한편 대학생의 연애편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완벽주의적 성격특성을 들 수 있다. Burns(1980)는 완벽주의자가 중요한 타인, 즉 연인에게도 자

신에게와 같은 완벽함을 기대하고 요구하게 되어 관계에서 쉽게 실망하게 되며, 이 실망감을 상대방에게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의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여 결국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하였다. Pacht(1984)는 완벽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러한 성향이 강해, 자신이 완벽하지 않을 때 타인에게 거부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를 타인과 공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연애편계 완벽주의란 연애편계에서 연인이 결점 없는 상태를 유지하길 기대하는 것과 같이 높은 기대를 가지며, 상대방 역시 자신에게도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자기 스스로가 결점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송은주, 이지연, 2016).

최근 연구에서는 연애편계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갈등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악의적인 책임귀인을 보이며, 상대방을 용서하는 일이 적고 갈등을 성숙하게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였다(Furman, Luo & Poind Jr, 2017). 위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연애편계 완벽주의가 높은 개인은 갈등상황에서 연인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갈등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의도), 연인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을 것으로 판단하며(이기적 동기), 이러한 연인의 태도에 대해 자신이 연인을 비난하여도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비난받아 마땅함) 악의적 책임귀인을 보일 것으로 가정했다.

연애편계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

온 두 사람이 보다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쌓는 과정이 반복된다(김민정, 2016). 이런 과정에서 각자의 습관, 서로에 대한 신뢰, 가치관, 의사소통 방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박승민, 이수원, 1993; 안자경, 2008). 또한 연애편계는 다른 사회적 관계보다 더욱 친밀하고 강렬한 감정을 느끼는 관계이므로 어떠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냐는 관계의 질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강진희, 2011).

따라서 연애편계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는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갈등해결전략(Conflict Management Strategy)이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기술이며, 서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써 자기의 이해를 방어하고 고양시키기 위해 갈등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성취하는 방식들을 말한다(김나리, 2002; 재인용; Pollard, 1985; Unger, 1998). 연애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Lloyd & Cate(1985)는 갈등이 잦으면 관계에서 만족도가 낮아지지만, 갈등이 잘 해결되면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중요한 것은 갈등 자체보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기술임을 입증하였다. Cramer(2000)는 관계의 만족이 갈등 자체로서 보다는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부정적인 해결 방법에서 더욱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즉, 갈등으로 인해 연인을 걱정하게 하는 것이나 아예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피

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 갈등해결방법이 문제라고 하였다(강진희, 2011). 특히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고, 상호의존적이며, 영향력이 강한 친밀한 관계와 같은 연애편계에서는 서로의 의견에 대해 불일치가 발생할 기회가 많아서 불만을 느낄 가능성은 높아진다(노현숙, 2006). 따라서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은 연애편계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데 영향을 주며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은 낮은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권지영, 2009; 이지연, 서수균, 2011), 즉 부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은 갈등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에게 필요한 연애 관련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의 처치가 대학생의 연애편계 완벽주의와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연애편계 완벽주의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연애편계 완벽주의

연애관계 완벽주의는 일반적 완벽주의와 중요한 차이를 갖는다(김향숙, 2001). 일반적 완벽주의가 자신에 대한 믿음과 같은 개인내적 완벽주의적인 신념과 관계가 있는 반면에, 연애관계 완벽주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 완벽주의적인 믿음과 관계가 있다(Arcuri, 2013).

Slaney, Pincus, Uliaszek & Wang(2006)은 연애관계 완벽주의가 높은 기준(high standards), 정돈(order), 불일치(discrepancy)의 3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첫째, 높은 기준은 상대방이 업무에서 높은 성과를 이루어 내길 기대하는 것과 같은 높은 수행 기대를 의미한다. 둘째, 정돈은 상대방의 조직화되고 정돈된 정도의 판단을 의미한다. 셋째, 불일치는 상대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기준과 상대의 실제 수행의 차이점에 의해 나타난다.

또한 연애관계 완벽주의는 자기지향적 높은 기준(자기높은기준), 자기지향적 불일치(자기불일치), 타인지향적 높은 기준(타인높은기준), 타인지향적 불일치(타인불일치)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양윤영, 2018). 첫째, 자기 높은 기준은 연인이 자신에게 기준을 높게 부여하고 기대할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의 외모나 행동, 주변정돈 등과 같이 보여지는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갖는 것이다. 둘째, 자기불일치는 연인이 자신에게 가지는 어떠한 목표에 대한 행동이나 수행에 대하여 높은 기준에 실제로 미치지 못했을 때 연인이 가지는 자신에 대한 불만족감을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감정을 나타낸다. 셋째, 타인

은 기준은 연인의 외모나 행동 또는 주변 정돈 같이 보여지는 부분에 대하여 높은 기준을 부여하는 것이다. 넷째, 타인불일치는 자신이 연인에 대하여 기준을 높게 부여하고,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불만을 나타낸다(양윤영, 2018).

선행 연구들은 연애관계 완벽주의가 높은 사람들은 상대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기대하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 상대방에게 편향된 부정적인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낸다(Bradbury & Fincham, 1990; Fincham & Bradbury, 1992). DiBarto 등(2007)은 미래에서 발생할 일에 대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과도하게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려는 성향이 높은 완벽주의적인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인에 집중하며, 갈등 유발 요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더 책임이 있다는 악의적 책임귀인 편향을 보임을 밝혔다(한예정, 2019). 이는 높은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은 중립적 사건에 대하여 더 부정적으로 결과에 편향되어 상대방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귀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와 일치한다(Chang & Sanna, 2001; Flett et al., 2001).

최근 연구에서도 연애관계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갈등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악의적인 책임귀인을 보이며, 상대방을 덜 용서하며 갈등을 성숙하게 해결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Furman, Luo & Poind Jr, 2017). 위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연애관계 완벽주의가 높은

개인은 연인과 갈등상황의 경우,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갈등상황들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의도), 상대방이 이기적인 이유로 이러한 행동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며(이기적 동기), 상대방을 비난해도 마땅하다고 판단하는(비난받아 마땅함) 악의적 책임귀인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김나영, 김향숙(201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애편계에서 나타나는 완벽주의와 자기노출 경향성, 그리고 연애편계 만족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자기지향적 연애편계 완벽주의와 연애편계 만족도 간에는 어떠한 관련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상대방부터 부과된 연애편계 완벽주의, 즉 연인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신념은 연애편계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분적으로 연애편계 완벽주의가 자기노출을 저해하였기 때문임을 시사한다. 사회로부터 부과된 완벽주의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Flett, Hewitt & DeRosa, 1996), 이러한 경향성은 연애편계에서도 똑같이 반복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김나영, 김향숙, 2018). 따라서 대학생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은 연애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2. 갈등해결전략

갈등해결전략(Conflict Management Strategy)이란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기술이며, 서로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써 자신의 이해를 고양시키고 방어하기 위하여 갈등 상황에서의 상호작용을 성취하는 방식들을 말한다(김나리, 2002 재인용; Pollard, 1985; Unger, 1998). 다시 말하면, 대인관계 내의 갈등 상황에서 개인이 선택하는 전략적인 방법과 행동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김민정, 조민아, 2017 재인용; Unger, 1998)이다.

갈등해결전략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크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강진희, 2011). 먼저, 긍정적인 갈등해결유형은 갈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어느 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지 않는다. 상대방의 의견을 서로 존중하고 경청하며 갈등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므로, 갈등이 해결된 후에 서로 간 만족하게 된다. 반면에, 부정적인 갈등해결유형은 갈등 및 갈등으로 인해 생긴 감정들을 무시하거나 부인한다. 또한 갈등상황을 회피하고 갈등과 관련한 논의에서 물러나거나, 자신의 요구와 입장만 주장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불평하며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낸다. 결국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남게 된다(장춘미, 2001). 즉, 갈등의 해결은 다른 상호작용보다 더 관계의 특성에 대해 잘 말해주며, 갈등이 일어났을 때 긍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는지 부정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관계의 만족도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강진희, 2011).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에 소재한 H대학교 학생이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남·여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였다. 실험 참여에 동의한 학생 22명 중 12명의 통제집단과 10명의 실험집단으로 구성하였다. 통제집단 12명 중 남녀는 각각 6명이었으며 연령은 20세부터 23세 11명, 24세 이상 1명으로 모집되었다. 실험집단은 남자 4명, 여자 6명으로 20세부터 23세 8명, 24세 이상 2명으로 모집되었다.

실험집단의 특징으로는 당시 연애 여부에 대하여 ‘하고 있음’ 5명, ‘하지 않음’ 5명이었으며, 평균 연애 기간은 ‘1개월 미만’ 2명, ‘1개월~3개월’ 1명, ‘3개월~6개월’ 1명, ‘6개월~12개월’ 4명, ‘1년 이상’ 2명이었다. 연애 경험 횟수로는 ‘1회’ 2명, ‘2회’ 1명, ‘3회’ 3명 그리고 ‘다수(4회 이상 혹은 셀 수 없음)’ 3명으로 조사되었다.

2. 연구도구

이성관계 완벽주의 척도

본 연구에서는 연애관계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Shea, Slaney & Rice(2006)가 개발한 친밀한 관계 간 완벽주의 척도(DAPS: Dyadic Almost Perfect Scale)와 Matte &

Lafontaine(2012)이 개발한 이성관계 완벽주의 척도(RRPS: Romantic Relationship Perfectionism Scale)의 개념을 기초로 송은주와 이지연(2016)이 한국 성인 진입기의 성인 남녀에 적합하도록 개발한 한국형 이성관계 완벽주의 척도(K-PRRS: Korean Romantic Relationship Perfectionism)를 채택하였다. 측정 도구는 총 22문항이며, 2개의 하위요인으로 자기초점 완벽주의, 파트너초점 완벽주의로 구성되어있다. 자기초점 완벽주의는 연애관계 파트너에게나 자신은 완벽한 파트너인가에 관한 생각으로, 완벽한 연애관계 파트너가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세워 그 기준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합하는지 스스로를 평가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세우는 태도이다. 파트너초점 완벽주의는 내 파트너가 완벽한 연애관계 파트너인가에 관한 생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완벽주의적인 기준을 갖다 대어 평가를 하는 태도를 말한다. 각각의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연애관계에 대한 완벽주의적 성향이 높음을 나타낸다. 연애관계 완벽주의에 대한 문항 내적 신뢰도는 송은주(2016)의 연구에서 Cronbach' a .89, 본 연구에서 .82로 나타났다.

갈등해결전략 척도

본 연구에서는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Arellano와 Markman(1995)이 개발한 갈등해결전략 척도를 김나리

(2002)가 번안·수정하고 강진희(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채택하였다. 측정 도구는 총 68문항이며, 8개의 하위요인으로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인 관심과 이해, 긍정감정표현, 부정감정표현, 초점유지, 유예, 확인과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인 부정성, 철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내용에 맞게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관심과 이해의 단일 하위요인만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관심과 이해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해결전략을 말한다. 각 문항은 Likert 식 5점 척도(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갈등해결전략의 관심과 이해에 대한 문항 내적 신뢰도는 강진희(2011)의 연구에서 Cronbach' a .88, 본 연구에서 .94로 나타났다.

3. 프로그램 준비 및 운영

연구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H대학교 대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10명을 실험집단으로, 참가하지 않은 학생 12명을 통제집단으로 배치하였다. 실험집단에는 2019년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주 1회 120분씩 총 4회기에 걸쳐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시작과 종결 당일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4.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주 진행자와 본 연구자가 연애 관련 프로그램 국내연구들(김정순, 2000; 김인옥, 2010; 전지경, 2004; 정여주, 2012; 정혜경, 2002; 최연화, 2011; 최영, 2006)을 바탕으로 집단상담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아 최종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집단 경험이 많은 박사과정 1인과 함께 공동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성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프로그램 구성내용

회기	제목	내용	비고
1	오리엔테이션 및 연애의 본질과 나의 연애 경험	·연애의 본질에 대해 이해한다. ·자신의 연애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의 연애 방식을 돌아켜본다. ·타인의 연애 경험을 듣고 나와 다른 연애 방식에 대해 생각해본다.	사전 검사
	연애편계의 중요성과 나의 연애 신념	·연애편계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자신의 연애편계를 이야기하고 나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수정한다.	
	연애편계 이해와 나의 연애편계 패턴	·연애편계에서의 남녀 차이를 이해한다. ·연애 시 자신의 갈등 경험을 이야기하고 나의 갈등에 대한 태도를 수정한다.	
	나의 연애편계 정리와 앞으로의 연애편계	·연애 과정에서 후회되는 점을 생각해본다. ·연애에 대한 나의 달라진 생각을 정리해본다.	
4	나의 연애편계 정리와 앞으로의 연애편계	·연애 과정에서 후회되는 점을 생각해본다. ·연애에 대한 나의 달라진 생각을 정리해본다.	사후 검사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성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회기에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진행자 소개를 하며 서약서 작성과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다음으로 집단원들의 자기소개 및 별칭 짓기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한다. 또한 연애의 본질 이해를 위해 강의를 진행한 후, 서로의 연애경험을 나누어 자신과 타인의 연애 방식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2회기에서는 연애관의 중요성 이해를 위해 강의를 진행한 후, 서로의 연애관에 대해 나누고 자신의 연애관에 대한 긍정적·부정적인 측면을 파악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자신의 부정적인 연애관에 따른 비합리적인 신념을 수정해보도록 한다. 3회기에서는 연애 시 남녀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강의를 진행한 후, 연애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갈등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갈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와 더불어 자신의 태도를 수정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4회기에서는 연애 과정에서 후회되는 점을 생각해보고, 자신의 연애관을 재정립하여 연애에 대한 생각과 태도 및 앞으로의 연애계획 등을 정리해보도록 한다. 다음으로 롤링페이퍼를 작성하여 집단원 서로에게 칭찬과 조언을 하는 시간을 가진 후,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을 나누며 사후검사 실시로 프로그램을 종결한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의 처리와 분

석은 SPSS(version 21)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 하였다.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측정도구별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사전·사후(연애관계 완벽주의, 갈등해결전략)검사에 적용한 통계 방법은 공변량분석(ANCOVA)을 수행하고 두 군간의 사전점수를 통제한 교정사후점수를 비교하였다.

IV. 연구결과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애관계 완벽주의,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사전-사후검사 통제 집단 설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제집단 12명과 실험집단 10명의 연애관계 완벽주의, 갈등해결 전략에 대한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 사전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두 집단을 비교하는 독립표본 t검정을 각각 실행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 사전 동질성 결과

척도	집단	N	평균	표준 편차	t	p
연애 관계 완벽 주의	통제 집단	12	84.25	9.74	-.08	.94
	실험 집단	10	84.60	10.79		

갈등	통제	12	56.58	9.11	-.76	.46
해결	집단					
전략	실험	10	59.90	11.41		
	집단					

$p>.05$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보기 위한 t 검정의 결과는 연애편호 완벽주의 $p=.46$, 갈등해결전략 $p=.94$ 으로 이는 유의수준 $p>.05$ 에서 두 집단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척도별 집단의 t 값은 연애편호 완벽주의 $t=-.76$, 갈등해결전략 $t=-.08$ 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은 연애편호 완벽주의, 갈등해결전략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동질적인 집단임을 나타낸다.

1. 연애편호 완벽주의의 변화 분석결과

본 프로그램을 실험-통제에 따른 두 집단으로 나누고 프로그램의 전·후의 연애편호 완벽주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표 3> 실험-통제에 따른 사전, 사후, 교정사후 연애편호 완벽주의 기술통계

척도	집단	N	사전 평균 (표준 편차)	사후 평균 (표준편 차)	교정 사후 (표준 편차)
연애 관계 완벽 주의	통제 집단	12	56.58 (9.11)	56.83 (7.61)	57.78 (1.13)
	실험 집단	10	59.90 (11.41)	52.10 (7.19)	50.97 (1.24)

<표 3>에 따르면 실험집단 사전 ‘연애편호 완벽주의’ 평균 점수는 59.90점이

며, 사전 점수를 통제한 교정사후 평균 점수는 50.97점으로 사전 평균 점수보다 하락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의 사전 평균 점수는 56.58점이며 사전 점수를 통제한 교정사후 평균점수는 57.78점으로 실험집단과는 달리 소폭 상승하였다. 실험-통제 집단 간의 연애편호 완벽주의의 통계적 유의미한 변화를 살펴 본 결과 <표 4>와 같다.

<표 4> 실험-통제에 따른 사후 연애편호 완벽주의 공변량 분석 결과

소스	제III유형 제곱합	자유 도	평균 제곱	F	p
수정 모형	937.30	2	468.65	30.97***	.000
GROUP	245.71	1	245.71	16.24**	.001
오차	287.47	19	15.13		
수정 합계	1224.733	21			

** $p<0.01$, *** $p<0.001$

<표 4>에서 보듯이 공변량인 사전 연애편호 완벽주의를 통제하였을 때, 실험집단에서 연애편호 완벽주의는 사전보다 교정 사후에 통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F=16.24$, $p<.01$).

2. 갈등해결전략의 변화 분석결과

본 프로그램을 실험-통제에 따른 두 집단으로 나누고 프로그램의 전·후의 갈등해결전략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표 5> 실험-통제에 따른 사전, 사후, 교정사후 갈등해결전략 기술통계

척도	집단	N	사전 평균 (표준 편차)	사후 평균 (표준 편차)	교정 사후 평균 (표준 편차)
갈등 해결 전략	통제 집단	12	84.25 (9.74)	82.17 (10.17)	82.29 (1.67)
	실험 집단	10	84.60 (10.79)	90.10 (9.60)	89.95 (1.83)

<표 5>에 따르면 실험집단 사전 ‘갈등 해결 전략’ 평균 점수는 84.60점이며, 사전 점수를 통제한 교정사후 평균 점수는 89.95점으로 사전 평균 점수보다 상승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의 사전 평균점수는 84.25점이며, 사전 점수를 통제한 교정사후 평균점수는 82.29점으로 실험집단과 달리 하락하였다.

실험-통제 집단 간의 갈등해결전략의 통계적 유의미한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실험-통제에 따른 사후 갈등해결전략 공변량 분석 결과

소스	제III유형 제곱합	자유 도	평균 제곱	F	p
수정 모형	1674.25	2	837.13	25.02***	.000
GROUP	319.46	1	319.46	9.55**	.006
오차	635.61	19	33.45		
수정 합계	2309.86	21			

** $p < 0.01$, *** $p < 0.001$

<표 6>에서 보듯이 공변량인 사전 갈등해결전략을 통제하였을 때, 실험집단에서 갈등해결전략은 사전보다 교정 사

후에 통제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F=9.55$, $p < .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를 연구하고자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안하였고, 연애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해하고 자신의 연애를 돌아보며 나아가 자신과 상대방을 이해하여 연애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대상은 대학생 22명을 통제집단 12명, 실험집단 10명으로 설정하여 대학생의 연애관계 완벽주의와 갈등해결전략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험 처치를 받은 실험집단이 실험 처치를 받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연애관계 완벽주의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연애관계 완벽주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애 관련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연애관계 완벽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고성식, 2007; 최연화, 2011)과 일치한다.

본 연구의 프로그램이 연애관계 완벽주의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일 수 있었던 프로그램 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회기에 실험집단의 구

성원들은 연애 및 사랑의 본질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연애 및 사랑은 무엇인지 생각해봄으로써 자신이 가진 연애편계 및 신념을 이해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2회기에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연애 및 사랑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연애편계와 신념을 생각해왔고, 연애 및 신념을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연애편계 및 신념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검토해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자신의 평소 연애에 대한 태도를 되짚어 보고 교정해볼 수 있었다.

이는 자신의 연애편계 및 신념을 알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함으로써 연애편계 완벽주의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연애편계 완벽주의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하겠다.

둘째,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험 처치를 받은 실험집단이 실험 처치를 받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해 갈등해결전략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갈등해결전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애 관련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갈등해결전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들(차승희, 1993; 전지경, 2004; 임영철, 2006; 김숙기, 2010; 정여주, 2012; 윤효숙, 2016)과 일치한다.

2회기에는 남녀의 차이에 대해 이해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생

각하게 해봄으로써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와 상대방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램이 남녀 차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3회기에 갈등을 다루는 방식들을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되었고, 갈등 상황에서의 자신의 태도를 되짚어 보도록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갈등 발생 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신의 갈등에 대한 태도를 알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볼 수 있게 함으로써 갈등해결전략을 재구성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갈등해결전략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연애편계 완벽주의와 갈등해결전략의 긍정적인 변화를 도와 연애편계의 질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성인기 초기로서의 발달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점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연애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4회기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이보다 더 많은 회기로 구성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구안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소재의 H대학교 학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

로 대학교별 대학생을 대상으로 효과성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은 연애편제 완벽주의와 갈등 해결전략의 긍정적인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연애편제 완벽주의와 갈등 해결전략의 향상에 동기가 있는 대상을 모집하여 본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연구 대상에게 연애편제 완벽주의와 갈등 해결전략의 추후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을 종결하고 일정 기간 후에 추후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강진희 (2011). 남녀 대학생의 교제 유형, 정서경험특성, 갈등 해결전략 및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관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지영 (2009). 성인 미혼남녀의 이성관계에서 애착유형과 자존감이 갈등 해결전략과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순 (2000). 사랑학습 프로그램이 교제 중인 대학생의 이성 관계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나리 (2002). 대학생의 이성 관계에서 애착이 갈등 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기분 조절 기대치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나영, 김향숙 (2018). 대학생의 이성관계 완벽주의와 이성관계 만족도 간 관계에서 자기노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여성, 23(4), 633-651.

김민정 (2016). 대학생의 불안정 애착과 이성관계 갈등 해결전략 간의 관계 :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민정, 조민아 (2017). 대학생의 성인 애착과 연인관계에서 부정적 갈등 해결전략 간의 관계: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인간이해, 38(2), 181-202.

김은지 (1997). 이성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교제중인 미혼남녀의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인옥 (2010). 대학생 이성관계형성 자기효능감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지현 (2017). 남녀 대학생의 행동억제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다차원적 완벽주의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향숙 (2001). 대학생의 애착, 사랑유형에 따른 성행동.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희경, 심혜숙, 이동훈 (2013).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정서인식 명확성과

-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한국계 슈탈트상담연구**, 2, 1-21.
- 노현숙 (2006). **낙관성과 스트레스지각이 갈등해결양식 및 이성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승민, 이수원 (1993). 갈등관리훈련을 통한 갈등대처행동의 인지적 구성변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5(1), 90-117.
- 박은영 (2003). **이성관계 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 연인간 의사소통과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은주, 이지연 (2016). 이성관계 완벽주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7(2), 61-79.
- 안자경 (2008). **성인의 애착과 갈등해결 전략 간의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명숙, 전지경 (2004). 대학생 커플의 관계증진을 위한 통합적 집단 프로그램 개발연구-한남 통합적 커플 프로그램 : 우리 커플 이대로 좋을까요?-. **상담학연구**, 5(3), 561-582.
- 양윤영 (2018).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대처방식의 조절효과**.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영웅 (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에와 이성관계불만족의 관계: 평가염려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성원, 김미소, 양난미 (2014).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1), 292-292.
- 이성원, 양난미 (2015).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4), 225-244.
- 이성은 (2010). **대학생의 역기능적 완벽주의 및 초기부적응도식과 정신건강 문제와의 관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서수균 (2011). 비합리적 신념과 이성관계 만족도 사이에서 부적응적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일반**, 30(3), 775-791.
- 장춘미 (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 지지 및 갈등해결행동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여주 (2012). **대학생 연인관계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1), 169-191.
- 정혜경 (2002). **사랑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연화 (2011). **원가족 애착을 중심으로한 대학생 커플관계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분석**.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영 (2006). **현실치료를 적용한 커플**

- 관계 증진 집단상담이 대학생 커플의 내적통제성과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서울불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예정 (2019).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성인 자녀의 대인관계양상에서 이성관계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rcuri, A. (2013). Dyadic perfectionism, communication pattern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couples.
- Arellano, C. M., & Markman, H. J. (1995). The Managing Affect and Differences Scale (MADS): A self-report measure assessing conflict management in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9(3), 319.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2), 226.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90). Attributions in marriage: Review and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107(1), 3.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ember, 34-52
- Chang, E. C., & Sanna, L. J. (2001). Optimism, pessimism, and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in middle-aged adults: A test of a cognitive-affective model of psychological adjustment. *Psychology and aging*, 16(3), 524.
- Cramer, D. (2000).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nflict style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4(3), 337-341.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Selected papers.
- Fincham, F. D., & Bradbury, T. N. (1992). Assessing attributions in marriage: the relationship attribution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3), 457.
- Flett, J. (Ed.). (1998). *Collision crossroads: the intersection of modern Western culture with the Christian gospel*. DeepSight Trust.
- Flett, G. L., Hewitt, P. L., & De Rosa, T. (1996). Dimensions of perfectionism, psychosocial adjustment, and social skil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2), 143-150.
- Flett, G. L., Hewitt, P. L., Shapiro, B., & Rayman, J. (2001). Perfectionism, beliefs, and adjustment in dating relationships. *Current Psychology*, 20(4), 289-311.
- Furman, C. R., Luo, S., & Pond Jr, R.

- S. (2017). A perfect blame: Conflict-promoting attributions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forgiveness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1*, 178-186.
- Lloyd, S. A., & Cate, R. M. (1985). Attributions associated with significant turning points in premarital relationship development and dissolu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 419-436.
- Matte, M., & Lafontaine, M. F. (2012). Assessment of romantic perfectionism: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romantic relationship perfectionism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45*(2), 113-132.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4), 386.
- Pollard, A. (1985). *The social world of the primary school*. Taylor & Francis.
- Shea, A. J., Slaney, R. B., & Rice, K. G. (2006). Perfectionism in intimate relationships: The dyadic almost perfec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9*(2), 107-125.
- Slaney, R. B., Pincus, A. L., Uliaszek, A. A., & Wang, K. T. (2006). Conceptions of perfection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 Evaluating groups using the structural summary method for circumplex data. *Assessment, 13*(2), 138-153.
- Unger, J. (1998). Cultural revolution conflict in the villages. *The China Quarterly, 153*, 82-106.

<Abstract>

The Effect of a Romance Group Counseling Program on Romantic Relationship Perfectionism and Conflict Solving Strategy of College Students

Jeon, Seok kyeong

Gunpo Counseling and Welfare Center for Youth

Kim, Hee Sue

Hansei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verify the effect of a romantic relationship group counseling program on college students' perfectionism about relationship and conflict solving strategies. To this end, first reviewed were prior researches related to program development as well as preliminary programs were conducted, and a romantic relationship perfectionism scale and a conflict solving strategy scale were used to verify the purpose. The program consisted of 120 minutes per session once a week and was conducted for four weeks. The effect of the program was measured through pre- and post-tes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1.0 statistical program, and the statistical method applied to the pre- and post-test was ANCOVA, which compared the post-calibration scores through the controled prior scores of the two groups. As a result, first, the experimental group that participated in the romantic relationship group counseling program showed a significant change in the relationship perfectionism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Second, the experimental group that participated in the romantic relationship group counseling program showed a significant change in the conflict solving strateg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rough the research, it is significant in that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helped college students change the attitudes towards their romantic relationship perfectionism and change conflict solving strategies, improving the quality of love relationships, and consequently providing assistance in performing development tasks as early adulthood.

Keyword : *College students, Romanic relationship, Romanic relationship group counseling program, Romantic Relationship Perfectionism, Conflict Solving Strategy*

목 차

I. 서론	69
II. 연구방법	70
1. 조사대상	70
2. 조사도구 및 내용	70
3. 조사기간 및 절차	70
4. 자료 분석 방법	70
III. 연구결과	72
1. 개인신상 관련	72
2. 가정생활 관련	90
3. 기타 생활	100
4. 대학 생활	104
5.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	140
6. 이성 및 성 관련	146
7. 상담센터 관련	154
8. 자살 관련	176
IV. 결론	188
<부 록>	
2022학년도 신입생 설문 조사서	194
2021학년도 학생상담센터 활동 현황	198
2022학년도 학생상담센터 운영 현황	204
학생생활연구 발간 및 투고 규정	206

표 목차

<표 1> 성별 분포	72
<표 2> 연령 분포	74
<표 3> 건강상태 만족도	76
<표 4> 대인관계 만족도	78
<표 5> 자신의 성격 만족도	80
<표 6> 자신의 외모 만족도	82
<표 7> 흡연 경험	84
<표 8> 음주 경험	86
<표 9> 연애 경험	88
<표 10> 출신 고교 소재지	90
<표 11> 고교 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	92
<표 12> 본인의 종교	94
<표 13> 가정의 분위기	96
<표 14> 가정에 대해 가장 불편한 점	98
<표 15> 재수경험	100
<표 16> 군 입대 예정시기	102
<표 17> 대학 진학 동기	104
<표 18>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고 지원하였는가	106
<표 19> 본교를 알게 된 경로	108
<표 20> 학교의 만족도	110
<표 21> 불만족 시 앞으로의 계획	112
<표 22> 학부 선택에 결정적 요인	114
<표 23> 학부에 대한 사전 지식	116
<표 24> 학부의 결정시기	118
<표 25> 전공 선택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기 원하는 도움	120
<표 26> 복수전공의 이수용의	122
<표 27>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신청 여부	124

<표 28>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	126
<표 29>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128
<표 30> 졸업 후 진로계획	130
<표 31> 직업 선택 시 제일 먼저 고려할 점	132
<표 32>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 가장 원하는 것	134
<표 33> 대학 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	136
<표 34> 졸업 후 진로 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138
<표 35>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140
<표 36> 스마트폰의 주된 용도	142
<표 37> 인터넷의 주된 용도	144
<표 38>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경험 여부	146
<표 39>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대응방법	148
<표 40> 성폭력의 대처 방법에 대한 지식	150
<표 41> 성교육을 통해 가장 알고 싶은 것	152
<표 42> 외로움	154
<표 43> 불안	156
<표 44> 분노	158
<표 45> 우울·무기력	160
<표 46> 자살 충동	162
<표 47> 심리상담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 있는가?	164
<표 48> 심리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가?	166
<표 49>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168
<표 50> 문제 발생 시 의논 상대	170
<표 51> 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것	172
<표 52> 상담센터 이용 시 받고 싶은 검사	174
<표 53> 과거 또는 최근 자살에 관한 생각	176
<표 54>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문제	178
<표 55>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때 진행 정도	180
<표 56> 자살 충동이 있을 때의 대처 방법	182
<표 57> 전 문항에서 사용한 대처 방법의 효과	184
<표 58>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가?	186

2022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오 영 금¹⁾

I. 서론

신입생들은 대학입학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기존의 의존적이고 통제된 생활환경에서 벗어나게 되고, 비교적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동시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감 또한 느끼게 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신입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다양한 과제로 인해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며, 자신과 사회에 대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시도하기도 한다. 특히 4년간의 대학 생활을 통해 자율적인 학업, 폭넓은 대인관계 형성, 자신의 적성과 흥미 그리고 노력에 따른 적합한 진로선택 등의 과업이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과업을 순조롭게 해나가려면 신입생들이 자신의 심리적 특성 등을 탐색하고 이해하여 깊이 있는 자기이해와 자기수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대학 생활의 적응력과 대인관계를 향상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힘을 키우고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신입생들이 이러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대학 생활의 적응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적절한 지원과 교육 제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한세대학교 학생상담센터는 매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특성과 심리적 특성, 전반적인 대학 생활 만족도, 대학 생활 적응도 등을 알아보는 신입생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신입생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입생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조사 보고서는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정 편성, 학생들의 복지와 학사정책 수립, 학생상담과 지도, 학생들의 자기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올해에도 신입생들의 적응실태와 신입생들의 특성 및 의식을 파악한 신입생 실태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 수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전략을 세우며,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사지도와 진로 및 취업지도 그리고 인성 지도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한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학과 석사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설문조사는 2022학년도 한세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379명의 반응이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체 신입생(10월 1일 기준) 477명의 약 79.5%에 해당된다. 응답자의 성별구성 및 학부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2. 조사도구 및 내용

본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도구는 2021년 신입생 실태조사에서 사용했던 설문지를 현재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신입생의 일반적 특성, 가정생활, 기타 생활, 대학 생활, 인터넷 사용, 이성 및 성(性) 관련, 그리고 학생상담센터 이용, 자살 관련 문항으로 8개 영역에 걸쳐, 총 55문항(하위 문항 제외)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항들의 주된 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개인 신상 관련 :

- | | | | |
|----------|------------|------------|-----------|
| (1) 학부 | (2) 성별 | (3) 연령 | (4) 건강 상태 |
| (5) 대인관계 | (6) 자신의 성격 | (7) 자신의 외모 | (8) 흡연 |
| (9) 음주 | (10) 연애 | | |

2) 가정생활 관련 :

- | | | |
|--------------|----------------------|------------|
| (1) 출신고교 소재지 | (2)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 | (3) 본인의 종교 |
| (4) 가정의 분위기 | (5) 가정에 대해 가장 불편한 점 | |

3) 기타 생활 관련 :

- | | |
|-----------|----------------|
| (1) 재수 경험 | (2) 군 입대 예정 시기 |
|-----------|----------------|

4) 대학 생활 관련 :

- | | |
|----------------------------------|--------------------------|
| (1) 대학진학 동기 | (2) 기독교 학교에 대한 사전지식 |
| (3) 본교를 알게 된 경로 | (4) 학교의 만족도 |
| (5) 불만족 시 향후 계획 | (6) 학부 선택의 결정요인 |
| (7) 학부에 대한 사전지식 | (8) 학부의 결정 시기 |
| (9) 2학년 진학 시 전공 선택에 있어 도움받고 싶은 것 | |
| (10) 복수전공의 이수용의 | (11)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신청 여부 |
| (12) 교수에게서 가장 기대하는 것 | (13) 대학 생활에서 가장하고 싶은 것 |
| (14)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 | (15) 직업 선택 시 제일 먼저 고려할 점 |
| (16) 취업에 대해 학교에 가장 원하는 것 | (17) 대학 생활 중 걱정되는 것 |
| (18) 졸업 후 진로 결정에 관해 가장 어려운 점 | |

5)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 관련 :

- (1)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 (2) 스마트폰 사용의 주된 용도
- (3) 인터넷 사용의 주된 용도

6) 이성 및 성(性) 관련 :

- (1)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의 경험 여부
- (2)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대응 방법
- (3) 성폭력의 대처 방법에 대한 지식
- (4) 성교육을 통해 가장 알고 싶은 것

7) 상담센터 관련:

- (1) 최근 3개월간의 심리적 상태
- (2) 심리상담가의 필요 여부
- (3) 심리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 (4)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 (5) 문제 발생 시 의논 상대
- (6) 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영역
- (7) 상담센터 이용 시 원하는 서비스

8) 자살 관련:

- (1) 과거 또는 최근 자살 생각의 유무
- (2) 자살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
- (3) 자살 생각이나 충동 시 진행 정도
- (4) 자살 충동 시 대처 방법
- (5) 사용한 대처 방법의 효과
- (6) 자살 생각하는 사람을 도움 방법

3. 조사 기간 및 절차

본 조사는 COVID-19로 인해 설문조사가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차는 2022년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2차는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 작성 절차는 대면 설문지 배포의 어려움으로 인해 구글의 설문지를 사용하여 신입생에게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Raw Data)는 IBM SPSS Statistics 21를 활용하여 문항별 반응 빈도와 성별, 학부별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개인 신상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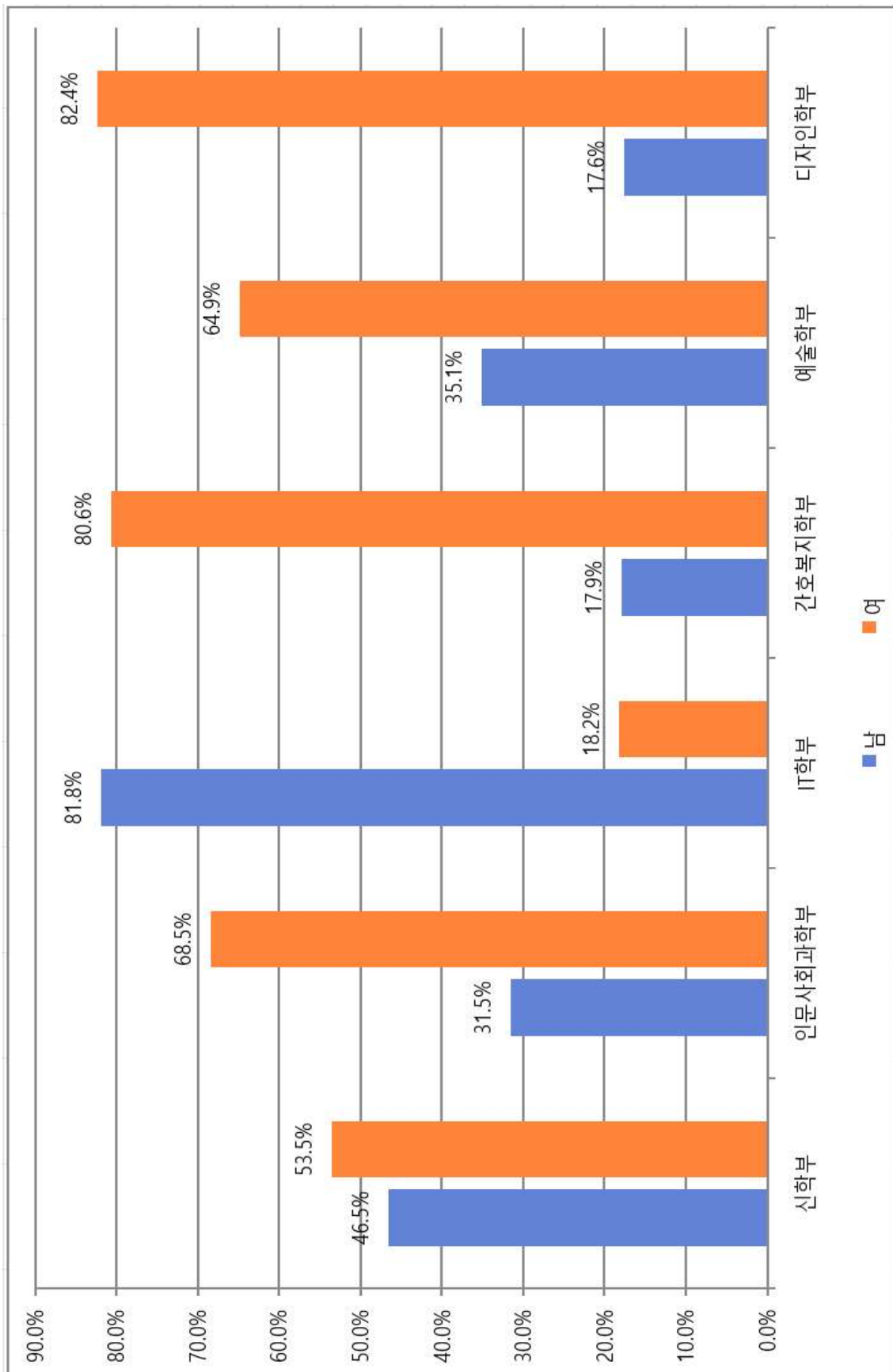
1) 성별 분포

신입생 전체 응답자 379명 중 설문에 가장 많이 참여한 학부는 인문사회과학부(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참여율은 표와 같이 남학생 35.4%, 여학생 64.4%, 기타 0.3%의 참여율을 보였다. 전년도 비율(남녀 각각 33.9%, 66.1%)과 비교했을 때 여학생의 비율이 조금 낮아진 반면, 남학생의 비율은 다소 높아졌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학부별 남녀비율을 보면, 남학생은 IT학부(81.8%)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신학부(46.5%), 예술학부(35.1%)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부는 디자인학부(82.4%), 간호복지학부(80.6%), 인문사회과학부(68.5%) 순이었다.

<표 1> 성별 분포

단위: 명, %

	남	여	기타	전체
신학부	20	23	0	43
	46.5%	53.5%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29	63	0	92
	31.5%	68.5%	0.0%	100.0%
IT학부	45	10	0	55
	81.8%	18.2%	0.0%	100.0%
간호복지학부	12	54	1	67
	17.9%	80.6%	1.5%	100.0%
예술학부	13	24	0	37
	35.1%	64.9%	0.0%	100.0%
디자인학부	15	70	0	85
	17.6%	82.4%	0.0%	100.0%
전체	134	244	1	379
	35.4%	64.4%	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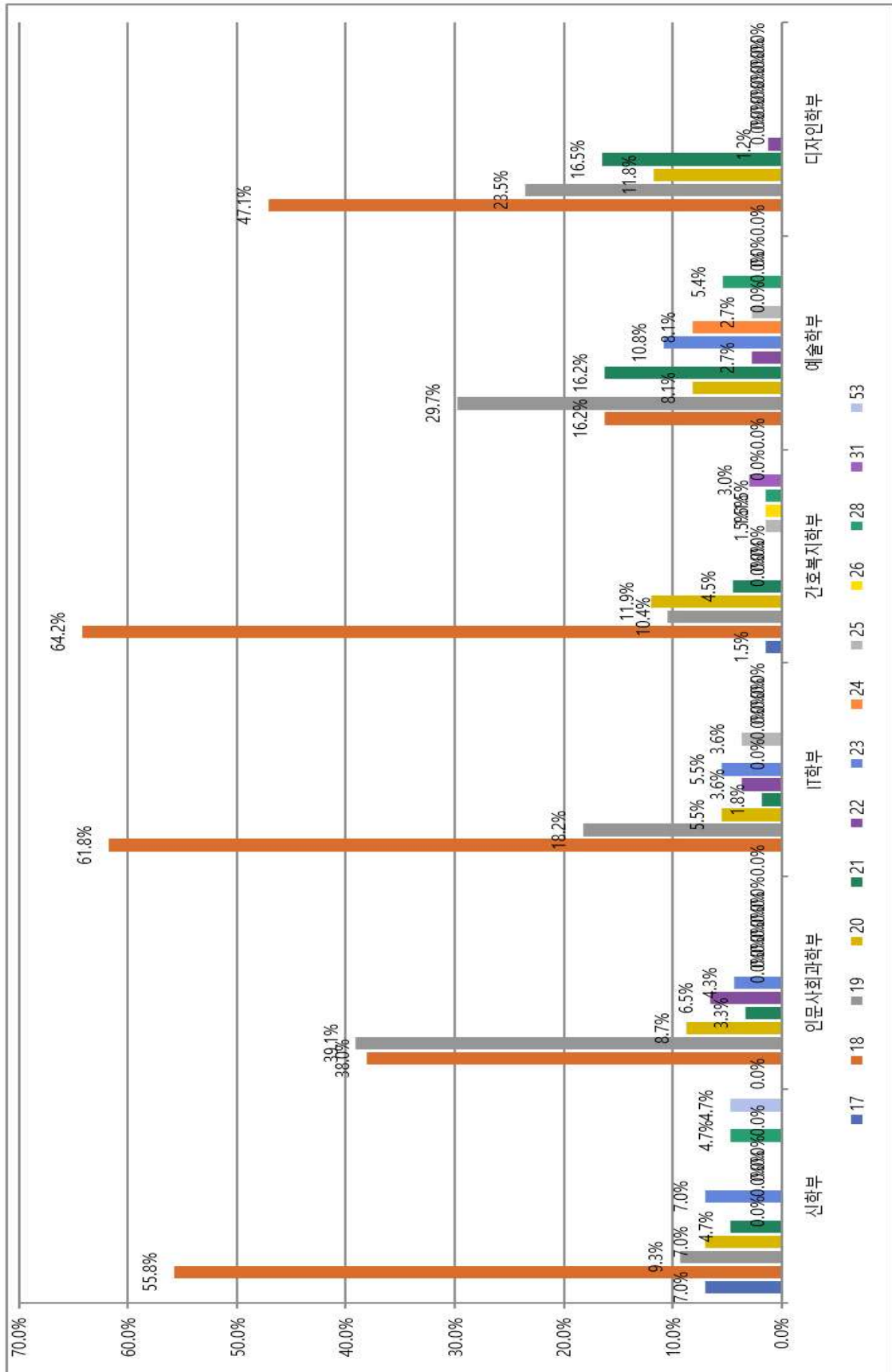
2) 연령 분포

2022학년도 신입생들의 연령 분포를 확인한 결과 만 18세(48.0%)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만 19세(23.2%) 순이며, 31세와 53세의 신입생이 각각 두 명이 있는 특이점을 보였다. 만 18세인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간호복지학부(64.2%), IT학부(61.8%), 신학부(55.8%)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만 18세에 해당하는 남학생(56.0%)이 여학생(43.4%)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 연령 분포

단위: 명,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31	53	전체
남	0	75	23	6	7	6	11	1	2	0	3	0	0	134
	0.0%	56.0%	17.2%	4.5%	5.2%	4.5%	8.2%	0.7%	1.5%	0.0%	2.2%	0.0%	0.0%	100.0%
여	4	106	65	29	22	4	3	2	2	1	2	2	2	244
	1.6%	43.4%	26.6%	11.9%	9.0%	1.6%	1.2%	0.8%	0.8%	0.4%	0.8%	0.8%	0.8%	100.0%
기타	0	1	0	0	0	0	0	0	0	0	0	0	0	1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3	24	4	3	2	0	3	0	0	0	2	0	2	43
	7.0%	55.8%	9.3%	7.0%	4.7%	0.0%	7.0%	0.0%	0.0%	0.0%	4.7%	0.0%	4.7%	100.0%
인문 사회 과학부	0	35	36	8	3	6	4	0	0	0	0	0	0	92
	0.0%	38.0%	39.1%	8.7%	3.3%	6.5%	4.3%	0.0%	0.0%	0.0%	0.0%	0.0%	0.0%	100.0%
IT학부	0	34	10	3	1	2	3	0	2	0	0	0	0	55
	0.0%	61.8%	18.2%	5.5%	1.8%	3.6%	5.5%	0.0%	3.6%	0.0%	0.0%	0.0%	0.0%	100.0%
간호 복지 학부	1	43	7	8	3	0	0	0	1	1	1	2	0	67
	1.5%	64.2%	10.4%	11.9%	4.5%	0.0%	0.0%	0.0%	1.5%	1.5%	1.5%	3.0%	0.0%	100.0%
예술 학부	0	6	11	3	6	1	4	3	1	0	2	0	0	37
	0.0%	16.2%	29.7%	8.1%	16.2%	2.7%	10.8%	8.1%	2.7%	0.0%	5.4%	0.0%	0.0%	100.0%
디자인 학부	0	40	20	10	14	1	0	0	0	0	0	0	0	85
	0.0%	47.1%	23.5%	11.8%	16.5%	1.2%	0.0%	0.0%	0.0%	0.0%	0.0%	0.0%	0.0%	100.0%
전체	4	182	88	35	29	10	14	3	4	1	5	2	2	379
	1.1%	48.0%	23.2%	9.2%	7.7%	2.6%	3.7%	0.8%	1.1%	0.3%	1.3%	0.5%	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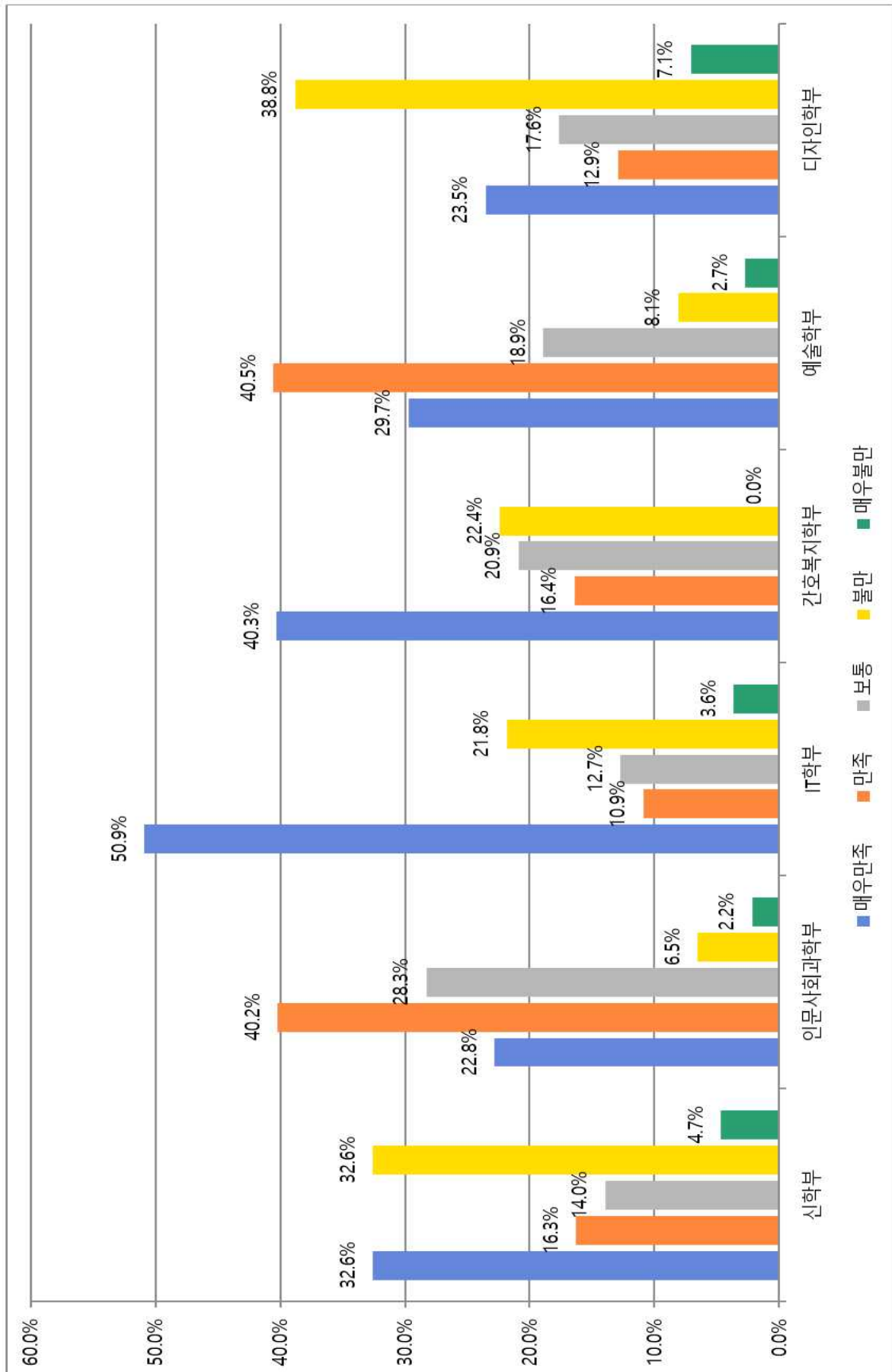
3) 건강 상태

신입생 중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만족(23.0%), 불만(21.9%) 순이다. 매우 만족이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50.9%), 간호복지학부(40.3%), 신학부(32.6%) 순이며,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이(39.6%)이 여학생(27.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 건강 상태 만족도

단위: 명,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전체
남	53	27	24	27	3	134
	39.6%	20.1%	17.9%	20.1%	2.2%	100.0%
여	68	59	51	56	10	244
	27.9%	24.2%	20.9%	23.0%	4.1%	100.0%
기타	0	1	0	0	0	1
	0.0%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14	7	6	14	2	43
	32.6%	16.3%	14.0%	32.6%	4.7%	100.0%
인문사회과학부	21	37	26	6	2	92
	22.8%	40.2%	28.3%	6.5%	2.2%	100.0%
IT학부	28	6	7	12	2	55
	50.9%	10.9%	12.7%	21.8%	3.6%	100.0%
간호복지학부	27	11	14	15	0	67
	40.3%	16.4%	20.9%	22.4%	0.0%	100.0%
예술학부	11	15	7	3	1	37
	29.7%	40.5%	18.9%	8.1%	2.7%	100.0%
디자인학부	20	11	15	33	6	85
	23.5%	12.9%	17.6%	38.8%	7.1%	100.0%
전체	121	87	75	83	13	379
	31.9%	23.0%	19.8%	21.9%	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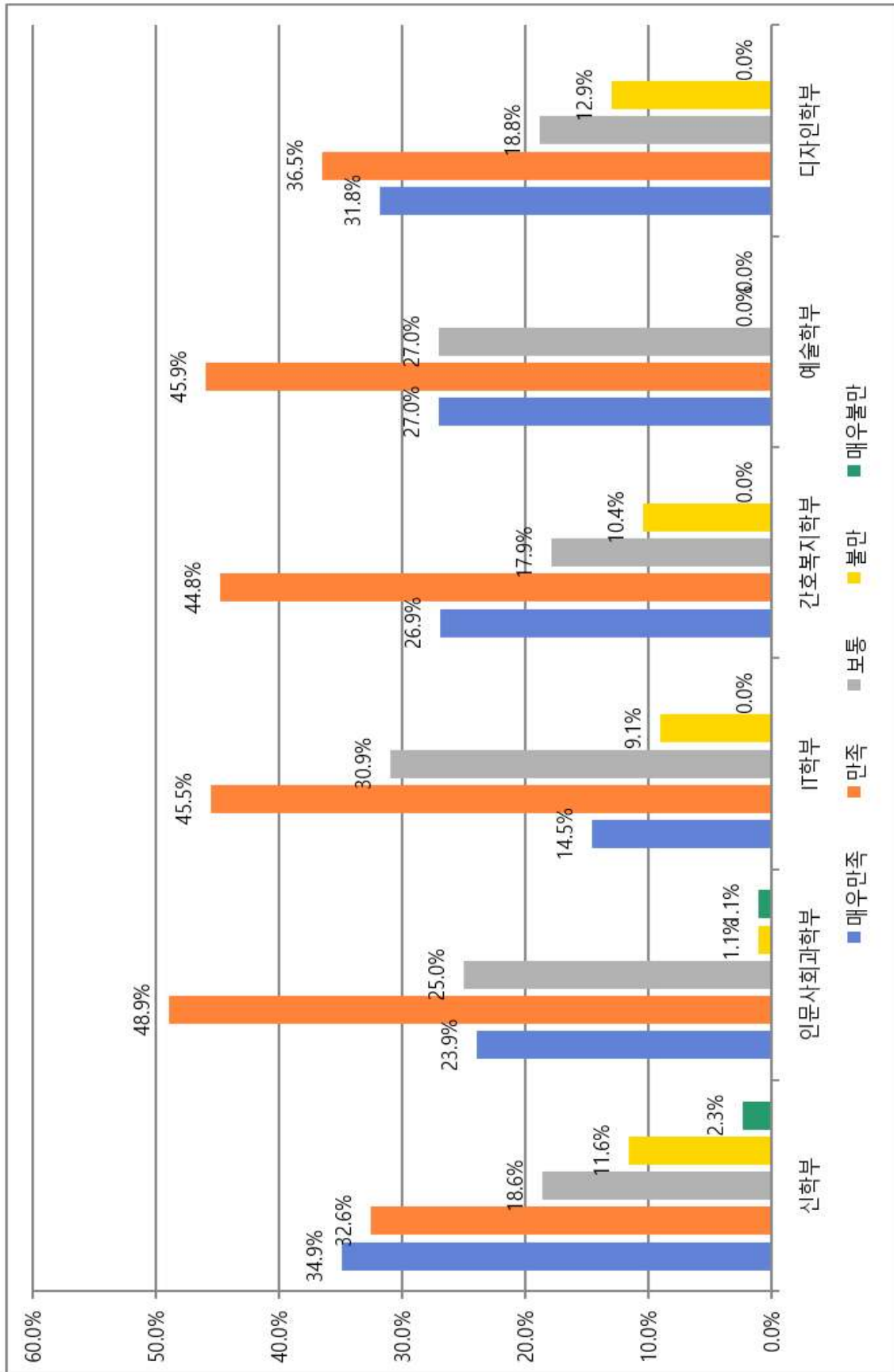
4) 대인관계

신입생들의 대인관계에 대해 만족(42.7%)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매우 만족(26.4%), 보통(22.7%) 순이다. 만족(매우 만족, 만족) 이상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학부는 예술학부(72.9%)며, 그다음으로 인문사회과학부(72.8%), 간호복지학부(71.7%) 순이다. 전년도 대인관계 만족(매우 만족, 만족)은 81.0%였으나 올해는 69.1%로 매우 낮아져 전년도보다 대인관계 만족도가 큰 폭으로 낮아졌다.

<표 4> 대인관계 만족도

단위: 명,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전체
남	33	51	38	11	1	134
	24.6%	38.1%	28.4%	8.2%	0.7%	100.0%
여	66	111	48	18	1	244
	27.0%	45.5%	19.7%	7.4%	0.4%	100.0%
기타	1	0	0	0	0	1
	10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15	14	8	5	1	43
	34.9%	32.6%	18.6%	11.6%	2.3%	100.0%
인문사회과학부	22	45	23	1	1	92
	23.9%	48.9%	25.0%	1.1%	1.1%	100.0%
IT학부	8	25	17	5	0	55
	14.5%	45.5%	30.9%	9.1%	0.0%	100.0%
간호복지학부	18	30	12	7	0	67
	26.9%	44.8%	17.9%	10.4%	0.0%	100.0%
예술학부	10	17	10	0	0	37
	27.0%	45.9%	27.0%	0.0%	0.0%	100.0%
디자인학부	27	31	16	11	0	85
	31.8%	36.5%	18.8%	12.9%	0.0%	100.0%
전체	100	162	86	29	2	379
	26.4%	42.7%	22.7%	7.7%	0.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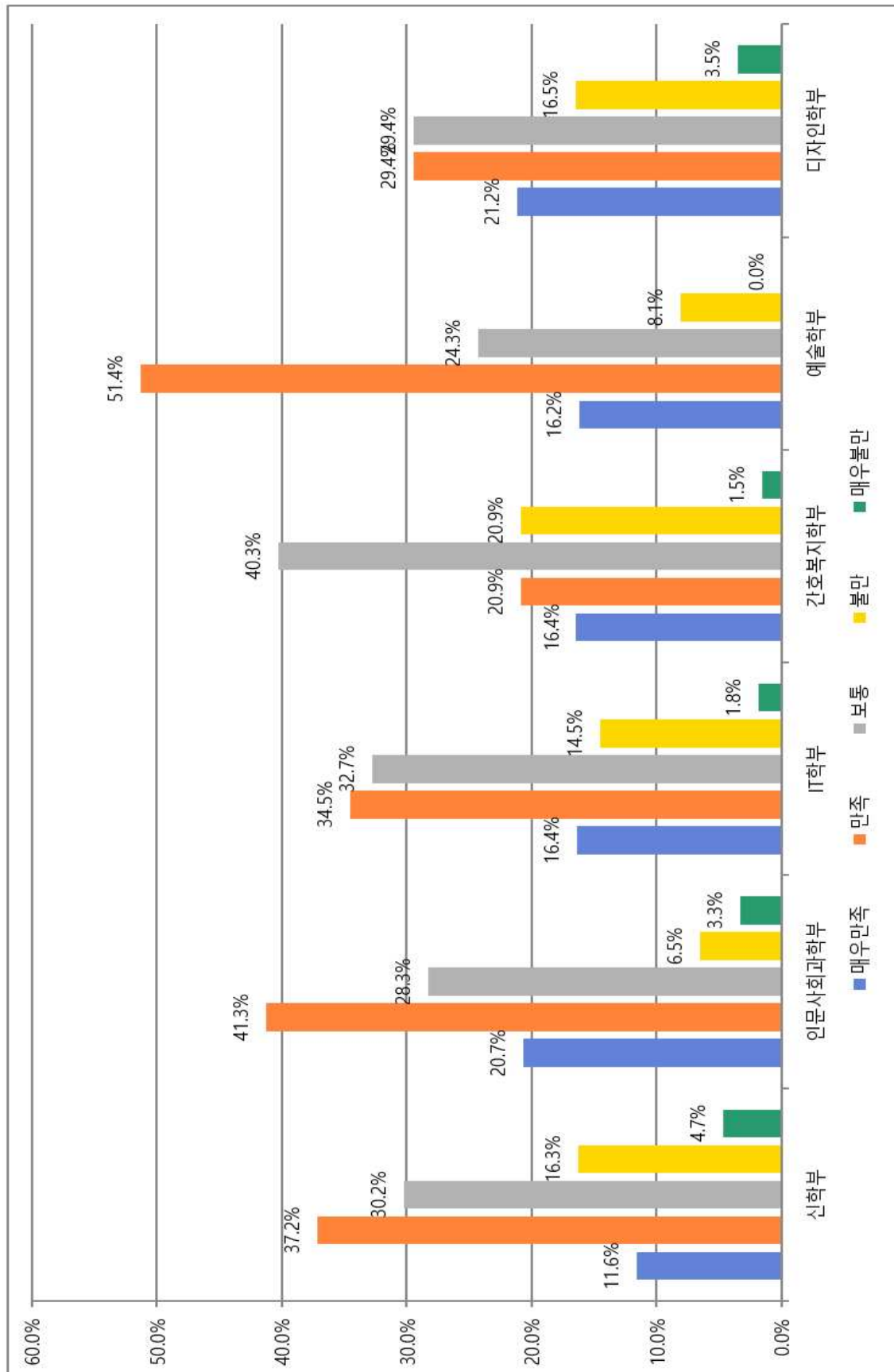
5) 자신의 성격

신입생들이 자신의 성격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본 결과, 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은 보통(31.1%), 매우 만족(17.9%)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자신의 성격을 만족 이상(매우 만족,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예술학부(67.6%), 인문사회과학부(62%), IT학부(50.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만족(매우 만족, 만족)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59.7%)이 여학생(48.7%)보다 더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5> 자신의 성격 만족도

단위: 명,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전체
남	24	56	39	13	2	134
	17.9%	41.8%	29.1%	9.7%	1.5%	100.0%
여	44	75	78	39	8	244
	18.0%	30.7%	32.0%	16.0%	3.3%	100.0%
기타	0	0	1	0	0	1
	0.0%	0.0%	100.0%	0.0%	0.0%	100.0%
신학부	5	16	13	7	2	43
	11.6%	37.2%	30.2%	16.3%	4.7%	100.0%
인문사회과학부	19	38	26	6	3	92
	20.7%	41.3%	28.3%	6.5%	3.3%	100.0%
IT학부	9	19	18	8	1	55
	16.4%	34.5%	32.7%	14.5%	1.8%	100.0%
간호복지학부	11	14	27	14	1	67
	16.4%	20.9%	40.3%	20.9%	1.5%	100.0%
예술학부	6	19	9	3	0	37
	16.2%	51.4%	24.3%	8.1%	0.0%	100.0%
디자인학부	18	25	25	14	3	85
	21.2%	29.4%	29.4%	16.5%	3.5%	100.0%
전체	68	131	118	52	10	379
	17.9%	34.6%	31.1%	13.7%	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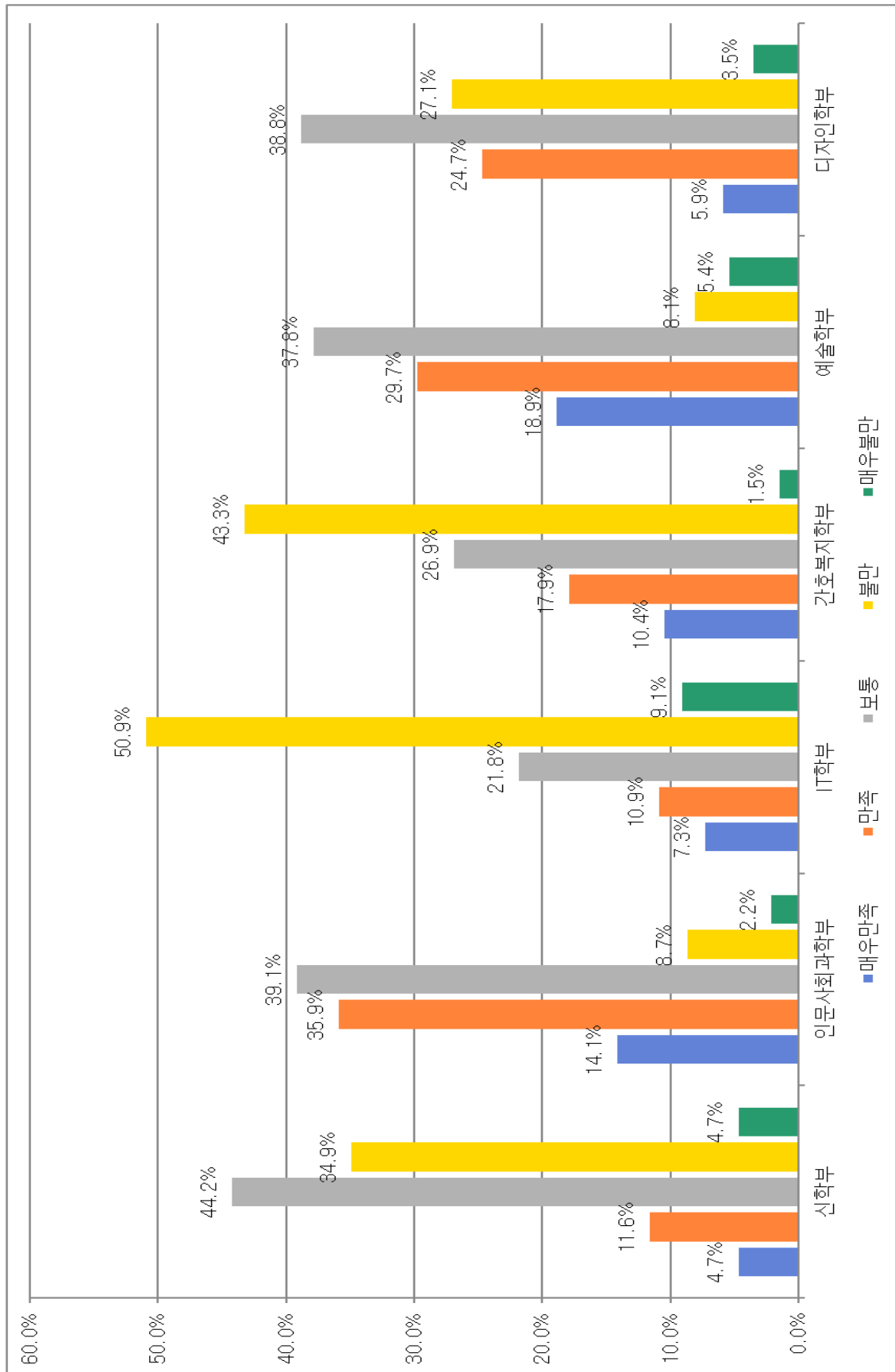
6) 자신의 외모

신입생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4.8%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불만(28.0%), 만족(23.2%) 순이었다. 보통이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신학부(44.2%), 인문사회학부(39.1%), 디자인학부(38.8%)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35.8%, 여학생 34.4%가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특이점은 전년도에 불만(불만, 매우 불만)으로 응답한 비율은 8.7%이고 올해는 32.0%로 약 네 배가 올라 외모에 불만족을 느끼는 비율이 크게 상승하였다.

<표 6> 자신의 외모 만족도

단위: 명, %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전체
남	13	30	48	39	4	134
	9.7%	22.4%	35.8%	29.1%	3.0%	100.0%
여	25	58	84	66	11	244
	10.2%	23.8%	34.4%	27.0%	4.5%	100.0%
기타	0	0	0	1	0	1
	0.0%	0.0%	0.0%	100.0%	0.0%	100.0%
신학부	2	5	19	15	2	43
	4.7%	11.6%	44.2%	34.9%	4.7%	100.0%
인문사회과학부	13	33	36	8	2	92
	14.1%	35.9%	39.1%	8.7%	2.2%	100.0%
IT학부	4	6	12	28	5	55
	7.3%	10.9%	21.8%	50.9%	9.1%	100.0%
간호복지학부	7	12	18	29	1	67
	10.4%	17.9%	26.9%	43.3%	1.5%	100.0%
예술학부	7	11	14	3	2	37
	18.9%	29.7%	37.8%	8.1%	5.4%	100.0%
디자인학부	5	21	33	23	3	85
	5.9%	24.7%	38.8%	27.1%	3.5%	100.0%
전체	38	88	132	106	15	379
	10.0%	23.2%	34.8%	28.0%	4.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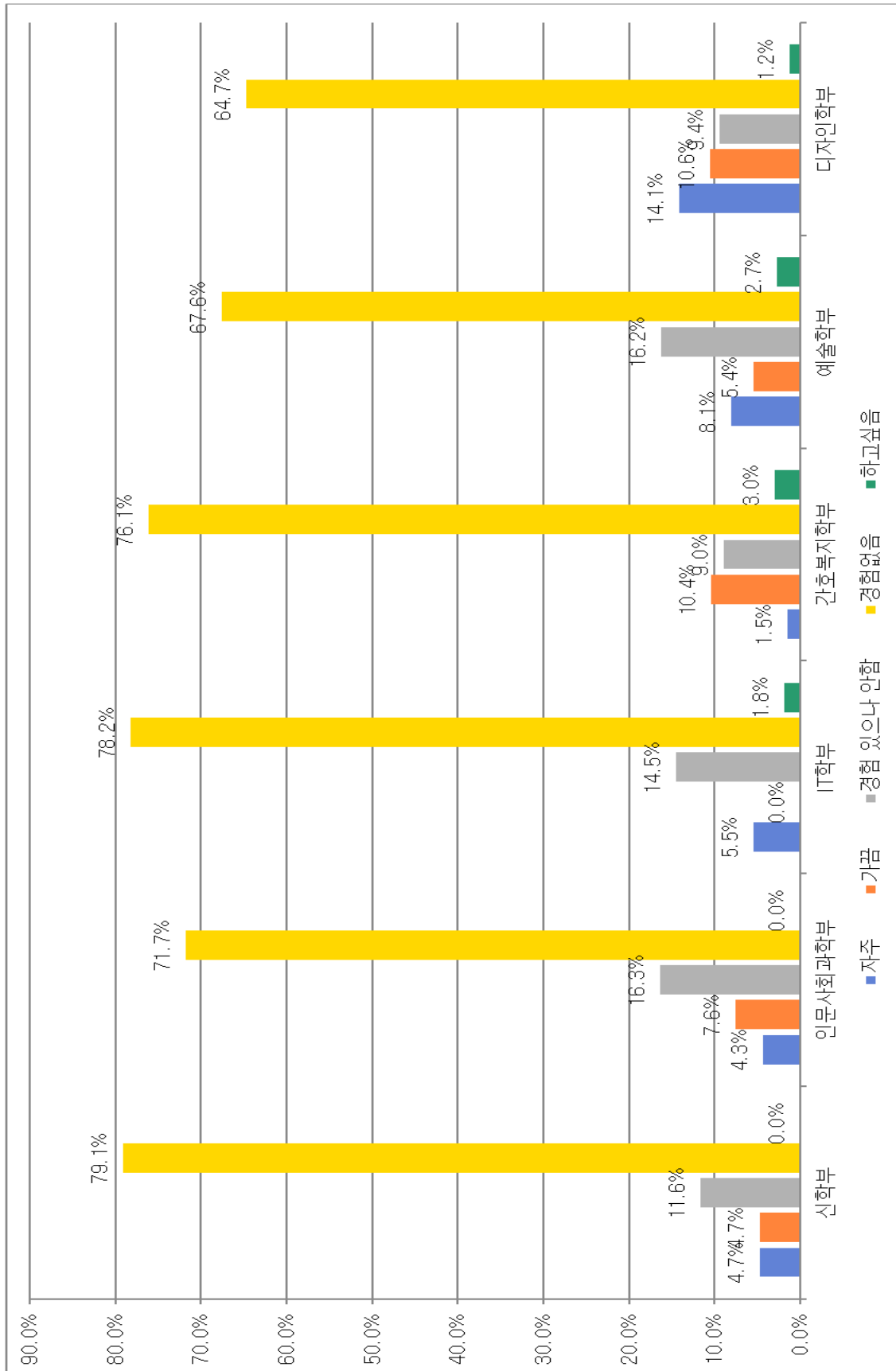
7) 흡연

신입생의 흡연 경험 정도를 알아보면, 전체 응답자의 72.3%가 경험이 없음이라고 응답했고 현재 흡연을 하는 학생(자주, 가끔)은 13.7%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현재 흡연을 하는 학생(자주, 가끔)은 디자인학부(24.7%), 예술학부(13.5%), 인문사회과학부(11.9%) 순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흡연 경험이 없는 학생은 신학부(79.1%), IT학부(78.2%), 간호복지학부(76.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70.1%, 여학생 73.4%가 경험 없음으로 응답했으며, 이는 작년보다 남학생(61.2%)은 높아졌고, 여학생(80.7%)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흡연 경험

단위: 명, %

	자주	가끔	경험 있으나 안 함	경험 없음	하고 싶음	전체
남	8	7	22	94	3	134
	6.0%	5.2%	16.4%	70.1%	2.2%	100.0%
여	17	20	26	179	2	244
	7.0%	8.2%	10.7%	73.4%	0.8%	100.0%
기타	0	0	0	1	0	1
	0.0%	0.0%	0.0%	100.0%	0.0%	100.0%
신학부	2	2	5	34	0	43
	4.7%	4.7%	11.6%	79.1%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4	7	15	66	0	92
	4.3%	7.6%	16.3%	71.7%	0.0%	100.0%
IT학부	3	0	8	43	1	55
	5.5%	0.0%	14.5%	78.2%	1.8%	100.0%
간호복지학부	1	7	6	51	2	67
	1.5%	10.4%	9.0%	76.1%	3.0%	100.0%
예술학부	3	2	6	25	1	37
	8.1%	5.4%	16.2%	67.6%	2.7%	100.0%
디자인학부	12	9	8	55	1	85
	14.1%	10.6%	9.4%	64.7%	1.2%	100.0%
전체	25	27	48	274	5	379
	6.6%	7.1%	12.7%	72.3%	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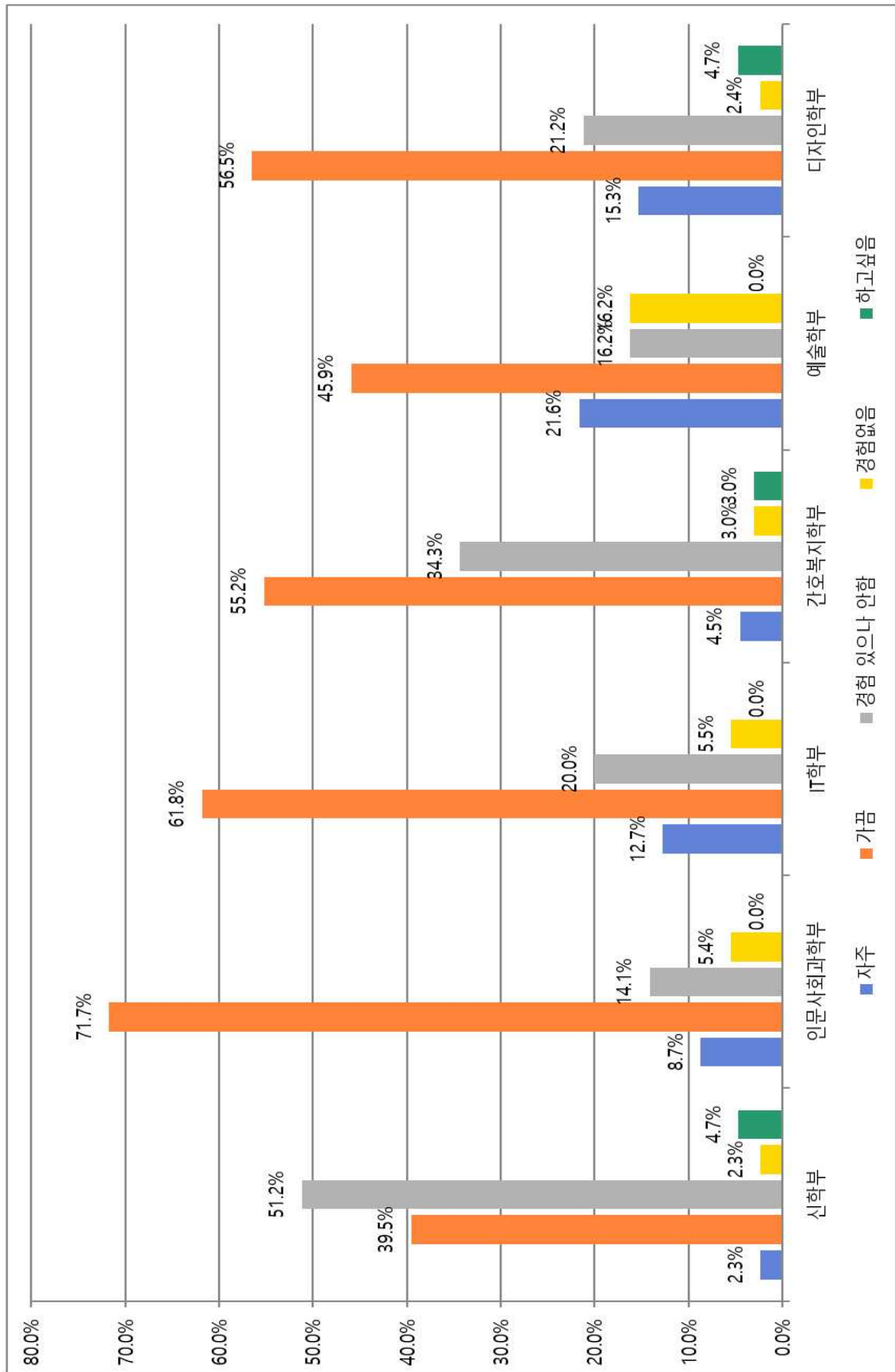
8) 음주

신입생들의 음주 경험 정도를 알아보면, 전체의 92.9%가 음주의 경험(자주, 가끔)이 있으며, 전체의 68.4%가 지금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별 음주 경험을 보면 인문사회과학부(94.6%), IT학부(94.5%), 간호복지학부가(94.0%) 순으로 나타났다. 신학부의 경우 경험 없음이 2.3%, 경험이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이 51.2%로 다른 학부에 비해 음주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현재 음주를 하는 비율(자주, 가끔)이 남학생 59.0%, 여학생 73.8%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음주 경험

단위: 명, %

	자주	가끔	경험 있으나 안 함	경험 없음	하고 싶음	전체
남	12	67	40	12	3	134
	9.0%	50.0%	29.9%	9.0%	2.2%	100.0%
여	28	152	52	7	5	244
	11.5%	62.3%	21.3%	2.9%	2.0%	100.0%
기타	0	0	1	0	0	1
	0.0%	0.0%	100.0%	0.0%	0.0%	100.0%
신학부	1	17	22	1	2	43
	2.3%	39.5%	51.2%	2.3%	4.7%	100.0%
인문사회과학부	8	66	13	5	0	92
	8.7%	71.7%	14.1%	5.4%	0.0%	100.0%
IT학부	7	34	11	3	0	55
	12.7%	61.8%	20.0%	5.5%	0.0%	100.0%
간호복지학부	3	37	23	2	2	67
	4.5%	55.2%	34.3%	3.0%	3.0%	100.0%
예술학부	8	17	6	6	0	37
	21.6%	45.9%	16.2%	16.2%	0.0%	100.0%
디자인학부	13	48	18	2	4	85
	15.3%	56.5%	21.2%	2.4%	4.7%	100.0%
전체	40	219	93	19	8	379
	10.6%	57.8%	24.5%	5.0%	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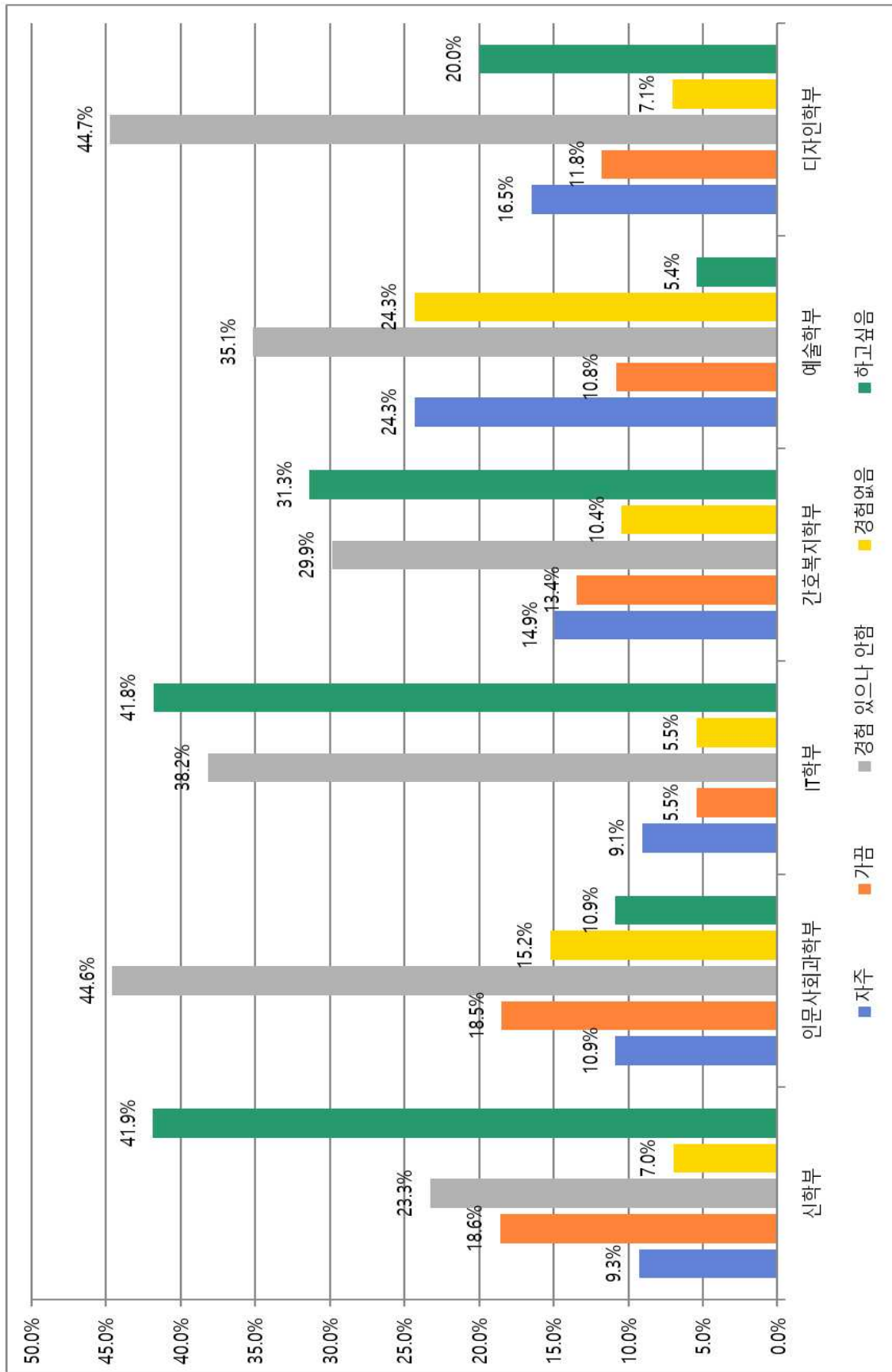
9) 연애

신입생들의 연애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경험이 있으나 안 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하고 싶음(24.0%), 자주(13.5%) 순으로 나타났다. 경험이 있으나 안 함의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디자인학부(44.7%), 인문사회과학부(44.6%), IT학부(38.2%) 순이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학생 31.3%, 여학생 41.4%로 여학생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표 9> 연애 경험

단위: 명, %

	자주	가끔	경험 있으나 안 함	경험 없음	하고 싶음	전체
남	18	19	42	17	38	134
	13.4%	14.2%	31.3%	12.7%	28.4%	100.0%
여	34	32	101	25	52	244
	13.9%	13.1%	41.4%	10.2%	21.3%	100.0%
기타	0	0	0	0	1	1
	0.0%	0.0%	0.0%	0.0%	100.0%	100.0%
신학부	4	8	10	3	18	43
	9.3%	18.6%	23.3%	7.0%	41.9%	100.0%
인문사회과학부	10	17	41	14	10	92
	10.9%	18.5%	44.6%	15.2%	10.9%	100.0%
IT학부	5	3	21	3	23	55
	9.1%	5.5%	38.2%	5.5%	41.8%	100.0%
간호복지학부	10	9	20	7	21	67
	14.9%	13.4%	29.9%	10.4%	31.3%	100.0%
예술학부	9	4	13	9	2	37
	24.3%	10.8%	35.1%	24.3%	5.4%	100.0%
디자인학부	14	10	38	6	17	85
	16.5%	11.8%	44.7%	7.1%	20.0%	100.0%
전체	52	51	143	42	91	379
	13.7%	13.5%	37.7%	11.1%	24.0%	100.0%



2. 가정생활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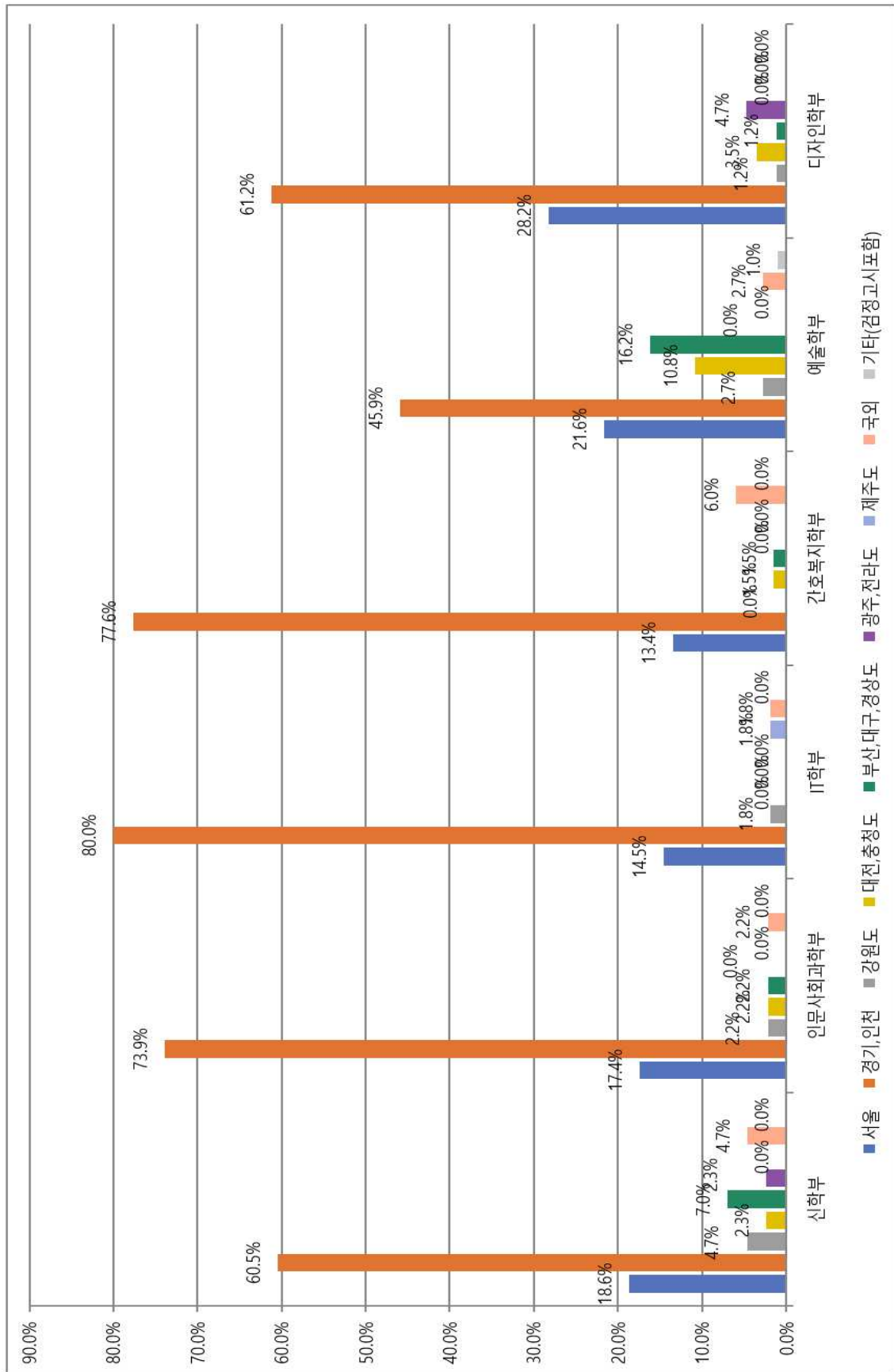
1) 출신고교 소재지

신입생들이 출신고교 지역은 경기, 인천지역이 6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서울(19.3%), 부산, 대구, 경상도(3.4%)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경기, 인천지역 출신은 IT학부(80.0%), 간호복지학부가(77.6%), 인문사회과학(73.9%)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 서울 출신은 디자인학부(28.2%), 예술학부(21.6%), 신학부(18.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68.7%, 여학생의 68.4%가 경기, 인천지역 고교출신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10> 출신고교 소재지

단위: 명, %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	대전, 충청도	부산,대구 ,경상도	광주, 전라도	국외	기타	전체
남	24	92	3	2	7	4	1	1	134
	17.9%	68.7%	2.2%	1.5%	5.2%	3.0%	0.7%	0.7%	100.0%
여	48	167	4	9	6	1	0	9	244
	19.7%	68.4%	1.6%	3.7%	2.5%	0.4%	0.0%	3.7%	100.0%
기타	1	0	0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8	26	2	1	3	1	0	2	43
	18.6%	60.5%	4.7%	2.3%	7.0%	2.3%	0.0%	4.7%	100.0%
인문사회 과학부	16	68	2	2	2	0	0	2	92
	17.4%	73.9%	2.2%	2.2%	2.2%	0.0%	0.0%	2.2%	100.0%
IT학부	8	44	1	0	0	0	1	1	55
	14.5%	80.0%	1.8%	0.0%	0.0%	0.0%	1.8%	1.8%	100.0%
간호복지학부	9	52	0	1	1	0	0	4	67
	13.4%	77.6%	0.0%	1.5%	1.5%	0.0%	0.0%	6.0%	100.0%
예술학부	8	17	1	4	6	0	0	1	37
	21.6%	45.9%	2.7%	10.8%	16.2%	0.0%	0.0%	2.7%	100.0%
디자인학부	24	52	1	3	1	4	0	0	85
	28.2%	61.2%	1.2%	3.5%	1.2%	4.7%	0.0%	0.0%	100.0%
전체	73	259	7	11	13	5	1	10	379
	19.3%	68.3%	1.8%	2.9%	3.4%	1.3%	0.3%	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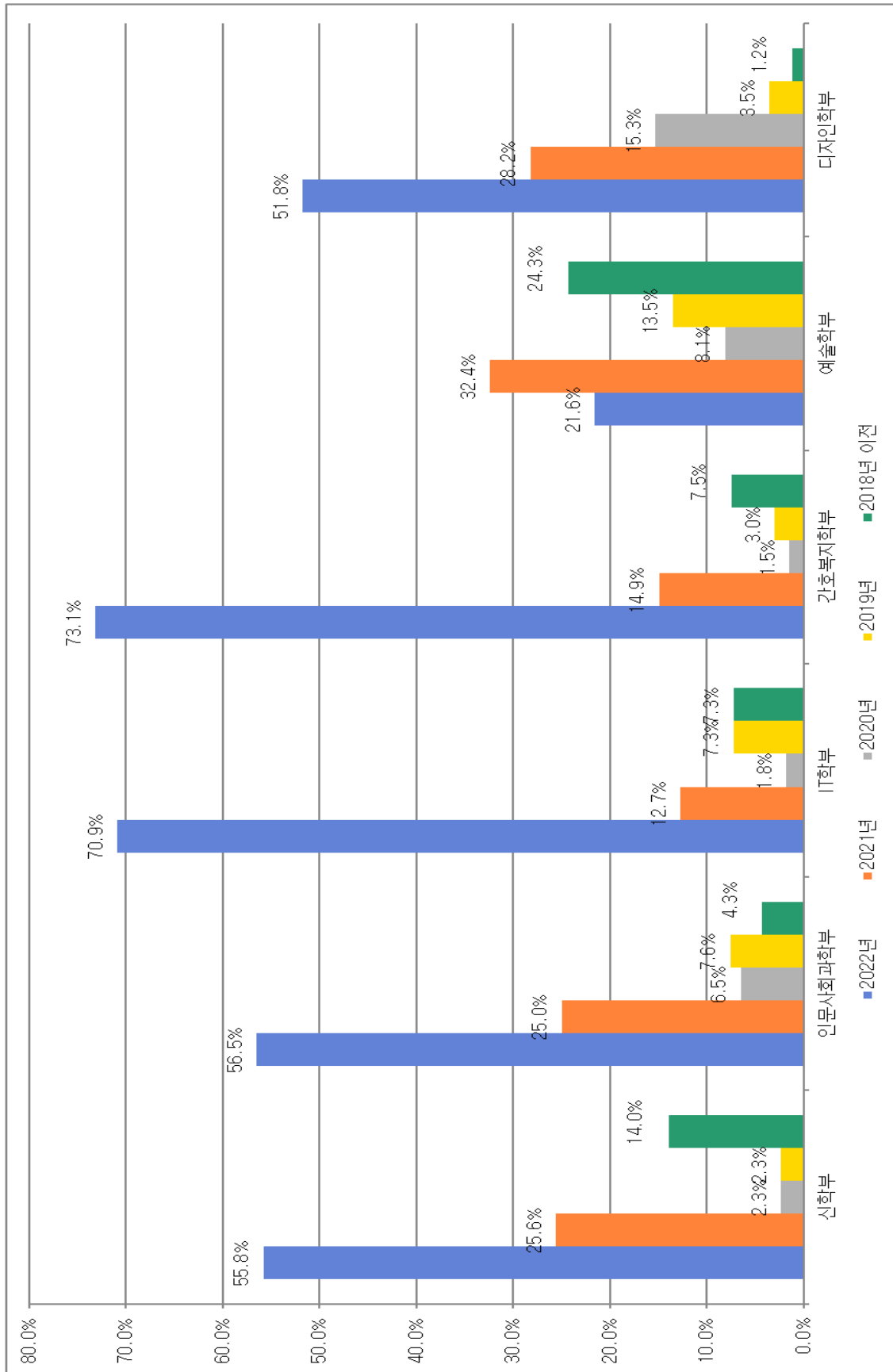
2)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

신입생들의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는 2022년도가 57.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21년(23.0%), 2018년 이전(7.7%) 순이다. 2022년도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간호복지학부(73.1%), IT학부(70.9%), 인문사회과학부(56.5%) 순이며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 57.4%, 남학생 56.7%로 나타났다.

<표 11>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

단위: 명, %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이전	전체
남	76	27	5	10	16	134
	56.7%	20.1%	3.7%	7.5%	11.9%	100.0%
여	140	59	20	12	13	244
	57.4%	24.2%	8.2%	4.9%	5.3%	100.0%
기타	0	1	0	0	0	1
	0.0%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24	11	1	1	6	43
	55.8%	25.6%	2.3%	2.3%	14.0%	100.0%
인문사회과학부	52	23	6	7	4	92
	56.5%	25.0%	6.5%	7.6%	4.3%	100.0%
IT학부	39	7	1	4	4	55
	70.9%	12.7%	1.8%	7.3%	7.3%	100.0%
간호복지학부	49	10	1	2	5	67
	73.1%	14.9%	1.5%	3.0%	7.5%	100.0%
예술학부	8	12	3	5	9	37
	21.6%	32.4%	8.1%	13.5%	24.3%	100.0%
디자인학부	44	24	13	3	1	85
	51.8%	28.2%	15.3%	3.5%	1.2%	100.0%
전체	216	87	25	22	29	379
	57.0%	23.0%	6.6%	5.8%	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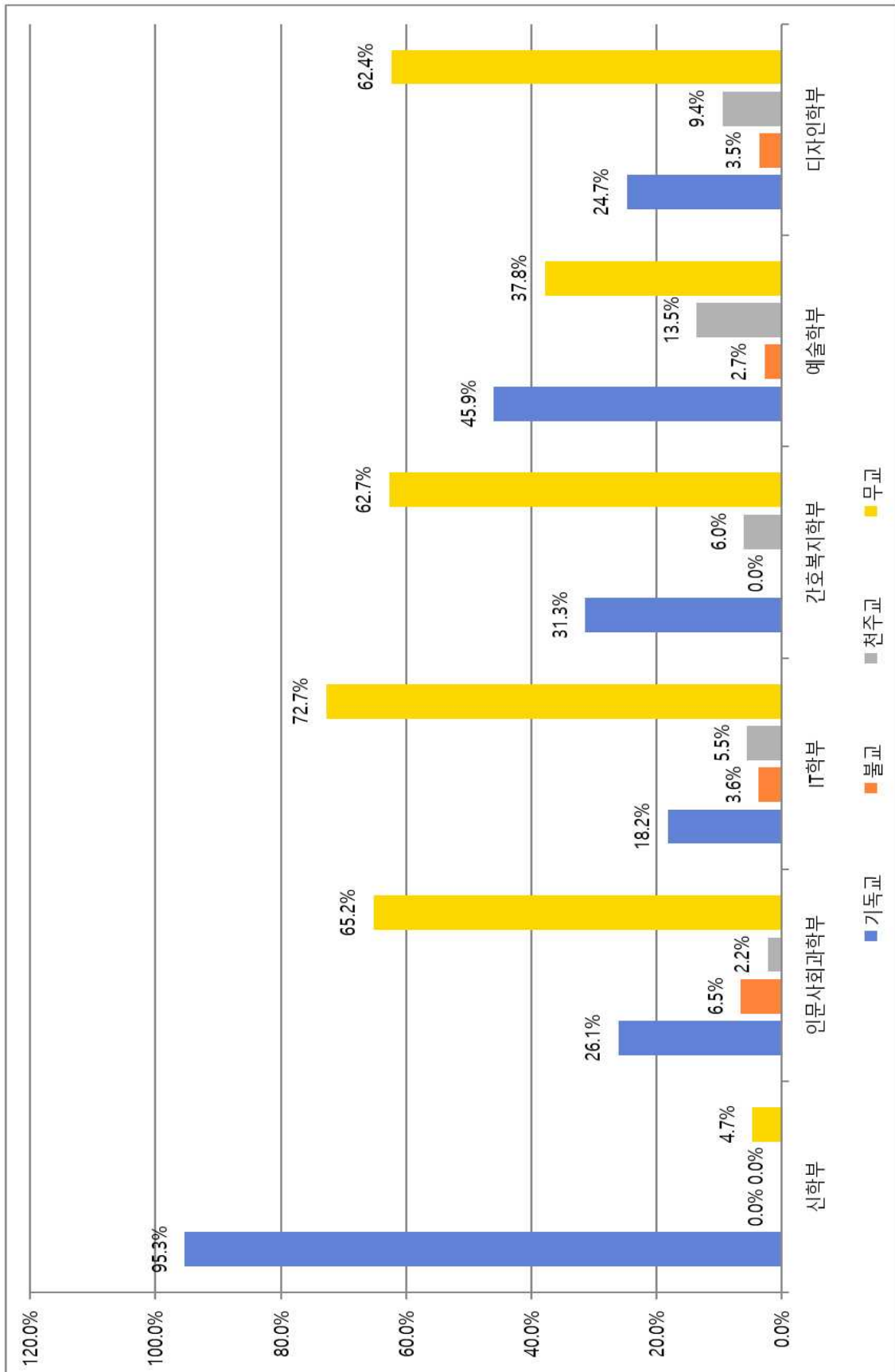
3) 본인의 종교

신입생들의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무교의 응답 비율이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독교(35.4%), 천주교(5.8%) 순으로 나타났다. 무교의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72.7%)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인문사회과학부(65.2%), 간호복지학부(62.7%) 순이고 신학부생의 95.3%, 예술학부생의 45.9%는 기독교라고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 57.0%, 남학생 53.7%가 무교라고 응답하였다.

<표 12> 본인의 종교

단위: 명, %

	기독교	불교	천주교	무교	전체
남	53	3	6	72	134
	39.6%	2.2%	4.5%	53.7%	100.0%
여	80	9	16	139	244
	32.8%	3.7%	6.6%	57.0%	100.0%
기타	1	0	0	0	1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41	0	0	2	43
	95.3%	0.0%	0.0%	4.7%	100.0%
인문사회과학부	24	6	2	60	92
	26.1%	6.5%	2.2%	65.2%	100.0%
IT학부	10	2	3	40	55
	18.2%	3.6%	5.5%	72.7%	100.0%
간호복지학부	21	0	4	42	67
	31.3%	0.0%	6.0%	62.7%	100.0%
예술학부	17	1	5	14	37
	45.9%	2.7%	13.5%	37.8%	100.0%
디자인학부	21	3	8	53	85
	24.7%	3.5%	9.4%	62.4%	100.0%
전체	134	12	22	211	379
	35.4%	3.2%	5.8%	5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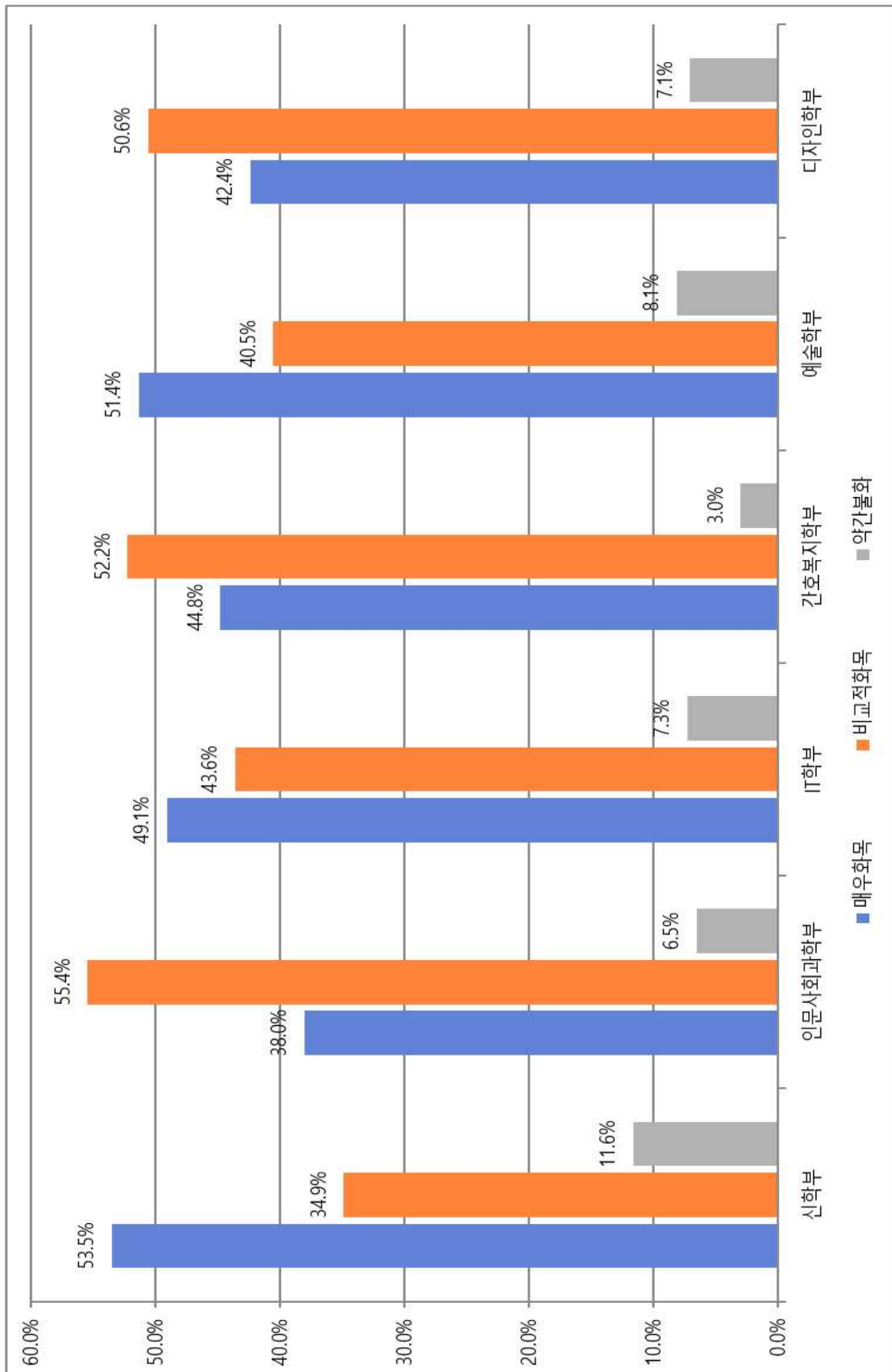
4) 가정의 분위기

신입생들이 지각하는 가정의 분위기를 조사한 결과, 비교적 화목하다가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화목하다(매우 화목, 비교적 화목)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간호복지학부(97.0%), 인문사회과학부(93.4%), 디자인학부(9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93.3%, 여학생 93.0%로 나타났다.

<표 13> 가정의 분위기

단위: 명, %

	매우 화목	비교적 화목	약간 불화	전체
남	64	61	9	134
	47.8%	45.5%	6.7%	100.0%
여	105	122	17	244
	43.0%	50.0%	7.0%	100.0%
기타	1	0	0	1
	100.0%	0.0%	0.0%	100.0%
신학부	23	15	5	43
	53.5%	34.9%	11.6%	100.0%
인문사회과학부	35	51	6	92
	38.0%	55.4%	6.5%	100.0%
IT학부	27	24	4	55
	49.1%	43.6%	7.3%	100.0%
간호복지학부	30	35	2	67
	44.8%	52.2%	3.0%	100.0%
예술학부	19	15	3	37
	51.4%	40.5%	8.1%	100.0%
디자인학부	36	43	6	85
	42.4%	50.6%	7.1%	100.0%
전체	170	183	26	379
	44.9%	48.3%	6.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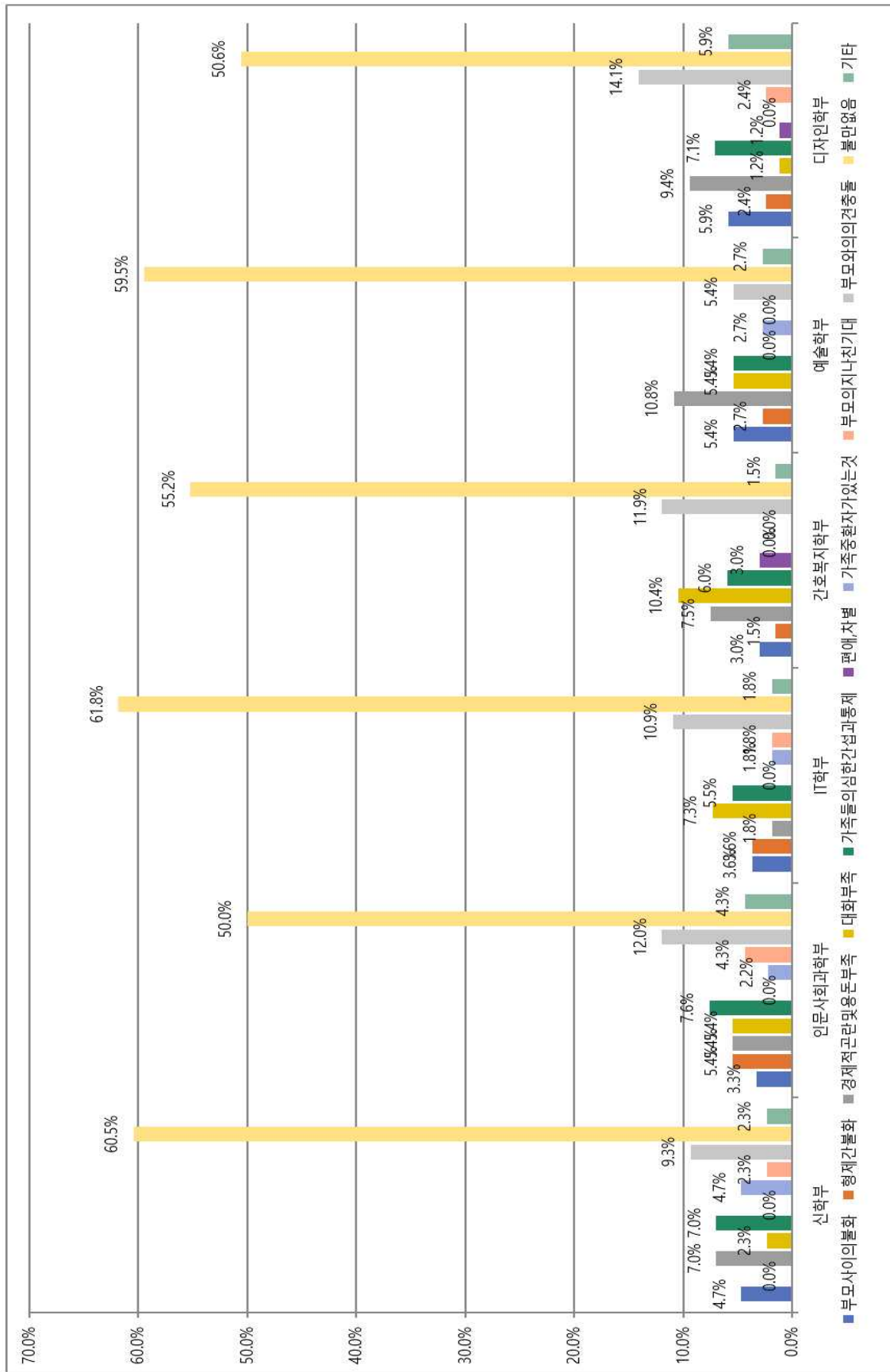
5) 가정에 대해 가장 불편한 점

신입생들이 가정에 대한 불만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 불만 없음이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부모와의 의견충돌(11.3%), 경제적 곤란 및 용돈 부족(6.9%) 순으로 나타났다. 불만 없음의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IT학부(61.8%), 신학부(60.5%), 예술학부(59.5%)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학생 66.4%, 여학생 50.0%로 응답했다. 가정의 불만 사항 중 부모와의 의견충돌이라는 의견이 남학생(9.0%), 여학생(12.7%) 모두 가장 높게 나왔다.

<표 14> 가정에 대해 가장 불편한 점

단위: 명, %

	부모 사이의 불화	형제 간 불화	경제적 곤란 및 용돈 부족	대화 부족	가족 들의 심한 간섭과 통제	편애, 차별	가족 중 환자가 있는 것	부모의 지나친 기대	부모 와의 의견 충돌	불만 없음	기타	전체
남	2	2	6	11	8	2	2	2	12	85	2	134
	1.5%	1.5%	4.5%	8.2%	6.0%	1.5%	1.5%	1.5%	9.0%	63.4%	1.5%	100.0%
여	14	9	20	9	17	1	4	6	31	122	11	244
	5.7%	3.7%	8.2%	3.7%	7.0%	0.4%	1.6%	2.5%	12.7%	50.0%	4.5%	100.0%
기타	0	0	0	0	0	0	0	0	0	1	0	1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신학부	2	0	3	1	3	0	2	1	4	26	1	43
	4.7%	0.0%	7.0%	2.3%	7.0%	0.0%	4.7%	2.3%	9.3%	60.5%	2.3%	100.0%
인문 사회 과학부	3	5	5	5	7	0	2	4	11	46	4	92
	3.3%	5.4%	5.4%	5.4%	7.6%	0.0%	2.2%	4.3%	12.0%	50.0%	4.3%	100.0%
IT학부	2	2	1	4	3	0	1	1	6	34	1	55
	3.6%	3.6%	1.8%	7.3%	5.5%	0.0%	1.8%	1.8%	10.9%	61.8%	1.8%	100.0%
간호 복지 학부	2	1	5	7	4	2	0	0	8	37	1	67
	3.0%	1.5%	7.5%	10.4%	6.0%	3.0%	0.0%	0.0%	11.9%	55.2%	1.5%	100.0%
예술 학부	2	1	4	2	2	0	1	0	2	22	1	37
	5.4%	2.7%	10.8%	5.4%	5.4%	0.0%	2.7%	0.0%	5.4%	59.5%	2.7%	100.0%
디자인 학부	5	2	8	1	6	1	0	2	12	43	5	85
	5.9%	2.4%	9.4%	1.2%	7.1%	1.2%	0.0%	2.4%	14.1%	50.6%	5.9%	100.0%
전체	16	11	26	20	25	3	6	8	43	208	13	379
	4.2%	2.9%	6.9%	5.3%	6.6%	0.8%	1.6%	2.1%	11.3%	54.9%	3.4%	100.0%



3. 기타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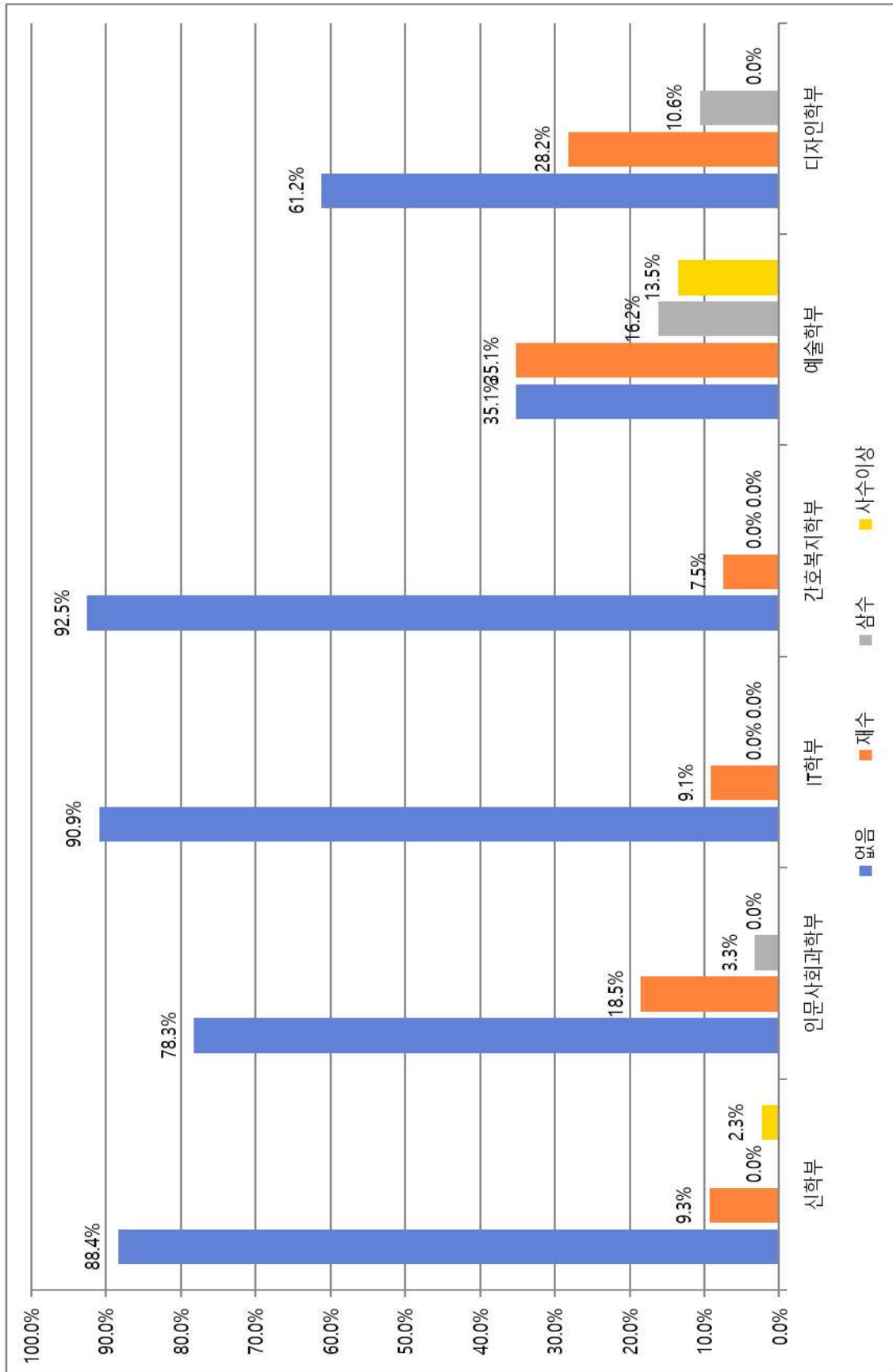
1) 재수 경험

신입생들의 재수 경험에 대해서는 없음이라는 응답이 7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수 경험을 한 학생의 비율은 17.9%로 전년도 21.4%보다 다소 낮아졌다. 재수 경험 없음의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간호복지학부(92.5%), IT학부(90.9%), 신학부(88.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80.6%, 여학생 73.0%가 재수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표 15> 재수 경험

단위: 명, %

	없음	재수	삼수	사수 이상	전체
남	108	20	4	2	134
	80.6%	14.9%	3.0%	1.5%	100.0%
여	178	48	14	4	244
	73.0%	19.7%	5.7%	1.6%	100.0%
기타	1	0	0	0	1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38	4	0	1	43
	88.4%	9.3%	0.0%	2.3%	100.0%
인문사회과학부	72	17	3	0	92
	78.3%	18.5%	3.3%	0.0%	100.0%
IT학부	50	5	0	0	55
	90.9%	9.1%	0.0%	0.0%	100.0%
간호복지학부	62	5	0	0	67
	92.5%	7.5%	0.0%	0.0%	100.0%
예술학부	13	13	6	5	37
	35.1%	35.1%	16.2%	13.5%	100.0%
디자인학부	52	24	9	0	85
	61.2%	28.2%	10.6%	0.0%	100.0%
전체	287	68	18	6	379
	75.7%	17.9%	4.7%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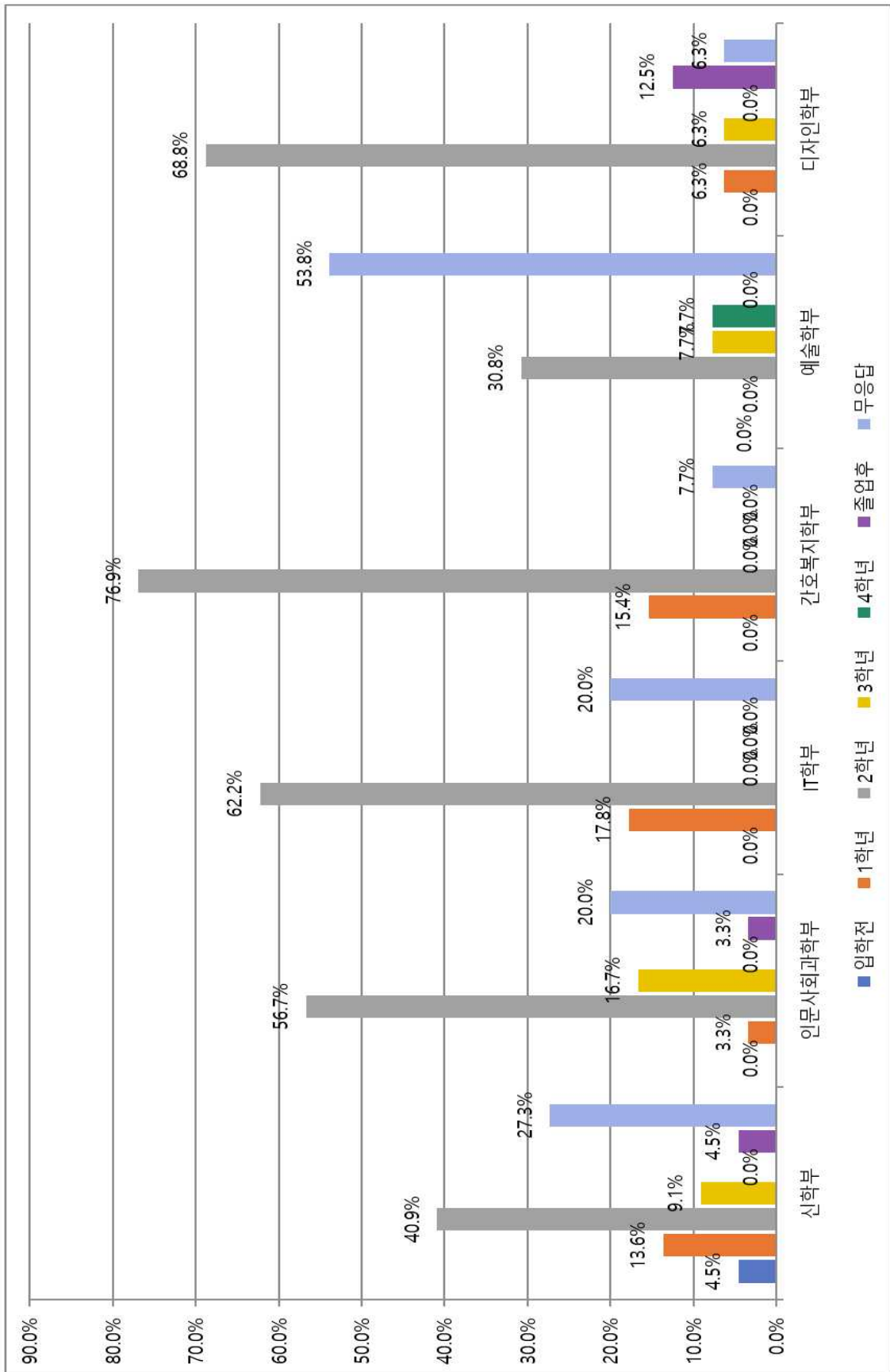
2) 군 입대 예정 시기

신입생들의 군 입대에 관해 남학생 134명이 응답했으며, 이들 중 30명이 무응답으로 나타났다. 2학년에 군대에 입대할 예정인 학생이 56.8%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의 65.1%보다 낮게 나타났다. 2학년에 군대에 입대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학부는 간호복지학부(76.9%), 디자인학부(68.8%), IT학부(6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군 입대 예정 시기

단위: 명, %

	입학 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 후	무응답	전체
남	1	14	79	5	1	4	30	134
	0.7%	10.4%	59.0%	3.7%	0.7%	3.0%	22.4%	100.0%
신학부	1	3	9	2	0	1	6	22
	4.5%	13.6%	40.9%	9.1%	0.0%	4.5%	27.3%	100.0%
인문사회과학부	0	1	17	5	0	1	6	30
	0.0%	3.3%	56.7%	16.7%	0.0%	3.3%	20.0%	100.0%
IT학부	0	8	28	0	0	0	9	45
	0.0%	17.8%	62.2%	0.0%	0.0%	0.0%	20.0%	100.0%
간호복지학부	0	2	10	0	0	0	1	13
	0.0%	15.4%	76.9%	0.0%	0.0%	0.0%	7.7%	100.0%
예술학부	0	0	4	1	1	0	7	13
	0.0%	0.0%	30.8%	7.7%	7.7%	0.0%	53.8%	100.0%
디자인학부	0	1	11	1	0	2	1	16
	0.0%	6.3%	68.8%	6.3%	0.0%	12.5%	6.3%	100.0%
전체	1	15	79	9	1	4	30	139
	0.7%	10.8%	56.8%	6.5%	0.7%	2.9%	21.6%	100.0%



4. 대학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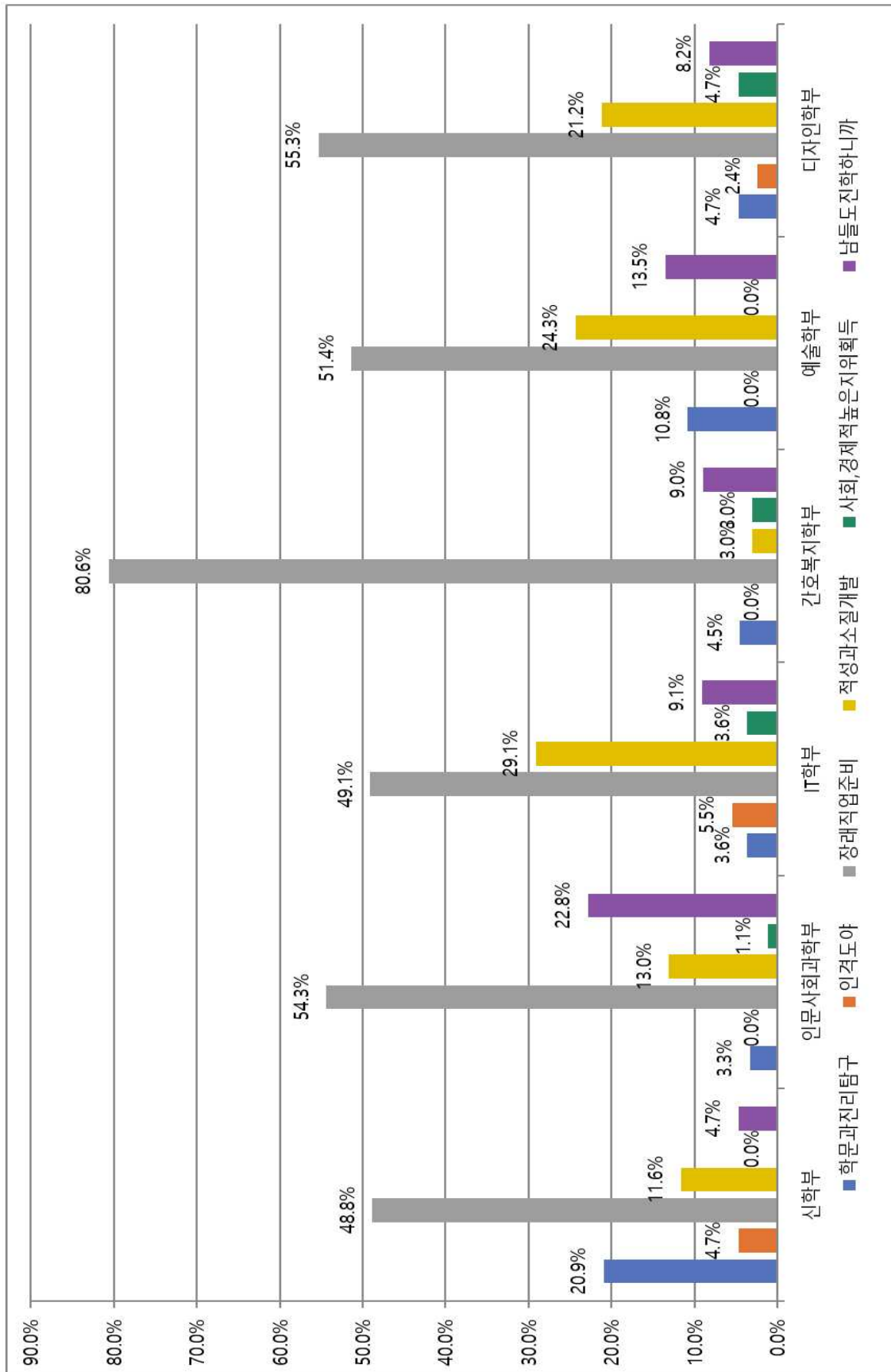
1) 대학진학 동기

대학에 진학한 동기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7.5%가 장래 직업 준비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적성과 소질개발(16.4%), 남들도 하나(12.1%) 순으로 응답하였다. 장래 직업 준비의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간호복지학부(80.6%), 디자인학부(55.3%), 인문사회과학부(54.3%)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 61.9%, 남학생 49.3%로 나타났다.

<표 17> 대학진학 동기

단위: 명, %

	학문과 진리탐구	인격도야	장래 직업준비	적성과 소질개발	사회, 경제적 높은 지위획득	남들도 진학하나	기타	전체
남	11	4	66	26	2	19	6	134
	8.2%	3.0%	49.3%	19.4%	1.5%	14.2%	4.5%	100.0%
여	14	3	151	36	7	27	6	244
	5.7%	1.2%	61.9%	14.8%	2.9%	11.1%	2.5%	100.0%
기타	0	0	1	0	0	0	0	1
	0.0%	0.0%	10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9	2	21	5	0	2	4	43
	20.9%	4.7%	48.8%	11.6%	0.0%	4.7%	9.3%	100.0%
인문사회 과학부	3	0	50	12	1	21	5	92
	3.3%	0.0%	54.3%	13.0%	1.1%	22.8%	5.4%	100.0%
IT학부	2	3	27	16	2	5	0	55
	3.6%	5.5%	49.1%	29.1%	3.6%	9.1%	0.0%	100.0%
간호복지학부	3	0	54	2	2	6	0	67
	4.5%	0.0%	80.6%	3.0%	3.0%	9.0%	0.0%	100.0%
예술학부	4	0	19	9	0	5	0	37
	10.8%	0.0%	51.4%	24.3%	0.0%	13.5%	0.0%	100.0%
디자인학부	4	2	47	18	4	7	3	85
	4.7%	2.4%	55.3%	21.2%	4.7%	8.2%	3.5%	100.0%
전체	25	7	218	62	9	46	12	379
	6.6%	1.8%	57.5%	16.4%	2.4%	12.1%	3.2%	100.0%



2)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고 지원하였는가?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사전에 알고 지원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전체의 82.6%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고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예’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학부는 신학부(100%)였으며, 그다음으로는 간호복지학부(94.0%), 예술학부(83.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 86.1%, 남학생 76.1%가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고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8>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고 지원하였는가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남	102	32	134
	76.1%	23.9%	100.0%
여	210	34	244
	86.1%	13.9%	100.0%
기타	1	0	1
	100.0%	0.0%	100.0%
신학부	43	0	43
	100.0%	0.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75	17	92
	81.5%	18.5%	100.0%
IT학부	42	13	55
	76.4%	23.6%	100.0%
간호복지학부	63	4	67
	94.0%	6.0%	100.0%
예술학부	31	6	37
	83.8%	16.2%	100.0%
디자인학부	59	26	85
	69.4%	30.6%	100.0%
전체	313	66	379
	82.6%	17.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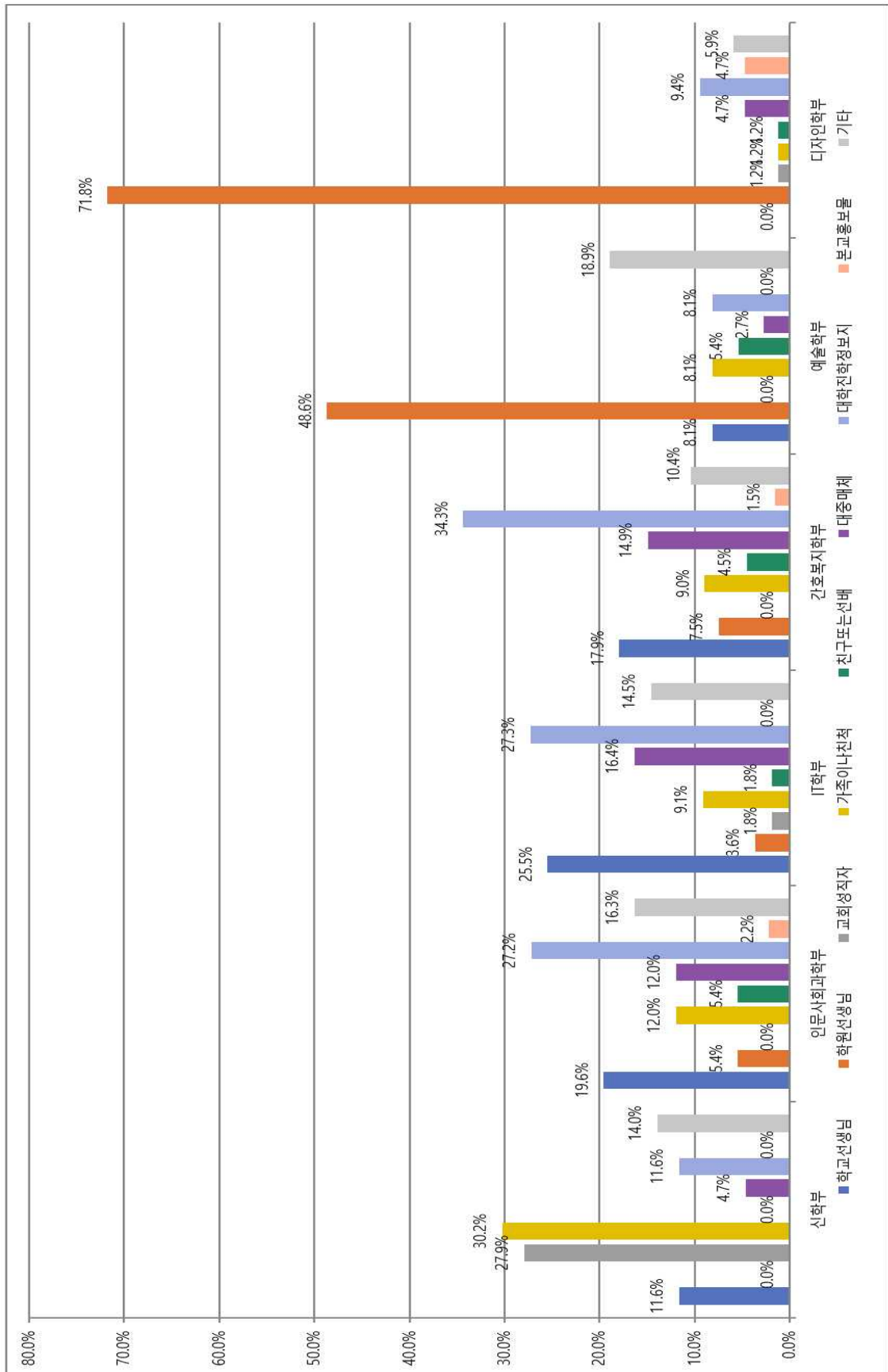
3) 본교를 알게 된 경로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학원 선생님(24.8%), 대학진학 정보지(20.8%), 학교 선생님(13.7%)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신학부는 가족이나 친척(30.2%), 교회 성직자(27.9%)가 가장 높았고, 디자인학부(71.8%)와 예술학부(48.6%)는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의 학부는 대학진학정보지와 학교 선생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20.1%가 학교 선생님, 여학생 29.1%가 학원 선생님을 통해 본교를 알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표 19> 본교를 알게 된 경로

단위: 명, %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교회 성직자	가족 이나 친척	친구 또는 선배	대중 매체	대학 진학 정보지	본교 홍보물	기타	전체
남	27	20	6	21	4	14	23	1	18	134
	20.1%	14.9%	4.5%	15.7%	3.0%	10.4%	17.2%	0.7%	13.4%	100.0%
여	24	71	8	18	8	23	56	6	30	244
	9.8%	29.1%	3.3%	7.4%	3.3%	9.4%	23.0%	2.5%	12.3%	100.0%
기타	1	0	0	0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5	0	12	13	0	2	5	0	6	43
	11.6%	0.0%	27.9%	30.2%	0.0%	4.7%	11.6%	0.0%	14.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18	5	0	11	5	11	25	2	15	92
	19.6%	5.4%	0.0%	12.0%	5.4%	12.0%	27.2%	2.2%	16.3%	100.0%
IT학부	14	2	1	5	1	9	15	0	8	55
	25.5%	3.6%	1.8%	9.1%	1.8%	16.4%	27.3%	0.0%	14.5%	100.0%
간호복지 학부	12	5	0	6	3	10	23	1	7	67
	17.9%	7.5%	0.0%	9.0%	4.5%	14.9%	34.3%	1.5%	10.4%	100.0%
예술학부	3	18	0	3	2	1	3	0	7	37
	8.1%	48.6%	0.0%	8.1%	5.4%	2.7%	8.1%	0.0%	18.9%	100.0%
디자인 학부	0	61	1	1	1	4	8	4	5	85
	0.0%	71.8%	1.2%	1.2%	1.2%	4.7%	9.4%	4.7%	5.9%	100.0%
전체	52	91	14	39	12	37	79	7	48	379
	13.7%	24.0%	3.7%	10.3%	3.2%	9.8%	20.8%	1.8%	12.7%	100.0%



4) 학교의 만족도

본교 입학에 만족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신입생 72.3%가 '예'라고 답변하여 전년도 79.5%보다 낮은 쪽으로 하강하였다. 학부별로 보면 '예'라고 응답한 경우는 간호복지학부(86.6%), 신학부(83.7%), IT학부(78.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는 인문사회과학부(45.7%), 디자인학부(30.6%), 예술학부(24.3%) 순서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77.6%, 여학생 69.7%가 본교 입학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학교의 만족도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남	104	30	134
	77.6%	22.4%	100.0%
여	170	74	244
	69.7%	30.3%	100.0%
기타	0	1	1
	0.0%	100.0%	100.0%
신학부	36	7	43
	83.7%	16.3%	100.0%
인문사회과학부	50	42	92
	54.3%	45.7%	100.0%
IT학부	43	12	55
	78.2%	21.8%	100.0%
간호복지학부	58	9	67
	86.6%	13.4%	100.0%
예술학부	28	9	37
	75.7%	24.3%	100.0%
디자인학부	59	26	85
	69.4%	30.6%	100.0%
전체	274	105	379
	72.3%	2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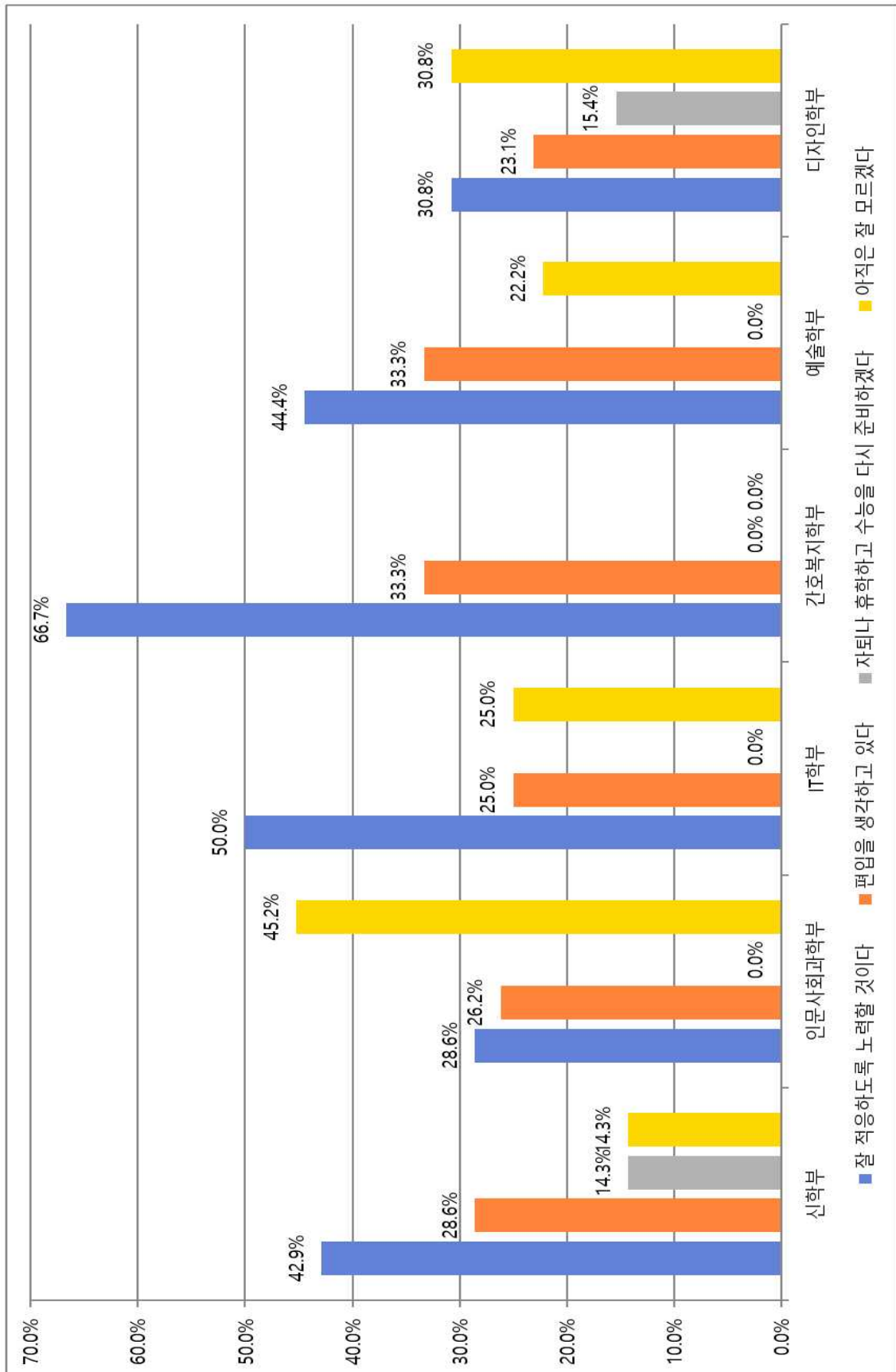
5) 불만족 시 앞으로의 계획

본교 입학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05명 중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질문에 잘 적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37.1%), 아직은 잘 모르겠다(31.4%)는 순으로 나타났다.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간호복지학부와 예술학부(33.3%), 신학부(28.6%) 순으로 나타났고 잘 적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간호복지학부(66.7%), IT학부(50.0%), 예술학부(44.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남학생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43.3%)가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잘 적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37.8%)가 가장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표 21> 불만족 시 앞으로의 계획

단위: 명, %

	잘 적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	자퇴나 휴학하고 수능을 다시 준비하겠다	아직은 잘 모르겠다	전체
남	11	6	0	13	30
	36.7%	20.0%	0.0%	43.3%	100.0%
여	28	21	5	20	74
	37.8%	28.4%	6.8%	27.0%	100.0%
기타	0	1	0	0	1
	0.0%	100.0%	0.0%	0.0%	100.0%
신학부	3	2	1	1	7
	42.9%	28.6%	14.3%	14.3%	100.0%
인문사회과학부	12	11	0	19	42
	28.6%	26.2%	0.0%	45.2%	100.0%
IT학부	6	3	0	3	12
	50.0%	25.0%	0.0%	25.0%	100.0%
간호복지학부	6	3	0	0	9
	66.7%	33.3%	0.0%	0.0%	100.0%
예술학부	4	3	0	2	9
	44.4%	33.3%	0.0%	22.2%	100.0%
디자인학부	8	6	4	8	26
	30.8%	23.1%	15.4%	30.8%	100.0%
전체	39	28	5	33	105
	37.1%	26.7%	4.8%	31.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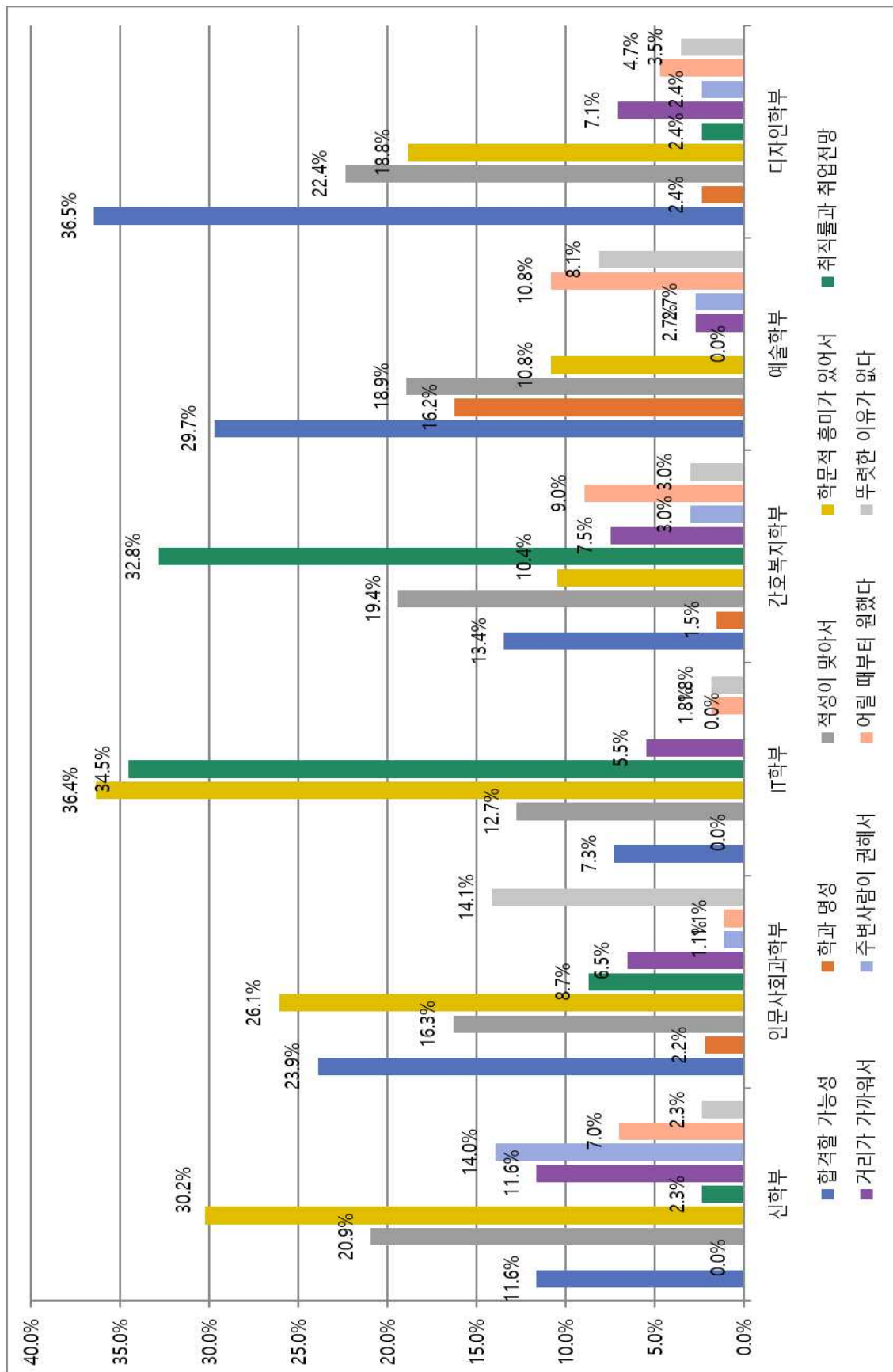
6) 학부 선택의 결정적 요인

신입생들에게 전공학부 선택 시 결정적인 요인에 관한 질문에 학문적 흥미가 있어서(22.2%), 합격할 가능성(21.6%), 적성이 맞아서(18.5%)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학문적 흥미’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학부는 IT학부(36.4%), 신학부(30.2%), ‘합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학부는 디자인학부(36.5%), 예술학부(29.7%) 순으로 나타났다. ‘적성에 맞아서’가 높은 학부는 디자인 학부(22.4%), 신학부(20.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학문적 흥미(27.6%), 여학생은 합격할 가능성(25.0%)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했다.

<표 22> 학부 선택의 결정적 요인

단위: 명, %

	합격할 가능성	학과 명성	적성이 맞아서	학문적 흥미가 있어서	취직률과 취업 전망	거리가 가까 워서	주변 사람이 권해서	어릴 때 부터 원했다	뚜렷한 이유가 없다	전체
남	21	4	22	37	18	10	5	6	11	134
	15.7%	3.0%	16.4%	27.6%	13.4%	7.5%	3.7%	4.5%	8.2%	100.0%
여	61	7	47	47	34	16	7	13	12	244
	25.0%	2.9%	19.3%	19.3%	13.9%	6.6%	2.9%	5.3%	4.9%	100.0%
기타	0	0	1	0	0	0	0	0	0	1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5	0	9	13	1	5	6	3	1	43
	11.6%	0.0%	20.9%	30.2%	2.3%	11.6%	14.0%	7.0%	2.3%	100.0%
인문사회 과학부	22	2	15	24	8	6	1	1	13	92
	23.9%	2.2%	16.3%	26.1%	8.7%	6.5%	1.1%	1.1%	14.1%	100.0%
IT학부	4	0	7	20	19	3	0	1	1	55
	7.3%	0.0%	12.7%	36.4%	34.5%	5.5%	0.0%	1.8%	1.8%	100.0%
간호복지 학부	9	1	13	7	22	5	2	6	2	67
	13.4%	1.5%	19.4%	10.4%	32.8%	7.5%	3.0%	9.0%	3.0%	100.0%
예술학부	11	6	7	4	0	1	1	4	3	37
	29.7%	16.2%	18.9%	10.8%	0.0%	2.7%	2.7%	10.8%	8.1%	100.0%
디자인 학부	31	2	19	16	2	6	2	4	3	85
	36.5%	2.4%	22.4%	18.8%	2.4%	7.1%	2.4%	4.7%	3.5%	100.0%
전체	82	11	70	84	52	26	12	19	23	379
	21.6%	2.9%	18.5%	22.2%	13.7%	6.9%	3.2%	5.0%	6.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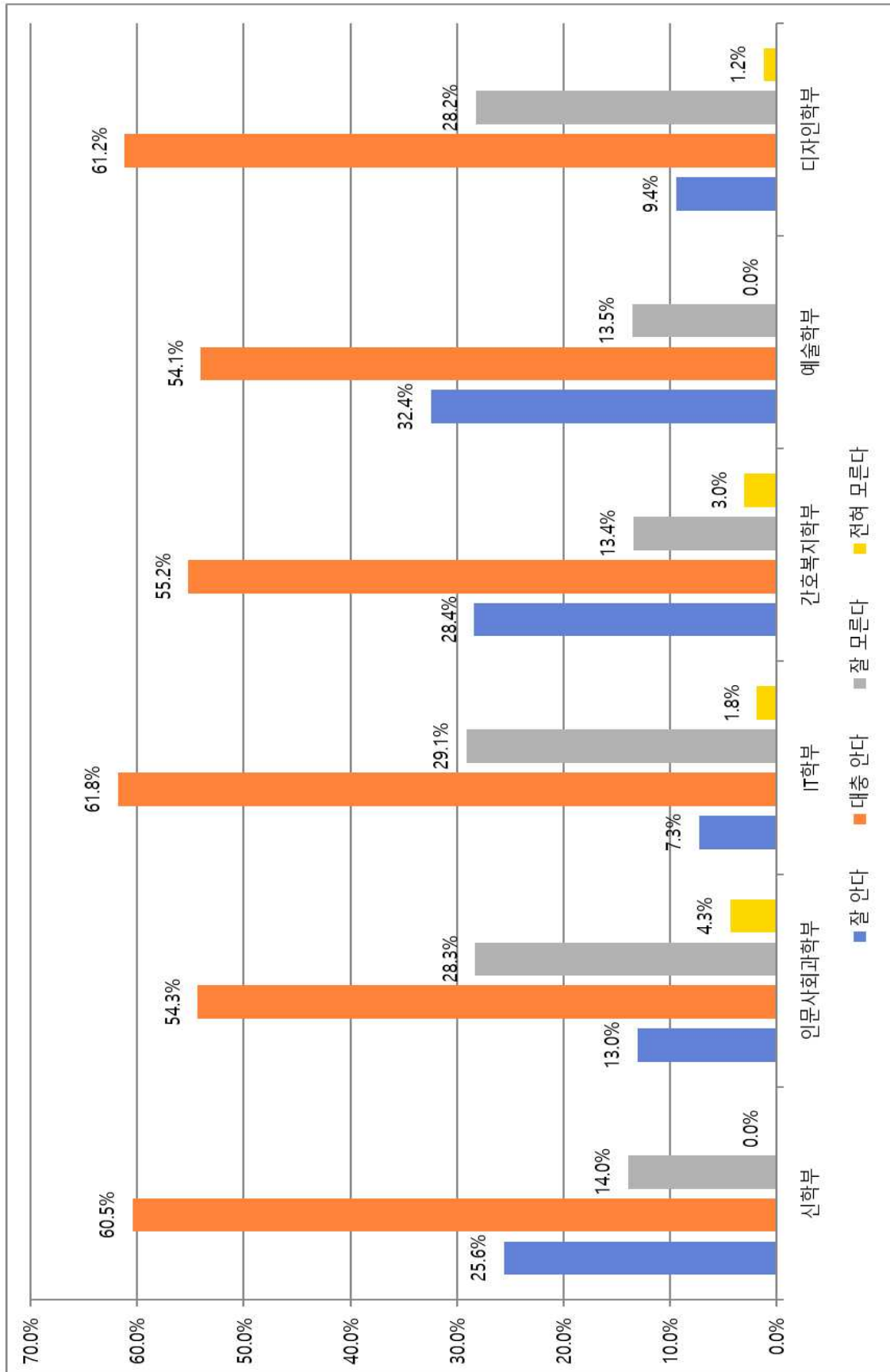
7) 학부에 대한 사전지식

신입생들에게 지망 학부에 관한 지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충 안다고 응답한 학생이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부별로 살펴보면 대충 안다고 응답한 비율은 IT학부(61.8%), 디자인학부(61.2%), 신학부(60.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 58.2%, 남학생 57.5%가 학부에 대한 사전지식의 정도에 관해 대충 안다고 응답하였다.

<표 23> 학부에 대한 사전지식

단위: 명, %

	잘 안다	대충 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전체
남	19	77	36	2	134
	14.2%	57.5%	26.9%	1.5%	100.0%
여	46	142	50	6	244
	18.9%	58.2%	20.5%	2.5%	100.0%
기타	1	0	0	0	1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11	26	6	0	43
	25.6%	60.5%	14.0%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12	50	26	4	92
	13.0%	54.3%	28.3%	4.3%	100.0%
IT학부	4	34	16	1	55
	7.3%	61.8%	29.1%	1.8%	100.0%
간호복지학부	19	37	9	2	67
	28.4%	55.2%	13.4%	3.0%	100.0%
예술학부	12	20	5	0	37
	32.4%	54.1%	13.5%	0.0%	100.0%
디자인학부	8	52	24	1	85
	9.4%	61.2%	28.2%	1.2%	100.0%
전체	66	219	86	8	379
	17.4%	57.8%	22.7%	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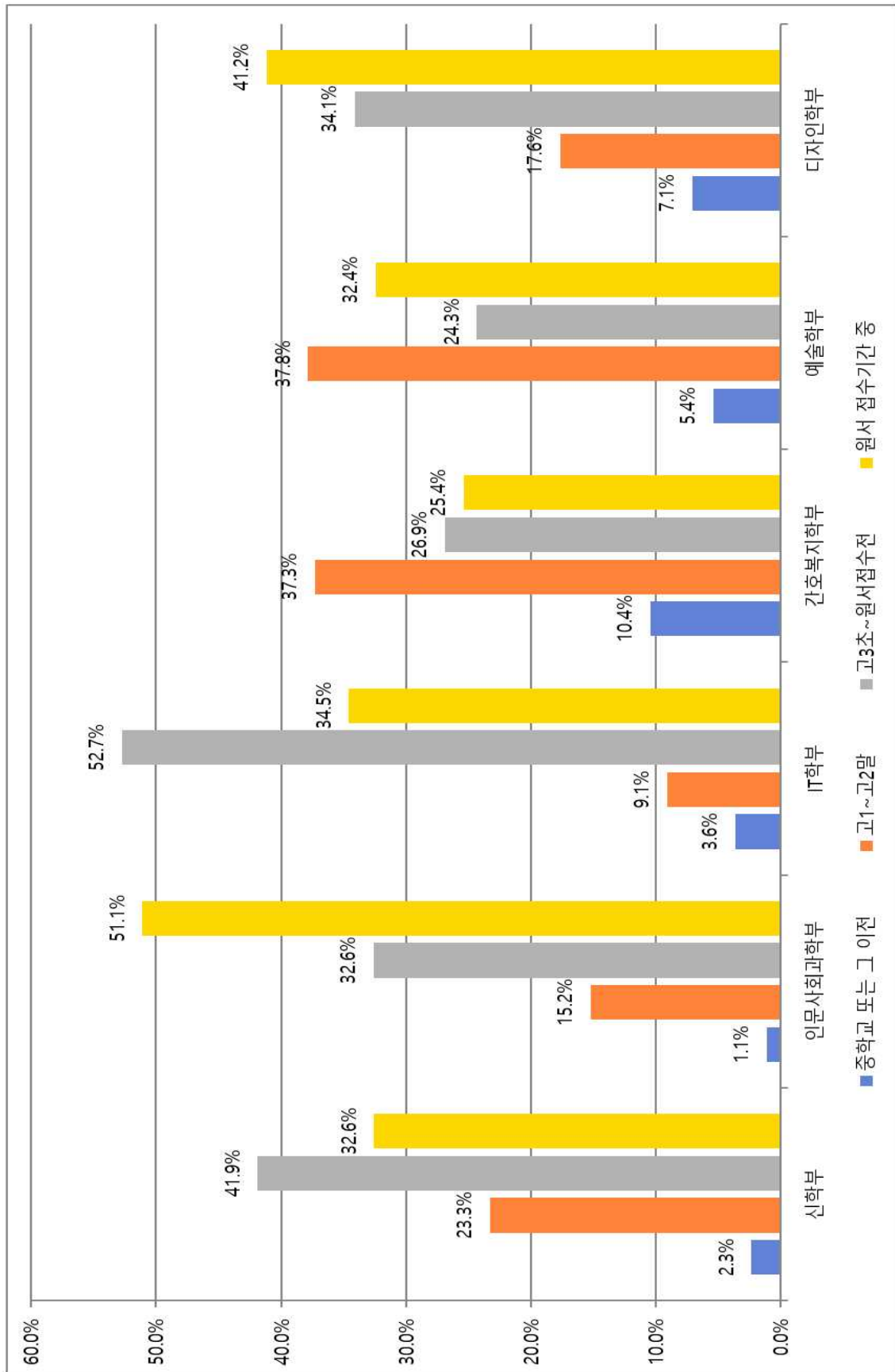
8) 학부의 결정 시기

신입생들이 현재 지망한 학부를 선택한 시기는 원서접수 기간 중(38.0%)로 나타났다. 원서접수 기간 중의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과학부(51.1%), 디자인학부(41.2%), IT학부(34.5%) 순으로 나타났고 고3 초~원서접수 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IT학부(52.7%), 신학부(41.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학생, 여학생 모두 고3 초 ~ 원서접수 기간(고3 초~원서접수 전, 원서접수 기간 중)에 결정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78.4%, 70.5%로 높게 나타났다.

<표 24> 학부의 결정 시기

단위: 명, %

	중학교 또는 그 이전	고1~고2 말	고3 초~ 원서접수 전	원서접수 기간 중	전체
남	4	25	51	54	134
	3.0%	18.7%	38.1%	40.3%	100.0%
여	15	57	82	90	244
	6.1%	23.4%	33.6%	36.9%	100.0%
기타	0	1	0	0	1
	0.0%	100.0%	0.0%	0.0%	100.0%
신학부	1	10	18	14	43
	2.3%	23.3%	41.9%	32.6%	100.0%
인문사회과학부	1	14	30	47	92
	1.1%	15.2%	32.6%	51.1%	100.0%
IT학부	2	5	29	19	55
	3.6%	9.1%	52.7%	34.5%	100.0%
간호복지학부	7	25	18	17	67
	10.4%	37.3%	26.9%	25.4%	100.0%
예술학부	2	14	9	12	37
	5.4%	37.8%	24.3%	32.4%	100.0%
디자인학부	6	15	29	35	85
	7.1%	17.6%	34.1%	41.2%	100.0%
전체	19	83	133	144	379
	5.0%	21.9%	35.1%	38.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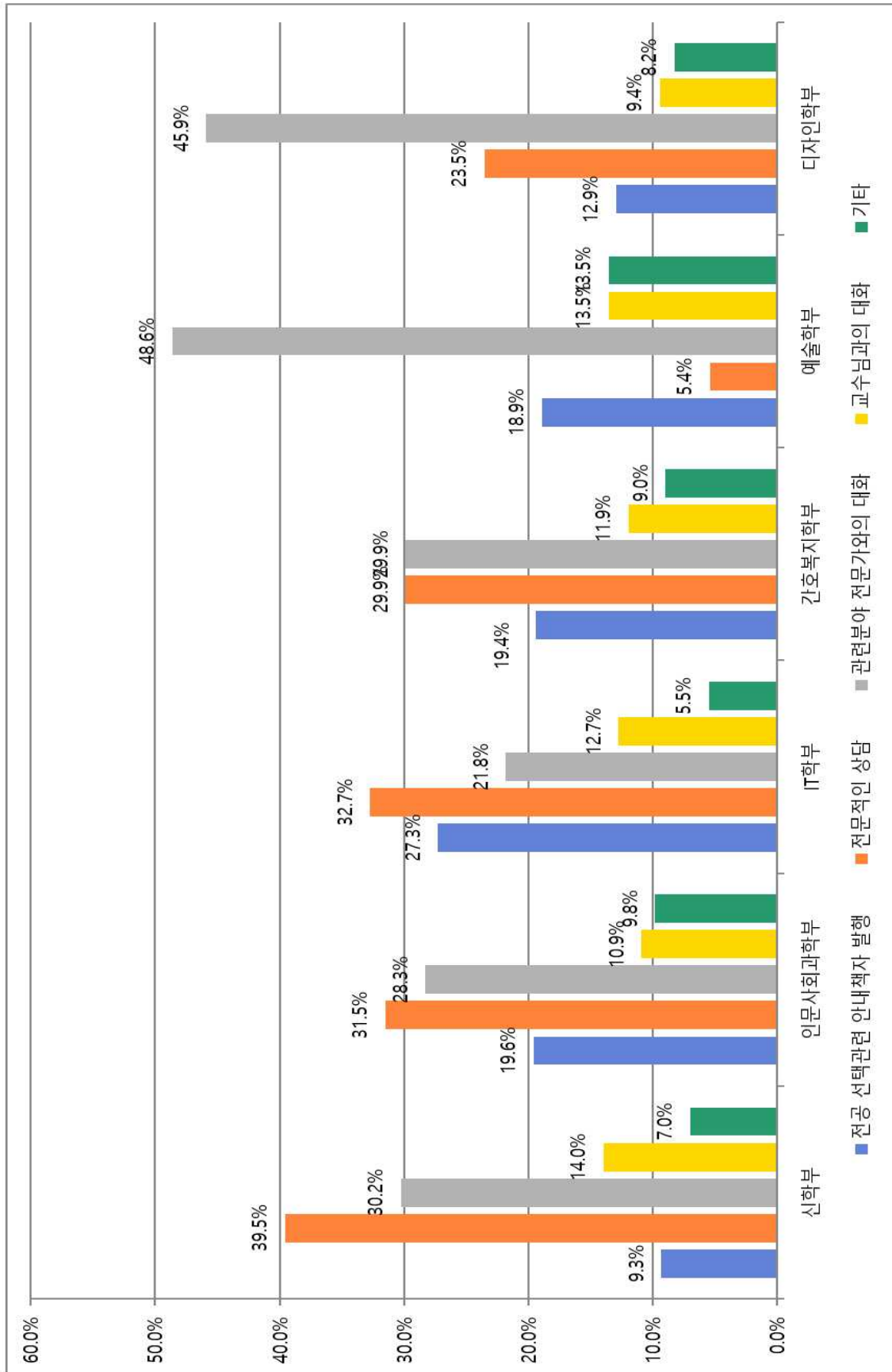


9) 2학년 진학 시 전공 선택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도움

신입생들이 2학년으로 진학할 때 전공 선택에 있어서 학교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도움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대화(33.8%), 전문적인 상담(28.0%) 순으로 응답했다.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대화를 원한다는 응답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예술학부 (48.6%), 디자인학부(45.9%), 신학부(30.2%)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 보면 남학생 33.6%, 여학생 33.6%가 가장 많이 원했다.

<표 25> 전공 선택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도움 단위: 명, %

	전공 선택 관련 안내 책자 발행	전문적인 상담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대화	교수님과의 대화	기타	전체
남	22	37	45	18	12	134
	16.4%	27.6%	33.6%	13.4%	9.0%	100.0%
여	46	69	82	26	21	244
	18.9%	28.3%	33.6%	10.7%	8.6%	100.0%
기타	0	0	1	0	0	1
	0.0%	0.0%	100.0%	0.0%	0.0%	100.0%
신학부	4	17	13	6	3	43
	9.3%	39.5%	30.2%	14.0%	7.0%	100.0%
인문사회과학부	18	29	26	10	9	92
	19.6%	31.5%	28.3%	10.9%	9.8%	100.0%
IT학부	15	18	12	7	3	55
	27.3%	32.7%	21.8%	12.7%	5.5%	100.0%
간호복지학부	13	20	20	8	6	67
	19.4%	29.9%	29.9%	11.9%	9.0%	100.0%
예술학부	7	2	18	5	5	37
	18.9%	5.4%	48.6%	13.5%	13.5%	100.0%
디자인학부	11	20	39	8	7	85
	12.9%	23.5%	45.9%	9.4%	8.2%	100.0%
전체	68	106	128	44	33	379
	17.9%	28.0%	33.8%	11.6%	8.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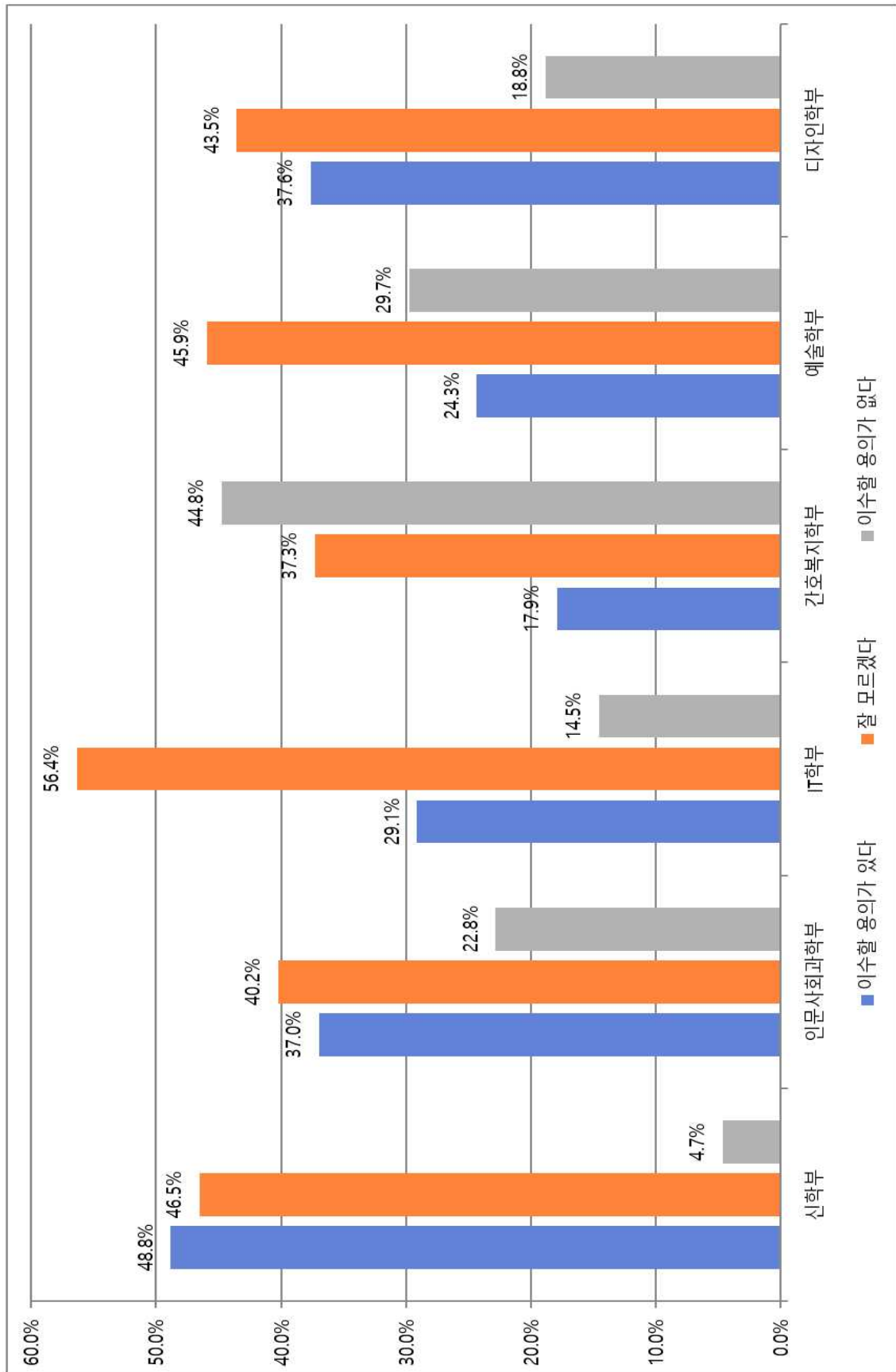
10) 복수전공(다전공, 연계전공, 부전공)의 이수 용의

신입생들이 복수전공(다전공, 연계전공, 부전공)의 이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4.1%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32.7%가 이수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IT학부(56.4%), 신학부(46.5%), 예술학부(45.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았을 때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 47.8%, 여학생 42.2%로 나타났다.

<표 26> 복수전공의 이수용의

단위: 명, %

	이수할 용의가 있다	잘 모르겠다	이수할 용의가 없다	전체
남	43	64	27	134
	32.1%	47.8%	20.1%	100.0%
여	81	103	60	244
	33.2%	42.2%	24.6%	100.0%
기타	0	0	1	1
	0.0%	0.0%	100.0%	100.0%
신학부	21	20	2	43
	48.8%	46.5%	4.7%	100.0%
인문사회과학부	34	37	21	92
	37.0%	40.2%	22.8%	100.0%
IT학부	16	31	8	55
	29.1%	56.4%	14.5%	100.0%
간호복지학부	12	25	30	67
	17.9%	37.3%	44.8%	100.0%
예술학부	9	17	11	37
	24.3%	45.9%	29.7%	100.0%
디자인학부	32	37	16	85
	37.6%	43.5%	18.8%	100.0%
전체	124	167	88	379
	32.7%	44.1%	23.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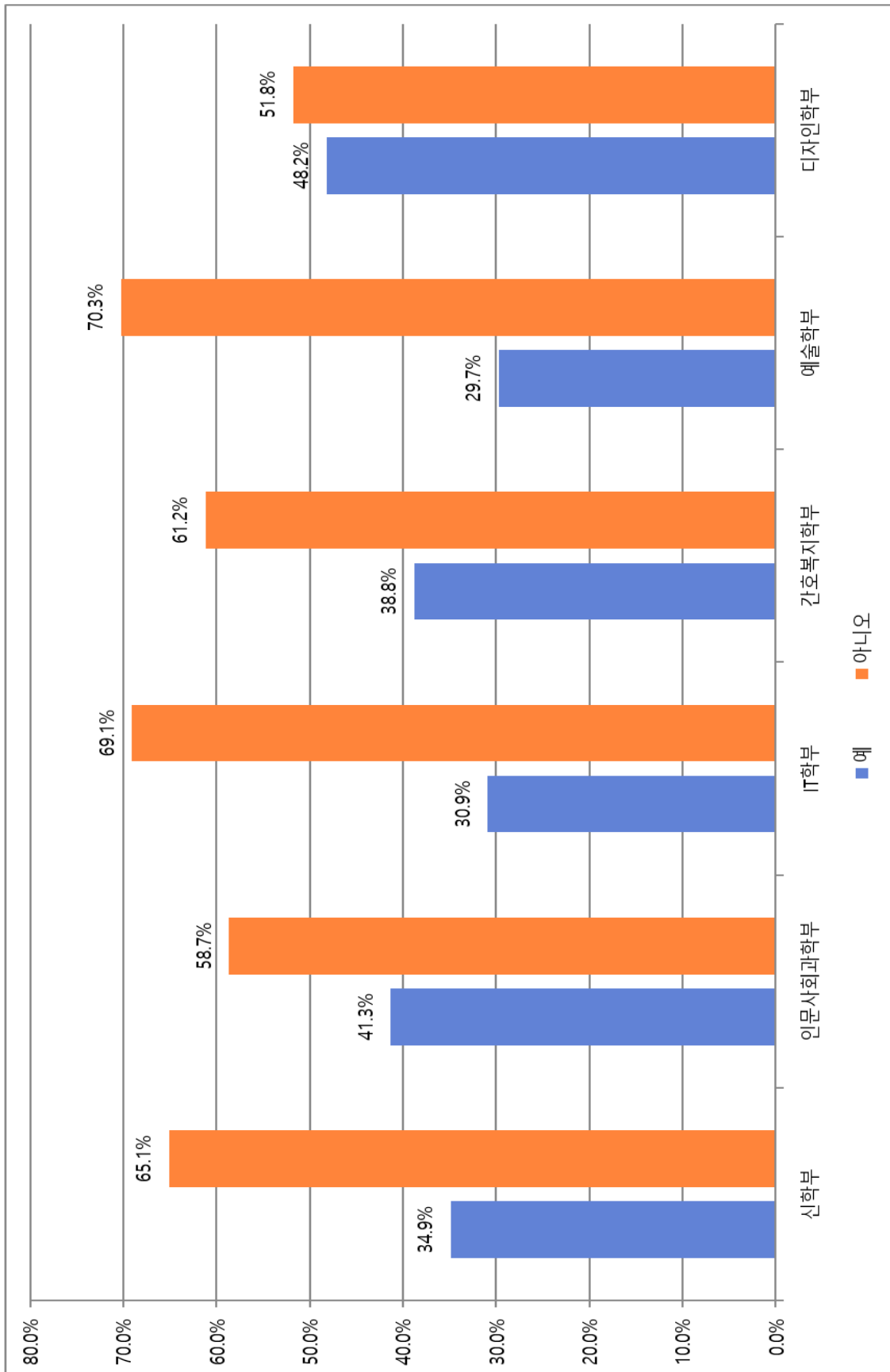
11)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신청 여부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신청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아니오’라고 응답한 학생이 60.9%, ‘예’라고 응답한 학생이 39.1%로 나타났다. ‘아니오’라는 응답 비율을 보면 예술학부(70.3%), IT학부(69.1%), 신학부(65.1%) 순이며 ‘예’라는 응답 비율은 디자인학부(48.3%), 인문사회과학부(41.3%), 간호복지학부(38.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66.4%, 여학생 58.2%가 ‘아니오’로 응답하였고 전년도와 비교할 때 남학생(69.1%)은 낮아지고 여학생(52.0%)을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표 27>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신청 여부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남	45	89	134
	33.6%	66.4%	100.0%
여	102	142	244
	41.8%	58.2%	100.0%
기타	1	0	1
	100.0%	0.0%	100.0%
신학부	15	28	43
	34.9%	65.1%	100.0%
인문사회과학부	38	54	92
	41.3%	58.7%	100.0%
IT학부	17	38	55
	30.9%	69.1%	100.0%
간호복지학부	26	41	67
	38.8%	61.2%	100.0%
예술학부	11	26	37
	29.7%	70.3%	100.0%
디자인학부	41	44	85
	48.2%	51.8%	100.0%
전체	148	231	379
	39.1%	60.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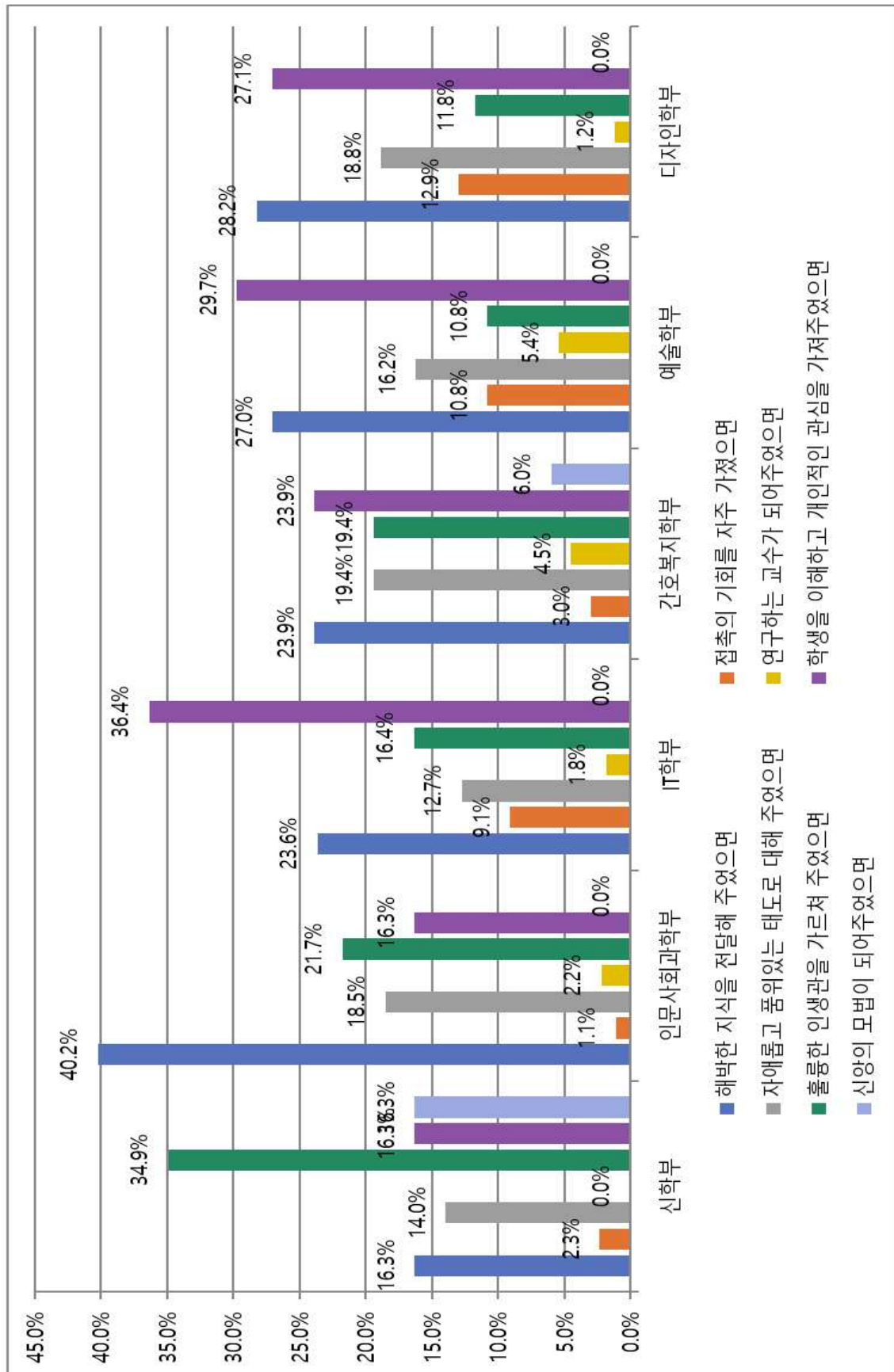
12)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

신입생들이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해박한 지식을 전달해 주었으면’(28.2%)을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학생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24.3%), ‘훌륭한 인생관을 가르쳐 주었으면’(18.7%) 순으로 나타났다. ‘해박한 지식을 전달해 주었으면’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인문사회과학부(40.2%), 디자인학부(28.2%), 예술학부(27.0%)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32.1%는 ‘학생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여학생의 33.2%가 ‘해박한 지식 전달’을 바란다고 응답하였다.

<표 28>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

단위: 명, %

	해박한 지식을 전달해 주었으면	접촉의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자애롭고 품위있는 태도로 대해 주었으면	연구하는 교수가 되어주었으 면	훌륭한 인생관을 가르쳐 주었으면	학생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 면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었으면	전체
남	26	9	18	5	30	43	3	134
	19.4%	6.7%	13.4%	3.7%	22.4%	32.1%	2.2%	100.0%
여	81	15	47	4	41	48	8	244
	33.2%	6.1%	19.3%	1.6%	16.8%	19.7%	3.3%	100.0%
기타	0	0	0	0	0	1	0	1
	0.0%	0.0%	0.0%	0.0%	0.0%	100.0%	0.0%	100.0%
신학부	7	1	6	0	15	7	7	43
	16.3%	2.3%	14.0%	0.0%	34.9%	16.3%	16.3%	100.0%
인문사회과 학부	37	1	17	2	20	15	0	92
	40.2%	1.1%	18.5%	2.2%	21.7%	16.3%	0.0%	100.0%
IT학부	13	5	7	1	9	20	0	55
	23.6%	9.1%	12.7%	1.8%	16.4%	36.4%	0.0%	100.0%
간호복지 학부	16	2	13	3	13	16	4	67
	23.9%	3.0%	19.4%	4.5%	19.4%	23.9%	6.0%	100.0%
예술학부	10	4	6	2	4	11	0	37
	27.0%	10.8%	16.2%	5.4%	10.8%	29.7%	0.0%	100.0%
디자인 학부	24	11	16	1	10	23	0	85
	28.2%	12.9%	18.8%	1.2%	11.8%	27.1%	0.0%	100.0%
전체	107	24	65	9	71	92	11	379
	28.2%	6.3%	17.2%	2.4%	18.7%	24.3%	2.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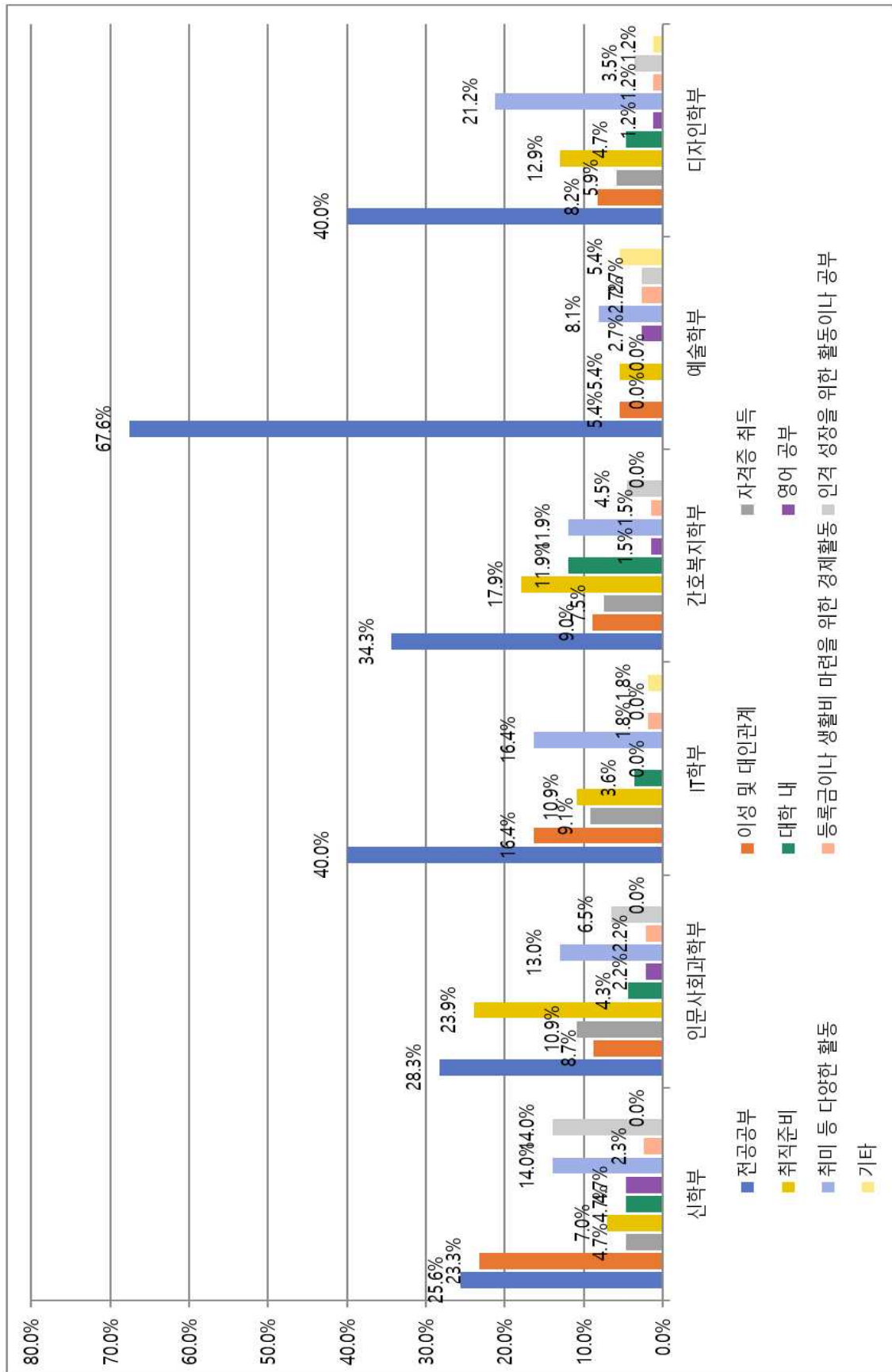
13)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전공 공부(37.2%)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취직 준비와 취미 등 다양한 활동(14.8%)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 공부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예술학부(67.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디자인학부와 IT학부(40.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38.8%), 여학생(36.1%) 모두 대학 생활에서 전공 공부를 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29>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

단위: 명, %

	전공 공부	이성 및 대인 관계	자격증 취득	취직 준비	대학 내	영어 공부	취미 등 다양한 활동	등록금 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경제 활동	인격 성장을 위한 활동 이나 공부	기타	전체
남	52	24	9	16	5	2	19	2	4	1	134
	38.8%	17.9%	6.7%	11.9%	3.7%	1.5%	14.2%	1.5%	3.0%	0.7%	100.0%
여	88	18	18	40	15	5	37	5	15	3	244
	36.1%	7.4%	7.4%	16.4%	6.1%	2.0%	15.2%	2.0%	6.1%	1.2%	100.0%
기타	1	0	0	0	0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11	10	2	3	2	2	6	1	6	0	43
	25.6%	23.3%	4.7%	7.0%	4.7%	4.7%	14.0%	2.3%	14.0%	0.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26	8	10	22	4	2	12	2	6	0	92
	28.3%	8.7%	10.9%	23.9%	4.3%	2.2%	13.0%	2.2%	6.5%	0.0%	100.0%
IT학부	22	9	5	6	2	0	9	1	0	1	55
	40.0%	16.4%	9.1%	10.9%	3.6%	0.0%	16.4%	1.8%	0.0%	1.8%	100.0%
간호복지 학부	23	6	5	12	8	1	8	1	3	0	67
	34.3%	9.0%	7.5%	17.9%	11.9%	1.5%	11.9%	1.5%	4.5%	0.0%	100.0%
예술학부	25	2	0	2	0	1	3	1	1	2	37
	67.6%	5.4%	0.0%	5.4%	0.0%	2.7%	8.1%	2.7%	2.7%	5.4%	100.0%
디자인 학부	34	7	5	11	4	1	18	1	3	1	85
	40.0%	8.2%	5.9%	12.9%	4.7%	1.2%	21.2%	1.2%	3.5%	1.2%	100.0%
전체	141	42	27	56	20	7	56	7	19	4	379
	37.2%	11.1%	7.1%	14.8%	5.3%	1.8%	14.8%	1.8%	5.0%	1.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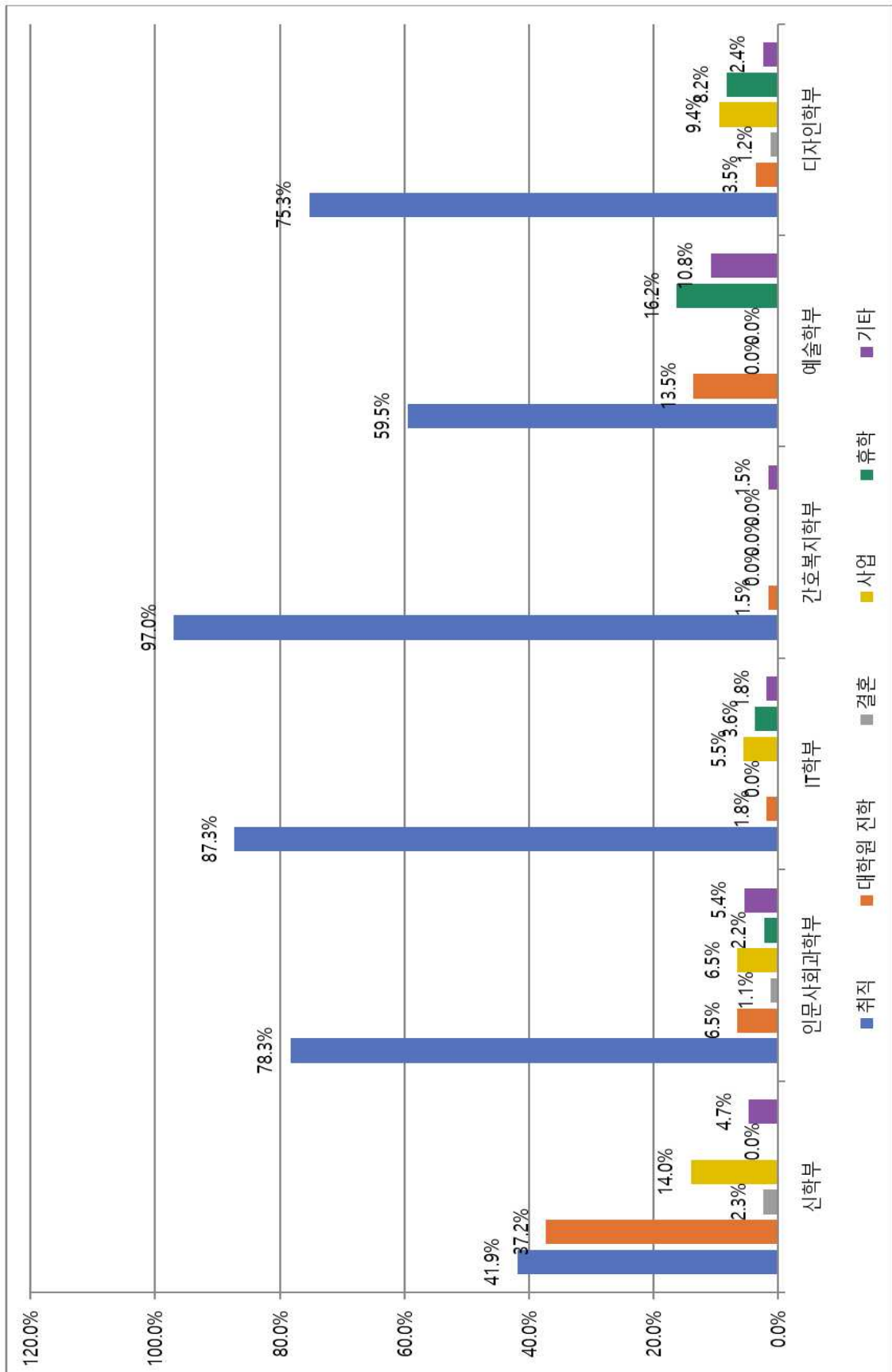
14)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76.3%가 '취직'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대학원 진학(8.4%), 사업(6.1%)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간호복지학부가 취직을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97.0%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는 IT학부(87.3%), 인문사회과학부(78.3%)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학부는 4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79.9%), 남학생(69.4%) 모두 취직에 대한 의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졸업 후 진로 계획

단위: 명, %

	취직	대학원 진학	결혼	사업	휴학	기타	전체
남	93	10	2	16	7	6	134
	69.4%	7.5%	1.5%	11.9%	5.2%	4.5%	100.0%
여	195	22	1	7	10	9	244
	79.9%	9.0%	0.4%	2.9%	4.1%	3.7%	100.0%
기타	1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18	16	1	6	0	2	43
	41.9%	37.2%	2.3%	14.0%	0.0%	4.7%	100.0%
인문사회 과학부	72	6	1	6	2	5	92
	78.3%	6.5%	1.1%	6.5%	2.2%	5.4%	100.0%
IT학부	48	1	0	3	2	1	55
	87.3%	1.8%	0.0%	5.5%	3.6%	1.8%	100.0%
간호복지 학부	65	1	0	0	0	1	67
	97.0%	1.5%	0.0%	0.0%	0.0%	1.5%	100.0%
예술학부	22	5	0	0	6	4	37
	59.5%	13.5%	0.0%	0.0%	16.2%	10.8%	100.0%
디자인학부	64	3	1	8	7	2	85
	75.3%	3.5%	1.2%	9.4%	8.2%	2.4%	100.0%
전체	289	32	3	23	17	15	379
	76.3%	8.4%	0.8%	6.1%	4.5%	4.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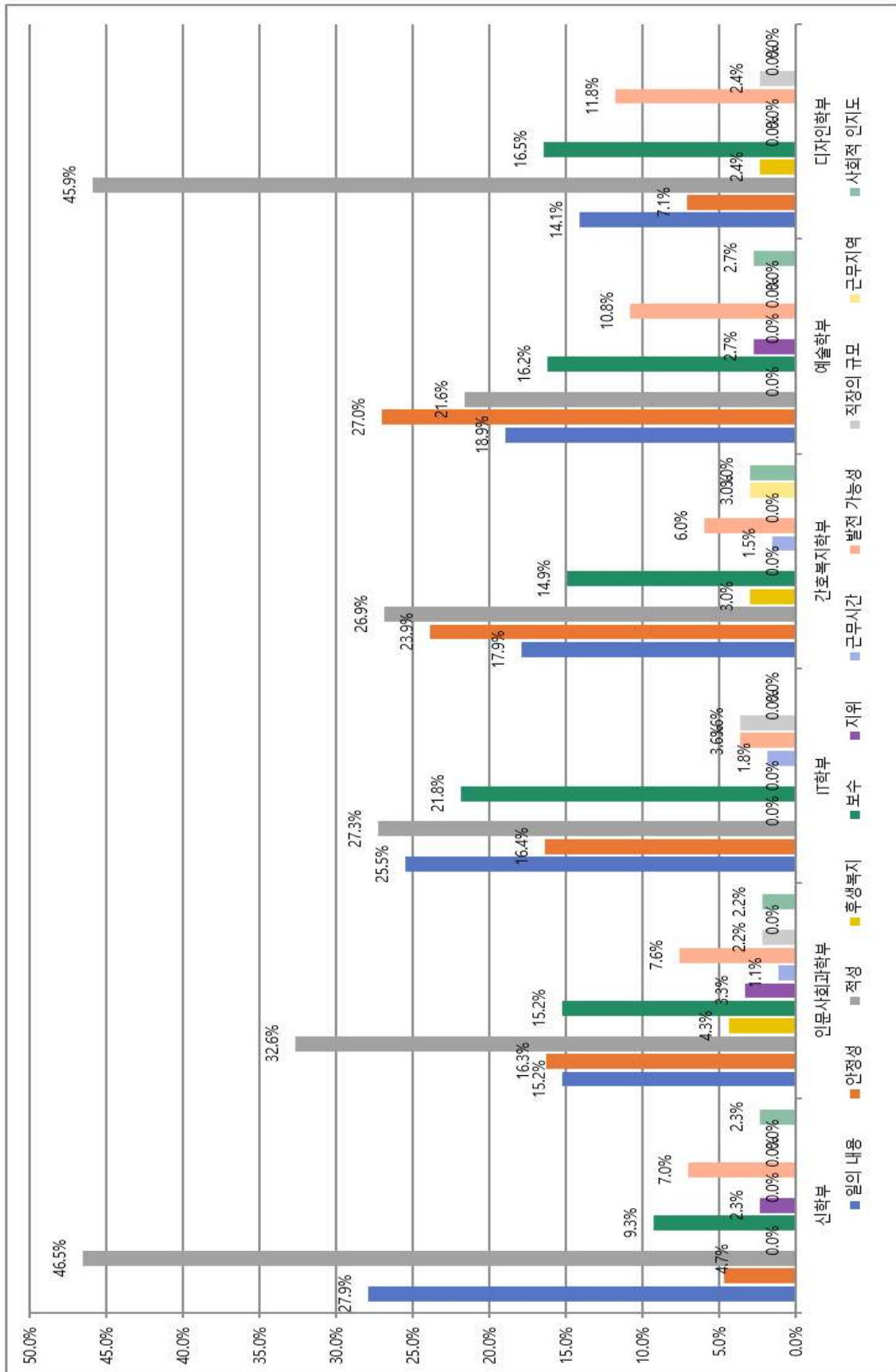
15) 직업 선택 시 제일 먼저 고려할 점

직업 선택 시 어떤 점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은 적성(36.4%)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고, 그다음으로는 일의 내용(18.7%), 보수(15.8%) 순이다. 적성이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신학부(46.5%)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디자인학부(45.9%), 인문사회과학부(32.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35.8%), 여학생(33.6%) 모두 직업 선택 시 적성을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직업 선택 시 제일 먼저 고려할 점

단위: 명, %

	일의 내용	안정성	적성	후생 복지	보수	지위	근무 시간	발전 가능성	직장의 규모	근무 지역	사회적 인지도	전체
남	24	19	48	1	25	3	2	9	3	0	0	134
	17.9%	14.2%	35.8%	.7%	18.7%	2.2%	1.5%	6.7%	2.2%	0.0%	0.0%	100.0%
여	46	39	82	7	35	2	1	21	3	2	6	244
	18.9%	16.0%	33.6%	2.9%	14.3%	0.8%	0.4%	8.6%	1.2%	0.8%	2.5%	100.0%
기타	1	0	0	0	0	0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12	2	20	0	4	1	0	3	0	0	1	43
	27.9%	4.7%	46.5%	0.0%	9.3%	2.3%	0.0%	7.0%	0.0%	0.0%	2.3%	100.0%
인문사회 과학부	14	15	30	4	14	3	1	7	2	0	2	92
	15.2%	16.3%	32.6%	4.3%	15.2%	3.3%	1.1%	7.6%	2.2%	0.0%	2.2%	100.0%
IT학부	14	9	15	0	12	0	1	2	2	0	0	55
	25.5%	16.4%	27.3%	0.0%	21.8%	0.0%	1.8%	3.6%	3.6%	0.0%	0.0%	100.0%
간호복지 학부	12	16	18	2	10	0	1	4	0	2	2	67
	17.9%	23.9%	26.9%	3.0%	14.9%	0.0%	1.5%	6.0%	0.0%	3.0%	3.0%	100.0%
예술 학부	7	10	8	0	6	1	0	4	0	0	1	37
	18.9%	27.0%	21.6%	0.0%	16.2%	2.7%	0.0%	10.8%	0.0%	0.0%	2.7%	100.0%
디자인 학부	12	6	39	2	14	0	0	10	2	0	0	85
	14.1%	7.1%	45.9%	2.4%	16.5%	0.0%	0.0%	11.8%	2.4%	0.0%	0.0%	100.0%
전체	71	58	130	8	60	5	3	30	6	2	6	379
	18.7%	15.3%	34.3%	2.1%	15.8%	1.3%	0.8%	7.9%	1.6%	0.5%	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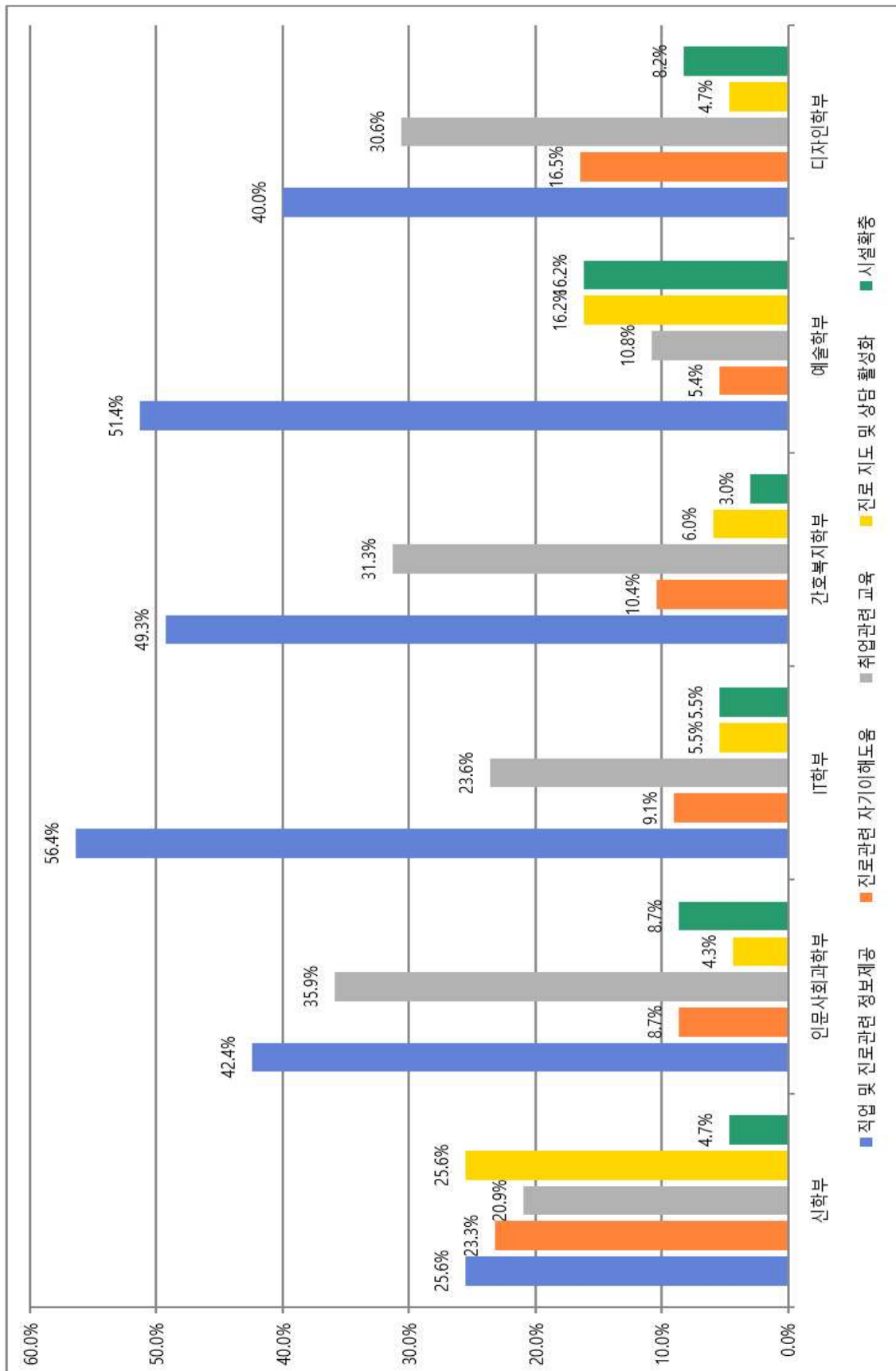
16) 취업에 관해 학교에 가장 원하는 것

신입생들이 취업에 관해 학교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기를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 직업 및 진로 관련 정보제공(44.1%)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취업 관련 교육’(28.0%), ‘진로 관련 자기 이해 도움’(12.1%)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및 진로 관련 정보 제공’을 원한다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IT학부(56.4%), 예술학부(51.4%), 간호복지학부(49.3%)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44.8%), 여학생(43.4%) 모두 ‘직업 및 진로 관련 정보제공’을 원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32>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 가장 원하는 것

단위: 명, %

	직업 및 진로 관련 정보제공	진로 관련 자기 이해 도움	취업 관련 교육	진로 지도 및 상담 활성화	시설 확충	전체
남	60	27	23	12	12	134
	44.8%	20.1%	17.2%	9.0%	9.0%	100.0%
여	106	19	83	20	16	244
	43.4%	7.8%	34.0%	8.2%	6.6%	100.0%
기타	1	0	0	0	0	1
	10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11	10	9	11	2	43
	25.6%	23.3%	20.9%	25.6%	4.7%	100.0%
인문사회과학부	39	8	33	4	8	92
	42.4%	8.7%	35.9%	4.3%	8.7%	100.0%
IT학부	31	5	13	3	3	55
	56.4%	9.1%	23.6%	5.5%	5.5%	100.0%
간호복지학부	33	7	21	4	2	67
	49.3%	10.4%	31.3%	6.0%	3.0%	100.0%
예술학부	19	2	4	6	6	37
	51.4%	5.4%	10.8%	16.2%	16.2%	100.0%
디자인학부	34	14	26	4	7	85
	40.0%	16.5%	30.6%	4.7%	8.2%	100.0%
전체	167	46	106	32	28	379
	44.1%	12.1%	28.0%	8.4%	7.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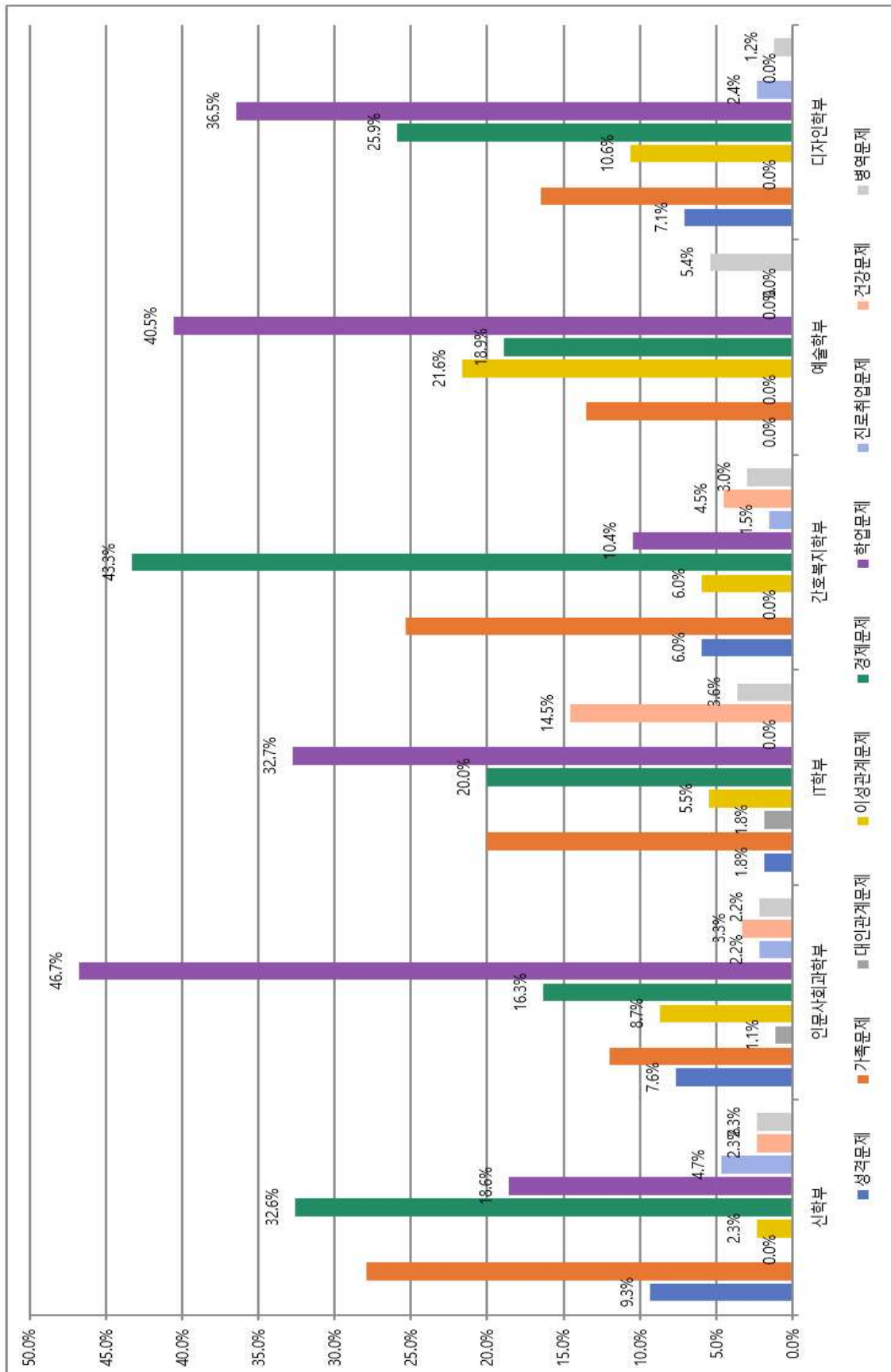
17) 대학 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진로 취업 문제'(32.2%)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학업 문제'(25.9%) '가족 문제'(18.5%) 순이었다. 학부별로 보면 진로 취업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학부는 인문사회과학부(46.7%), 예술학부(40.5%), 디자인 학부(36.5%) 순이며, 학업 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학부는 간호복지학부(43.3%), 신학부 (32.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26.9%), 여학생(35.2%) 모두 진로 취업 문제에 대해 걱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33> 대학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

단위: 명, %

	성격 문제	가족 문제	대인 관계 문제	경제 문제	학업 문제	진로 취업 문제	건강 문제	병역 문제	기타	전체
남	8	23	2	19	26	36	2	13	5	134
	6.0%	17.2%	1.5%	14.2%	19.4%	26.9%	1.5%	9.7%	3.7%	100.0%
여	14	47	0	14	71	86	5	2	5	244
	5.7%	19.3%	0.0%	5.7%	29.1%	35.2%	2.0%	0.8%	2.0%	100.0%
기타	0	0	0	0	1	0	0	0	0	1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4	12	0	1	14	8	2	1	1	43
	9.3%	27.9%	0.0%	2.3%	32.6%	18.6%	4.7%	2.3%	2.3%	100.0%
인문사회 과학부	7	11	1	8	15	43	2	3	2	92
	7.6%	12.0%	1.1%	8.7%	16.3%	46.7%	2.2%	3.3%	2.2%	100.0%
IT학부	1	11	1	3	11	18	0	8	2	55
	1.8%	20.0%	1.8%	5.5%	20.0%	32.7%	0.0%	14.5%	3.6%	100.0%
간호복지 학부	4	17	0	4	29	7	1	3	2	67
	6.0%	25.4%	0.0%	6.0%	43.3%	10.4%	1.5%	4.5%	3.0%	100.0%
예술학부	0	5	0	8	7	15	0	0	2	37
	0.0%	13.5%	0.0%	21.6%	18.9%	40.5%	0.0%	0.0%	5.4%	100.0%
디자인학부	6	14	0	9	22	31	2	0	1	85
	7.1%	16.5%	0.0%	10.6%	25.9%	36.5%	2.4%	0.0%	1.2%	100.0%
전체	22	70	2	33	98	122	7	15	10	379
	5.8%	18.5%	0.5%	8.7%	25.9%	32.2%	1.8%	4.0%	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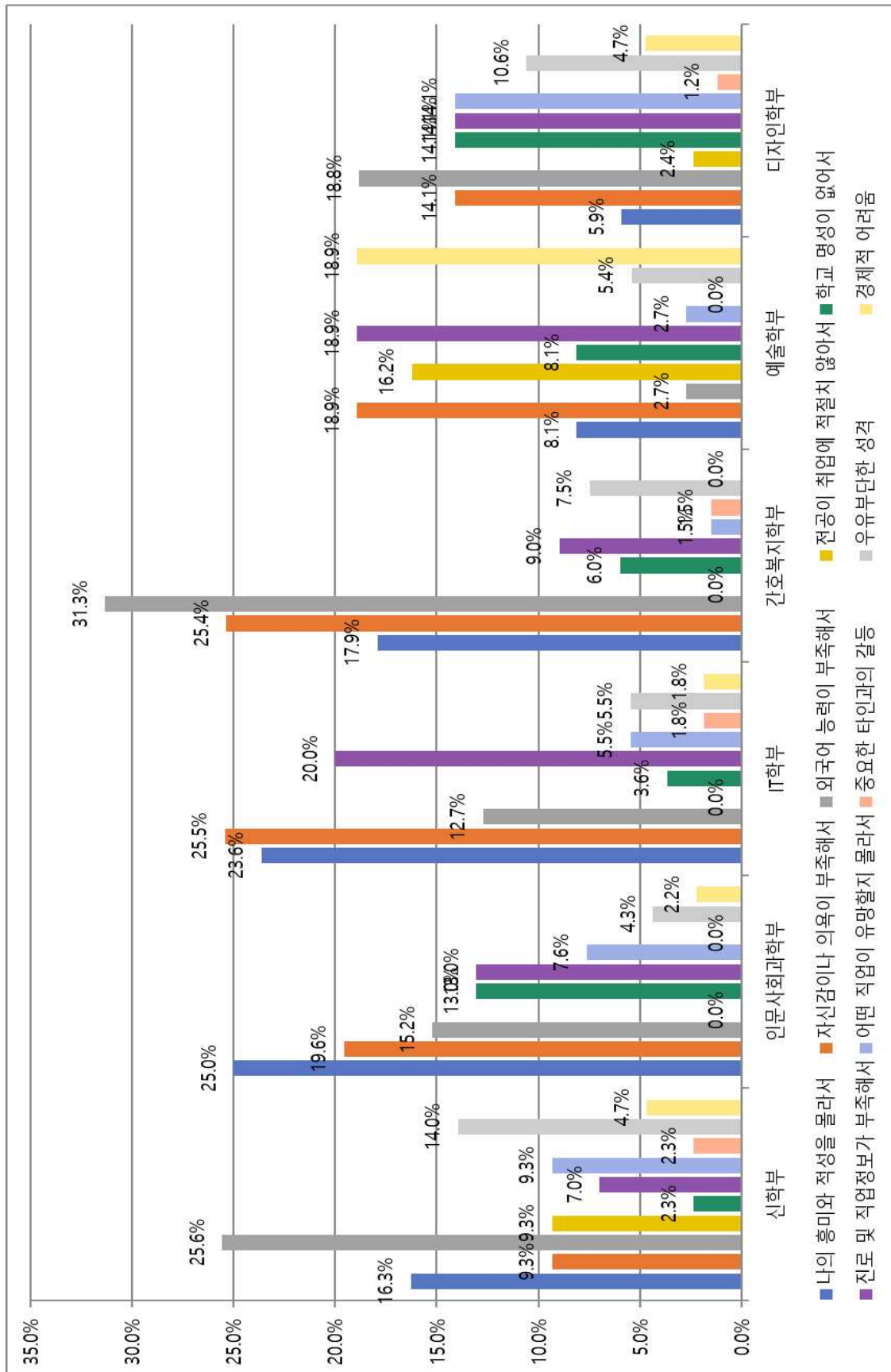


18) 졸업 후 진로 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신입생들은 졸업 후 진로 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에 관한 질문에 ‘자신감이나 의욕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19.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18.5%), ‘나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16.6%) 순이다. ‘자신감이나 의욕이 부족해서’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25.5%)로 가장 높았고 간호복지학부(25.4%), 인문사회과학부(19.6%) 순이다. 간호복지학부는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31.3%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자신감이나 의욕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22.4%로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나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와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18.0%로 높게 나타났다.

<표 34> 졸업 후 진로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 단위: 명, %

	나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	자신감 이나 의욕이 부족 해서	외국어 능력이 부족 해서	전공이 취업에 적절치 않아서	학교 명성이 없어서	진로 및 직업 정보가 부족 해서	어떤 직업이 유망 할지 몰라서	중요한 타인 과의 갈등	우유부 단한 성격	경제적 어려움	전체
남	19	30	26	3	10	19	6	3	10	8	134
	14.2%	22.4%	19.4%	2.2%	7.5%	14.2%	4.5%	2.2%	7.5%	6.0%	100.0%
여	44	42	44	9	24	32	22	1	18	8	244
	18.0%	17.2%	18.0%	3.7%	9.8%	13.1%	9.0%	0.4%	7.4%	3.3%	100.0%
기타	0	0	0	0	0	0	0	0	1	0	1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100.0%
신학부	7	4	11	4	1	3	4	1	6	2	43
	16.3%	9.3%	25.6%	9.3%	2.3%	7.0%	9.3%	2.3%	14.0%	4.7%	100.0%
인문 사회 과학부	23	18	14	0	12	12	7	0	4	2	92
	25.0%	19.6%	15.2%	0.0%	13.0%	13.0%	7.6%	0.0%	4.3%	2.2%	100.0%
IT학부	13	14	7	0	2	11	3	1	3	1	55
	23.6%	25.5%	12.7%	0.0%	3.6%	20.0%	5.5%	1.8%	5.5%	1.8%	100.0%
간호 복지 학부	12	17	21	0	4	6	1	1	5	0	67
	17.9%	25.4%	31.3%	0.0%	6.0%	9.0%	1.5%	1.5%	7.5%	0.0%	100.0%
예술 학부	3	7	1	6	3	7	1	0	2	7	37
	8.1%	18.9%	2.7%	16.2%	8.1%	18.9%	2.7%	0.0%	5.4%	18.9%	100.0%
디자인 학부	5	12	16	2	12	12	12	1	9	4	85
	5.9%	14.1%	18.8%	2.4%	14.1%	14.1%	14.1%	1.2%	10.6%	4.7%	100.0%
전체	63	72	70	12	34	51	28	4	29	16	379
	16.6%	19.0%	18.5%	3.2%	9.0%	13.5%	7.4%	1.1%	7.7%	4.2%	100.0%



5.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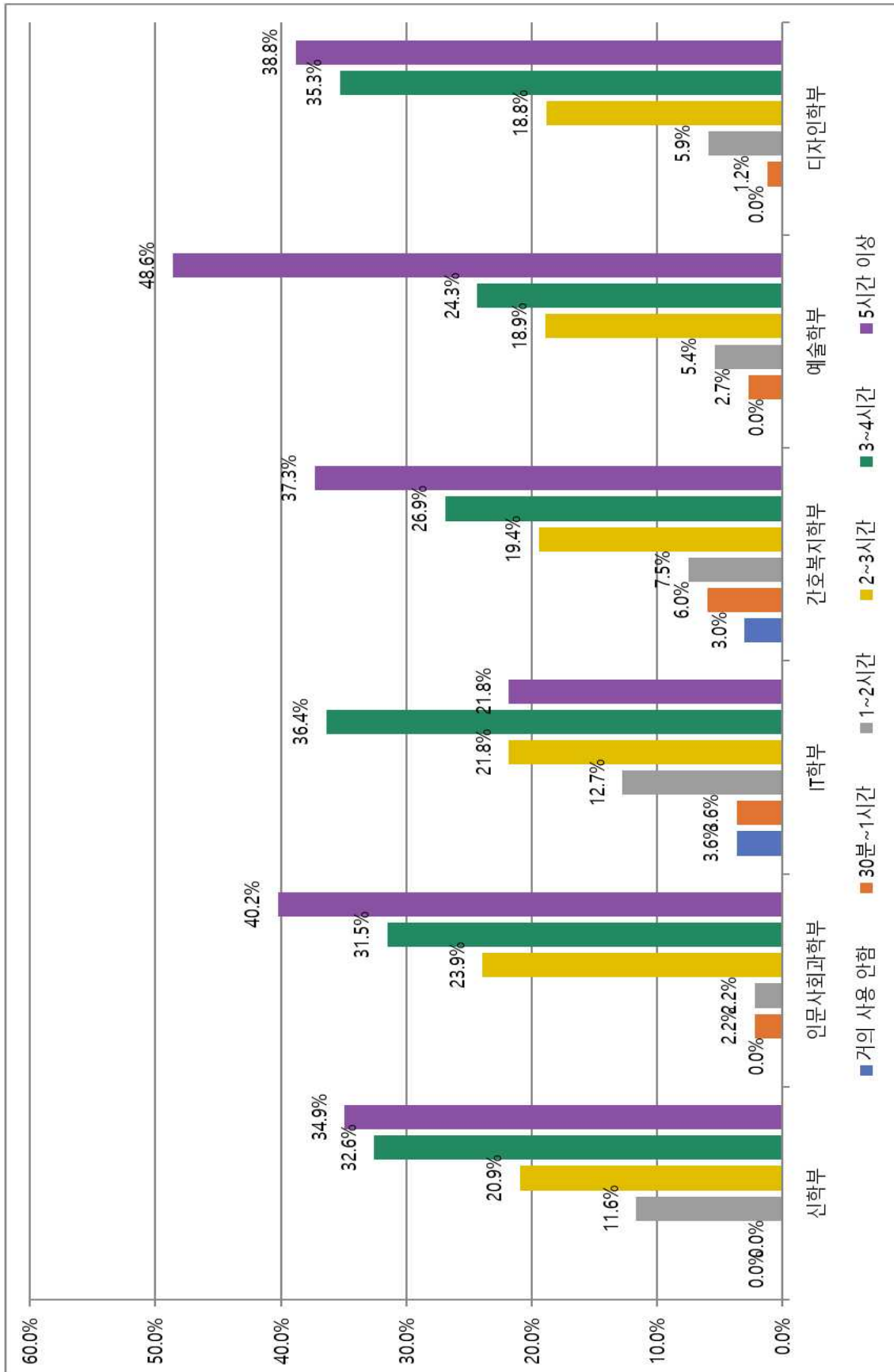
1)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

신입생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5시간 이상(36.9%)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3~4시간(31.7%), 2~3시간(20.8%) 순으로 나타났다. 학부별로 보면 예술학부가 5시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8.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인문사회과학부(40.2%), 디자인학부(38.3%) 순이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29.9%가 3~4시간, 여학생의 43.3%가 5시간 이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많아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사용 시간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하루 평균 핸드폰 이용 시간

단위: 명, %

	거의 사용 안 함	30분~ 1시간	1~2시간	2~3시간	3~4시간	5시간 이상	전체
남	3	6	17	33	40	35	134
	2.2%	4.5%	12.7%	24.6%	29.9%	26.1%	100.0%
여	0	4	9	46	80	105	244
	0.0%	1.6%	3.7%	18.9%	32.8%	43.0%	100.0%
기타	1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0	0	5	9	14	15	43
	0.0%	0.0%	11.6%	20.9%	32.6%	34.9%	100.0%
인문사회과학부	0	2	2	22	29	37	92
	0.0%	2.2%	2.2%	23.9%	31.5%	40.2%	100.0%
IT학부	2	2	7	12	20	12	55
	3.6%	3.6%	12.7%	21.8%	36.4%	21.8%	100.0%
간호복지 학부	2	4	5	13	18	25	67
	3.0%	6.0%	7.5%	19.4%	26.9%	37.3%	100.0%
예술학부	0	1	2	7	9	18	37
	0.0%	2.7%	5.4%	18.9%	24.3%	48.6%	100.0%
디자인학부	0	1	5	16	30	33	85
	0.0%	1.2%	5.9%	18.8%	35.3%	38.8%	100.0%
전체	4	10	26	79	120	140	379
	1.1%	2.6%	6.9%	20.8%	31.7%	36.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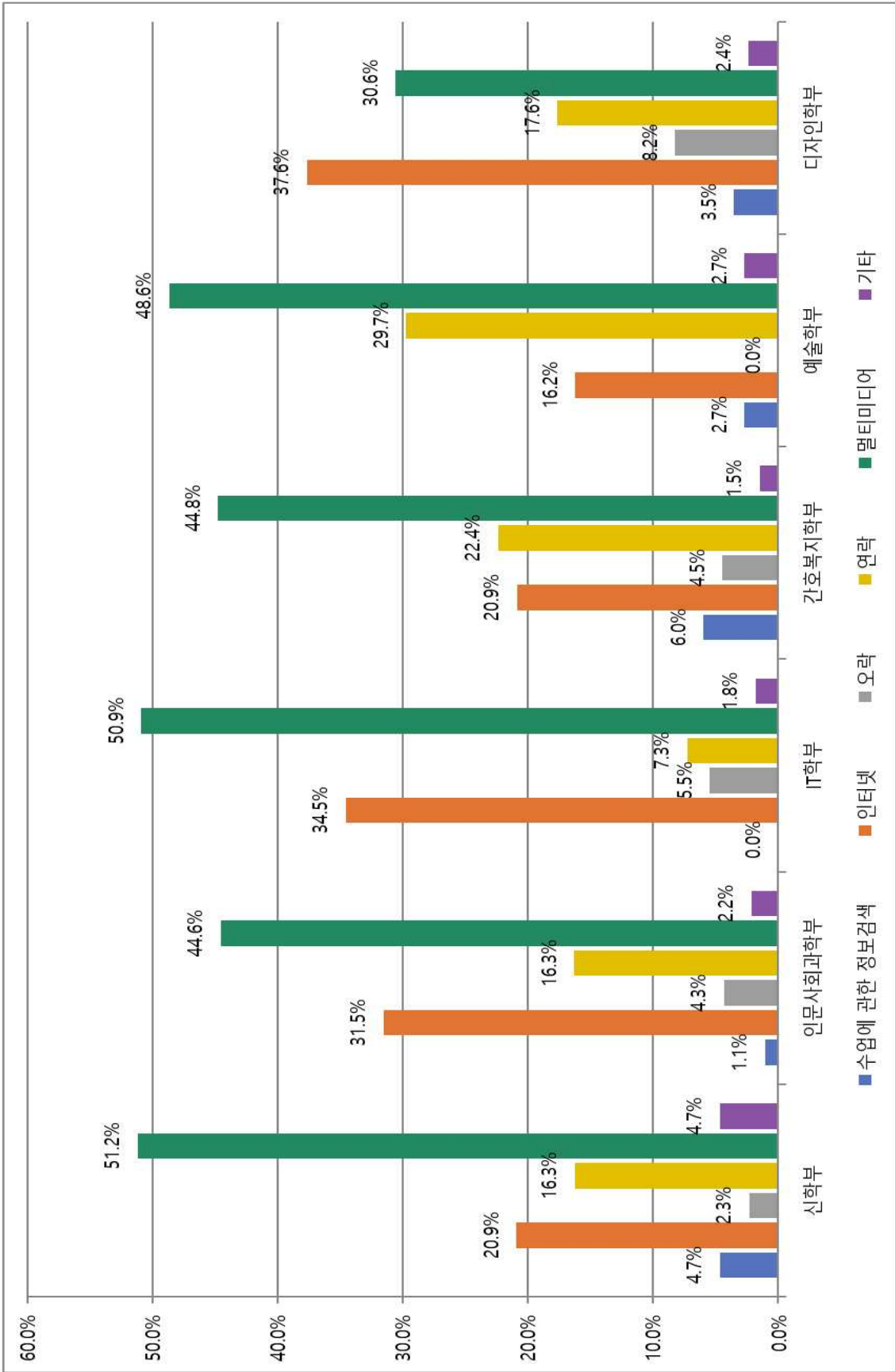
2) 스마트폰 사용의 주된 용도

신입생들이 스마트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멀티미디어(43.5%)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인터넷(28.8%), 연락(17.7%) 순이다. 멀티미디어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신학부(51.2%), IT학부(50.9%), 예술학부(48.6%)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49.3%)이 여학생(40.6%)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6> 스마트폰 사용의 주된 용도

단위: 명, %

	수업에 관한 정보검색	인터넷	오락	연락	멀티 미디어	기타	전체
남	1	33	11	20	66	3	134
	0.7%	24.6%	8.2%	14.9%	49.3%	2.2%	100.0%
여	10	75	7	47	99	6	244
	4.1%	30.7%	2.9%	19.3%	40.6%	2.5%	100.0%
기타	0	1	0	0	0	0	1
	0.0%	10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2	9	1	7	22	2	43
	4.7%	20.9%	2.3%	16.3%	51.2%	4.7%	100.0%
인문사회 과학부	1	29	4	15	41	2	92
	1.1%	31.5%	4.3%	16.3%	44.6%	2.2%	100.0%
IT학부	0	19	3	4	28	1	55
	0.0%	34.5%	5.5%	7.3%	50.9%	1.8%	100.0%
간호복지 학부	4	14	3	15	30	1	67
	6.0%	20.9%	4.5%	22.4%	44.8%	1.5%	100.0%
예술학부	1	6	0	11	18	1	37
	2.7%	16.2%	0.0%	29.7%	48.6%	2.7%	100.0%
디자인학부	3	32	7	15	26	2	85
	3.5%	37.6%	8.2%	17.6%	30.6%	2.4%	100.0%
전체	11	109	18	67	165	9	379
	2.9%	28.8%	4.7%	17.7%	43.5%	2.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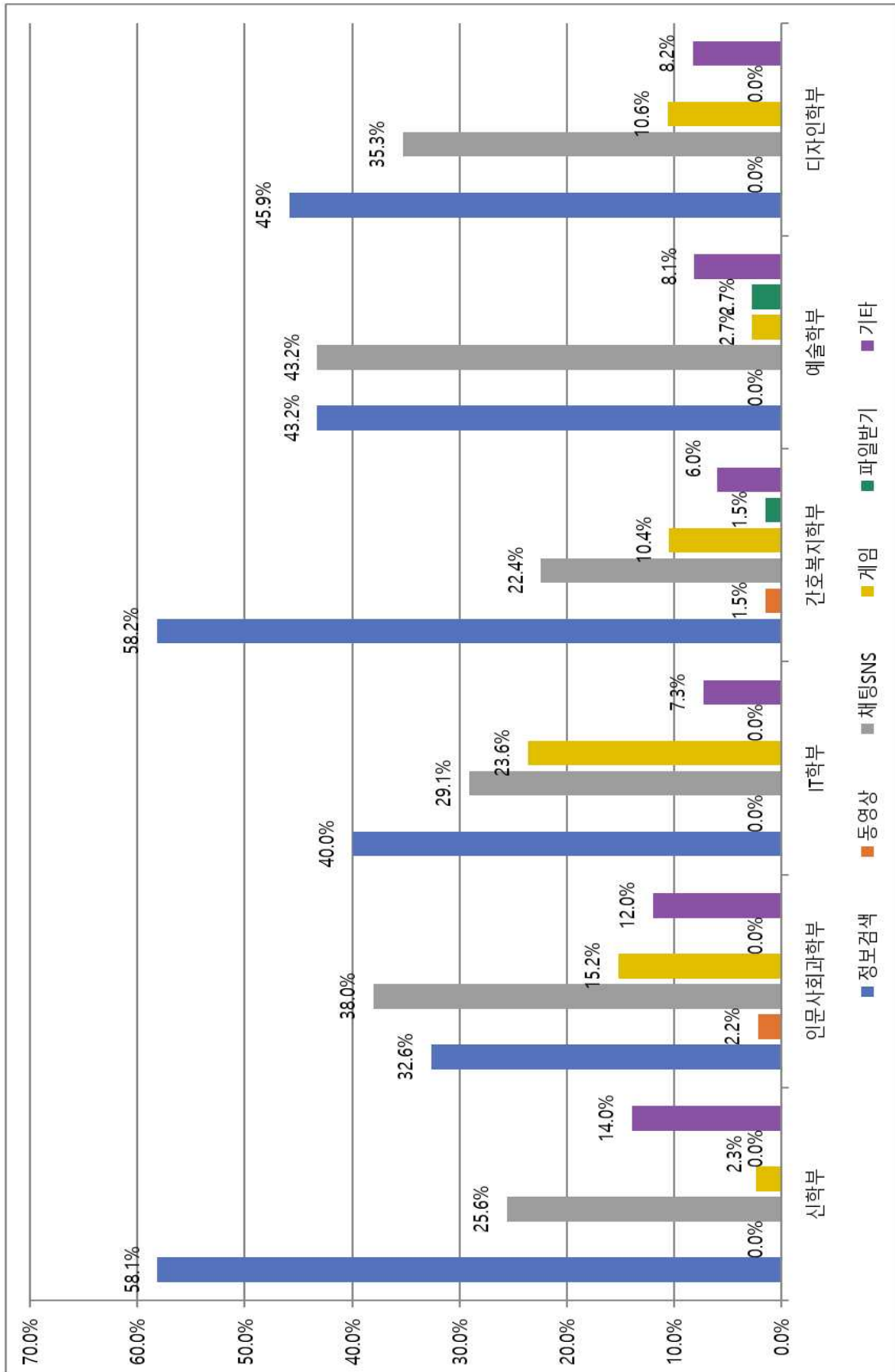
3) 인터넷 사용의 주된 용도

신입생들에게 인터넷을 사용한 용도를 조사한 결과, 정보검색(45.1%)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채팅 및 SNS(32.5%), 게임(11.9%)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검색의 응답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간호복지학부(58.2%), 신학부 (58.1%), 디자인학부(45.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47.5%), 남학생(40.3%) 모두 인터넷의 주된 용도로 정보검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채팅 및 SNS 사용은 남학생(27.6%)보다 여학생(35.2%)이 높게 나타났다고, 반대로 게임사용은 남학생(22.4%)이 여학생(6.1%)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표 37> 인터넷의 주된 용도

단위: 명, %

	정보검색	동영상	채팅 및 SNS	게임	파일받기	기타	전체
남	54	1	37	30	0	12	134
	40.3%	0.7%	27.6%	22.4%	0.0%	9.0%	100.0%
여	116	2	86	15	2	23	244
	47.5%	0.8%	35.2%	6.1%	0.8%	9.4%	100.0%
기타	1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25	0	11	1	0	6	43
	58.1%	0.0%	25.6%	2.3%	0.0%	14.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30	2	35	14	0	11	92
	32.6%	2.2%	38.0%	15.2%	0.0%	12.0%	100.0%
IT학부	22	0	16	13	0	4	55
	40.0%	0.0%	29.1%	23.6%	0.0%	7.3%	100.0%
간호복지 학부	39	1	15	7	1	4	67
	58.2%	1.5%	22.4%	10.4%	1.5%	6.0%	100.0%
예술학부	16	0	16	1	1	3	37
	43.2%	0.0%	43.2%	2.7%	2.7%	8.1%	100.0%
디자인학부	39	0	30	9	0	7	85
	45.9%	0.0%	35.3%	10.6%	0.0%	8.2%	100.0%
전체	171	3	123	45	2	35	379
	45.1%	0.8%	32.5%	11.9%	0.5%	9.2%	100.0%



6. 이성 및 성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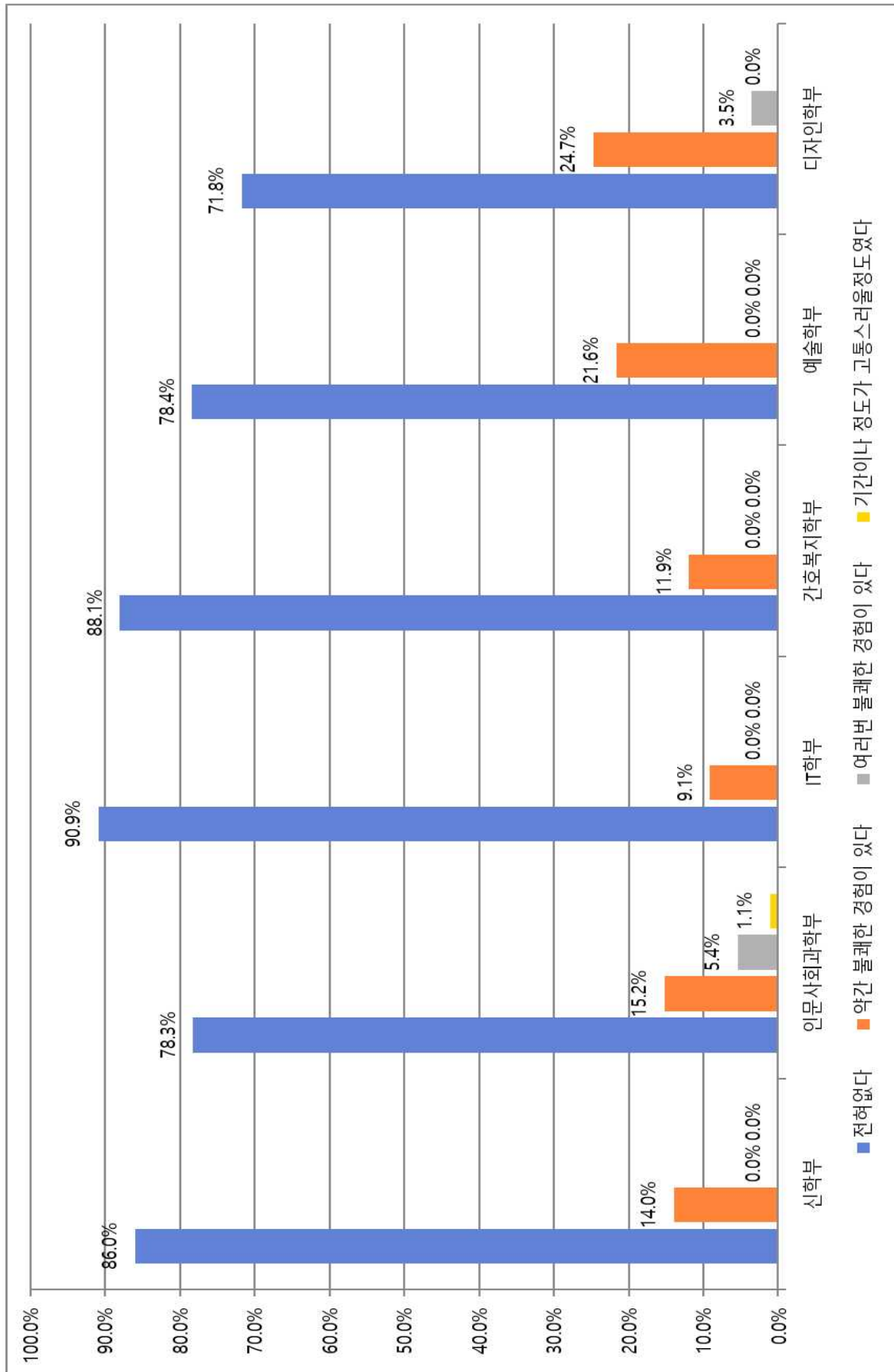
1)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경험 여부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험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신입생의 81.3%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전혀 없다’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살펴보면, IT학부(90.9%), 간호복지학부(88.1%), 신학부(86.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전혀 없다’라는 응답에 남학생(95.5%)이 여학생(73.4%)보다 더 높고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경험이 여학생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표 38>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경험 여부

단위: 명, %

	전혀 없다	약간 불쾌한 경험이 있다	여러 번 불쾌한 경험이 있다	기간이나 정도가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전체
남	128	4	1	1	134
	95.5%	3.0%	0.7%	0.7%	100.0%
여	179	58	7	0	244
	73.4%	23.8%	2.9%	0.0%	100.0%
기타	1	0	0	0	1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37	6	0	0	43
	86.0%	14.0%	0.0%	0.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72	14	5	1	92
	78.3%	15.2%	5.4%	1.1%	100.0%
IT학부	50	5	0	0	55
	90.9%	9.1%	0.0%	0.0%	100.0%
간호복지 학부	59	8	0	0	67
	88.1%	11.9%	0.0%	0.0%	100.0%
예술학부	29	8	0	0	37
	78.4%	21.6%	0.0%	0.0%	100.0%
디자인학부	61	21	3	0	85
	71.8%	24.7%	3.5%	0.0%	100.0%
전체	308	62	8	1	379
	81.3%	16.4%	2.1%	0.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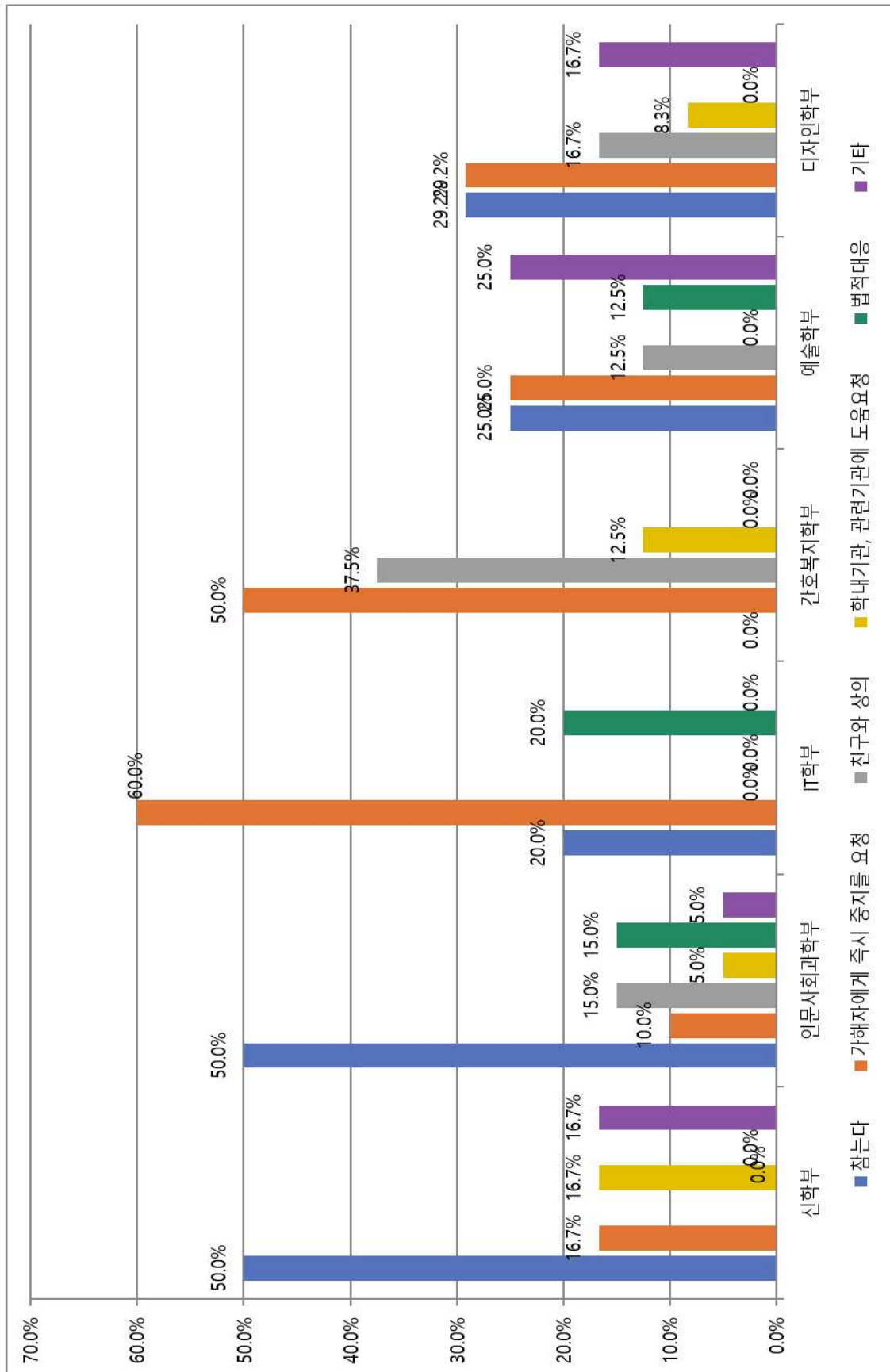
2)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대응 방법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할 때 그 대응 방법을 조사한 결과, ‘참는다’(32.4%), ‘가해자에게 즉시 중지를 요청’(26.8%), ‘친구와 상의’(15.5%) 순으로 응답하였다. ‘참는다’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신학부와 인문사회과학부(50.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디자인학부(29.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50.0%)이 여학생(30.8%)보다 ‘참는다’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9>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대응 방법

단위: 명, %

	참는다	가해자에게 즉시 중지요청	친구와 상의	학내기관, 관련 기관에 도움요청	법적 대응	기타	전체
남	3	1	0	2	0	0	6
	50.0%	16.7%	0.0%	33.3%	0.0%	0.0%	100.0%
여	20	18	11	3	5	8	65
	30.8%	27.7%	16.9%	4.6%	7.7%	12.3%	100.0%
기타	23	19	11	5	5	8	71
	32.4%	26.8%	15.5%	7.0%	7.0%	11.3%	100.0%
신학부	3	1	0	1	0	1	6
	50.0%	16.7%	0.0%	16.7%	0.0%	16.7%	100.0%
인문사회 과학부	10	2	3	1	3	1	20
	50.0%	10.0%	15.0%	5.0%	15.0%	5.0%	100.0%
IT학부	1	3	0	0	1	0	5
	20.0%	60.0%	0.0%	0.0%	20.0%	0.0%	100.0%
간호복지 학부	0	4	3	1	0	0	8
	0.0%	50.0%	37.5%	12.5%	0.0%	0.0%	100.0%
예술학부	2	2	1	0	1	2	8
	25.0%	25.0%	12.5%	0.0%	12.5%	25.0%	100.0%
디자인학부	7	7	4	2	0	4	24
	29.2%	29.2%	16.7%	8.3%	0.0%	16.7%	100.0%
전체	23	19	11	5	5	8	71
	32.4%	26.8%	15.5%	7.0%	7.0%	1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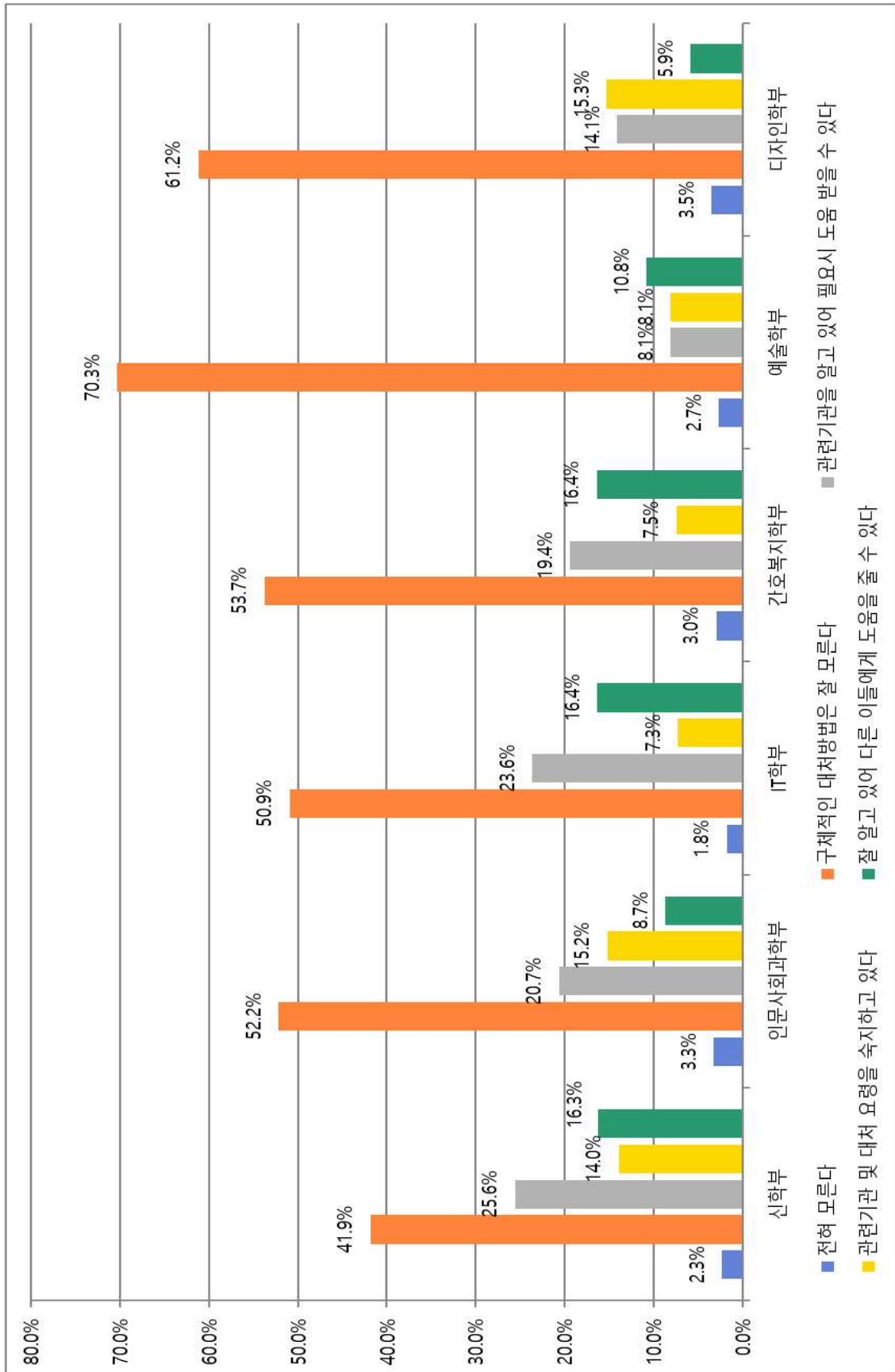
3) 성폭력의 대처 방법에 대한 지식

성폭력의 대처 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구체적 대처 방법은 잘 모른다’(54.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이 ‘관련 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다’(18.7%), ‘관련 기관 및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11.9%) 순으로 나왔다. ‘구체적 대처 방법을 모른다’의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예술학부(70.3%)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디자인학부(61.2%), 간호복지학부(53.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54.5%), 여학생(54.9%) 모두 ‘구체적 대처 방법을 모른다’는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40> 성폭력의 대처 방법에 대한 지식

단위: 명, %

	전혀 모른다	구체적인 대처방법은 잘 모른다	관련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시 도움 받을 수 있다	관련기관 및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	잘 알고 있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체
남	2	73	24	13	22	134
	1.5%	54.5%	17.9%	9.7%	16.4%	100.0%
여	9	134	47	32	22	244
	3.7%	54.9%	19.3%	13.1%	9.0%	100.0%
기타	0	1	0	0	0	1
	0.0%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1	18	11	6	7	43
	2.3%	41.9%	25.6%	14.0%	16.3%	100.0%
인문사회 과학부	3	48	19	14	8	92
	3.3%	52.2%	20.7%	15.2%	8.7%	100.0%
IT학부	1	28	13	4	9	55
	1.8%	50.9%	23.6%	7.3%	16.4%	100.0%
간호복지학부	2	36	13	5	11	67
	3.0%	53.7%	19.4%	7.5%	16.4%	100.0%
예술학부	1	26	3	3	4	37
	2.7%	70.3%	8.1%	8.1%	10.8%	100.0%
디자인학부	3	52	12	13	5	85
	3.5%	61.2%	14.1%	15.3%	5.9%	100.0%
전체	11	208	71	45	44	379
	2.9%	54.9%	18.7%	11.9%	11.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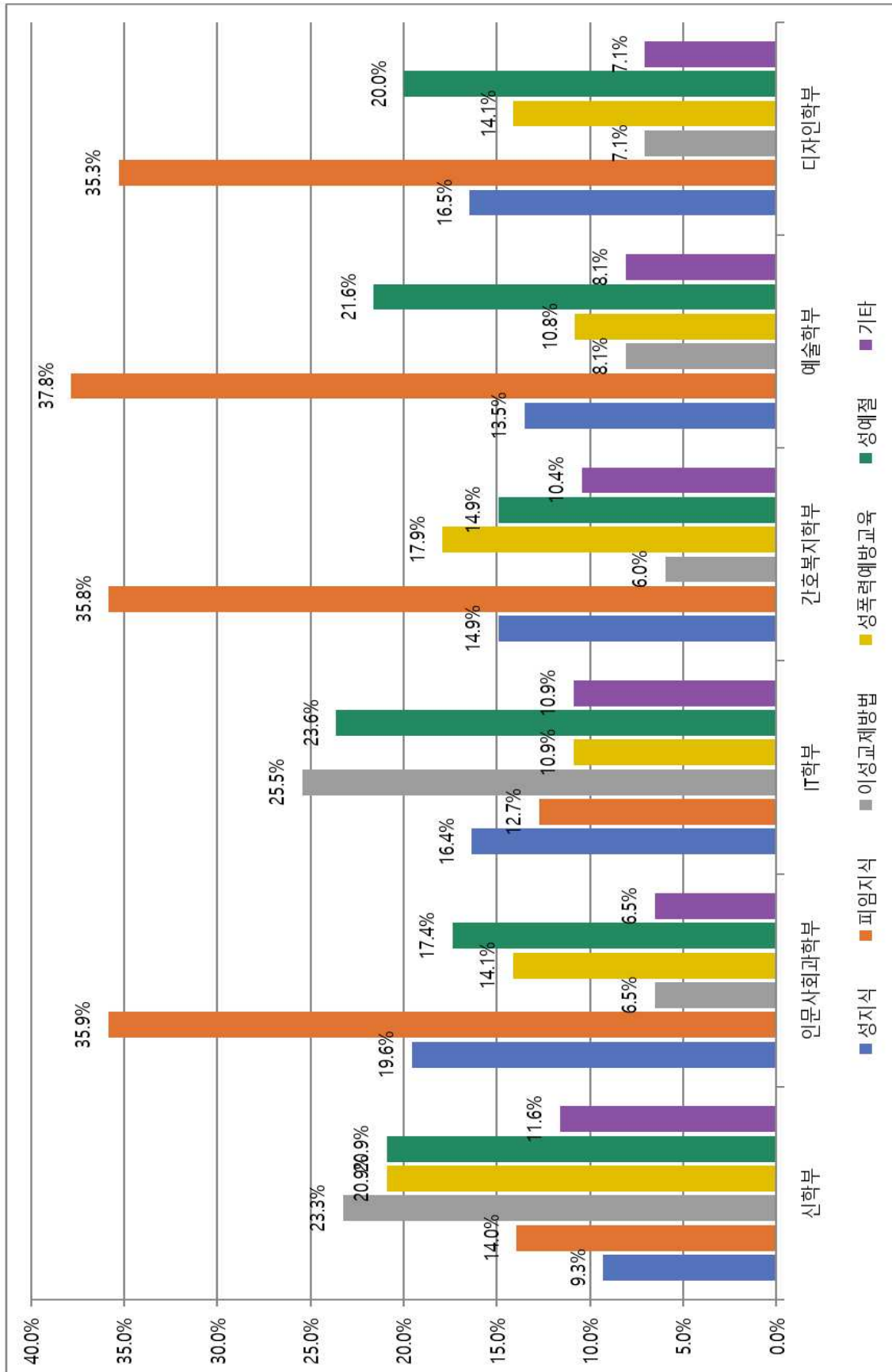
4) 성교육을 통해 가장 알고 싶은 것

성교육 시 가장 알고 싶은 것은 피임지식(30.1%)이 가장 높게 나왔고 그다음으로 성예절(19.3%), 성지식(15.8%) 순으로 나타났다. 피임지식의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예술학부(37.8%), 인문사회과학부(35.9%), 간호복지학부(35.7%) 순이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24.6%)은 성예절을 여학생(40.6%)은 피임지식을 가장 알고 싶어 했다.

<표 41> 성교육을 통해 가장 알고 싶은 것

단위: 명, %

	성지식	피임지식	이성교제 방법	성폭력 예방교육	성예절	기타	전체
남	26	15	30	15	33	15	134
	19.4%	11.2%	22.4%	11.2%	24.6%	11.2%	100.0%
여	33	99	13	41	40	18	244
	13.5%	40.6%	5.3%	16.8%	16.4%	7.4%	100.0%
기타	1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4	6	10	9	9	5	43
	9.3%	14.0%	23.3%	20.9%	20.9%	11.6%	100.0%
인문사회과학부	18	33	6	13	16	6	92
	19.6%	35.9%	6.5%	14.1%	17.4%	6.5%	100.0%
IT학부	9	7	14	6	13	6	55
	16.4%	12.7%	25.5%	10.9%	23.6%	10.9%	100.0%
간호복지학부	10	24	4	12	10	7	67
	14.9%	35.8%	6.0%	17.9%	14.9%	10.4%	100.0%
예술학부	5	14	3	4	8	3	37
	13.5%	37.8%	8.1%	10.8%	21.6%	8.1%	100.0%
디자인학부	14	30	6	12	17	6	85
	16.5%	35.3%	7.1%	14.1%	20.0%	7.1%	100.0%
전체	60	114	43	56	73	33	379
	15.8%	30.1%	11.3%	14.8%	19.3%	8.7%	100.0%



7. 상담센터 관련

1)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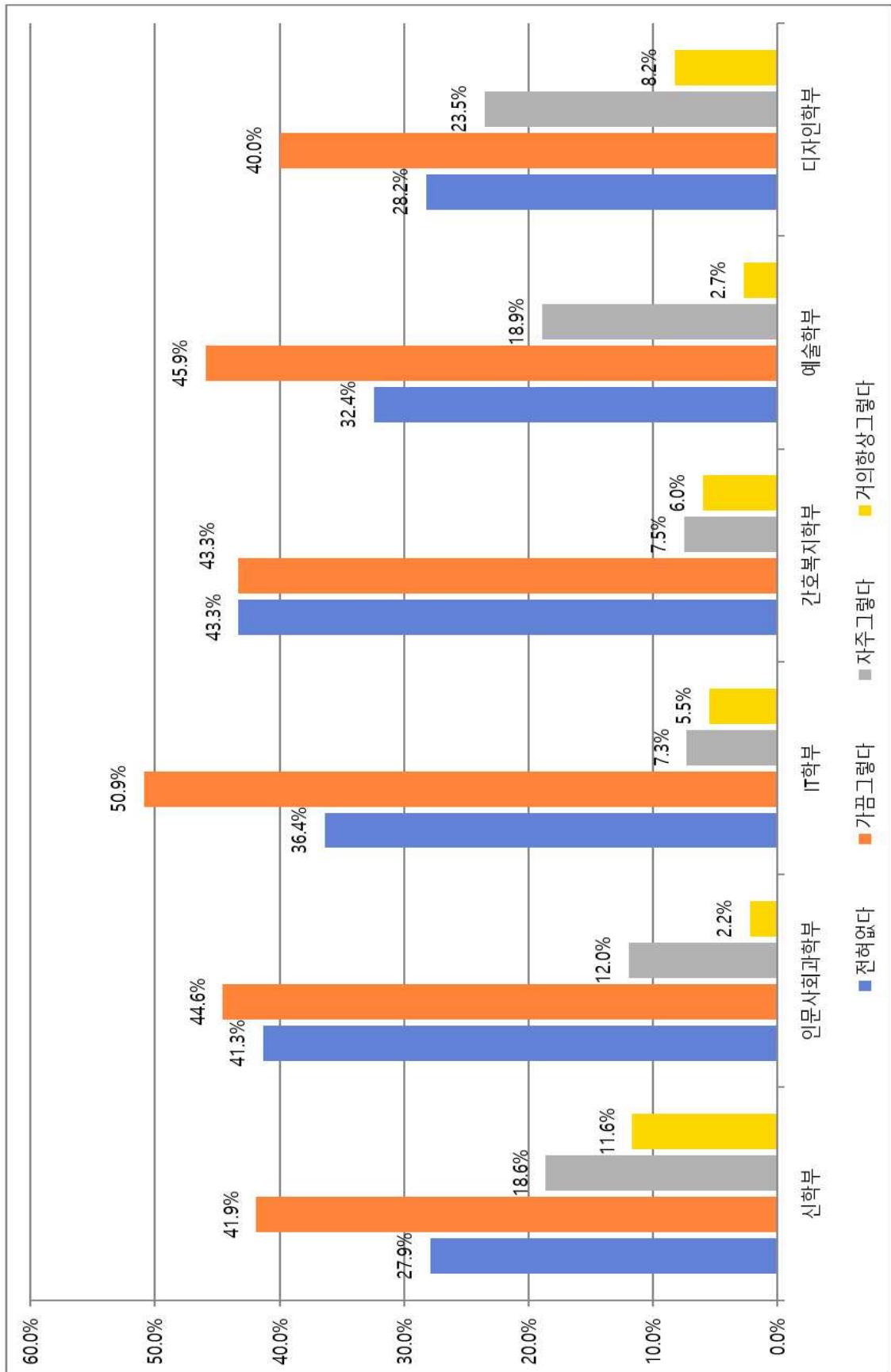
(1) 외로움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외로움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4.1%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전혀 없다’(35.6%), ‘자주 그렇다’(14.5%) 순으로 나타났다. ‘가끔 그렇다’라는 응답한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50.9%, 예술학부(45.9%), 인문사회과학부(44.6%) 순이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44.8%, 여학생 43.9%로 나타났다.

<표 42> 외로움

단위: 명, %

	전혀없다	가끔그렇다	자주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전체
남	49	60	18	7	134
	36.6%	44.8%	13.4%	5.2%	100.0%
여	85	107	37	15	244
	34.8%	43.9%	15.2%	6.1%	100.0%
기타	1	0	0	0	1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12	18	8	5	43
	27.9%	41.9%	18.6%	11.6%	100.0%
인문사회과학부	38	41	11	2	92
	41.3%	44.6%	12.0%	2.2%	100.0%
IT학부	20	28	4	3	55
	36.4%	50.9%	7.3%	5.5%	100.0%
간호복지학부	29	29	5	4	67
	43.3%	43.3%	7.5%	6.0%	100.0%
예술학부	12	17	7	1	37
	32.4%	45.9%	18.9%	2.7%	100.0%
디자인학부	24	34	20	7	85
	28.2%	40.0%	23.5%	8.2%	100.0%
전체	135	167	55	22	379
	35.6%	44.1%	14.5%	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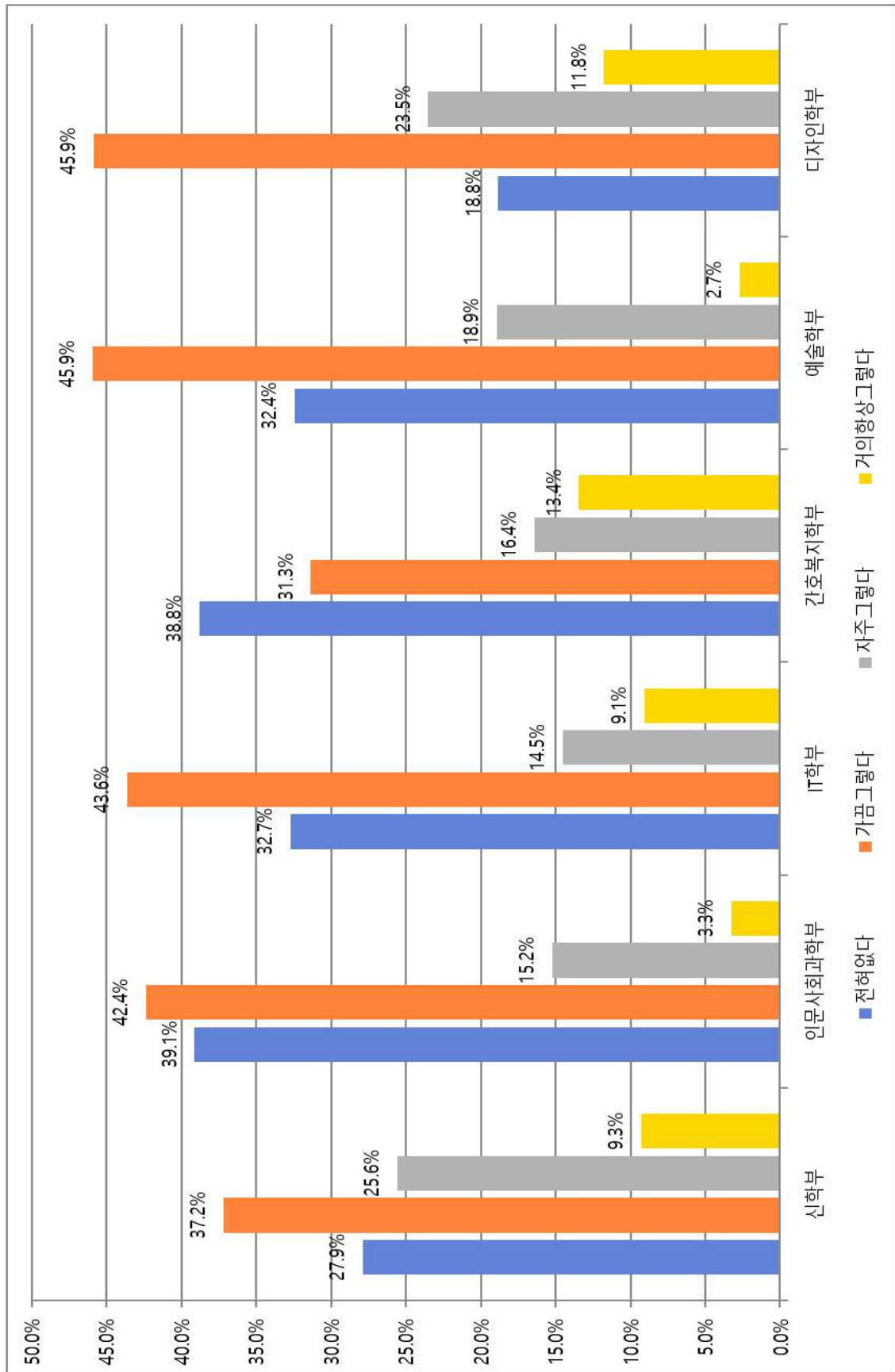
(2) 불안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불안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1.2%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전혀 없다’(31.7%), ‘자주 그렇다’(18.7%) 순이었다. ‘가끔 그렇다’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예술학부와 디자인학부(45.9%)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IT학부(43.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42.5%, 여학생 40.6%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특이점은 ‘거의 항상 그렇다’의 응답 비율이 작년(2.2%)보다 올해(8.4%)에 네 배나 증가하였다.

<표 43> 불안

단위: 명, %

	전혀없다	가끔그렇다	자주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전체
남	46	57	18	13	134
	34.3%	42.5%	13.4%	9.7%	100.0%
여	73	99	53	19	244
	29.9%	40.6%	21.7%	7.8%	100.0%
기타	1	0	0	0	1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12	16	11	4	43
	27.9%	37.2%	25.6%	9.3%	100.0%
인문사회과학부	36	39	14	3	92
	39.1%	42.4%	15.2%	3.3%	100.0%
IT학부	18	24	8	5	55
	32.7%	43.6%	14.5%	9.1%	100.0%
간호복지학부	26	21	11	9	67
	38.8%	31.3%	16.4%	13.4%	100.0%
예술학부	12	17	7	1	37
	32.4%	45.9%	18.9%	2.7%	100.0%
디자인학부	16	39	20	10	85
	18.8%	45.9%	23.5%	11.8%	100.0%
전체	120	156	71	32	379
	31.7%	41.2%	18.7%	8.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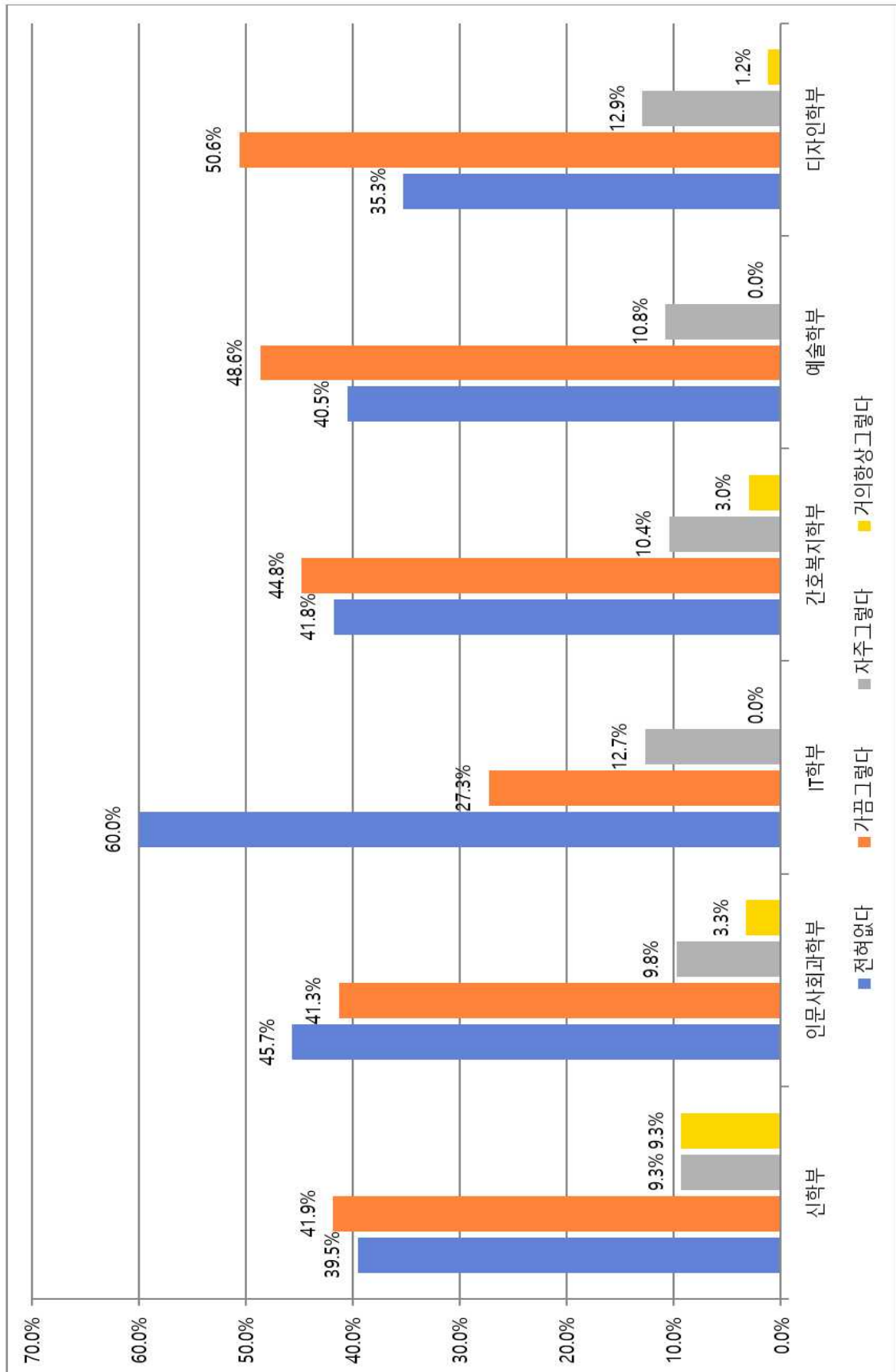
(3) 분노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분노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3.5%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 '가끔 그렇다'(42.7%), '자주 그렇다'(11.1%) 순이었다. '전혀 없다'란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60.6%)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인문사회과학부(45.7%), 간호복지학부(41.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의 53.7%가 '전혀 없다'하고 응답하였지만, 여학생의 46.7%는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44> 분노

단위: 명, %

	전혀없다	가끔그렇다	자주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전체
남	72	48	12	2	134
	53.7%	35.8%	9.0%	1.5%	100.0%
여	92	114	30	8	244
	37.7%	46.7%	12.3%	3.3%	100.0%
기타	1	0	0	0	1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17	18	4	4	43
	39.5%	41.9%	9.3%	9.3%	100.0%
인문사회과학부	42	38	9	3	92
	45.7%	41.3%	9.8%	3.3%	100.0%
IT학부	33	15	7	0	55
	60.0%	27.3%	12.7%	0.0%	100.0%
간호복지학부	28	30	7	2	67
	41.8%	44.8%	10.4%	3.0%	100.0%
예술학부	15	18	4	0	37
	40.5%	48.6%	10.8%	0.0%	100.0%
디자인학부	30	43	11	1	85
	35.3%	50.6%	12.9%	1.2%	100.0%
전체	165	162	42	10	379
	43.5%	42.7%	11.1%	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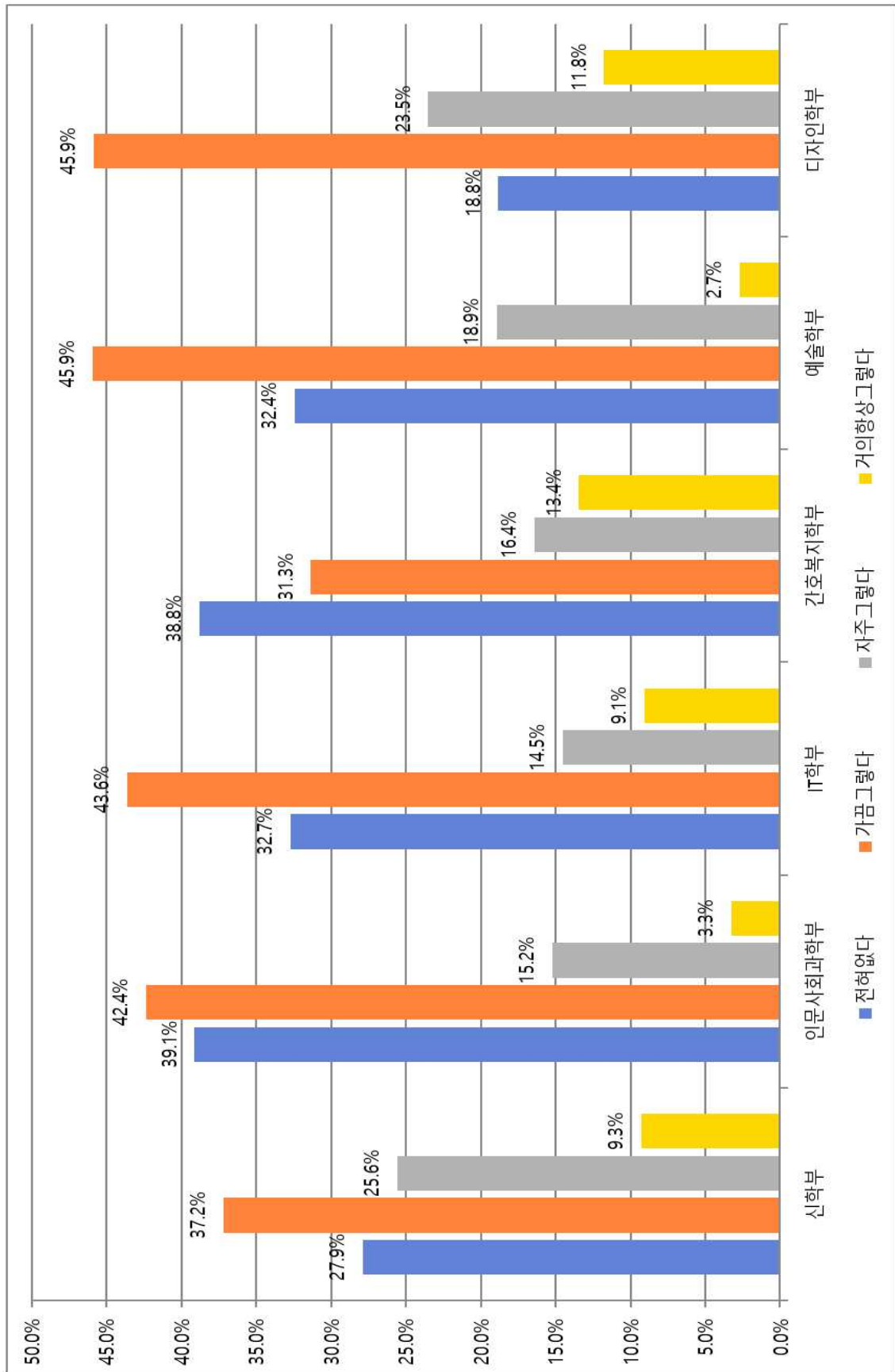
(4) 우울 · 무기력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우울과 무기력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1.2%가 ‘가끔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전혀 없다’(31.7%), ‘자주 그렇다’(18.7%) 순이다. ‘가끔 그렇다’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예술학부와 디자인학부(45.9%), IT학부(43.6%)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 보면 남학생 42.5%, 여학생 40.6%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특이점은 ‘거의 항상 그렇다’라는 응답 비율이 작년에(3.1%)보다 올해(8.4%)에 약 세 배 증가하였다.

<표 43> 우울 · 무기력

단위: 명, %

	전혀없다	가끔그렇다	자주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전체
남	46	57	18	13	134
	34.3%	42.5%	13.4%	9.7%	100.0%
여	73	99	53	19	244
	29.9%	40.6%	21.7%	7.8%	100.0%
기타	1	0	0	0	1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12	16	11	4	43
	27.9%	37.2%	25.6%	9.3%	100.0%
인문사회과학부	36	39	14	3	92
	39.1%	42.4%	15.2%	3.3%	100.0%
IT학부	18	24	8	5	55
	32.7%	43.6%	14.5%	9.1%	100.0%
간호복지학부	26	21	11	9	67
	38.8%	31.3%	16.4%	13.4%	100.0%
예술학부	12	17	7	1	37
	32.4%	45.9%	18.9%	2.7%	100.0%
디자인학부	16	39	20	10	85
	18.8%	45.9%	23.5%	11.8%	100.0%
전체	120	156	71	32	379
	31.7%	41.2%	18.7%	8.4%	100.0%



(5) 자살 충동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자살 충동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87.3%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고 그다음은 ‘가끔 그렇다’(8.7%), ‘자주 그렇다’(3.2%) 순이었다. ‘전혀 없다’의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92.7%), 예술학부(91.9%), 간호복지학부(91.0%) 순으로 가장 높았고 대부분의 학부가 비슷한 비율로 높게 응답하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91.0%), 여학생(85.2%) 모두 ‘전혀 없다’가 가장 높았다.

<표 46> 자살충동

단위: 명, %

	전혀없다	가끔그렇다	자주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전체
남	122	8	2	2	134
	91.0%	6.0%	1.5%	1.5%	100.0%
여	208	25	10	1	244
	85.2%	10.2%	4.1%	0.4%	100.0%
기타	1	0	0	0	1
	100.0%	0.0%	0.0%	0.0%	100.0%
신학부	38	4	1	0	43
	88.4%	9.3%	2.3%	0.0%	100.0%
인문사회과학부	75	11	6	0	92
	81.5%	12.0%	6.5%	0.0%	100.0%
IT학부	51	2	1	1	55
	92.7%	3.6%	1.8%	1.8%	100.0%
간호복지학부	61	4	0	2	67
	91.0%	6.0%	0.0%	3.0%	100.0%
예술학부	34	3	0	0	37
	91.9%	8.1%	0.0%	0.0%	100.0%
디자인학부	72	9	4	0	85
	84.7%	10.6%	4.7%	0.0%	100.0%
전체	331	33	12	3	379
	87.3%	8.7%	3.2%	0.8%	100.0%



2) 심리상담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 있는가?

신입생들에게 심리적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심리상담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에 관한 조사 결과, 신입생들의 56.5%가 '예'라고 응답하였다. '예'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신학부(72.1%), 예술학부(70.3%), IT학부(56.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 58.2%, 남학생 53.7%가 '예'라고 응답했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여학생(68.6%)이 남학생(55.9%)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상담가의 필요성에 전체 응답에 '예'라고 한 비율이 COVID-19 이후로 2020년(58.3%), 2021년(64.3%) 점점 증가하였다가 COVID-19 이전인 2109년(58.3%)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맥락으로 여학생이 환경적인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7> 심리상담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남	72	62	134
	53.7%	46.3%	100.0%
여	142	102	244
	58.2%	41.8%	100.0%
기타	0	1	1
	0.0%	100.0%	100.0%
신학부	31	12	43
	72.1%	27.9%	100.0%
인문사회과학부	51	41	92
	55.4%	44.6%	100.0%
IT학부	31	24	55
	56.4%	43.6%	100.0%
간호복지학부	32	35	67
	47.8%	52.2%	100.0%
예술학부	26	11	37
	70.3%	29.7%	100.0%
디자인학부	43	42	85
	50.6%	49.4%	100.0%
전체	214	165	379
	56.5%	43.5%	100.0%



3) 심리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가?

대학 내 심리상담가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의 72.8%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반면에 '아니오'라는 응답에는 27.2%가 응답하였다. '예'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신학부(93.0%)가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간호복지학부(80.6%), IT학부(80.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학생 73.4%, 남학생 71.6%가 '예'라고 응답했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여학생(80.4%), 남학생(83.6%) 모두 심리상담가의 도움 요청할 의사가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라는 전체 응답 비율이 COVID-19 이후로 2020년(79.4%), 2021년(81.5%) 점점 증가하였다가 COVID-19 이전인 2109년(72.3%)으로 돌아간 것과 같은 맥락을 보인다.

<표 48> 심리상담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가 단위: 명, %

	예	아니오	전체
남	96	38	134
	71.6%	28.4%	100.0%
여	179	65	244
	73.4%	26.6%	100.0%
기타	1	0	1
	100.0%	0.0%	100.0%
신학부	40	3	43
	93.0%	7.0%	100.0%
인문사회과학부	54	38	92
	58.7%	41.3%	100.0%
IT학부	44	11	55
	80.0%	20.0%	100.0%
간호복지학부	54	13	67
	80.6%	19.4%	100.0%
예술학부	24	13	37
	64.9%	35.1%	100.0%
디자인학부	60	25	85
	70.6%	29.4%	100.0%
전체	276	103	379
	72.8%	27.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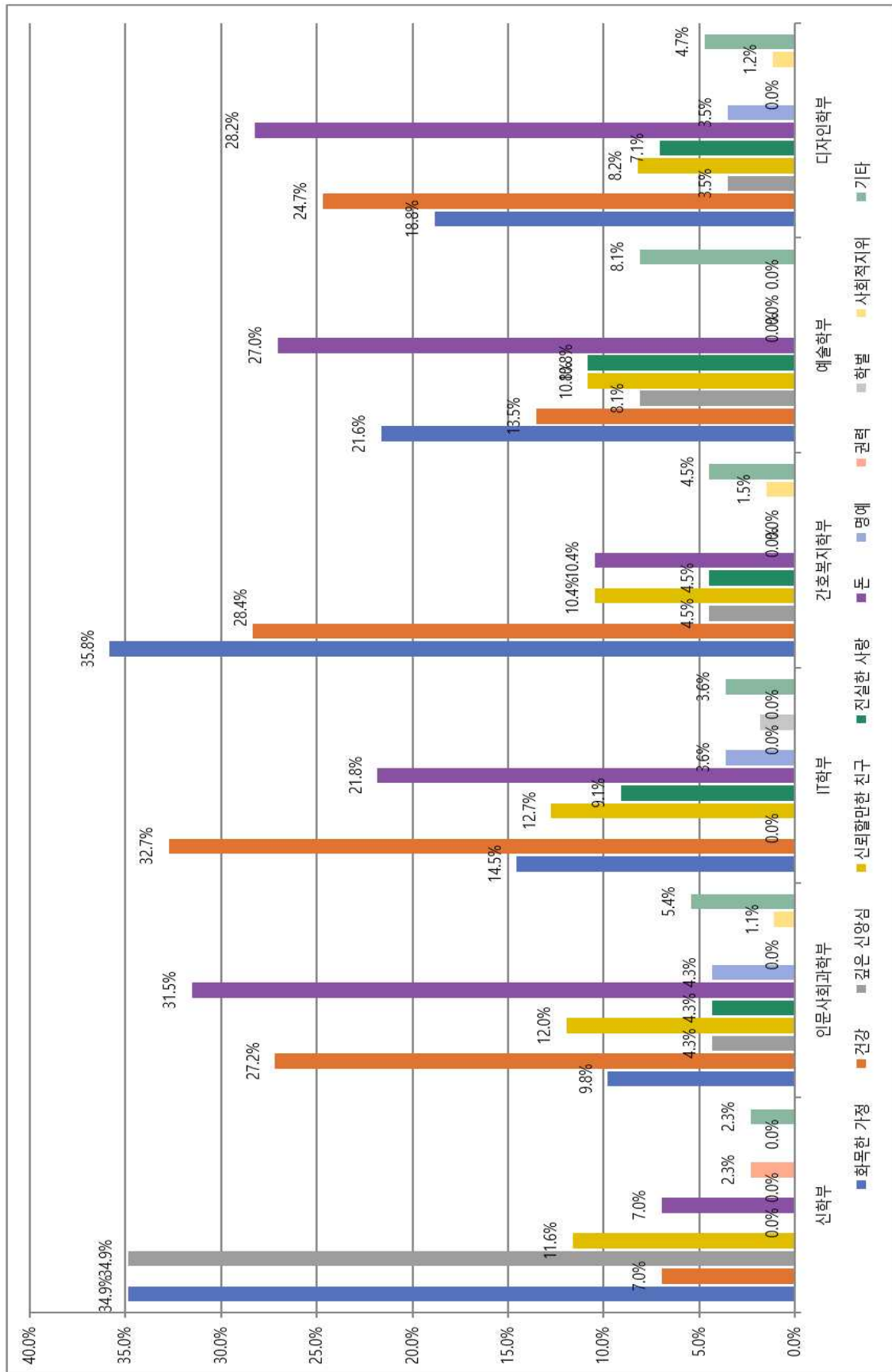
4)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에 대한 신입생의 응답 중 건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돈(22.4%), 화목한 가정(21.1%)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이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32.7%), 간호복지학부(28.4%), 인문사회과학학부(27.2%) 순으로 나타났고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24.2%), 남학생(23.9%) 모두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표 49>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단위: 명, %

	화목한 가정	건강	깊은 신앙심	신뢰할 만한 친구	진실한 사랑	돈	명예	권력	학벌	사회적 지위	기타	전체
남	25	32	10	18	6	29	4	1	1	2	6	134
	18.7%	23.9%	7.5%	13.4%	4.5%	21.6%	3.0%	0.7%	0.7%	1.5%	4.5%	100.0%
여	54	59	18	23	16	56	5	0	0	1	12	244
	22.1%	24.2%	7.4%	9.4%	6.6%	23.0%	2.0%	0.0%	0.0%	0.4%	4.9%	100.0%
기타	1	0	0	0	0	0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15	3	15	5	0	3	0	1	0	0	1	43
	34.9%	7.0%	34.9%	11.6%	0.0%	7.0%	0.0%	2.3%	0.0%	0.0%	2.3%	100.0%
인문 사회 과학부	9	25	4	11	4	29	4	0	0	1	5	92
	9.8%	27.2%	4.3%	12.0%	4.3%	31.5%	4.3%	0.0%	0.0%	1.1%	5.4%	100.0%
IT학부	8	18	0	7	5	12	2	0	1	0	2	55
	14.5%	32.7%	0.0%	12.7%	9.1%	21.8%	3.6%	0.0%	1.8%	0.0%	3.6%	100.0%
간호 복지 학부	24	19	3	7	3	7	0	0	0	1	3	67
	35.8%	28.4%	4.5%	10.4%	4.5%	10.4%	0.0%	0.0%	0.0%	1.5%	4.5%	100.0%
예술 학부	8	5	3	4	4	10	0	0	0	0	3	37
	21.6%	13.5%	8.1%	10.8%	10.8%	27.0%	0.0%	0.0%	0.0%	0.0%	8.1%	100.0%
디자인 학부	16	21	3	7	6	24	3	0	0	1	4	85
	18.8%	24.7%	3.5%	8.2%	7.1%	28.2%	3.5%	0.0%	0.0%	1.2%	4.7%	100.0%
전체	80	91	28	41	22	85	9	1	1	3	18	379
	21.1%	24.0%	7.4%	10.8%	5.8%	22.4%	2.4%	0.3%	0.3%	0.8%	4.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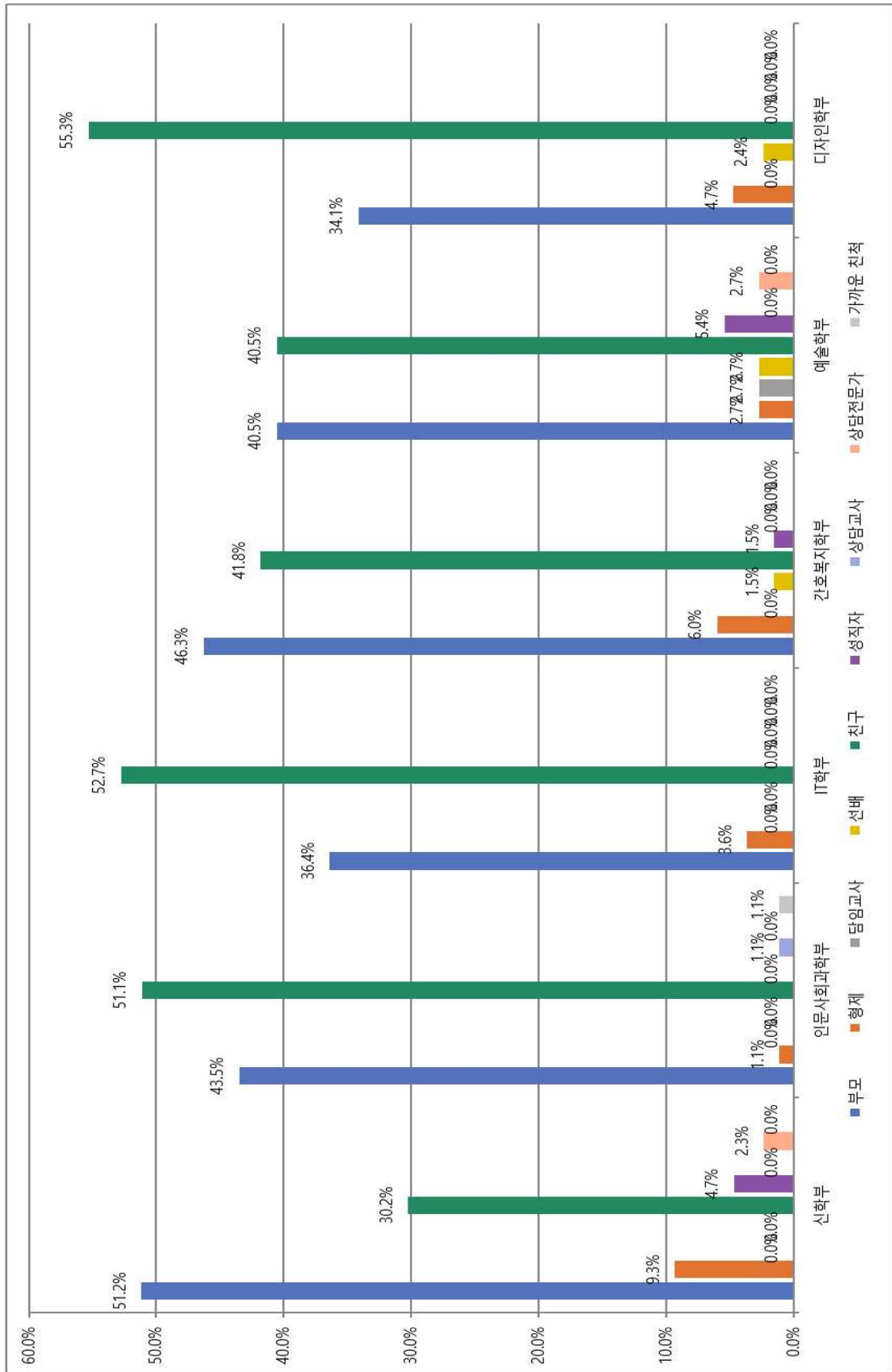
5) 문제 발생 시 의논 상대

문제 발생 시 의논할 상대는 친구라는 응답이 전체의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은 부모(41.4%), 형제(4.2%) 순이다. 친구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디자인학부(55.3%), IT학부(52.7%), 인문사회과학부(51.1%) 순으로 나타났고 부모라는 응답 비율을 보면 신학부(51.2%), IT학부(52.7%), 인문사회과학부(51.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48.8%), 남학생(44.8%) 모두 문제 발생 시 의논 상대로 친구라고 응답하였다.

<표 50> 문제 발생 시 의논 상대

단위: 명, %

	부모	형제	담임 교사	선배	친구	성직자	상담 교사	상담 전문가	가까운 친척	인터넷	전체
남	58	4	1	1	60	2	1	0	1	6	134
	43.3%	3.0%	0.7%	0.7%	44.8%	1.5%	0.7%	0.0%	0.7%	4.5%	100.0%
여	98	12	0	3	119	3	0	2	0	7	244
	40.2%	4.9%	0.0%	1.2%	48.8%	1.2%	0.0%	0.8%	0.0%	2.9%	100.0%
기타	1	0	0	0	0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22	4	0	0	13	2	0	1	0	1	43
	51.2%	9.3%	0.0%	0.0%	30.2%	4.7%	0.0%	2.3%	0.0%	2.3%	100.0%
인문 사회 과학부	40	1	0	0	47	0	1	0	1	2	92
	43.5%	1.1%	0.0%	0.0%	51.1%	0.0%	1.1%	0.0%	1.1%	2.2%	100.0%
IT학부	20	2	0	0	29	0	0	0	0	4	55
	36.4%	3.6%	0.0%	0.0%	52.7%	0.0%	0.0%	0.0%	0.0%	7.3%	100.0%
간호 복지 학부	31	4	0	1	28	1	0	0	0	2	67
	46.3%	6.0%	0.0%	1.5%	41.8%	1.5%	0.0%	0.0%	0.0%	3.0%	100.0%
예술 학부	15	1	1	1	15	2	0	1	0	1	37
	40.5%	2.7%	2.7%	2.7%	40.5%	5.4%	0.0%	2.7%	0.0%	2.7%	100.0%
디자인 학부	29	4	0	2	47	0	0	0	0	3	85
	34.1%	4.7%	0.0%	2.4%	55.3%	0.0%	0.0%	0.0%	0.0%	3.5%	100.0%
전체	157	16	1	4	179	5	1	2	1	13	379
	41.4%	4.2%	0.3%	1.1%	47.2%	1.3%	0.3%	0.5%	0.3%	3.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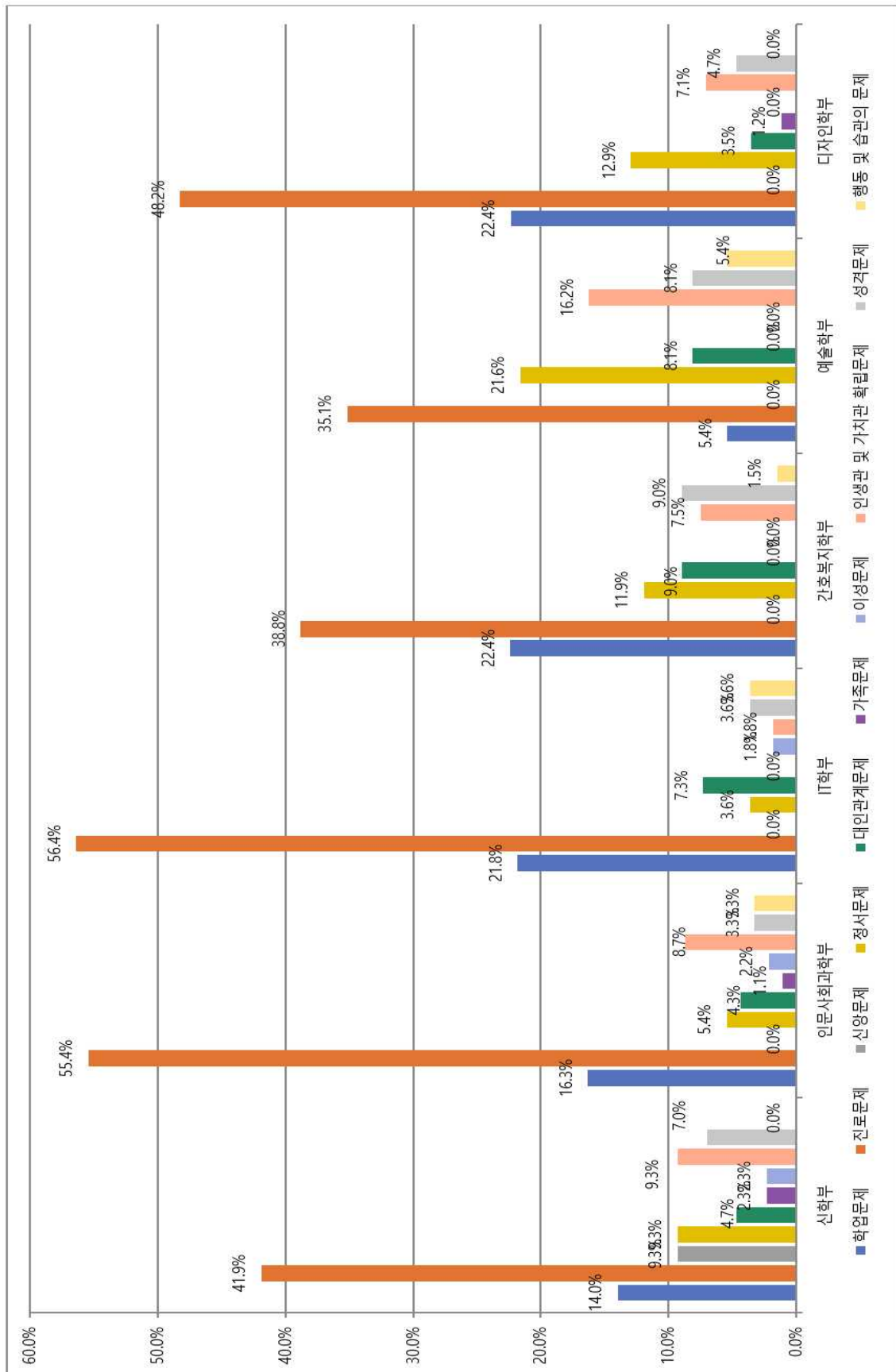
6) 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것

신입생들이 상담센터를 이용할 때 희망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47.5%가 진로 문제를 가장 다루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이 학업 문제(18.2%), 정서 문제(10.0%) 순이었다. 진로 문제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56.4%), 인문사회과학부(55.4%), 디자인학부(48.2%)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50.0%), 여학생(46.3%) 모두 높은 비율로 진로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표 51> 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것

단위: 명, %

	학업 문제	진로 문제	신앙 문제	정서 문제	대인 관계 문제	가족 문제	이성 문제	인생관 및 가치관 확립 문제	성격 문제	행동 및 습관의 문제	전체
남	23	67	3	10	10	0	4	8	6	3	134
	17.2%	50.0%	2.2%	7.5%	7.5%	0.0%	3.0%	6.0%	4.5%	2.2%	100.0%
여	45	113	1	28	12	3	0	22	15	5	244
	18.4%	46.3%	0.4%	11.5%	4.9%	1.2%	0.0%	9.0%	6.1%	2.0%	100.0%
기타	1	0	0	0	0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6	18	4	4	2	1	1	4	3	0	43
	14.0%	41.9%	9.3%	9.3%	4.7%	2.3%	2.3%	9.3%	7.0%	0.0%	100.0%
인문 사회 과학부	15	51	0	5	4	1	2	8	3	3	92
	16.3%	55.4%	0.0%	5.4%	4.3%	1.1%	2.2%	8.7%	3.3%	3.3%	100.0%
IT학부	12	31	0	2	4	0	1	1	2	2	55
	21.8%	56.4%	0.0%	3.6%	7.3%	0.0%	1.8%	1.8%	3.6%	3.6%	100.0%
간호 복지 학부	15	26	0	8	6	0	0	5	6	1	67
	22.4%	38.8%	0.0%	11.9%	9.0%	0.0%	0.0%	7.5%	9.0%	1.5%	100.0%
예술 학부	2	13	0	8	3	0	0	6	3	2	37
	5.4%	35.1%	0.0%	21.6%	8.1%	0.0%	0.0%	16.2%	8.1%	5.4%	100.0%
디자인학 부	19	41	0	11	3	1	0	6	4	0	85
	22.4%	48.2%	0.0%	12.9%	3.5%	1.2%	0.0%	7.1%	4.7%	0.0%	100.0%
전체	69	180	4	38	22	3	4	30	21	8	379
	18.2%	47.5%	1.1%	10.0%	5.8%	0.8%	1.1%	7.9%	5.5%	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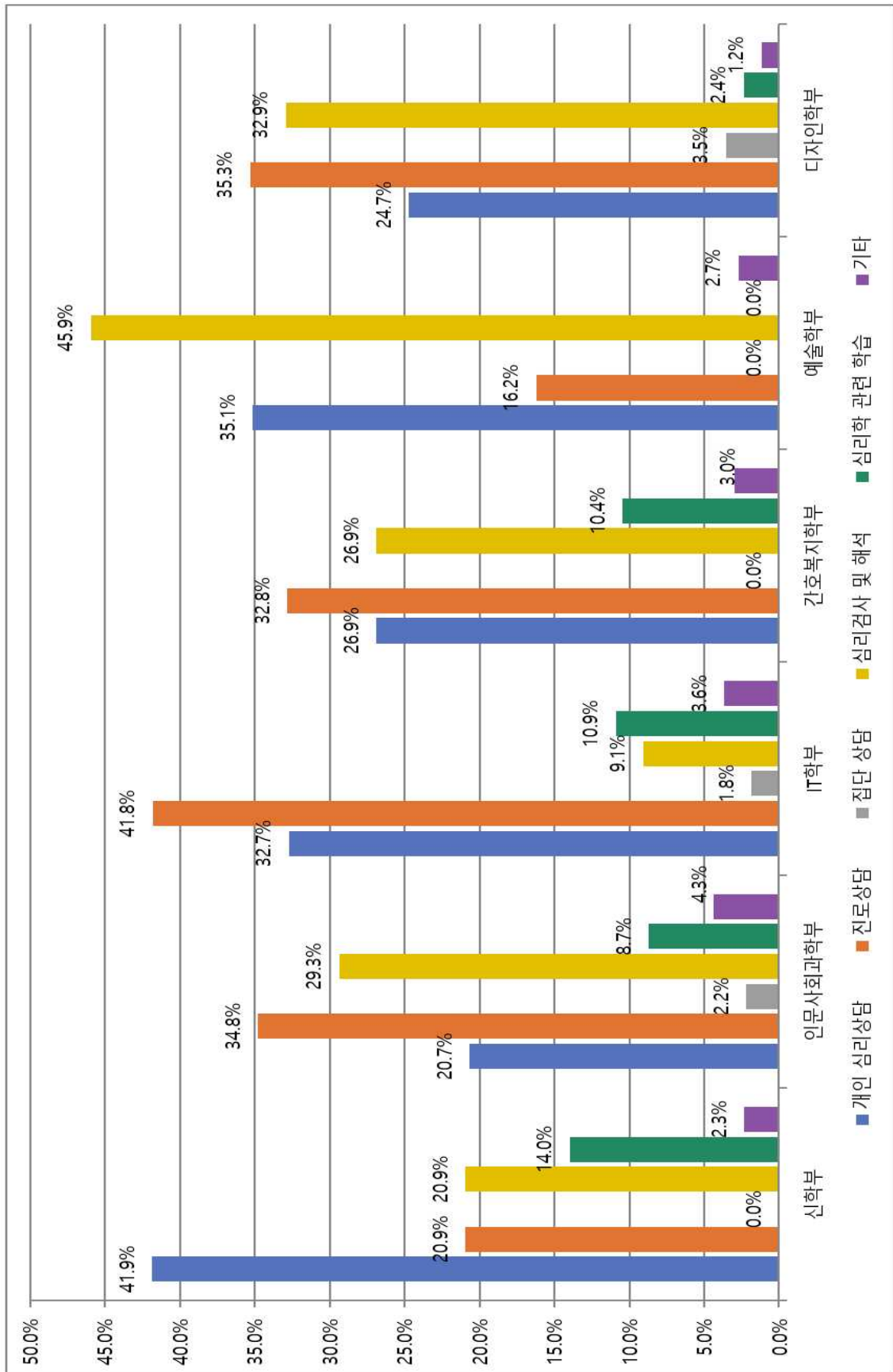
7) 상담센터 이용 시 희망하는 서비스

본교 학생상담센터에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진로상담을 받고 싶다는 응답이 32.2%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개인 심리상담(28.2%), 심리검사 및 해석(27.4%)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상담의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41.8%), 디자인학부(35.3%), 인문사회과학부(34.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35.1%가 개인 심리상담과 진로상담을 원하였지만, 여학생의 34.0%는 심리검사 및 해석을 가장 원하였다.

<표 52> 상담실 이용 시 희망하는 서비스

단위: 명, %

	개인 심리상담	진로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및 해석	심리학 관련 학습	기타	전체
남	47	47	2	21	12	5	134
	35.1%	35.1%	1.5%	15.7%	9.0%	3.7%	100.0%
여	60	74	4	83	17	6	244
	24.6%	30.3%	1.6%	34.0%	7.0%	2.5%	100.0%
기타	0	1	0	0	0	0	1
	0.0%	10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18	9	0	9	6	1	43
	41.9%	20.9%	0.0%	20.9%	14.0%	2.3%	100.0%
인문사회과학부	19	32	2	27	8	4	92
	20.7%	34.8%	2.2%	29.3%	8.7%	4.3%	100.0%
IT학부	18	23	1	5	6	2	55
	32.7%	41.8%	1.8%	9.1%	10.9%	3.6%	100.0%
간호복지학부	18	22	0	18	7	2	67
	26.9%	32.8%	0.0%	26.9%	10.4%	3.0%	100.0%
예술학부	13	6	0	17	0	1	37
	35.1%	16.2%	0.0%	45.9%	0.0%	2.7%	100.0%
디자인학부	21	30	3	28	2	1	85
	24.7%	35.3%	3.5%	32.9%	2.4%	1.2%	100.0%
전체	107	122	6	104	29	11	379
	28.2%	32.2%	1.6%	27.4%	7.7%	2.9%	100.0%



8. 자살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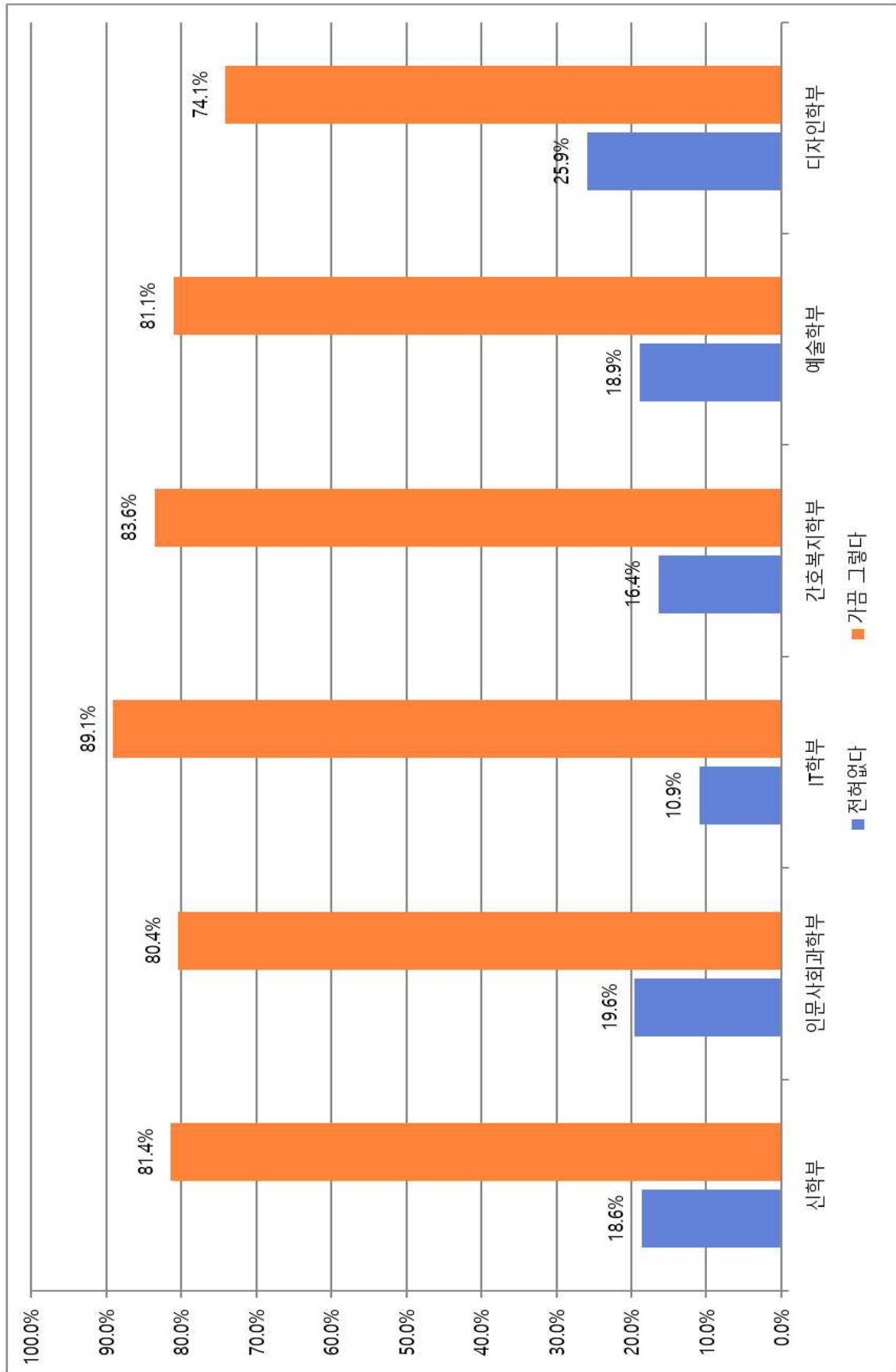
1) 과거 또는 최근 자살에 관한 생각의 유무

신입생들에게 과거 또는 최근에 자살에 관한 생각을 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신입생들의 81.0%가 '있다'라고 하였다. '있다'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디자인학부가 25.9%로 가장 높았고, 인문사회과학부(19.6%), 예술학부(18.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자살에 관한 생각에 대해 여학생 23.0%, 남학생은 11.9%가 '있다'라고 응답하였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자살 생각이 두 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과거 또는 최근 자살에 대한 생각의 유무

단위: 명, %

	있다	없다	전체
남	16	118	134
	11.9%	88.1%	100.0%
여	56	188	244
	23.0%	77.0%	100.0%
기타	0	1	1
	0.0%	100.0%	100.0%
신학부	8	35	43
	18.6%	81.4%	100.0%
인문사회과학부	18	74	92
	19.6%	80.4%	100.0%
IT학부	6	49	55
	10.9%	89.1%	100.0%
간호복지학부	11	56	67
	16.4%	83.6%	100.0%
예술학부	7	30	37
	18.9%	81.1%	100.0%
디자인학부	22	63	85
	25.9%	74.1%	100.0%
전체	72	307	379
	19.0%	81.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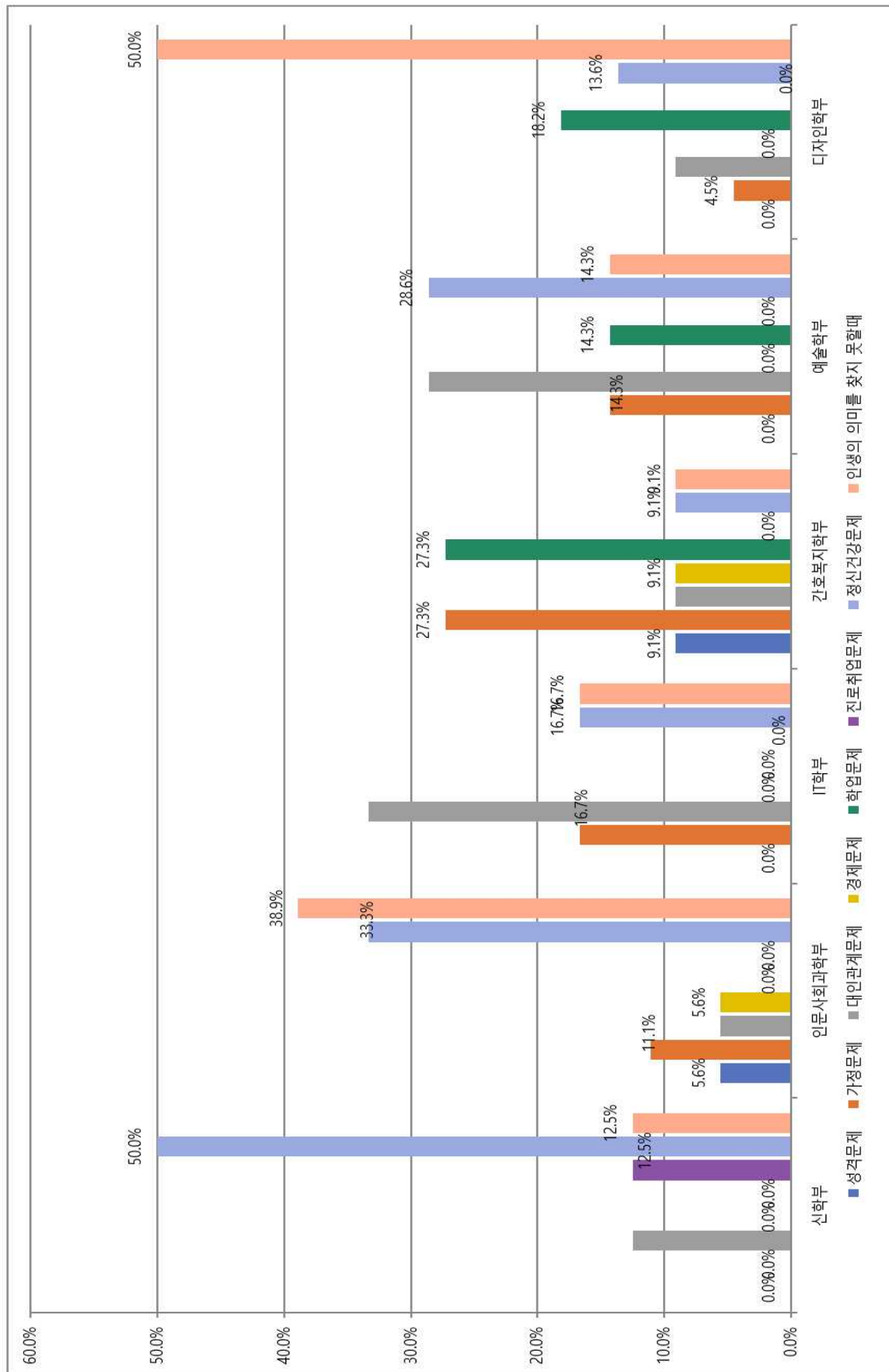
2)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문제

자살을 생각했다고 응답한 72명에게 주로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자살 생각을 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30.6%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 정신건강 문제(23.6%), 대인관계 문제(12.5%) 순으로 나타났다.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라는 응답을 학부별로 보면 디자인학부가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인문사회과학부(38.9%), IT학부(16.7%) 순이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31.3%, 여학생 30.4%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54> 자살을 생각하게 하는 문제

단위: 명, %

	성격 문제	가정 문제	대인관계 문제	경제 문제	학업 문제	진로취업 문제	정신건강 문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기타	전체
남	0	1	4	1	1	1	2	5	1	16
	0.0%	6.3%	25.0%	6.3%	6.3%	6.3%	12.5%	31.3%	6.3%	100.0%
여	2	7	5	1	7	0	15	17	2	56
	3.6%	12.5%	8.9%	1.8%	12.5%	0.0%	26.8%	30.4%	3.6%	100.0%
신학부	0	0	1	0	0	1	4	1	1	8
	0.0%	0.0%	12.5%	0.0%	0.0%	12.5%	50.0%	12.5%	12.5%	100.0%
인문 사회 과학부	1	2	1	1	0	0	6	7	0	18
	5.6%	11.1%	5.6%	5.6%	0.0%	0.0%	33.3%	38.9%	0.0%	100.0%
IT학부	0	1	2	0	0	0	1	1	1	6
	0.0%	16.7%	33.3%	0.0%	0.0%	0.0%	16.7%	16.7%	16.7%	100.0%
간호 복지 학부	1	3	1	1	3	0	1	1	0	11
	9.1%	27.3%	9.1%	9.1%	27.3%	0.0%	9.1%	9.1%	0.0%	100.0%
예술 학부	0	1	2	0	1	0	2	1	0	7
	0.0%	14.3%	28.6%	0.0%	14.3%	0.0%	28.6%	14.3%	0.0%	100.0%
디자인 학부	0	1	2	0	4	0	3	11	1	22
	0.0%	4.5%	9.1%	0.0%	18.2%	0.0%	13.6%	50.0%	4.5%	100.0%
전체	2	8	9	2	8	1	17	22	3	72
	2.8%	11.1%	12.5%	2.8%	11.1%	1.4%	23.6%	30.6%	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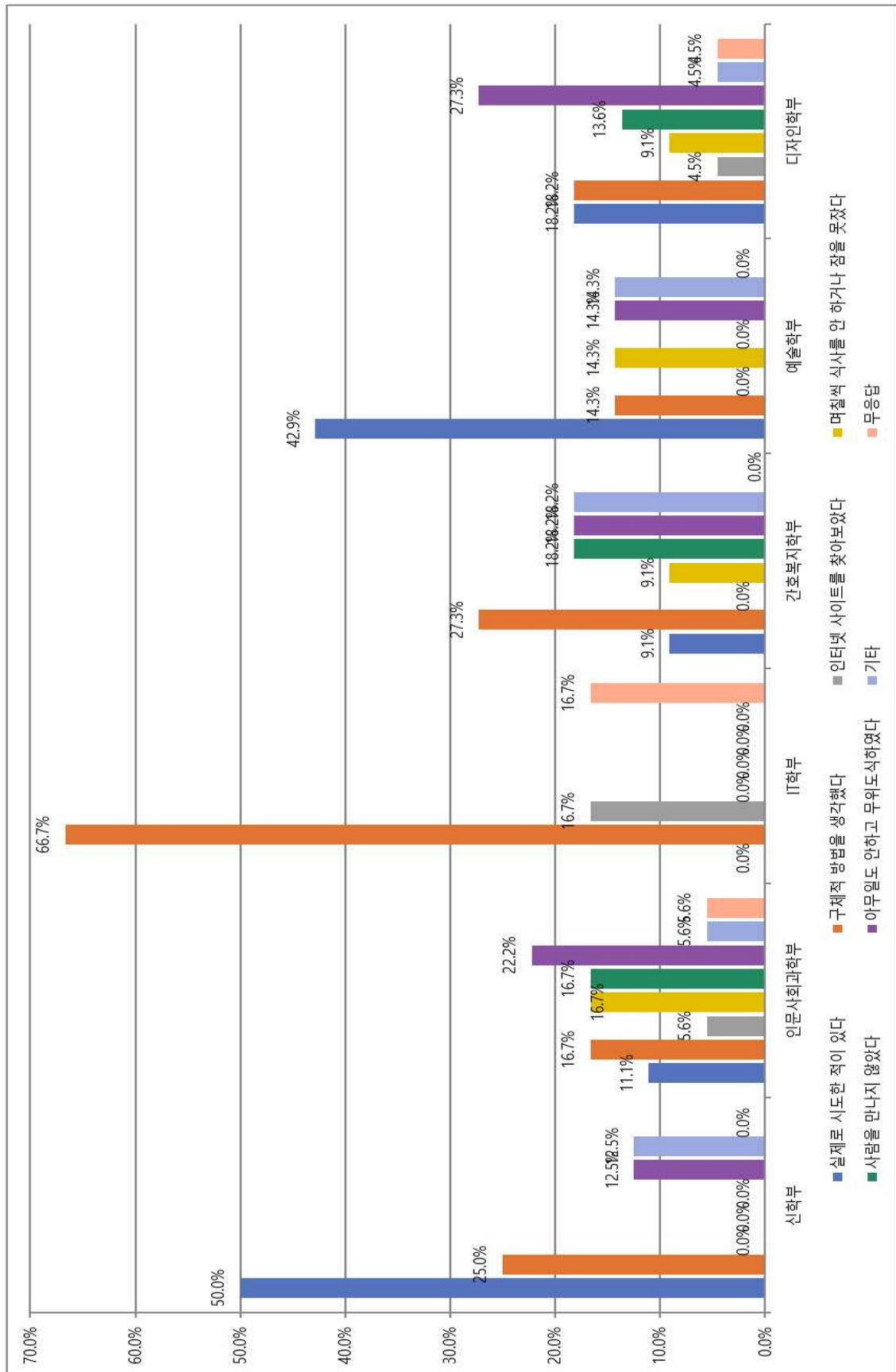
3)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때 진행의 정도

자살을 생각했다고 응답한 72명에게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였는지를 물어본 결과, 23.6%가 '구체적 방법을 생각했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다'와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위도식하였다'(19.4%)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방법을 생각했다'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IT학부가 66.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간호복지학부(27.3%), 신학부(25.0%)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43.8%가 '구체적 방법을 생각했다', 여학생의 23.2%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위도식하였다'라고 응답하였다. 특이점은 자살 시도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작년(5.0%)보다 올해(19.4%)가 네 배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5>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때 진행의 정도

단위: 명, %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다	구체적 방법을 생각 했다	인터넷 사이트 를 찾아 보았다	며칠씩 식사를 안하 거나 잠을 못자다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아무 일도 안하고 무위 도식 하였다	기타	무응답	전체
남	2	7	0	1	2	1	2	1	16
	12.5%	43.8%	0.0%	6.3%	12.5%	6.3%	12.5%	6.3%	100.0%
여	12	10	3	6	6	13	4	2	56
	21.4%	17.9%	5.4%	10.7%	10.7%	23.2%	7.1%	3.6%	100.0%
신학부	4	2	0	0	0	1	1	0	8
	50.0%	25.0%	0.0%	0.0%	0.0%	12.5%	12.5%	0.0%	100.0%
인문 사회 과학부	2	3	1	3	3	4	1	1	18
	11.1%	16.7%	5.6%	16.7%	16.7%	22.2%	5.6%	5.6%	100.0%
IT학부	0	4	1	0	0	0	0	1	6
	0.0%	66.7%	16.7%	0.0%	0.0%	0.0%	0.0%	16.7%	100.0%
간호복지 학부	1	3	0	1	2	2	2	0	11
	9.1%	27.3%	0.0%	9.1%	18.2%	18.2%	18.2%	0.0%	100.0%
예술 학부	3	1	0	1	0	1	1	0	7
	42.9%	14.3%	0.0%	14.3%	0.0%	14.3%	14.3%	0.0%	100.0%
디자인학부	4	4	1	2	3	6	1	1	22
	18.2%	18.2%	4.5%	9.1%	13.6%	27.3%	4.5%	4.5%	100.0%
전체	14	17	3	7	8	14	6	3	72
	19.4%	23.6%	4.2%	9.7%	11.1%	19.4%	8.3%	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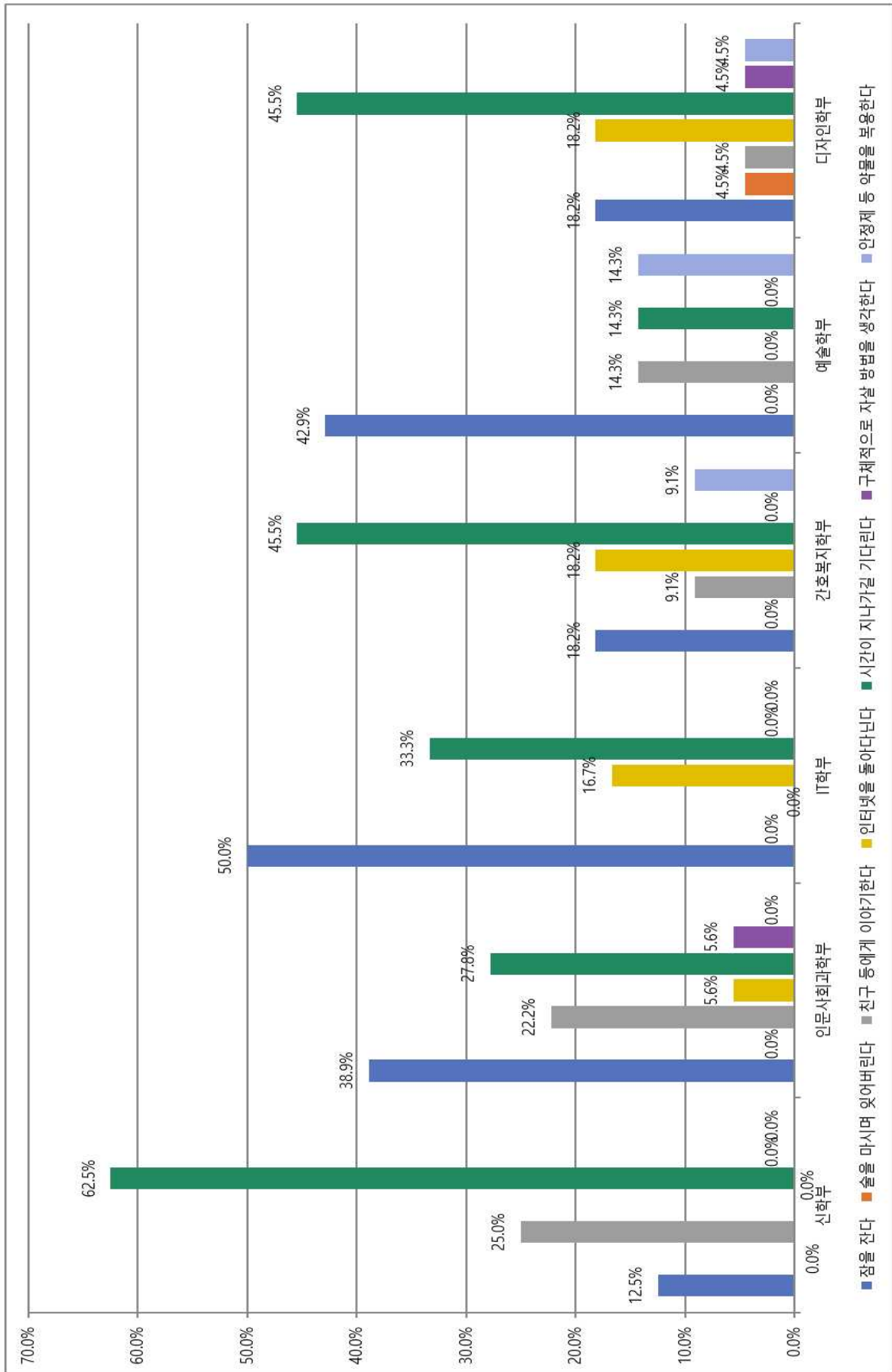
4) 자살 충동 시 대처 방법

자살을 생각했다고 응답한 72명에게 자살 충동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을 물어본 결과, 38.9%가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로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잠을 잔다’(27.8%), ‘친구 등에게 이야기한다.’(12.5%)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신학부(60.0%)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간호복지학부와 디자인학부(45.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50.0%), 여학생(35.7%) 모두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라고 응답하였으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응답을 보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56> 자살 충동이 있을 때의 대처 방법

단위: 명, %

	잠을 잔다	술을 마시며 잊어버린다	친구 등에게 이야기한다	인터넷을 돌아다닌다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구체적으로 자살 방법을 생각한다	안정제 등 약물을 복용한다	무응답	전체
남	4	0	2	2	8	0	0	0	16
	25.0%	0.0%	12.5%	12.5%	50.0%	0.0%	0.0%	0.0%	100.0%
여	16	1	7	6	20	2	3	1	56
	28.6%	1.8%	12.5%	10.7%	35.7%	3.6%	5.4%	1.8%	100.0%
신학부	1	0	2	0	5	0	0	0	8
	12.5%	0.0%	25.0%	0.0%	62.5%	0.0%	0.0%	0.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7	0	4	1	5	1	0	0	18
	38.9%	0.0%	22.2%	5.6%	27.8%	5.6%	0.0%	0.0%	100.0%
IT학부	3	0	0	1	2	0	0	0	6
	50.0%	0.0%	0.0%	16.7%	33.3%	0.0%	0.0%	0.0%	100.0%
간호복지 학부	2	0	1	2	5	0	1	0	11
	18.2%	0.0%	9.1%	18.2%	45.5%	0.0%	9.1%	0.0%	100.0%
예술학부	3	0	1	0	1	0	1	1	7
	42.9%	0.0%	14.3%	0.0%	14.3%	0.0%	14.3%	14.3%	100.0%
디자인학부	4	1	1	4	10	1	1	0	22
	18.2%	4.5%	4.5%	18.2%	45.5%	4.5%	4.5%	0.0%	100.0%
전체	20	1	9	8	28	2	3	1	72
	27.8%	1.4%	12.5%	11.1%	38.9%	2.8%	4.2%	1.4%	100.0%



5) 전 문항에서 사용한 대처 방법의 효과

전 문항에서 사용했던 자살 충동 시 대처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는 질문에 ‘꽤 있다’라는 응답이 26.4%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약간 있다’(25.0%), ‘보통으로 있다’(23.6%) 순으로 나타났다. ‘꽤 있다’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신학부(37.5%), IT학부(33.3%), 예술학부(28.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31.3%가 ‘보통으로 있다’, 여학생 26.8%가 ‘꽤 있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효과에 관해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57> 전 문항에서 사용한 대처 방법의 효과

단위: 명, %

	사실 거의 없다	약간 있다	보통으로 있다	꽤 있다	항상 있다	전체
남	2	4	5	4	1	16
	12.5%	25.0%	31.3%	25.0%	6.3%	100.0%
여	13	14	12	15	2	56
	23.2%	25.0%	21.4%	26.8%	3.6%	100.0%
신학부	2	1	2	3	0	8
	25.0%	12.5%	25.0%	37.5%	0.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4	5	4	4	1	18
	22.2%	27.8%	22.2%	22.2%	5.6%	100.0%
IT학부	2	0	2	2	0	6
	33.3%	0.0%	33.3%	33.3%	0.0%	100.0%
간호복지 학부	2	4	2	2	1	11
	18.2%	36.4%	18.2%	18.2%	9.1%	100.0%
예술학부	3	1	0	2	1	7
	42.9%	14.3%	0.0%	28.6%	14.3%	100.0%
디자인학부	2	7	7	6	0	22
	9.1%	31.8%	31.8%	27.3%	0.0%	100.0%
전체	15	18	17	19	3	72
	20.8%	25.0%	23.6%	26.4%	4.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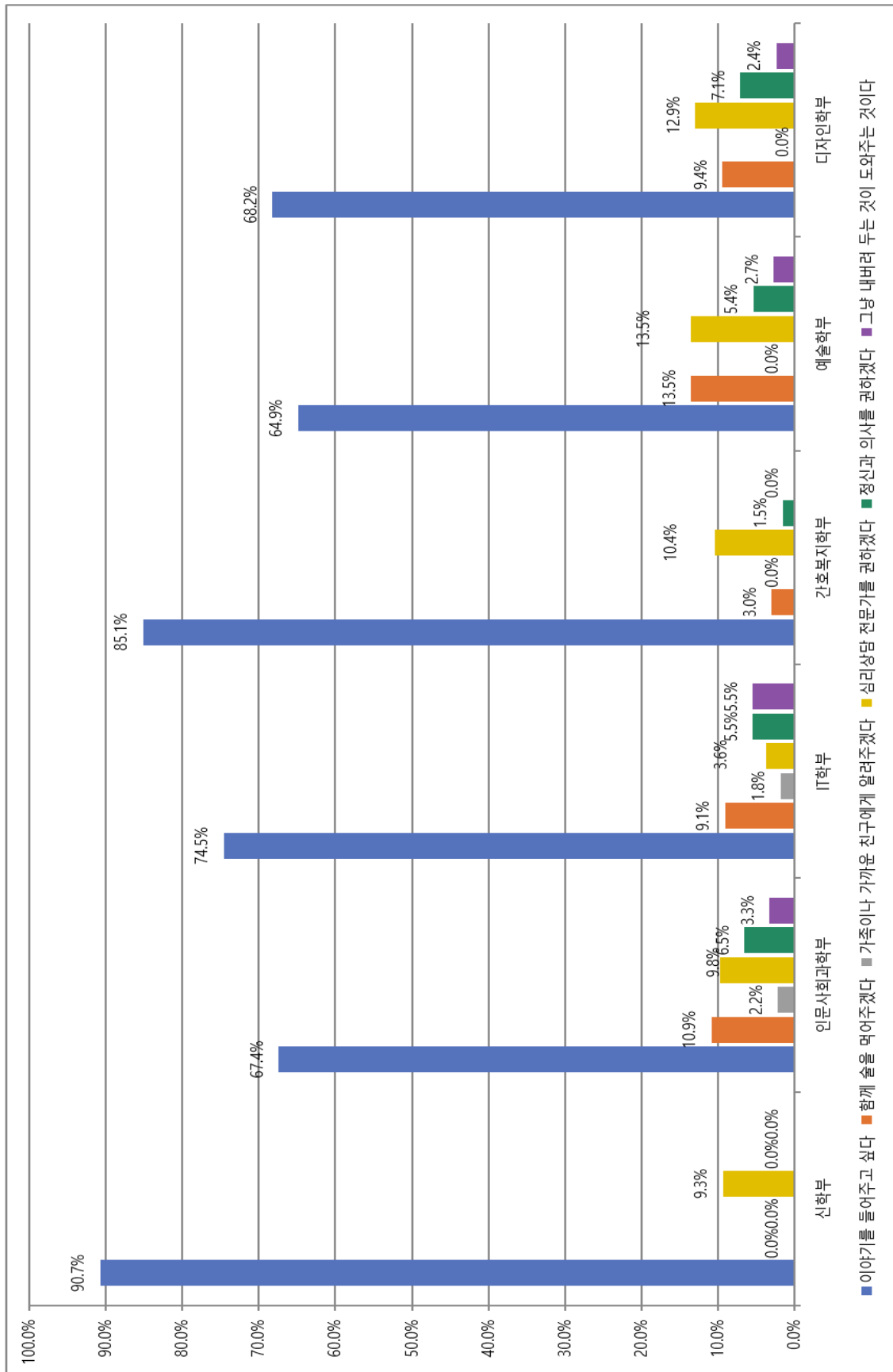


6)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가?

주위 사람이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지를 물어본 결과, 신입생들의 74.1%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심리상담 전문가를 권하겠다’(10.0%), ‘함께 술을 먹어주겠다’(7.9%) 순으로 나타났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라는 응답 비율을 학부별로 보면 신학부(90.7%), 간호복지학부(85.1%), IT학부(74.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라는 응답이 남학생(76.1%)이 여학생(73.0%)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58> 자살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싶은가? 단위: 명, %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함께 술을 먹어 주겠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알려 주겠다	심리상담 전문가를 권하겠다	정신과 의사를 권하겠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전체
남	102	15	2	6	4	5	134
	76.1%	11.2%	1.5%	4.5%	3.0%	3.7%	100.0%
여	178	15	1	32	14	4	244
	73.0%	6.1%	0.4%	13.1%	5.7%	1.6%	100.0%
기타	1	0	0	0	0	0	1
	100.0%	0.0%	0.0%	0.0%	0.0%	0.0%	100.0%
신학부	39	0	0	4	0	0	43
	90.7%	0.0%	0.0%	9.3%	0.0%	0.0%	100.0%
인문사회 과학부	62	10	2	9	6	3	92
	67.4%	10.9%	2.2%	9.8%	6.5%	3.3%	100.0%
IT학부	41	5	1	2	3	3	55
	74.5%	9.1%	1.8%	3.6%	5.5%	5.5%	100.0%
간호복지 학부	57	2	0	7	1	0	67
	85.1%	3.0%	0.0%	10.4%	1.5%	0.0%	100.0%
예술학부	24	5	0	5	2	1	37
	64.9%	13.5%	0.0%	13.5%	5.4%	2.7%	100.0%
디자인학부	58	8	0	11	6	2	85
	68.2%	9.4%	0.0%	12.9%	7.1%	2.4%	100.0%
전체	281	30	3	38	18	9	379
	74.1%	7.9%	0.8%	10.0%	4.7%	2.4%	100.0%



IV. 결론

본 연구는 2022학년도 한세대학교 신입생들의 개인 신상, 가정생활, 기타 생활, 대학 생활, 인터넷 사용, 연애 및 성, 상담센터 이용, 자살 관련 문항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신입생들의 일반 특성과 전반적인 대학 생활 만족도를 비롯한 대학 생활 적응도를 이해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교육 계획의 수립과 학생 생활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번 2022학년도 신입생들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약

신입생 실태조사는 COVID-19로 2차에 걸쳐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신입생 기준으로 총 477명 중 379명이 응답하여, 총 79.6%의 응답률을 보였다. 문항은 총 55문항이며, 그중 상담실 관련 문항에서는 1문항이 5개 소문항으로 나뉘었다.

1)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

신입생의 전체 응답자 379명 중 설문에 가장 많이 참여한 학부는 인문사회과학부(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참여율은 남학생 35.4%, 여학생 64.4%, 기타 0.3%의 참여율을 보였다. 학부별 남녀비율을 보면, 남학생은 IT학부(81.8%)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는 신학부(46.5%), 예술학부(35.1%)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부는 디자인학부(82.4%), 간호복지학부(80.6%), 인문사회과학부(68.5%) 순이다. 2022학년도 신입생들의 연령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금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기록하여 살펴보았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 18세(48.0%), 만 19세(23.2%)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늦은 나이 신입생은 53세로 확인되었다

개인 신상에 관하여는 모두 10문항으로 학부, 성별, 연령을 포함한 심리적 만족도와 경험 정도를 질문하였다. 심리적 만족도는 4문항으로 건강, 대인관계, 자신의 성격, 자신의 외모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만족'(23.0%), '불만'(21.9%) 순이었다. 남녀 모두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은 남학생(39.6%)이 여학생(27.9%)에 비해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신입생들의 대부분은 대인관계에 대해 '만족'(42.7%)한다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는 '매우 만족'(26.4%)으로 응답했으며, '보통'(22.7%)이 뒤를 이었다. 성별에 따른 만족도(매우만족, 만족)는 남학생이 62.7%, 여학생이 72.5%로 전년도 남학생(80.3%)과 여학생(81.4%)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 자신의 성격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보통'(31.1%), '매우 만족'(17.9%) 순으로 나타났다. 만족도가 보통 이상(매우 만족, 만족, 보통)은 83.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신입생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4.8%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불만'(28.0%), '만족'(23.2%) 순이다.

경험의 정도는 흡연, 음주, 연애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먼저 흡연 경험의 정도를 알아보면, 전체 응답자의 72.3%가 흡연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흡연을 하는 학생(자주, 가끔)은 13.7%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 70.1%, 여학생 73.4%가 흡연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작년 여학생의 흡연 경험이 없다 80.7%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들의 흡연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음주 경험 정도에 대해 전체의 92.9%가 음주의 경험(자주, 가끔, 경험이 있으나 지금은 안함)이 있으며, 전체의 68.4%가 지금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음주를 하는 비율(자주, 가끔)이 여학생 73.8%, 남학생 59.0%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여학생 74.6%, 남학생 67.8%로 남학생이 더 낮아져 음주의 경험이 적어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연애 경험 정도를 살펴보면, 연애의 경험은 있으나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7.7%로 나타났다. 이어서 하고 싶은 24.0%, 자주 13.7% 순으로 나타났다.

2) 가정생활과 관련된 사항

가정생활과 관련한 질문은 총 5문항으로 출신고교 지역,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 종교, 가정의 분위기, 가정에 대한 불만 등에 관해 질문하였다. 먼저 신입생들이 출신고교 지역은 경기, 인천지역이 6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다음으로 서울 19.3%, 부산, 대구, 경상도 3.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68.7%, 여학생이 68.4%가 경기, 인천지역 고교출신이라고 답변하였다. 또 신입생들의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는 2022년도가 57.0%로 가장 많았고, 2021년 23.0%, 2018년 이전 7.7% 순이었다. 신입생들의 종교 분포를 살펴보면, 무교라는 응답이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기독교 35.4%, 천주교 5.8% 순으로 나타났다. 신학부 95.3%, 예술학부 45.9%는 기독교로 나타났으나 다른 학부에서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신입생들 대부분 자신의 가정 분위기는 비교적 화목하다 48.3%, 매우 화목하다 44.9%로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입생들이 가정에 대한 불만 사항들을 조사한 결과 ‘불만 없음’이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부모와의 의견충돌’ 11.3%, ‘경제적 곤란 및 용돈 부족’ 6.9%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63.4%, 여학생 50.0%가 ‘가정에 대해 불만 없음’으로 응답했고 이어서 남학생 9.0%, 여학생 12.7% 모두 ‘부모와의 의견충돌’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기타 생활과 관련된 사항

기타 생활과 관하여는 2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재수 경험, 군 입대 예정 시기 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군 입대 예정 시기에 관해서는 군 입대 예정자에게만 응답을 요구하였다. 먼저 신입생들의 재수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재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수 경험을 한 학생의 비율은 17.9%로 전년도 21.4%보다 조금 낮아졌다. 신입생들의 군 입대에 관하여는 남학생 134명 중 104명이 응답했다. 또 2학년에 군대에 입대할 예정인 학생이 56.8%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의 65.1%보다 낮게 나타났다.

4) 대학 생활과 관련된 사항

대학 생활과 관련한 문항은 18문항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학진학 동기 및 학교 선택에 관련된 사항, 학부 선택에 관련된 사항을 비롯하여 대학 생활과 관련된 사항, 졸업 및 취업 관련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대학에 진학한 동기에 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57.5%가 장래직업준비라고 답하였다. 다른 의견으로는 적성과 소질개발(16.4%), 남들도 진학하니깐(12.1%)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선택에 관련된 사항으로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았는지와 만족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사전에 알고 지원했는지에 대해 전체의 82.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전년도 82.8%보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의 24.0%가 학원 선생님, 20.8%는 대학진학 정보지, 13.7%는 학교 선생님이라고 응답했다. 본교 입학에 만족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 72.3%가 본교에 입학한 것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79.5%보다 낮아진 모습을 보였다. 본교 입학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05명 중,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에 ‘잘 적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37.1%, ‘아직은 잘 모르겠다’ 31.4%,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 26.7%, ‘자퇴나 휴학하고 수능을 다시 준비하겠다’ 4.8%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에게 전공학부 선택 시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학문적 흥미가 있어서 22.2%, 합격할 가능성 21.6%, 적성이 맞아서 18.5% 순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 선택에 관련된 사항으로 지망 학부에 대한 사전지식, 선택 시기에 대해 질문하였다. 신입생들에게 지망 학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대충 안다고 응답한 학생이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현재 지망한 학부를 선택한 시기는 원서접수 기간 중이 38.0%, 고3 초~원서접수 전이 35.1%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았을 때 남학생, 여학생 모두 고3 초~원서접수 기간 중(고3 초~원서접수 전, 원서접수 기간 중)에 결정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78.4%, 70.5%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 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학교의 도움, 복수전공의 이수, 어학연수, 교수, 하고 싶은 것과 걱정거리 등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것과 졸업 및 취업 관련 사항으로 졸업 후 진로 계획, 직업 선택 시 고려하는 점, 취업에 대해 학교에 바라는 도움, 졸업 후 진로 결정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였고 신입생들이 2학년으로 진학할 때 전공 선택에 있어서 학교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도움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의 33.8%가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대화’, 28.0%는 ‘전문적인 상담’ 순으로 응답했다. 신입생들이 복수전공, 다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이수 여부에 관한 조사한 결과, 전체응답자 중 44.1%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으며 32.7%가 ‘이수할 용의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어학연수나 교환학생 신청 여부에 관한 질문에서는 ‘아니오’라고 응답한 학생이 60.9%, ‘예’라고 응답한 학생이 39.1%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교수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해박한 지식을 전달해 주었으면’(28.2%)을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학생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24.3%) ‘훌륭한 인생관을 가르쳐 주었으면’(18.7%), ‘자애롭고 품위 있는 태도로 대해 주었으면’(17.2%)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과 관련하여 가장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전공 공부’(37.2%)라고 응답해 2021년(41.5%)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취직준비와 취미 등 다양한 활동(14.8%)으로 나타났다.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76.8%가 ‘취직’에 대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대학원 진학’(8.4%), ‘사업’(6.1%)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선택 시 어떤 점을 제일 먼저 고려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은 ‘적성’(34.3%)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고, 다음으로는 ‘일의 내용’(18.7%), ‘보

수'(15.8%) 순이었다. 신입생들이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주기를 원하는지 조사한 결과, '직업 및 진로관련 정보제공'(44.1%)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취업관련교육'(28.0%), '진로관련 자기이해도움'(12.1%)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진로취업문제'(32.2%)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학업 문제'(25.9%), '가족 문제'(18.5%), '경제 문제'(8.7%) 순이다. 신입생들은 졸업 후 진로 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에 관한 질문에 '자신감이나 의욕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1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18.5%), '나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16.6%), '진로 및 직업정보가 부족해서'(13.5%)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자신감이나 의욕이 부족해서'의 응답이 22.4%로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나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와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18.0%로 나타났다.

5)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사항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사항은 3문항으로 스마트폰 이용 시간과 주된 용도, 인터넷 사용의 주된 용도에 대해 구성되었다. 신입생들의 핸드폰 이용 시간은 5시간 이상(36.9%) 사용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3~4시간(31.7%), 2~3시간(20.8%) 순으로 나타났다. 신입생들이 핸드폰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은 주로 멀티미디어(43.5%), 인터넷(28.8%), 연락(17.7%)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입생들에게 인터넷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주로 정보검색(45.1%)과 채팅 및 SNS(32.5%)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게임(11.9%), 기타(9.2%) 순으로 나타났다.

6) 이성 및 성(性)과 관련된 사항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신입생의 81.3%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는 '약간 불쾌한 경험이 있다'(16.4%), '여러 번 불쾌한 경험이 있다'(2.1%), '기간이나 정도가 고통스러운 정도였다'(0.3%) 순으로 나타났다. 전 문항에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 중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할 때 대응 방법을 조사한 결과, '참는다'(32.4%) '가해자에게 즉시 중지를 요청'(26.8%), '친구와 상의'(15.5%) 순으로 응답하였다. 성폭력의 대처 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구체적 대처 방법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54.9%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그다음으로 '관련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 시 도움받을 수 있다'(18.7%), '관련기관 및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11.9%), '잘 알고 있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11.6%), '전혀 모른다'(2.9%) 순으로 나왔다. 성교육시 가장 알고 싶은 것은 '피임지식'(30.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성예절'(19.3%), '성지식'(15.8%), '성폭력예방교육'(14.8%), '이성교제 방법'(11.3%) 순이다.

7) 상담센터와 관련된 사항

상담센터와 관련해서 7문항으로 그 중 최근 3개월간의 심리적 상태에 관련된 문항은 5개의 소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외로움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4.1%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전혀 없다'(35.6%), '자주 그렇다'(14.5%), '거의 항상 그렇다'(5.8%) 순이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불안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1.2%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전혀 없다'(31.7%), '자주 그렇다'(18.7%), '거의 항상 그렇다'(8.4%) 순이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분노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3.5%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가끔 그렇다'(42.7%), '자주 그렇다'(11.1%), '거의 항상 그렇다'(2.6%) 순이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우울과 무기력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41.2%가 '가끔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전혀 없다'(31.7%), '자주 그렇다'(18.7%), '거의 항상 그렇다'(8.4%) 순이다. 신입생들의 최근 3개월간 심리적 상태 중 자살 충동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들의 87.3%가 '전혀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가끔 그렇다'(8.7%), '자주 그렇다'(3.2%), '거의 항상 그렇다'(0.8%) 순이다.

신입생들에게 심리적으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심리상담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56.5%가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대학 내 심리상담가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신입생의 72.8%가 '예'라고 응답하였고, 반면에 '아니오'라는 응답에는 27.2%가 응답하였다.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에 대한 신입생의 응답 중 '건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돈'(22.4%), '화목한 가정'(21.9%), '신뢰할만한 친구'(10.8%)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 발생 시 의논할 상대는 '친구'라는 응답이 전체의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부모'(41.4%), '형제'(4.2%) 순이다. 신입생들이 상담센터를 이용 시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47.5%가 '진로 문제'라고 응답했으며 그다음으로 '학업 문제'(18.2%), '정서 문제'(10.0%) 순이었다. 신입생들에게 학생상담센터에서 개인상담을 받는 경우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관한 질문에, '진로상담'(32.2%), '개인 심리상담'(28.2%), '심리검사 및 해석'(27.4%), '심리학 관련 학습'(7.7%) 순이었다.

8) 자살과 관련된 사항

자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6문항으로 질문하였고 마지막 문항을 제외하고는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하였다. 먼저 신입생들에게 과거 또는 최근에 자살 생각을 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신입생들의 81.0%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있다고 답한 학생은 19.0%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을 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주로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자살 생각을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0.6%가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 '정신건강문제'(23.6%), '대인관계'(12.5%)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였느냐는 질문에 23.6%가 '구체적 방법을 생각했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다'(19.4%)와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위도식 하였다'(19.4%),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11.1%) 순으로 응답하였다. 신입생들에게 자살에 대한 충

동이나 생각이 들 때 주로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38.9%)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이어서 ‘잠을 잔다’(27.8%), ‘친구 등에게 이야기한다.’(12.5%) 순으로 나타났다. 전 문항에서 사용했던 자살 충동 시 대처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냐는 질문에 ‘꽤 있다’(26.4%), ‘약간 있다’(25.0%), ‘보통으로 있다’(23.6%), ‘사실 거의 없다’(20.8%)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위 사람이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고 싶으냐는 질문에, 신입생들의 74.4%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라고 응답하였다. 이어서 ‘심리상담 전문가를 권하겠다’(10.0%), ‘함께 술을 먹어주겠다’(7.9%), ‘정신과 의사를 권하겠다(4.7%)’,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2.4%) 순으로 나타났다.

2022학년도

신입생 설문 조사서

한 세 대 학 교
학 생 상 담 센 터

이 설문지는 한세대학교 신입생 여러분의 실상을 파악하여 학생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전체적인 통계를 내기 위한 것으로서 응답자 개인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따라서 한 문제도 빠뜨리지 말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문항을 잘 읽어본 후, 중복 체크 없이 해당되는 한 가지 번호에 ○표를 해주십시오.

◆ 개인 신상 관련

1. 학부 (꼭! 체크해주세요)

- ①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교육·상담)
- ② 인문사회과학부 (국제경영, 미디어영상광고, 경찰행정, 국제관광, 영어, 중국어)
- ③ IT학부 (전자소프트웨어, ICT융합, 산업보안)
- ④ 간호복지학부 (간호, 사회복지)
- ⑤ 예술학부 (음악, 공연예술)
- ⑥ 디자인학부 (시각정보디자인, 실내건축디자인, 섬유패션디자인)

2. 성별 : ① 남 ② 여 ③ 기타

3. 연령 : 2022년 3월 1일 기준 (* 02년 2월생 만 20세)
- 만 () 세

*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현재 심리적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 불만
4	건강상태	①	②	③	④	⑤
5	대인관계	①	②	③	④	⑤
6	자신의 성격	①	②	③	④	⑤
7	자신의 외모	①	②	③	④	⑤

* 다음 각 항목에 대한 귀하의 경험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자주	가끔	경험 있으나 지금 안함	경험 없음	하고 싶음
8	흡연	①	②	③	④	⑤
9	음주	①	②	③	④	⑤
10	연애	①	②	③	④	⑤

◆ 가정생활 관련

11. 출신 고교 소재지

- ① 서울 ② 경기·인천 ③ 강원도
- ④ 대전·충청도 ⑤ 부산·대구·경상도
- ⑥ 광주·전라도 ⑦ 제주도 ⑧ 국외
- ⑨ 기타

12. 고교졸업 및 검정고시 합격연도

- ① 2022년 ② 2021년 ③ 2020년
- ④ 2019년 ⑤ 2018년이전

13. 본인의 종교

-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 ④ 기타 ⑤ 없음

14. 가정의 분위기

- ① 매우 화목 ② 비교적 화목
- ③ 약간 불화 ④ 심한 불화

15. 가정에 대해 불편한 점 (한 가지 선택)

- ① 부모 사이의 불화 ② 형제간 불화
- ③ 경제적 곤란 및 용돈 부족 ④ 대화 부족
- ⑤ 가족들의 심한 간섭과 통제 ⑥ 편애·차별
- ⑦ 가족 중 환자가 있는 것 ⑧ 부모의 지나친 기대
- ⑨ 부모와의 의견충돌 ⑩ 불만 없음
- ⑪ 기타

◆ 기타 생활 관련

16. 재수경험

- ① 없음 ② 재수 ③ 삼수 ④ 사수 이상

17. 군 입대 예정 시기 (군 입대 예정인 사람의 경우)

- ① 입학 전 ② 1학년 ③ 2학년
- ④ 3학년 ⑤ 4학년 ⑥ 졸업 후

◆ 대학생활 관련

18. 대학 진학의 동기

- ① 학문과 진리 탐구 ② 인격도야
- ③ 장래의 직업 준비 ④ 적성과 소질 개발
- ⑤ 사회·경제적 높은 지위 획득 ⑥ 남들도 진학하니깐
- ⑦ 기타

19. 본교가 기독교 학교임을 알고 지원하였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0. 본교에 대해 알게 된 경로

- ① 학교 선생님 ② 학원 선생님
- ③ 교회 성직자 ④ 가족이나 친척
- ⑤ 친구 또는 선배 ⑥ 대중매체
- ⑦ 대학진학 정보지 ⑧ 본교 홍보물
- ⑨ 기타

21. 본교 입학에 만족합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22. 만족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21번에 "아니요"라고 답한 사람만 답하세요)

- ① 잘 적응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 ② 상담실을 이용하여 전문가와 논의 하겠다.
- ③ 편입을 생각하고 있다.
- ④ 자퇴나 휴학하고 수능을 다시 준비하겠다.
- ⑤ 아직은 잘 모르겠다.

23. 본교 및 자신의 학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 ① 합격할 가능성 ② 학과 명성
- ③ 적성이 맞아서 ④ 학문적 흥미가 있어서
- ⑤ 취직률과 취업전망 ⑥ 거리가 가까워서
- ⑦ 주변 사람(부모님 등)이 권해서
- ⑧ 어릴 때부터 원했다 ⑨ 뚜렷한 이유가 없다

24. 학부에 대한 사전지식 (교육과정 및 전망)

- ① 잘 안다 ② 대충 안다
-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25. 학부의 지원 결정시기

- ① 중학교 또는 그 이전 ② 고1 ~ 고2 말
- ③ 고3 초 ~ 원서접수 전 ④ 원서접수 기간 중

26. 2학년 진학 시 전공학과 선택에서 학교로부터 받기 원하는 도움은?

- ① 전공 선택 관련 안내책자 발행
- ② 전문적인 상담
- ③ 관련분야 전문가와의 대화
- ④ 교수님과의 대화
- ⑤ 기타

27. 복수전공(다전공,연계전공,부전공)의 이수 용의

- ① 이수할 용의가 있다 ② 잘 모르겠다
- ③ 이수할 용의가 없다

28. 재학 중에 해외 어학연수 또는 교환학생 신청 여부

- ① 예 ② 아니오

29. 교수에게서 가장 기대하는 것

- ① 해박한 지식을 전달해 주었으면
- ② 접촉의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 ③ 자애롭고 품위 있는 태도로 대해 주었으면
- ④ 연구하는 교수가 되어 주었으면
- ⑤ 훌륭한 인생관을 가르쳐 주었으면
- ⑥ 학생을 이해하고 개인적인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 ⑦ 신앙의 모범이 되어 주었으면

30. 대학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 ① 전공 공부
- ② 이성 및 대인관계
- ③ 자격증 취득
- ④ 취직 준비
- ⑤ 대학 내 (동아리, 총학 등)
- ⑥ 영어 공부
- ⑦ 취미 등 다양한 활동
- ⑧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경제 활동
- ⑨ 인격 성장을 위한 활동이나 공부
- ⑩ 기타

31. 대학 졸업 후 진로 계획

- ① 취직 ② 대학원 진학 ③ 결혼
- ④ 사업 ⑤ 유학 ⑥ 기타

32. 직업 선택 시 제일 먼저 고려할 점은?

- ① 일의 내용 ② 안정성 ③ 적성
- ④ 후생복지 ⑤ 보수 ⑥ 지위
- ⑦ 근무시간 ⑧ 발전 가능성 ⑨ 직장의 규모
- ⑩ 근무지역 ⑪ 사회적 인지도

33. 취업에 대하여 학교에 가장 원하는 것은?

- ① 직업 및 진로 관련 정보제공
- ② 진로 관련 자기 이해에 도움 (적성, 흥미 등)
- ③ 취업관련 교육 (영어, 컴퓨터 강좌, 면접 교육 등)
- ④ 진로 지도 및 상담 활성화
- ⑤ 시설확충 (도서관, 영어.컴퓨터 실습시설 등)

34. 대학생생활을 하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 ① 성격 문제 ② 가족 문제 ③ 대인관계 문제
- ④ 이성관계 문제 ⑤ 경제 문제 ⑥ 학업 문제
- ⑦ 진로(취업) 문제 ⑧ 건강 문제 ⑨ 병역 문제
- ⑩ 성 문제 ⑪ 기타

35. 졸업 후 진로결정과 관련해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 ① 나의 흥미와 적성을 몰라서
- ② 자신감이나 의욕이 부족해서
- ③ 외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 ④ 전공이 취업에 적절치 않아서
- ⑤ 학교 명성이 없어서
- ⑥ 진로 및 직업정보가 부족해서
- ⑦ 어떤 직업이 유망할지 몰라서
- ⑧ 중요한 타인(부모나 형제 등)과의 갈등
- ⑨ 우유부단한 성격
- ⑩ 경제적 어려움

◆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

36. 하루 평균 핸드폰 이용 시간은?

- ① 거의 사용 안함(30분 이내) ② 30분 ~ 1시간
- ③ 1 ~ 2시간 ④ 2 ~ 3시간
- ⑤ 3 ~ 4시간 ⑥ 5시간 이상

37. 핸드폰 사용의 주된 용도는?

- ① 수업에 관한 정보검색 ② 인터넷
- ③ 오락 ④ 연락
- ⑤ TV·오디오·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⑥ 기타

38. 인터넷 사용의 주된 용도

- ① 정보검색 ② 이메일 ③ 채팅
- ④ 게임 ⑤ 동호회활동 ⑥ 파일받기
- ⑦ 전자상거래 ⑧ 기타

◆ 연애 및 성 관련

39. 이전에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41번 문항으로)
- ② 약간 불편한 경험이 있다
- ③ 여러 번 불편한 경험이 있다
- ④ 기간이나 정도가 고통스러울 정도였다
- ⑤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심한 고통이었다

40. 39번 문항에 대한 당신의 대응 방법은?

(문항 39의 ①번 선택자는 제외)

- ① 참는다 ② 가해자에게 즉시 중지를 요청
- ③ 친구와 상의 ④ 학내기관, 관련기관에 도움 요청
- ⑤ 법적 대응 ⑥ 여성단체와 상담
- ⑦ 기타

41. 성폭력의 대처방법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① 전혀 모른다
- ②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잘 모른다
- ③ 관련 기관을 알고 있어 필요 시 도움받을 수 있다
- ④ 관련 기관 및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
- ⑤ 잘 알고 있어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42. 성교육을 받는다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 ① 성지식 ② 피임지식
- ③ 이성교제 방법 ④ 성폭력 예방교육
- ⑤ 성 예절 ⑥ 기타

◆ 상담실 관련

43. 최근 3개월간 다음의 심리적 상태를 어느 정도 경험하였는지 표시하십시오.

		전혀 없다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외로움	①	②	③	④
2)	불안	①	②	③	④
3)	분노	①	②	③	④
4)	우울·무기력	①	②	③	④
5)	자살충동	①	②	③	④

44. 심리적으로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심리상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

- ① 있다. ② 없다

45. 대학 내에 심리적 고민 해결과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가가 있다면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가?

- ① 있다. ② 없다

46.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 ① 화목한 가정 ② 건강
- ③ 깊은 신앙심 ④ 신뢰할 만한 친구
- ⑤ 진실한 사랑 ⑥ 돈
- ⑦ 명예 ⑧ 권력
- ⑨ 학벌 ⑩ 사회적 지위 ⑪ 기타

47. 문제 발생 시 의논 상대

- ① 부모 ② 형제 ③ 담임교사
- ④ 선배 ⑤ 친구 ⑥ 성직자
- ⑦ 상담교사 ⑧ 상담 전문가 ⑨ 가까운 친척
- ⑩ 인터넷

48. 만약 상담실을 방문하여 개인 상담을 받게 된다면, 상담을 희망하는 내용은?

- ① 학업문제 ② 진로문제 ③ 신앙문제
- ④ 정서문제 ⑤ 대인관계 문제 ⑥ 가족문제
- ⑦ 이성문제 ⑧ 인생관 및 가치관 확립문제
- ⑨ 성격문제 ⑩ 행동 및 습관의 문제

49. 상담실을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 ① 개인 심리상담 ② 진로상담
- ③ 집단상담 ④ 심리검사 및 해석
- ⑤ 심리학 관련 학습 ⑥ 기타

◆ 자살 관련 문항

50. 과거 또는 최근 자살에 관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 ① 있다 (51번으로) ② 없다 (55번으로)

51. 주로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자살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 ① 성격 문제 ② 가정 문제
- ③ 대인관계 문제 ④ 이성 관계 문제
- ⑤ 경제 문제 ⑥ 학업 문제
- ⑦ 진로(취업) 문제 ⑧ 정신건강 문제
- ⑨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 ⑩ 기타

52. 자살 생각이나 충동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진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실제로 시도한 적이 있다
- ② 구체적 방법을 생각하였다
- ③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았다
- ④ 며칠씩 식사를 안 하거나 잠을 못 잤다
- ⑤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
- ⑥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위도식하였다
- ⑦ 기타

53. 자살에 대한 충동이나 생각이 들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 ① 잠을 잔다
- ② 술을 마시며 잊어버린다
- ③ 친구 등에게 이야기한다
- ④ 인터넷을 돌아다닌다
- ⑤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 ⑥ 구체적으로 자살 방법을 생각한다
- ⑦ 안정제 등 약물을 복용한다
- ⑧ 자살과 관련한 자료나 책을 살펴본다

54. 위에서 사용하셨던 방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 ① 사실 거의 없다
- ② 약간 있다
- ③ 보통으로 있다
- ④ 꽤 있다
- ⑤ 항상 있다

55. 주위 사람이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고 싶습니까?

- ①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 ② 함께 술을 먹어 주겠다
- ③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에게 알려주겠다
- ④ 심리상담 전문가를 권하겠다
- ⑤ 정신과 의사를 권하겠다
- ⑥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다

신입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1학년도 학생상담센터 활동 보고

학생지원처의 상담센터는 본교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심리적 어려움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먼저 자기이해와 진로, 가정 및 대인관계 등을 돕기 위한 각종 심리검사 및 개인상담, 집단상담 서비스를 통해 학생들의 문제해결을 돕고 있으며, 전문 상담 인력을 위한 인턴십 과정과 실습, 교육,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 상담소를 겸하고 있어 교직원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전교생 반성폭력 캠페인, 성폭력 신고 접수 및 사건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도 지역 연계 활동으로 군포·의왕 교육청 지원 청소년 상담, 지역아동센터의 찾아가는 상담 및 지역 주민을 위한 상담, 그리고 교정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개인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고 있다.

1. 상담 및 심리검사

1) 재학생 상담

(1) 개인상담

대학 생활 중 겪게 되는 자신의 정체성, 대인관계 갈등, 정서 및 성격상의 문제, 신앙 및 가정의 위기, 진로 선택, 학업 및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를 비롯한 심리적 문제를 상담받을 수 있다.

(2) 집단상담 및 심리(영화)치료 프로그램 진행

전문상담가가 진행하는 집단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진행자와 집단원들의 역동적인 상호교류를 통하여 개인의 성격, 대인관계, 집단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나 주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해결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과 의사소통능력, 자신감 등을 증진하게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3)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도구를 통하여 개인의 성격, 적성 및 인성 등 심리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본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에는 성격검사(MBTI, TCI, 애니어그램, 표준성격진단검사, 방어기제검사)와 적성검사(홀랜드 적성탐색검사, 적성진단검사)가 있고, 기타 검사들로는 MMPI-2와 K-WAIS 대학생 간이정신진단검사 등이 있다.

(4) 성희롱 고충 상담 및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학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접수받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하며, 정기적으로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 복지위원회와 함께 성희롱 예방 주간에 성희롱 추방 캠페인을 도와주고 있다.

2) 지역 연계 상담

(1) 군포·의왕 교육청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상담

「 초·중등교육법 」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31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17조,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 및 2017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계획에 의거하여 군포·의왕 지역의 초·중·고 학생 교육 및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기타 기관으로 찾아가는 상담

기타 기관(서울분류심사원, 고봉중·고등학교, 수원보호관찰소 등)과의 협약을 통해 상황에 따라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3) 지역 주민을 위한 상담

군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심리검사와 개인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2. 상담실 이용 안내

- 이용 시간 : 월~금 (09:00 ~ 21:00)
- 이용 절차 : 심리검사는 검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한 주 후에 해석 상담을 진행한다. 개인상담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면접 후 상담이 진행되며, 학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예약 접수 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집단상담은 매 학기 집단상담이 개설되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참여할 수 있다.
- 문의 : 전화/ 031) 450-5173, 5056
e-mail / kimhs@hansei.ac.kr

3. 주요 업무 실적

1) 재학생 월별 방문자 수 (2020년 3월 ~ 2021년 2월)

(단위: 명)

년도	월	심리검사 인원 (검사 횟수)	개인상담인원 (회기 수)
2021년	3월	24	83
	4월	79	145
	5월	377	312
	6월	26	206
	7월	4	88
	8월	5	72
	9월	11	101
	10월	152	136
	11월	41	281
	12월	26	240
2022년	1월	5	133
	2월	4	110
합 계		754	1,907

2) 교육청 심리검사 및 상담(2021년 3월 ~ 2022년 2월)

년도	월	심리검사			상담진행건수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	초등생	중등생	고등생
2020년	3월						
	4월		1	2		1	2
	5월						
	6월						
	7월						
	8월		3			3	
	9월		4			4	
	10월						1
	11월						
	12월					1	
2021년	1월						
	2월						
합 계			8	2		9	3

3) 상담 및 심리검사 (2021년 3월 ~ 2022년 2월)

(1) 학부별 심리검사 방문자

(단위 : 명)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재 학 생	IT학부	9	25	65	6	2	2	0	2	2	0	0	0
	간호복지 학부	6	8	111	2	0	0	1	2	2	1	0	0
	인문사회 과학부	1	25	12	2	0	0	2	107	20	19	3	2
	디자인학부	0	6	77	7	0	1	5	9	5	2	2	1
	신학부	8	6	37	6	2	2	2	6	3	1	0	1
	예술학부	0	9	75	3	0	0	1	26	9	3	0	0
	합 계	24	79	377	26	4	5	11	152	41	26	5	4

(2) 심리검사 종류별 실시 및 해석 (2021년 3월 ~ 2022년 2월)

구분	MBTI	TCI	HLCT	홀랜 드	에니 어그 램	이화 방어 기제	표준화 성격 검사	표준화 적성 검사	MMP I-2	SCT	HTP/ KFD	간이 정신 진단
합계	253	98	0	9	6	6	31	0	64	0	11	392

(3) 개인상담 및 회기 (2021년 3월 ~ 2022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재 학 생	IT학부	9	25	65	6	2	2	0	2	2	0	0	0
	간호 복지학부	6	8	111	2	0	0	1	2	2	1	0	0
	인문사회 과학부	1	25	12	2	0	0	2	107	20	19	3	2
	디자인학부	0	6	77	7	0	1	5	9	5	2	2	1
	신학부	8	6	37	6	2	2	2	6	3	1	0	1
	예술학부	0	9	75	3	0	0	1	26	9	3	0	0
	합 계	24	79	377	26	4	5	11	152	41	26	5	4

4) 집단상담

프로그램명	지도	총 인원 (수료 인원)	총시간	만족도
2021-1년도 힐링-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	임명남	11	8	4.3
2021-1학기 영화심리치유 “영화를 통한 자아탐색여행 ”	임선정	27	6	4.1
나의 본캐를 찾아서!! (MBTI를 통한 자기이해)	서진희	12	8	4.9
제5기 한세우리친친 도래상담자 양성교육	박유선	14	12	4.7
한세우리친친 도래상담자 활동	1학기: 박유선 2학기: 전경숙	11	14	4.0
연애학 개론	이경아	9/ 5	10	4.0
2021-2학기 영화치유프로그램 영화를 통한 치유와 자아성장	서진희	13/ 11	10	4.7
매체를 활용한 미술집단상담	이민서	6/ 6	10	4.0
2021-2년도 힐링스타트 스트레스 감소프로그램	조난영	12	10	4.7
합 계		115명(109명)	88시간	4.4 (평균)

5) 특강

프로그램명	강사	참여 인원 (교육 인원/대상 인원)	일시 및 시간	비 고
2021-1학기 전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교육	2,028/ 2,208	2021. 04. 27	
2021-1학기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정문경	416/ 544	21. 06. 18 ~ 06. 28	
신입생 대상 간이정신진단검사		392	2021. 5월/ 11월	
자살예방교육	박유선	2,063/ 2,210	2021 .04. 06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교육	동영상 교육	1,610/ 1,706	2021. 10. 12	
2021-2학기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김범일	394/ 535	21. 12. 01 ~ 12. 15	
2021-2학기 전교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교육	1,610/ 1,706	2021. 10. 12	
합계		8,513/9,301		

6) 연구

본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개인 신상, 가정생활, 기타 생활, 대학 생활, 스마트 및 인터넷 사용, 이성 및 성(性), 상담실 이용, 자살과 관련된 사항 등을 설문 조사한 후 연구 분석하였다. 또한 이전 5년간의 신입생 실태조사서를 비교 분석하였다.

7) 교육

본 학생상담센터는 인턴 수련생을 위한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였다. 인턴교육은 심리검사, 상담기법, 상담사례 집단 Supervision이 진행되었다.

8) 출판물

신입생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자료를 연구 분석하여 매년 「신입생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행하며, 2022년에 제25권을 발간한다. 또한 최근 3년간의 「신입생실태조사 보고서」를 비교 분석하여 본교 신입생의 특징을 파악한 「신입생실태조사 비교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본 센터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을 정리하여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집」을 발간하였다.

2022학년도 학생상담센터 운영 현황

(2022.03 ~ 2023.2)

구분	주요 활동 내용
3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2022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실시, 신입생 전체 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 학사경고자 상담 실시 (2021-2학기) 전교생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 1차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월 2회로 확대)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군포, 의왕 교육청 위센터)
4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심리(영화)치료 프로그램 진행 전교직원 대상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 1차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찾아가는 진로심리검사 실시
5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일대일 진로상담 실시 집단상담 (미술심리치료/ 힐링스타트) - 학부 대상, 5주 과정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심리(영화)치료 프로그램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6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전국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협의회 하계 연차대회 참가(센터장)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저녁)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7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월례회 및 하계 집중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8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학사경고자 전화상담 실시 대학 성희롱 고충 상담원 직무 연수 참석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구분	주요 활동 내용
9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집중 심리검사주간 실시 전교생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10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월례회 및 레지던트·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찾아가는 진로심리검사 실시
11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일대일 진로상담 실시 2023학년도 예산 계획 수립 월례회 및 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12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일대일 진로상담 실시 연간 개인심리 검사, 상담 및 업무 종합 월례회 및 인턴 과정 슈퍼비전 진행 전교직원 대상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 2차 2023년 인턴 및 레지던트 상담사 모집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1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연간 활동 계획 수립 월례회 및 동계 집중 슈퍼비전 진행 2022년 인턴 수료식 2023년 인턴 및 레지던트 상담사 모집 및 선발
2월	개인 심리검사, 상담 인턴 상담사 양성 과정 O/T(심리검사 워크숍) 신입생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신입생 OT

학생생활연구 발간 규정

『학생생활연구』는 한세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의 기관지로서 연 1회 이상 간행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생활 분야, 상담학 분야의 연구논문과 관련 자료 및 실증논문을 게재합니다.

본 학회지는 신입생 실태조사보고서로 1998년에 창간되었으며, 2018년 제21권부터 학생생활연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연구자 여러분의 소중한 연구결과를 『학생생활연구』에 게재할 우수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게재논문 선정논문

논문 공모 주제에 부합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투고논문 심사기준에 의거 해당 전공 분야 심사위원 3인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논문

논문 투고자는 편당 90,000원(심사위원 3인 논문심사료)의 논문심사료를 내야 합니다. 논문의 분량은 기본 15쪽 이내이며 투고비는 150,000원을 기본으로 하며, 기본 게재연구 초과 시 초과 면수 1면당 10,000씩 추가 게재료를 내야 합니다.

□ 원고체제

- ① 국문제목
- ② 투고자 성명 및 소속(한글)
- ③ 국문초록
- ④ 본문 (예,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론 및 논의)
- ⑤ 참고문헌
- ⑥ Abstract

※ 단, 질적연구에서는 ④ 본문 (예,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결론 및 논의)로 형식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 게재신청서 작성

게재신청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해주시되,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논문 신청, 수정, 게재 등의 실무를 담당하며 편집국과 연락을 취할 자
- 교신저자: 논문이 게재된 후 논문내용에 관한 문의 및 교신을 담당할 자
- 연구자: 논문 작성에 참여한 자. (작성 순서는 반드시 논문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기록)

□ 논문 제출처

본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분은 학회지 원고작성 세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 한세대학생생활연구 편집국에 문의하셔서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T.031-450-5173).

학생생활연구 투고 규정

1. 학생생활연구에 게재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경험적 및 이론적 연구논문, 자료(연구용 및 상담학사 관계) 및 논설이며, 주제가 '학생생활연구'가 지향하는 연구와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2. 게재희망자는 한세대학교 학생생활연구 편집국을 통하여 제출하며, 학생생활연구의 절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논문투고, 심사로 및 게재료 입금, 편집위원회와의 의사소통, 출판 후 독자들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책임은 교신저자에게 있다. 다른 저자나 대학원생의 이름으로 교신이 진행될 경우의 혼란으로 인하여 저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책임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원고는 A4 용지 규격으로 한 페이지 당 한글로 약 1,800자, 영문으로 약 3,700자(약 550단어)가 들어감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5. 제출된 원고는 무기명으로 편집위원의 요건 사전심사와 심사위원 3명의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된 논문의 게재 여부의 최종결정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본 학회지에 게재된 원고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짧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게재하기로 결정된 원고의 체제와 길이는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작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6. 모든 연구논문은 150단어(600자) 안팎의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포함해야 한다.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반드시 그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7. 경험적 연구논문에서 본문의 형식은 서론,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순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본문의 글자는 신명조체(크기 10)로 한다.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쓰인 초록(신명조체, 크기 9)은 서론의 앞에, 다른 언어로 쓰인 초록은 참고문헌 뒤에 첨가한다.
8. 자료는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간결하게 제시하며, 원문에서는 자료수집의 목적 및 자료를 이용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적는다.
9. 영문 초록은 페이지를 분리하여 제시한다.
10. 원고는 학생생활연구 원고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출판지침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행한 APA Publication Manual 최근판을 참조할 것이며, 이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되지 않을 것이다.
11.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은 10부에 한하여 저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초과분의 별쇄본은 저자의 사전 요청과 부담에 따라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

학생생활연구

제 25권 <비매품>

발 행 인	정 문 경
편 집 인	오 영 금
발 행 처	한세대학교 상담센터
발 행 일	2022년 12월 27일
우 15852	경기도 군포시 한세로 30 한세대학교 상담센터

ISSN : 2635 - 5604
